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25-14

금천지

군지를 발간하는 연유는 내 고장의 문물과 풍토를 알고자 함에 있다. 이 속에는 우리 조상의 '열'이 섞여 있는 것이니 이것을 아는 것은 나의 씨족과 국가를 아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며, 실로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이를 후세에 전하여 자손으로 하여금 내 고장 내 민족의 진화進化 경로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금천지

衿川誌

일러두기

1. 1950년에 간행된 책자이므로 현재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적용하였다.
2. 해방 직후이기 때문에 한자 사용이 빈출^{頻出}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가급적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였다.
3. 일반 단어의 오자는 전후 맥락에 따라 바로잡았으며, 고유명사의 오자는 각주로 처리하여 바로잡았다.
4. 원문에 인용한 자료 중에 내용상 오류나 오자는 원전을 확인하여 바로잡았다.
5. 통계표의 계산 오류는 확인이 어려워 원문 그대로 전재하였다.
6. 한시^{漢詩}와 사료^{史料}는 필요한 경우 번역문을 각주에 첨부하였다.
7. 사료 및 번역문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넷(<http://contents.nahf.or.kr>,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참고하였다.



衿川誌

금천지

시흥군 始興郡

衿川誌

始興郡

始興郡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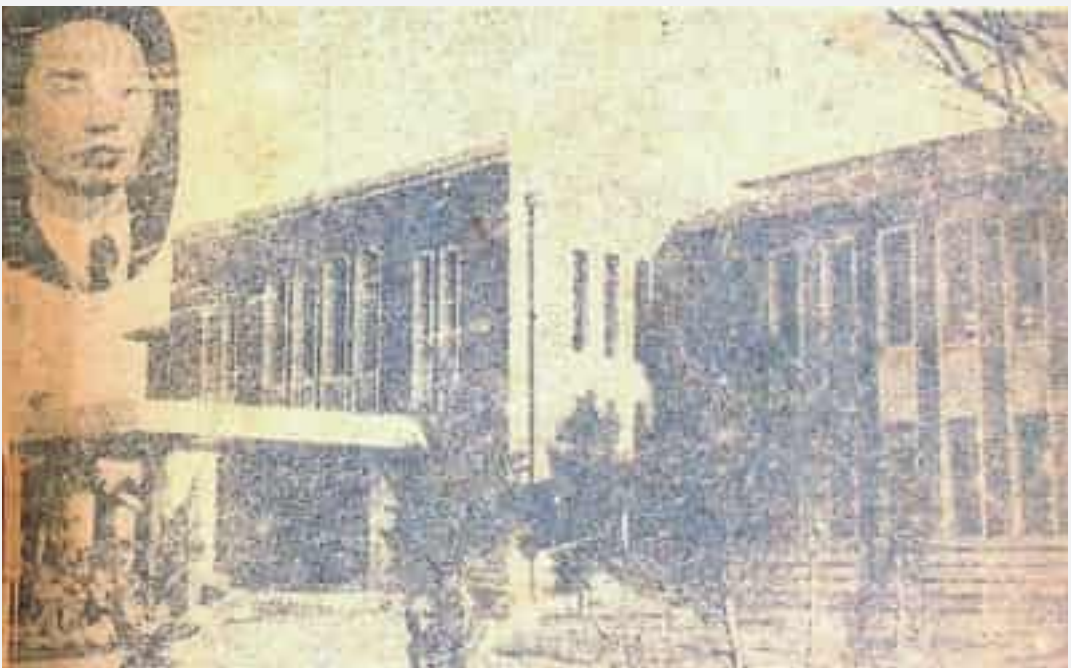
산중호山中湖 그대로의 농무農務(연주대에서의 청계산 망경대 조망)



낙성대 앞에서 우로부터 박문교부차관,
구 경기도지사, 정인보鄭寅普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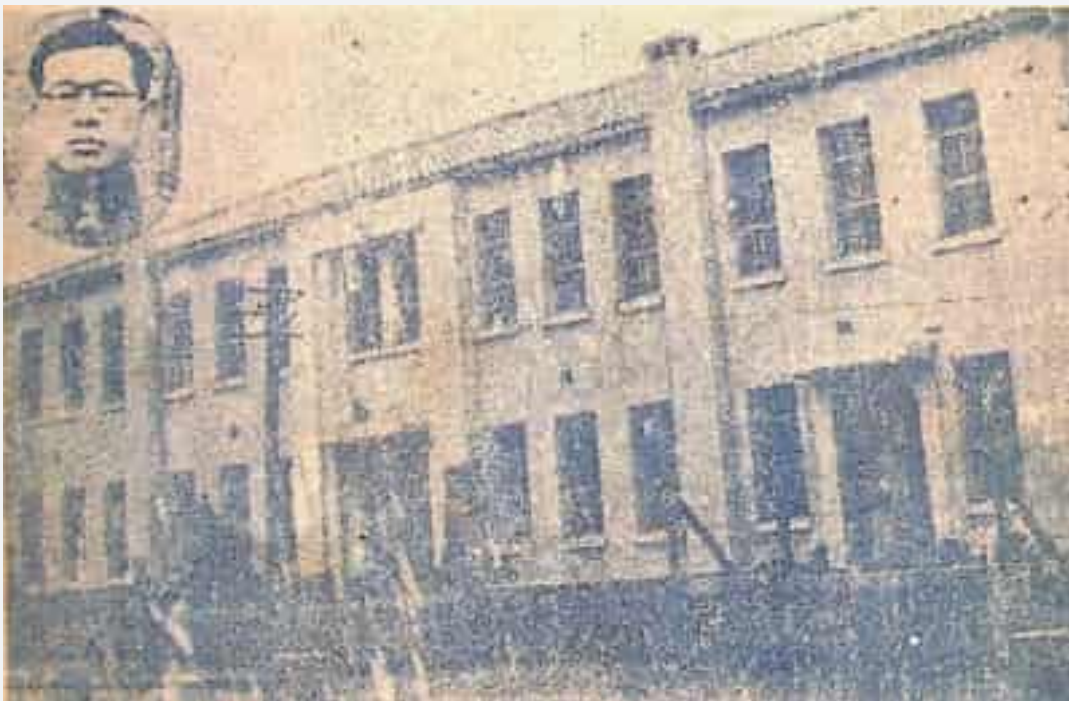
전경全景



시흥군청(원내 군수 김건열金健烈 씨)



안양읍



안양경찰서(원내 서장 장한정張漢鼎 씨)



안양읍사무소(원내 읍장 조한구 趙漢九 氏)



안양시장



단군천진봉안식전 檀君天眞奉安式典(단기 4281년 8월 29일)



낙성대 개수 改修 준공식 기념(단기 4282년 3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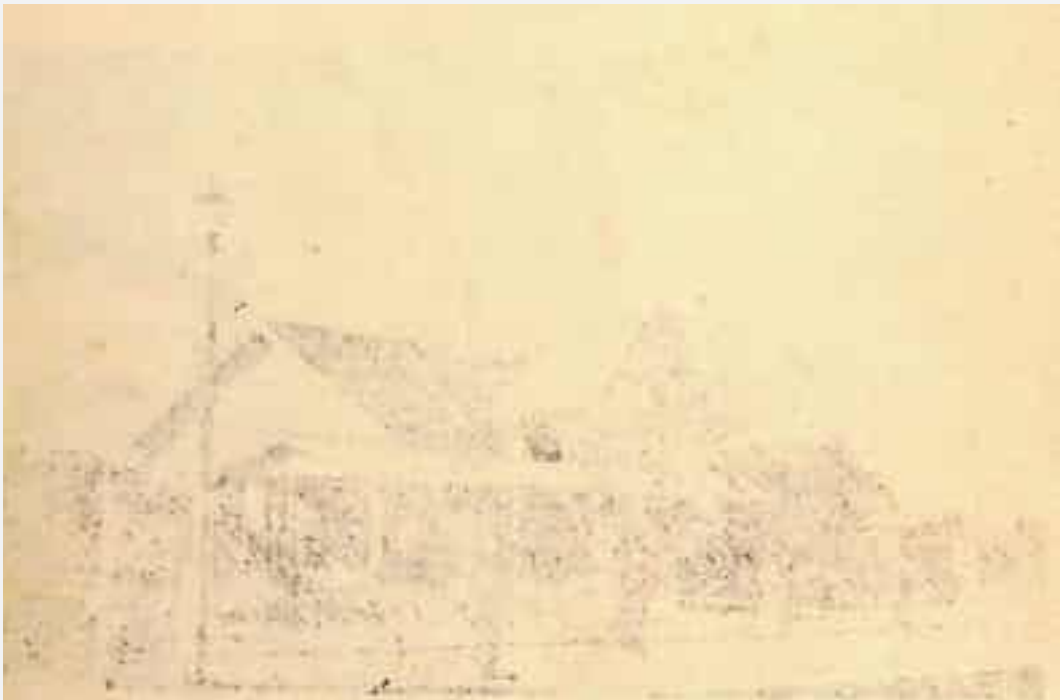
호암산 虎岩山 기암 奇岩



과천문묘 果川文廟



국도(안양을 바라봄)



안양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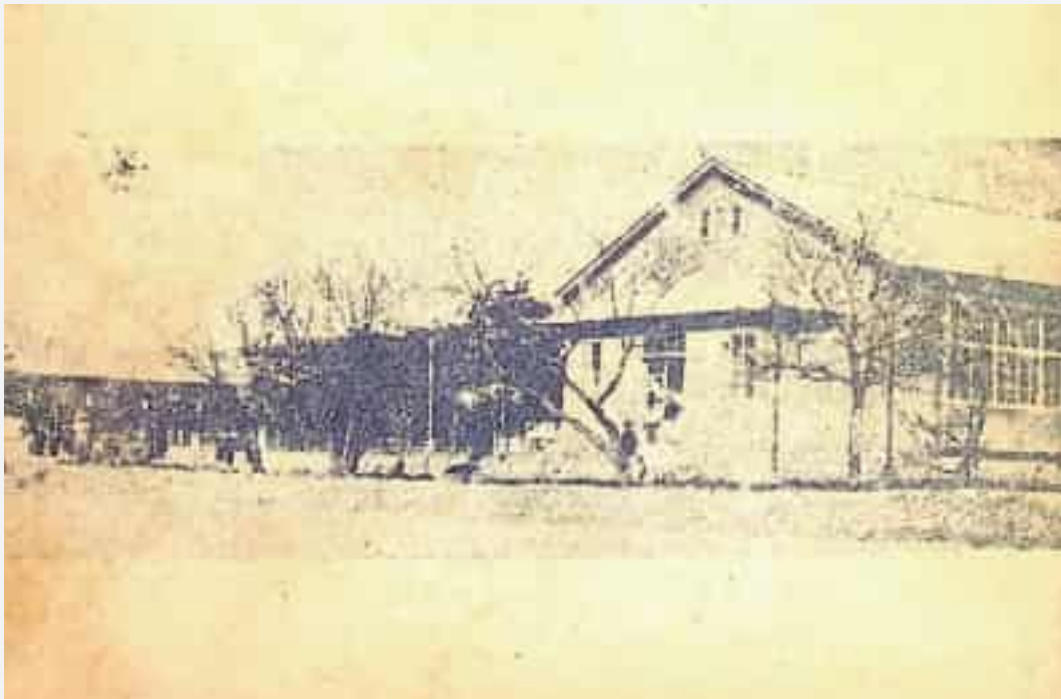
장병 검사 광경



가족연구소



양로 養老·효자 孝子·절부 節婦 표창식 表彰式



(장소 불명)



과천공립국민학교



안양공립공업중학교



국립군자염전



염불암念佛巖 배후背後의 절경絶景



연주암^{戀主庵} 구사지^{舊寺址}에서 바라본 연주대^{戀主臺}



만물유전 무상무아^{萬物流轉無常無我} 성주암^{聖主庵}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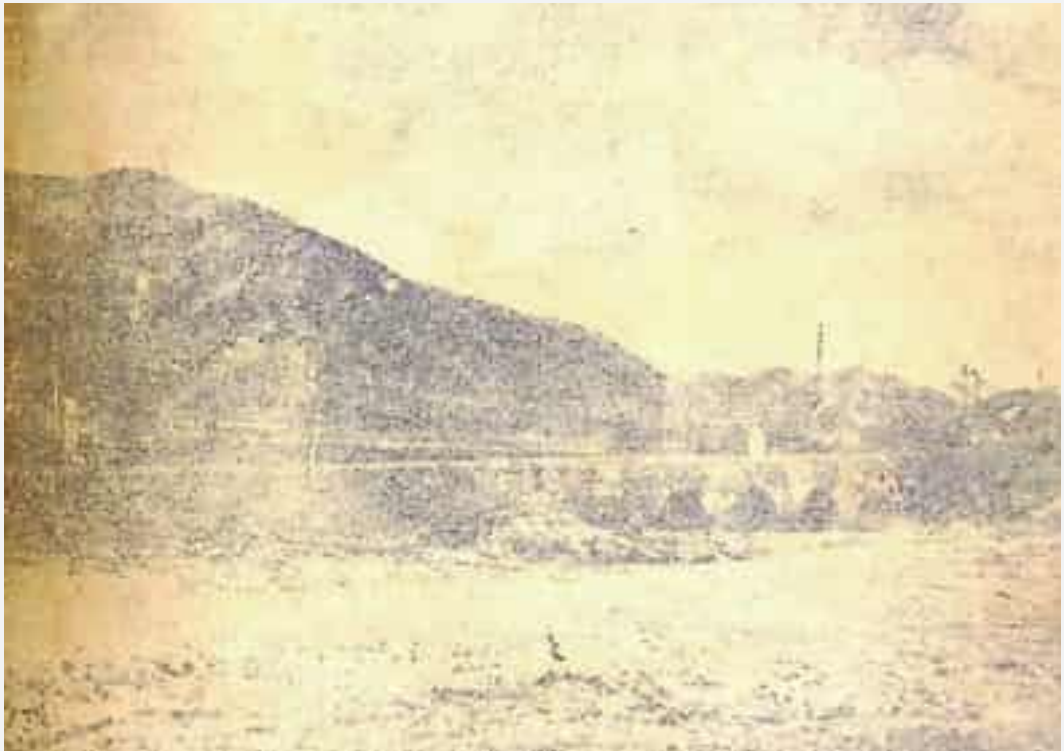
관악冠嶽 만물상萬物相의 장관



부림현富林軒(운은사穩穩舍)



국립종축장 國立種畜場의 유우乳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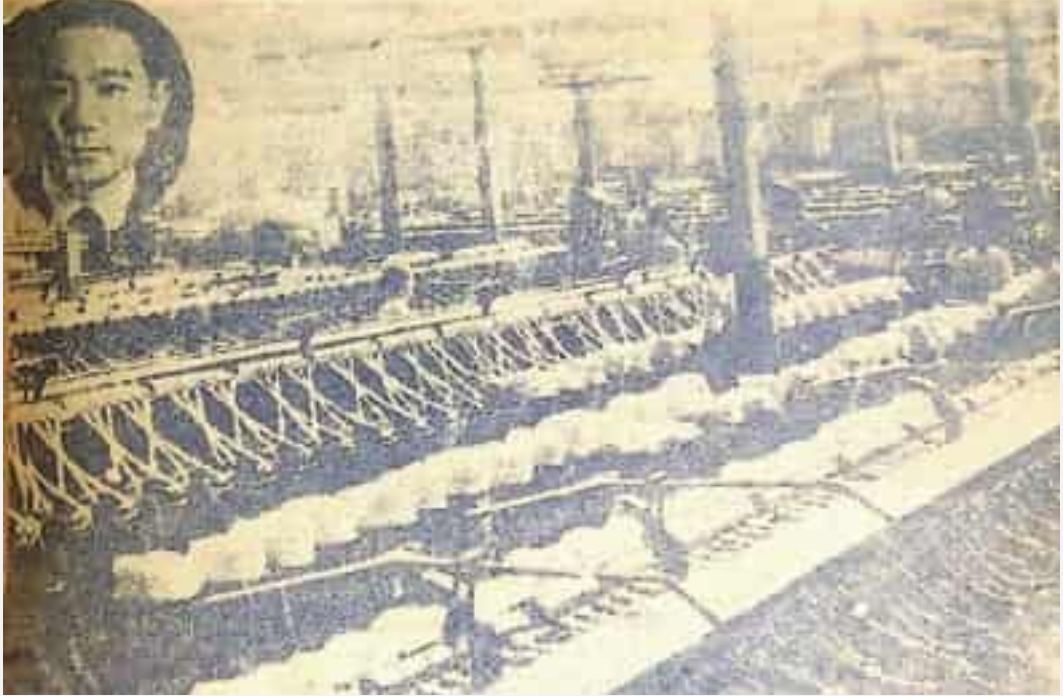
만안교 萬安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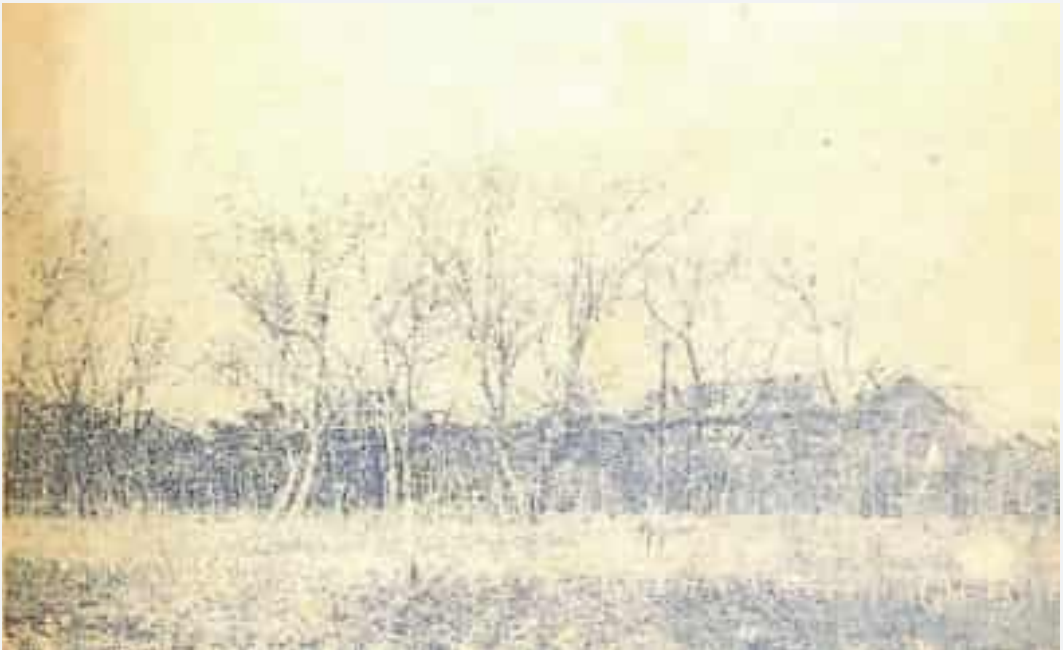
비둘기장 그대로의 연주대^{戀主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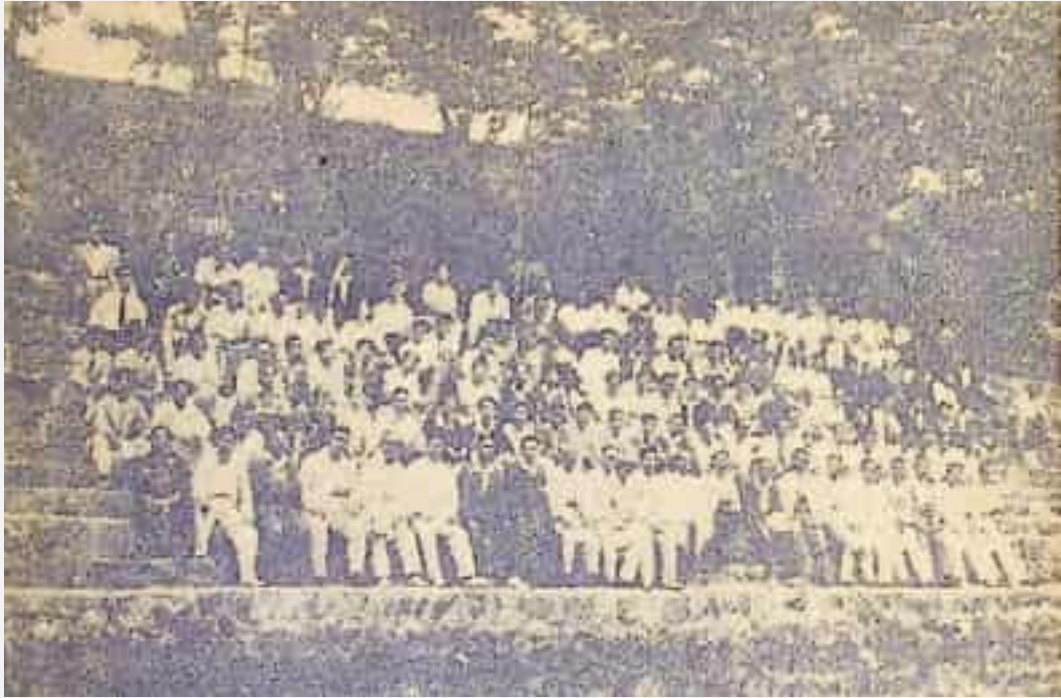
자하동^{紫霞洞} 옥류^{玉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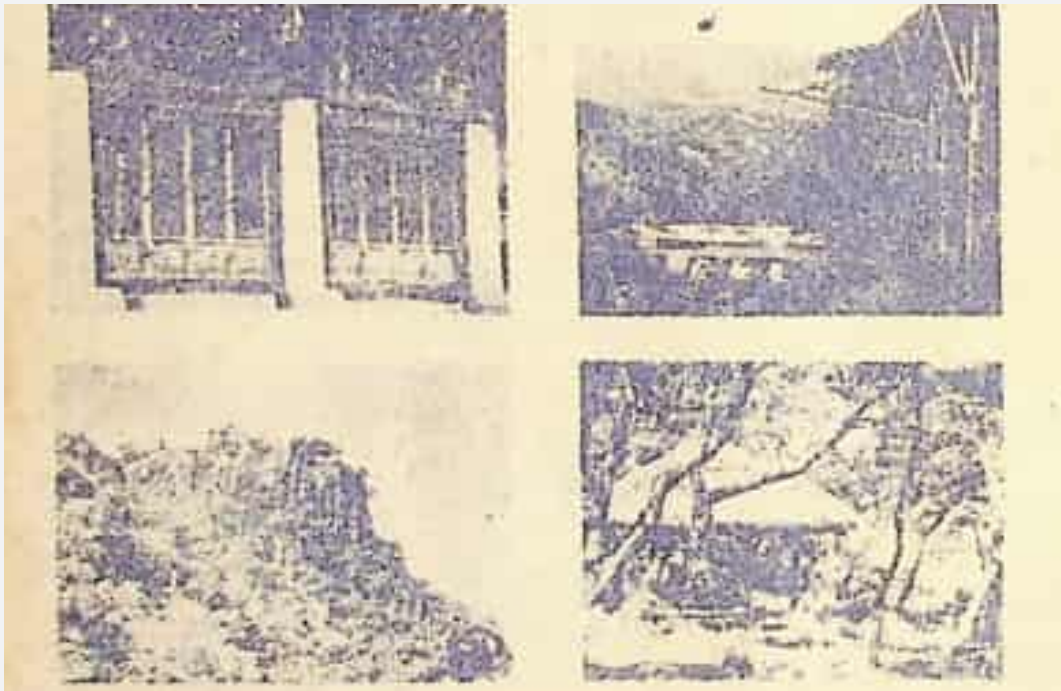
금성방직金星紡績 공장工場 내부内部(원내 김공장장)



임업시험장林業試驗場



안양安養 풀 개설식開設式



(장소 불명)



망중유한(忙中有限)



밭래에 골몰한 여인들



다리미



다듬이



시흥군 주최 제2회 배구대회 수상식(단기 4282년 8월)



군지 편찬위원 郡誌編輯委員 양인섭梁寅燮·김한복金漢福·구연창具然昶·김병준金炳俊·권중석權重錫·오형탁吳亭鐸·이무영李無影·장한장張漢鼎
김건열金健烈·조한구趙漢九

『시흥군지始興郡誌』 머리에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서면서 얼마 아니하여 시흥군始興郡에서는 벌써 군지郡誌를 만들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을 들였다. 내가 군수 김건열金健烈 군을 한집안같이 여기므로 그 일을 남보다도 먼저 들었고 또 재료와 방법 같은 것을 내게 의논한 적도 많았었던만 내가 한참 바쁘던 때요, 그동안 서울·시골로 떠도는 가운데 서적이라고 거의 남은 것이 없어서 고증을 시험할 길이 없었으므로 고답게는 알면서도 도운 것이 없었다. 김한복金漢福 내무과장과 이 일을 전주專主하여 맡은 문인 이무영李無影 씨를 만나면 애쓰는 위로도 하고 원고 부피가 얼마나 되어 가는 것을 묻기도 하였더니 지난해 겨울에 김 군수를 따라서 강시중(姜侍中, 강감찬)의 고적古蹟을 가 보고 군지의 기술에 한 가지가 새로웠다고 하던 그때 군지는 이미 활자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군수 이하 몇 분의 심력心力이 얼마나 든 것은 편역編役을 맡은 이무영 씨와 성인교육 양인섭梁寅燮 주사와 오형탁吳亨鐸 군郡 서무계장이 시흥 전부의 산에, 물에, 동네에 거리에 아니 돈 데가 없던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나라가 적의 복세 속에 든 지 40년이라 최근 미군정美軍政을 건너 우리 정부가 서고 道·군郡의 행정을 하게 되니 모르는 사람은 군의 일이 어느 정도로 다단多端한 것을 다 생각하지 못할 것이로되 사실로 눈코를 뜰 새가 없었고 지금도 날만 새면 실 동안을 얻을 길이 없는 이 가운데에서 군의 고금古今을 체계적으로 엮어 내어 위로 국사國史에 아래로 제반諸般에 시흥 한 고을의 문헌文獻으로서 보좌輔佐하는 바 크니 나는 이 일을 기리는 동시에 한편으로 군의 행정이 자리가 잡힌 것을 거듭 기쁘게 안다.

초고草稿로 있을 때 미처 보지는 못하였으나 뜻깊은 분들의 일이라 마음으로 믿으며 또 이 책을 만드는 본의本意가 실實을 주로 하여 과거의 읍지邑誌 모양으로 일종의 부화浮華에 흐르지 아니하려 하였음을 나는 잘 안다. 다만 40년 동안 일인日人의 위관직僞官職 등 적이 저의를 본위로 하였던 일체를 오늘 와서는 반드시 정리하여야 할지니 요새들 일정日政이니, 왜정倭政이니 일제日帝니 하여 한 시대의 칭호와 같이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우리 선열先烈의 항쟁하는 피가 한 시時한 각척을 고치지 아니한 것을 생각하면 40년은 왜란倭亂이요 일구日寇의 역역일지언정 시대를 들어서 저러한 칭호를 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인의 위관직 같은 것이 만일 군의 전고典故에 관계됨이 있을 때는 원문原文에 주注로써 달아두든지 혹은 별적別的으로 이를 조치하여야 할 것을 『시흥군지』 편자編者인 이 형과도 일찍이 말한 바 있었더니 내 말을 마땅하게 알았으니 이 책이 나오면서 이 서법書法의 예가 다른 데에 널리 미칠 줄 안다. 나는 십수 년 전에 『경주지慶州誌』를 지

은 일이 있었는데 적敵에 관한 것을 내 법대로 쓰고 보면 당장 박해를 받게 되므로 융희隆熙 말까지로 한하여 지재誌材를 취하고 지誌라는 것은 고古를 지誌하는 것이라는 궤설詭說을 세운 일도 있었다. 이제 우리 정부 아래에서 우리 일을 우리의 옳은 것대로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니 이 일에 애를 쓴 몇 분도 다 행복한 가운데에서 생겨난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시흥은 내 시골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가깝게 말하면 우리 고:증高曾의 분묘가 있고 지금 시흥이 옛 과천果川까지 집어넣었은즉 과천은 선영先塋으로 여러 대다. 이는 내 사연私緣이라 구태여 갖추어 말하고자 아니 하나 지금 생각나는 바로는 강문량姜文良 희맹希孟의 『금양잡록衿陽雜錄』이 우리의 오랜 농림農林 문헌의 하나인데 금양衿陽은 시흥을 일컫은 바니 강문량이 시흥서 이 글월을 만든 것인데 토리土利의 고금이 그리 틀리지 아니할진대 잡록雜錄이 시흥의 농정에 참고될 바 있을 줄 알며 또 농가農歌가 있으니 지금 밭:논머리에 흑 남은 소리가 없지 아니할까 한다. 근세 시인으로 이름이 높은 자하紫霞 신위申緯가 젊을 때 시흥 산중에서 공부를 하고 만년에도 와 있었으므로 여계담女筭潭, 연산峴山의 승勝이 여러 번 그 시집詩集에 나타나고 더욱이 「시흥잡시始興雜詩」 같은 것은 자하의 시 가운데에도 특별히 청담고고淸淡高古하여 독자로 하여금 시흥 계산溪山의 경광景光을 상상하게 하거니와 이곳이 지금 어디인가. 자하는 성주암聖住庵을 말하였으니 성주암의 터를 지금도 아는 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또 강시중의 생지生地로서 낙성대落星臺라는 탑면塔面 각자刻字가 전하여 이미 인가人家 울안에서 매연煤煙에 그을려 내려오던 것을 청제淸除하고 위인의 자취를 뚜렷하게 나타내었음은 특필할 바이나, 정조어제正祖御製 가운데 치제致祭한 글이 있는데 “소산영기蘇山英氣, 문곡정신文曲精神, 거창예질巨鬯禮秩, 면체의신綿蕝儀新, 병의각로秉義却虜, 인불임좌人不祗左, 당시안위當時安危, 척신부하隻身負荷, 해동명승海東名勝, 경실거수卿實居首, 불후자삼不朽者三, 천양제수天壤齊壽, 생장지리生長之里, 고묘단청古廟丹青, 백대광감百代曠感, 일작향령一酌香醞”¹⁾의 ‘생장지리 고묘단청生長之里 古廟丹青(태어나 자란 마을에 옛 사당의 단청이 있으니)’이라고 하신 것을 가지고 보면, 강시중의 생장生長하던 고리故里가 곧 낙성대 등 너머 충현서원忠賢書院 있는 데로 전하던 것인데 낙성대는 생지요 충현서원 있는 데는 그 어른이 자라던 동네가 아닌가 한다. 내가 이 편찬에 도운 바가 없었으므로 뒤늦게나마 이런 말을 붙이나 큰 관계될 바는 아니다.

광복光復한 지 세 해 3월 5일에

정인보鄭寅普

1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소산의 영기와 / 문곡성의 정신을 타고났으니 / 울창주를 드리는 예가 정연하고 / 면체의 의식이 새롭도다 / 의리를 붙잡아 적을 물리치니 / 백성들이 오랑캐 됄을 면하였고 / 당시의 안위를 / 오직 한 몸으로 짊어졌네 / 해동의 이름 높은 사람으로서는 / 경이 실로 으뜸에 있으니 / 세 가지 불후는 / 천지와 더불어 영원하리라 / 태어나 자란 마을에 / 옛 사당의 단청이 있으니 / 백대를 지나 깊은 감회가 있어 / 한 잔의 향기로운 술을 따르네.” 원문에는 전, 향, 백으로 되어 있으나, 곡, 경, 광으로 바로잡았다.

서序

시흥군지『금천지¹ 衿川誌』의 발간²을 듣고 먼저 나는 그 뜻에 놀랐고 이번 이룩된 동지³同誌의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그 상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한 권의 책에는 실로 열⁴熱과 성⁵誠이 넘쳐흐르고 있고 애⁶土愛土·애⁷향⁸愛鄉의 정이 서로 섞여져 있으니 뜻이 장하다 함이요, 건국⁹成業·성¹⁰업¹¹建國聖業의 말단¹²행¹³정¹⁴末端行政에 헌¹⁵신¹⁶獻身하는 몸으로서 이렇듯 방대한 사실을 수행한 그 열¹⁷熱은 나라와 민족과 군민을 사랑하는 그옥¹⁸한 애정의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지¹⁹郡誌가 군민에게나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문화발전에 얼마나 고귀한 자료라는 것을 여기에서 재²⁰론²¹再論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저 김부²²식²³金富軾의『삼²⁴국²⁵사²⁶기²⁷三國史記』를 비롯하여『삼²⁸국²⁹유³⁰사³¹三國遺事』,『팔³²역³³지³⁴八域誌』,『여³⁵지³⁶승³⁷람³⁸輿地勝覽』,『범³⁹우⁴⁰고⁴¹梵宇攷』와『고⁴²려⁴³사⁴⁴지⁴⁵리지⁴⁶高麗史地理志』,『동⁴⁷국⁴⁸세⁴⁹시⁵⁰기⁵¹東國歲時記』 등이 없었으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들쳐 볼 수 있었으며 세⁵²시⁵³歲時, 풍⁵⁴토⁵⁵風土의 전⁵⁶설⁵⁷傳說을 이어 볼 수가 있었으랴. 이『금⁵⁸천⁵⁹지』의 뜻한 바도 이에 있었겠거니와 후일에는 일⁶⁰군⁶¹一郡의 군지라기보다도 우리의 좋은 ‘세⁶²시⁶³기⁶⁴歲時記’가 되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욱이 인⁶⁵물⁶⁶·풍⁶⁷토⁶⁸²에는 오늘날의 현실을 기록함에 그치지 않고 멀리 우리 선조 때부터의 전설을 밝혀준 점은 특히 이 군지의 자랑이라 할 것이다.

단기 4283년³ 3월 5일

문교부¹文敎部 차관²次官 박³종⁴만⁵朴鍾萬

2 제6편 인물·풍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 서기 1950년. 이하 단기로 표기되어 있다.

서序

이번 시흥군의 거울[龜鑑]이 되고 민주행정民主行政의 기반이 될 『금천지』를 발간하게 된 데 대하여 본인은 도정道政 실임자責任者의 입장으로 또는 지방행정 당로者當路者⁴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기뻐 마지않는 바이다.

우리는 혹독한 왜정 36년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지금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고 선조의 거룩한 유업遺業인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광복 계승하여 국가 만년의 번영과 자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칠전팔기七顛八起, 새로운 청사靑史를 창조하기에 분망奔忙하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현실에 당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형태를 연구함도 물론이려니와 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남’을 알기 전에 ‘나’의 본연한 자체부터 잘 알아야 할 것이 위정자나 일반 국민이나 공통되는 생존과 민주 발전의 의무일 것이요, 이와 같은 점에 일찍이 착안하여 아직 타처에 유례가 드문 이때에 이채로운 귀지貴誌의 발전을 본 것은 더욱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귀지의 내용을 보건대 군행정郡行政 일반은 물론 인문·풍습 등 군 살림의 전반을 상세히 묘사한 참으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며, 발전적인 시흥군의 ‘거울’이 되는 일대서광一大曙光의 소산으로 믿는다.

시흥군의 보감寶鑑인 귀지를 통하여 파악되는 현실을 살려서 행정당국자는 물론 10만 군민이 합심협력合心協力, 앞으로의 비약적인 진전進展이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절대한 공헌이 있기를 믿어 마지않는 바이다.

끝으로 귀지 발간을 위하여 진력하신 편찬위원編纂委員 제위諸位에게 심사深謝하며 건투를 축원하는 바이다.

단기 4283년 2월 1일

경기도지사京畿道知事 구 자 옥具滋玉

4 중요한 지위나 직분에 있는 사람. 당국者當局者.

서序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거니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 온 것이 사실인가 합니다. 역사^{歷史}에 그러했고 문화^{文化}에 그러했고 지리^{地理}에 그러했습니다. 의·식·주 일체의 생활문화^{生活文化}도 우리는 우리의 것에 너무 무지^{無智}한 채 살아왔으며 또 이를 등한시^{等閑視}함으로써 자량을 삼는 일까지 있었는가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나는 우리 군의 군지^{郡誌} 발간에 만강^{滿腔}의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더욱이 그 내용을 보건대 일군^{一郡}의 군지가 아니라 우리 5천 년간의 인문, 풍토를 총집성^{總集}성한 감이 있는 세시기^{歲時記}일뿐더러 그 양으로도 실로 방대한 데 놀랐습니다.

이 대사업을 완수한 김건열 군수와 편찬위원 제씨에게 군민으로서 조그마한 조력^{助力}도 못했음을 깊이 사^謝하는 바입니다.

단기 4283년 1월

국회의원^{國會議員} 이재형^{李載溍}

서序

전일前日 귀군 직원 모 형某兄을 통해서 군지郡誌 발간發刊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편찬위원으로부터 그 내용·절차를 받았습니다. 생은⁵ 군세郡勢를 약기略記한 한 소책자로만 예측했던 것인데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광범한 그리고 세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들었으며 이의 정리, 집필, 인쇄에 위원 제위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였을까 생각하니 일 군민으로서 무색해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군지가 50년 내지 1세기 후에 가질 가치보다도 생은 곧 우리 생활문화에 큰 좌우명座右銘이 되는 데 보다 더 큰 의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끝으로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이 대사업을 도와 드리지 못한 죄를 씻고자 금일봉金一封을 영정迎奉하오니 발간비의 일부라도 충당케 해 주시면 홀로 자위自慰를 삼을까 하옵니다.

금성방직金星紡織 사장社長 김 성 곤金成坤

시흥군수始興郡守 김 건 열金健烈 좌하座下

5 저는.

발간사 發刊辭

우리 군에 군지가 없으므로 항상 유감으로 생각해 오던 중 작년 8월 삼천만 겨레가 갈망하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성업聖業이 성취되어 청사靑史에 빛나는 새 기원紀元을 지은 기념사업으로서 군지를 발간하려는 관민官民 제현諸賢의 요청을 받아 흔연히 이 사업을 착수하였다. 군지를 발간하는 연유는 내 고장의 문물文物과 풍토風土를 알고자 함에 있다. 내 고장의 문물·풍토 속에는 우리 조상의 ‘열’이 섞여 있는 것이니 이것을 아는 것은 내 씨족과 내 국가를 아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내 민족의 유래를 알고 내 국가의 존엄성을 아는 것이 사리에 마땅하면서도 지극히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 민족은 항상 번영하고 그 국가는 항상 발전 일로一路만을 걸었어야 할 것인데 과거의 역사는 흥망興亡과 성쇠盛衰로 반복하였음을 사실史實이 증명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추측건대 진실로 내 민족·국가를 아는 때는 흥하고 성하였으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망하고 쇠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 민족, 내 국가를 아는 것은 실로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인간의 사회란 천변만화千變萬化 무상히 변천하는 것이니 이 사회가 변천하는 모습과 굽고 힘찬 전통과 조류의 줄거리와 줄기를 연구하여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고 새로운 역사의 창조과정에 있는 현실사회상의 전모를 사실 그대로 묘사·표현하여 금일의 실정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귀감을 삼으며 이를 후세에 전하여 자손으로 하여금 내 고장 내 민족의 진화進化 경로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내 고장의 문물·풍토라고 해서 유독 특이한 것도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다. 이는 우리 고을도 우리나라의 일부로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함께 같은 운명을 겪어 온고로 우리 고을의 문화 또한 고립한 문화가 아니라 실로 우리나라 문화의 일환으로서 존재해 온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고을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니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고을의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의 축소縮圖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리 고을 문화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특히 이 군지를 만들어 후손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50년의 과거를 회고하여 보더라도 실로 제도과 풍습에 다양다각多樣多角한 변천을 재래齎來했으니 과연 격세의 감이 없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후 50년 뒤의 사회는 장차 어떻게 변천해 갈 것인가?

그때의 우리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이조李朝 말엽 시절을 회상하고 놀라듯이 금일의 사회상을 회상하고 또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이를 입으로 전하느니보다 문헌으로 전하기 위하여 이 군지를 만드는 것이니 군지의 중요성이 크고 그 의의가 더욱 깊음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경험과 소질이 겸해서 없을 뿐 아니라 시간적 여가를 얻기 어려워 본인으로서의 당초부터가 감당키 곤란한 일이었다. 다행히 군 직원, 동료 제군의 협조가 많았고 양인섭梁寅燮 주사가 이 사무를 담당해 주었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선 기초가 될 만한 자료를 조사·수집하는 한편 금년 5월에 군지편집위원회의 조직을 보게 되었음은 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가장 난사難事로 생각하던 인문·풍토와 명승名勝·고적古蹟 등 편을 이무영李無影 선생이 담당하게 되었음은 금상錦上에 첨화添花 격이 되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경과하여 겨우 발간을 보게 되었으며 좀 더 완전한 군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보람도 없이 시일이 경과할수록 미비한 점이 드러나서 본의는 아니나마 더 지연할 수가 없어 그만 마감을 하기로 했으니 강호 제현의 가차 없는 비판과 성의 있는 조언이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 군지가 신국가로 건설하는 민족과업 수행에 다소라도 비익裨益할 수가 있고 자손들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군지를 편찬함에 당當하여 정인보鄭寅普 선생께서 친히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하며, 편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구연창具然昶, 권중석權重錫, 조한구趙漢九, 맹준섭孟俊燮, 김용린金容麟, 이무영, 김한복金漢福 씨와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원조를 하여 주신 금성방직회사金星紡織會社 사장 김성곤 씨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여 마지않는다.

단기 4282년(서기 1949년) 12월 1일

김 건 열金健烈 지識

目次

서序

정인보
박종만
구자옥
이재형
김성곤
김건열

제1편 개관

제1장 경기도의 개관 / 40

- 01. 지세^{地勢} / 40
- 02. 연혁^{沿革} / 41

제2장 본군의 개관 / 43

- 01. 개설 / 43
- 02. 연혁 / 45
 - 가. 3군 정립시대의 군역^{郡域} / 46
- 03. 위치 / 47
- 04. 지세 / 48
- 05. 토지 / 50
 - 가. 면적 / 50
 - 나. 매매가격 / 51
- 06. 기후 / 54
- 07. 인구 / 56
 - 가. 인구와 밀도 / 56
 - 나. 면별 인구 / 58
 - 다. 연차별 인구 / 59
 - 라. 주요지 호구 / 59
 - 마. 직업별 인구 / 60
 - 바. 인구 동태 / 61
 - 사. 월별 인구 동태 / 61

제2편 사회

제1장 어문 / 64

- 01. 언어 / 64
- 02. 문자 / 65

제2장 종교 / 66

제3장 후생·의료 / 69

- 01. 후생 / 69
 - 가. 시설 구호사업 / 69
 - 나. 궁민^{窮民} 및 전이재민^{戰罹災民} 구호사업 / 70
 - 다. 전이재민 응급주택 구제사업 / 71
 - 라. 재난민 입주^{入住} 및 구호 상황 / 72
- 02. 보건위생 상황 / 73
 - 가. 의약업자 배치상황 / 75
 - 나. 주요 전염병 발생상황 / 76
 - 다. 1949년 하계 뇌염^{腦炎} 만연 상황 / 76
- 03. 위생시설사업 실태상황 / 77
 - 가. 음식점 / 77
 - 나. 여인숙 / 77
 - 다. 이발 및 미용업 / 78
 - 라. 목욕탕 / 78

제4장 교통·통신 / 79

- 01. 교통 / 79
- 02. 통신 / 81

제5장 관아·학교 및 각종 사회단체 / 83

제6장 오락 / 86



제4편 산업

제1장 농업 / 102

- 01. 농정 / 102
 - 가. 농정農政 / 102
 - 나. 영농의 합리화 / 104
 - 다. 환지換地 / 105
 - 라. 곡물 검사 / 106
 - 마. 수집 / 107
 - 바. 식산殖産 가공품 / 108
 - 사. 농업창고 / 108
 - 아. 산업단체 / 108
- 02. 농경지 / 109
 - 가. 관개수리상황 / 109
 - 나. 경지면적 / 109
- 03. 농업자 / 112
 - 가. 국적별 농가호수 / 112
 - 나. 업태별 농가호수 / 112
 - 다. 경작형태별 농가호수 / 113
 - 라. 경작형태별 농업인구수 / 113
 - 마. 부표 / 113
- 04. 농작물 / 114
 - 가. 보통농작물 / 114
 - 나. 특수농작물 / 118
- 05. 비료 / 119
 - 가. 자급 비료 / 119
 - 나. 금비金肥 / 119
 - 다. 부표 / 120
- 06. 농업 실태 / 120
- 07. 식량사정 / 122

제2장 상업 / 124

- 01. 현상 / 124
 - 가. 부진의 이유 / 124
 - 나. 시장 / 125
 - 다. 물가 / 125
 - 라. 일반 물가와 노임 / 126
 - 마. 특산품 / 132

제3장 광공업 / 133

- 01. 광업 / 133
- 02. 공업 / 134
 - 가. 현황 / 134
 - 나. 공장일람 / 135

제3편 교육

제1장 초등교육 / 90

- 01. 졸업자 진학 상황 / 92
- 02. 보건교육 상황 / 93
- 03. 학교 설비 / 94
- 04. 특수시설 / 95

제2장 성인교육 / 96

제3장 중등교육 / 99

제5편 행정·치안·재정

제1장 행정 / 160

- 가. 개황 / 160
- 나. 5·10선거 / 161
- 다. 기구 / 162
- 라. 관구 / 162
- 마. 읍면별 개황 / 163

제2장 치안 / 173

- 가. 치안 개황 / 173
- 나. 관구 / 174
- 다. 기구 / 174
- 라. 외곽단체 / 174

제3장 재정 / 176

제4장 축산 / 137

- 01. 가축 및 가금 / 137
 - 가. 축우畜牛 / 137
 - 나. 돈豚 / 138
 - 다. 계鷄 / 138
 - 라. 부표 / 138
- 02. 축우 매매상황 / 141

제5장 임업 / 142

- 01. 임정 / 142
 - 가. 임정 / 142
 - 나. 「식목일」의 지정 / 144
 - 다. 「식목일」의 유래 / 145
- 02. 임산 / 146
 - 가. 면적 / 146
 - 나. 조림 / 146
 - 다. 묘포 / 147
 - 라. 임산물 / 147

제6장 수산·잡업 / 149

- 01. 수산 / 149
 - 가. 어업 / 149
 - 나. 제염 / 149
- 02. 잡업 / 150
 - 가. 상전桑田 / 150
 - 나. 양잠 상황 / 151
 - 다. 수건收蒔 및 공동판매 / 151
 - 라. 잠종蠶種 및 상묘桑苗 / 152

제7장 원예 / 153

- 01. 과수 / 153
- 02. 소채 / 154

제6편 인문·풍토

제1장 생활 / 186

- 01. 의생활 / 190
 - 가. 백의白衣의 유래 / 190
 - 나. 제도 / 191
 - 다. 종류 / 192
 - 라. 전래 의복의 유래 / 192
 - 마. 현상 / 194
- 02. 식생활 / 195
 - 가. 개관 / 195
 - 나. 전래되는 요리 / 196
 - 다. 식기 종류 / 198
 - 라. 요리 / 198
 - 마. 특수요리 / 201
- 03. 주생활 / 206
 - 가. 구조 / 206
 - 나. 결연 / 208

제2장 풍속 / 209

- 01. 개설 / 209
- 02. 일반 풍속 / 210
 - 가. 정월 / 210
 - 나. 2월 / 210
 - 다. 3월 / 221
 - 라. 4월 / 222
 - 마. 5월 / 223
 - 바. 6월 / 226
 - 사. 7월 / 227
 - 아. 8월 / 228
 - 자. 9월 / 230
 - 차. 10월 / 230
 - 카. 11월 / 231
- 03. 예식 민속 / 232
 - 가. 득남례 / 232
 - 나. 백일 / 232
 - 다. 돌 / 232
 - 라. 환갑연 / 233
 - 마. 삼년상 / 234
- 04. 농민 풍속 / 234
 - 가. 두레 / 234
 - 나. 천렵 / 237
 - 다. 고누 / 237

제7편 고적·명승

제1장 고적 / 278

- 01. 사화 / 278
 - 가. 영회원 애화 / 278
 - 나. 망경대 / 280
 - 다. 남태령 / 283
- 02. 고적 / 284
 - 가. 낙성대 / 284
 - 나. 만안교 / 288
 - 다. 단군전 / 290
 - 라. 상목 / 290
 - 마. 온온사 / 290
 - 바. 천정 / 291

제2장 명승 / 293

- 01. 명승名勝 / 293
 - 가. 관악산 / 293
 - 나. 서폭포 / 298
 - 다. 수중폭포 / 299
 - 라. 자하동천·자하시경 / 300
 - 마. 안양풀 / 302
- 02. 사찰 / 303
 - 가. 호압사 / 303
 - 나. 연주암 / 304
 - 다. 불성사 / 306
 - 라. 상불암 / 306
 - 마. 망월암 / 307
 - 바. 삼막사 / 307
 - 사. 염불암 / 310
 - 아. 망해암 / 311

- 05. 아동 민속 / 238
 - 가. 글자 맞추기 / 238
 - 나. 풀쌈 / 238
 - 다. 진陣 뺏기 / 238
 - 라. 연액막이 / 238
 - 마. 비석치기 / 239
 - 바. 사방치기 / 239
 - 사. 자치기 / 240
- 06. 가요 / 240
 - 가. 일반 민요 / 240
 - 나. 부인 민요 / 244
 - 다. 아동 민요 / 246

제3장 신앙 / 248

- 01. 민족신앙 / 248
 - 가. '밝의 뉘'적 신앙 / 248
 - 나. 국가와 민족신앙 / 250
 - 다. 본 군민의 신앙 / 251
- 02. '밝의 뉘'적 민족설화 / 253
 - 가. 충忠의 전설 / 253
 - 나. 용에 관한 설화 / 255
- 03. 귀신신앙 / 258
 - 가. 신과 귀신 / 258
 - 나. 귀신의 종류 / 259
- 04. 민간신 / 266
 - 가. 일반신 / 266
 - 나. 농신 / 267
 - 다. 역신 / 268
- 05. 미신화한 신앙 / 269
 - 가. 구타법區打法 / 269
 - 나. 경검법驚怯法 / 270
 - 다. 불뜸질법 / 270
 - 라. 화공법火攻法 / 270
 - 마. 연공법煙攻法 / 271
 - 바. 자상요법刺傷療法 / 271
 - 사. 포신捕神·송신送神 / 272
 - 아. 공물供物·기도 / 272
 - 자. 기타 / 274

제8편 부록

제1장 관공기관 / 314

- 시흥군 / 314
- 안양경찰서 / 315
- 안양읍사무소 / 315
- 금융조합 / 315
- 안양역 / 316
- 우편국 / 316
- 곡물검사소 /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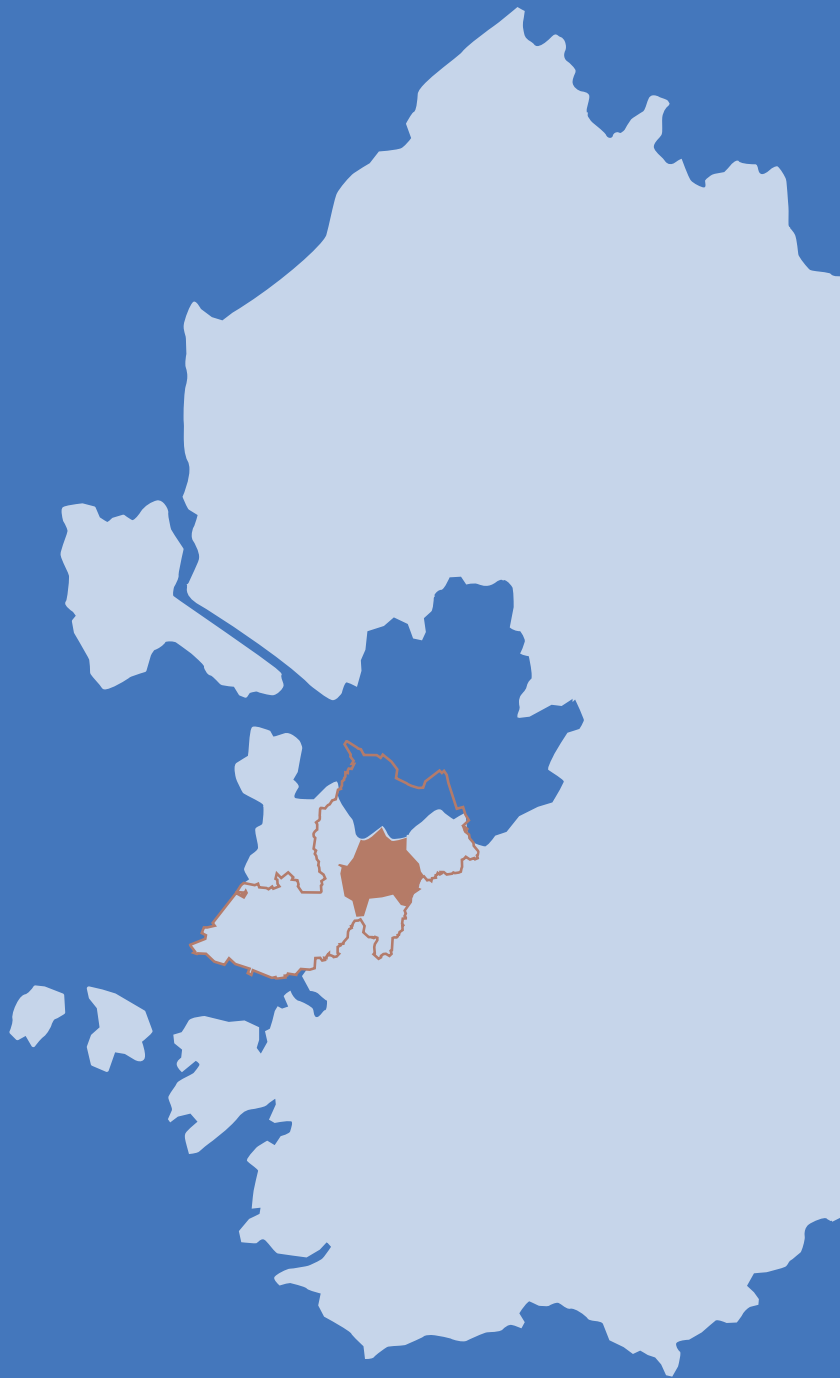
제2장 사회단체 / 317

- 국민회 지부 / 317
- 대한청년단 / 318
- 대한부인회 / 318
- 국대연습림 / 318
- 시흥군보승회 / 319
- 경성보육원 / 320
- 평화보육원 / 321
- 농촌청년구락부 / 321

제3장 생산공장 / 322

- 금성방직공장(금성방직주식회사) / 322
- 제일방직공장 / 324
- 조선직물공장(조선직물주식회사) / 324
- 고려석면공장(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 / 326
- 조선전선공장(조선전선주식회사) / 327
- 중앙고무공장(조선중앙고무공장) / 328
- 삼덕제지공장 / 329
- 조선견직공장(조선견직주식회사) / 330

제1편 **개관 概觀**



제1장 경기도의 개관

본서의 소기(所期)의 목적은 시흥군(始興郡)의 전모를 기술함에 있거니와 이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는 시흥의 모체인 경기도의 면모를 더듬어 봄도 무익한 일은 아닐 성싶어 도세(道勢) 일반의 개요만을 따서 여기에 기록코자 하는 바이다.

이. 지세

본 경기도는 국토의 중앙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14도 중의 한 도이다. 그러나 단기 4278년 8월 15일 왜적(倭賊)의 연합국에의 무조건 항복과 포츠담·카이로 양 선언(宣言)을 무조건 수락함으로써 왜적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의외의 미·소(美·蘇) 양군(兩軍) 점령(占領)으로 38선 이북·이남으로 국토가 양단됨에 따라 황해도역(黃海道域)의 일부가 본도로 편입되는 반면에 본도의 일부가 이북에 편입되는 슬픈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2부(府) 20군(郡)이던 것이 현재는 2부 21군으로 되어 있다.

지세를 개관하면 동북부가 서남보다 높은 것은 동북부 강원도계(江原道界)의 지방이 태백산맥(太白山脈)에 의거하였고 오대산(五臺山)에서 서남으로 내어 뻗은 차령산맥(車嶺山脈) 때문이다. 북

부 원산元山과 서울 간을 연결시킨 와지窪地⁶ 죽가령지구대竹駕嶺地溝帶를 근거지로 하고 서편 산맥은 서울까지 와서 북한산北漢山을 이루었고 북편 산맥은 황해도경黃海道境에서 제석帝釋·수룡秀龍의 양 봉峯을 이루었으니 남측 산맥은 강원도경의 지장地藏·국망國望 등 산을 이루고 서 다시 강원도로 침범하여 설악雪嶽·천마天摩의 태산을 이루었다. 성지聖智·당산堂山 양 봉은 동편 산맥의 연장이다.

강으로는 한국 5대강 중의 하나인 한강漢江을 위시하여 임진臨津·예성禮成 양 강이 있다. 한강은 태백산맥에서 발원, 서류西流해서 임진과 합류하여 강화만江華灣으로 주입된다. 예성강은 황해도 고달산高達山에서 발원, 남류南流하면서 금천金川 이하에서는 국토 양단 이전의 경기·황해의 도계를 이루고 있었다.

일언으로 요약하면 국토의 중부를 거의 횡단하다시피 한 한강 연안이 본도의 점유지대요, 본서의 목적인 시흥군역은 그 한강이 서울, 용산 부근에서 서북으로 유로流路가 변경되는 지점과 인접하고 있는 것이다. 본군의 구경舊境은 이 한강의 연안 노랑진鷺梁津으로 구 수도 경성부京城府와 접경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본도의 지세의 대요大要를 보아 왔거니와 본 시흥군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본군의 모체인 본도의 연혁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줄 안다.

02. 연혁

경기도역은 일찍이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마한馬韓에 속하여 내려오다가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이르면서부터는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그칠 줄 모르는 분쟁의 중심지가 되어 하루의 영일寧日도 얻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다가 백제는 31대 의자왕義慈王을 최후로 쓰러지

6 움푹 패어 움덩이가 된 땅.

고(서기 660년) 백제가 망한 지 8년 만인 서기 668년에 고구려 보장왕寶藏王이 또한 700년간의 사직社稷을 뒤엎어 신라통일시대를 이룩했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통일에는 당唐의 힘을 입은바 적지 않아 조야朝野의 모든 제도에 당제唐制가 채용되었으니 경덕왕景德王이 구획제區劃制를 당의 9주제九州制에 모방한 것은 그 예의 하나이다. 이리하여 경기도역은 당식唐式의 한주漢州라는 지명으로 불리어 내려오다가 고려 성종成宗이 전국을 10도제十道制로 제정하면서 도명을 ‘관내도關內道’로 고친 것을 현종顯宗이 다시 ‘양광도楊廣道’라 개칭하고 개성開城과 부근 13현縣을 직접 중앙에 예속시키어 ‘경기京畿’라 명명했다. 고려 말 공양왕조恭讓王朝에 이르러 경기는 우경기右京畿·좌경기左京畿의 양 도로 분할되었던 것을 이조李朝 태종太宗이 8도제를 실시하면서 양 도를 통합하여 1도로 만들고 도명을 다시 경기도로 환원시켰었다. 현재 서울시도 서울특별시로 승격이 되면서 도에서 이탈하여 중앙직할로 되었지만 태종은 좌·우 경기를 통합하면서 서울의 전신인 한양부漢陽府를 독립시키어 그때 벌써 특별시特別市 제도를 채택했던 것이다.

조선조⁷ 건양建陽 원년元年에는 8도제가 다시 폐지되고 전국이 23부府로 개칭되면서 본도는 한성漢城·인천仁川·수원水原 등 6부로 분할이 되었다가 그 익년에 다시 13도제로 부활되면서 도명도 함께 경기도의 원명으로 환원했었다. 그러다가 단기 4243년 국치國恥의 한일합병이라는 왜의 침략으로 종래에는 수원에 있던 도청道廳을 한성부로 옮기는 동시에 한성漢城을 경성부京城府로 개칭하고 특별시 제도도 폐지하여 경성부도 도에 직할시켰었다.

단기 4247년 행정구역 변경과 함께 본도는 2부 20군이었으나 단기 4263년에 송도면松都面이 개성부開城府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 3부 20군 8읍 282면으로 구획된 채 해방을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어그러지게 북위 38도를 경계로 미·소 양군이 상반된 군정軍政을 펴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국토에는 국경 아닌 국경선이 생기었고 그 경계선 일대 도계가 38도선에 의해서 재편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본도 관할지역이던 인천·포천抱川·파주坡州·장단長湍·개성·개풍開豐 등 각 군의 일부분은 38이북으로 편입이 되었고, 그 반면에 황해도 관할이던 연백延白·용진甕津 2군의 대부분이 본도로 편입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본도는 3부 21군 10읍 234면이 되어 있다가 단기 4279년 9월에 경성부는 서울특별시로 승격이 되면서 도의 관할을 벗어나서 다시 중앙의 직할지역으로 되었고 현재는 2부 21군 10읍 234면이다.

7 원문에는 고려조로 되어 있으나 건양은 조선 고종 때의 연호年號이므로 조선조로 수정하였다.

제2장

본군^{本郡}의 개관

01. 개설

본 시흥군은 본도의 심장부요 수도 서울특별시의 인접지로서 면적이 354.6평방천(平方千, km²)이며 인구 10만에 달하고 행정구역은 안양읍^{安養邑}을 위시하여 8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은 삼남^{三南}으로 통하는 경부선 국철과 국도가 군의 중앙을 관통하고 수인선이 서남 해안을 달리고 있고 안양을 중심으로 각 면에 통하는 지방도가 사통오달^{四通五達}하여 교통이 극히 편리하다. 관구 내에는 기차 정거장이 5개소요, 도선장^{渡船場}이 1개소 있다.

통신은 5개소의 우편국이 설치되어 있어 전신·전화·우편물집배 등 통신망이 완비되어 있다.

교육계의 현황은 국민학교^{國民學校}가 14교^校 외에 3분교장^{分校場}이 있어 1면^面 2교에 가까우며 194학급에 남녀 생도 수가 1만 2000여 명에 달한다. 적령아동의 95%가 취학하고 있으며 연령 초과자는 15개소의 공민학교^{公民學校}에 수용하여 제2세 국민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안양공업중학교^{安養工業中學校} 외에 여자중학원^{女子中學院}과 3개소의 고등공민학교^{高等公民學校}가 있으며 군민의 73%가 국문을 해득하고 있다.

이를 해방 전후의 교육상황과 비교해 보면 해방 후 국민학교가 6교 신설되고 학급 수가 130학급, 생도 수가 734.7명이 증가된 셈이며 중등 및 공민교육기관의 신설은 전 국문^{國文} 보급^{普及}을 급속도로 실현시키어 과거 왜정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악랄한 죄상을 규지^窺知⁹할 수 있는 동시에 해방 후 우리 군민이 얼마나 향학 의욕에 불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군의 산업계를 살펴보면 농업에 있어서는 농경지가 1만 2412정보 중 답^畝 면적이

8 원문에는 단위로 千^(千)이 쓰였으나 천은 km이므로, 면적의 단위인 '平方千'으로 되어야 하는데, 평방이 누락되어 수정하였다.
9 엿보아 알.

7393정보, 전田 면적이 5019정보로서 토지가 비옥하고 관개수리가 편리하여 농산물이 풍부하나 인구의 밀도가 조밀하여 식량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함으로 자래自來로 부족량을 타군에 의존하고 있다.

상업은 서울·인천 및 수원시에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발전이 지지遲遲하나 근래 안양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는 도정途程에 있다.

공업은 안양과 시흥에 대소공장이 많아서 본 도내 제1위의 공업도시로서 명성이 높고 서울시와의 거리, 광활한 면적, 수질의 우수성 등 입지적 조건 및 요소가 구비되어 있음으로 장차 공업계가 크게 발전하여 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방직공장이 5, 화학공장이 5, 기타 공장이 10여 개소로서 금성방직金星紡織의 면방綿紡과 제일방직第一紡織의 모방직毛紡織, 조선견직朝鮮絹織과 조선직물朝鮮織物 및 안양직물공장安養織物工場 등에서는 일산품日産品을 능가하는 우수한 제품이 생산될 뿐 아니라 국내 방직계에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삼덕제지三德製紙의 지물, 조선전선朝鮮電線의 전선은 그 제품이 양호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특수한 중요공장이다.

고려석면高麗石綿, 남해산업南海産業, 중앙中央고무, 도자기공장 등은 설비가 완비된 귀중한 공장이다. 이에 특히 부기할 것은 금성방직과 제일방직은 해방 후 작금 양년 이래 우리 손으로 건설되어 가고 있음은 실로 감탄하여 마지않으며 안양에 방직과 제지업이 발전하는 주요 원인은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이 풍부한 데 있는 것이다.

군자면君子面에는 대규모의 관제 염전鹽田이 있어서 국내 생산량의 3할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하자원으로는 도자기 원료인 고령토가 관악산에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고 군자면에 있는 흑연광산黑鉛鑛山은 수천만 톤(噸, 톤)의 매장량이 있을 뿐 아니라 품질이 극히 우량하여 이 모두가 국내 수요는 물론 해외 수출품으로서 외화 획득에 귀중한 물자이다. 특산품으로는 유명한 안양포도와 생물이 있으며 신동면新東面의 소채蔬菜 작물은 서울시 수요량의 태반을 담당하고 있다.

본군에는 자고로 산고수려山高水麗한 명승지와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고적이 허다하니 그 중 특히 관악산은 세칭 경기금강京畿金剛으로 일러오는 명산으로서 원래 산세가 웅장하고 산간계곡 도처마다 절승의 경치를 이루어 춘하추동 거의 탐승유람객探勝遊覽客과 시인묵객의 발자취가 끊일 날이 없다. 이 관악산 중에 연주봉, 동·서 자하동, 안양풀 등의 명승지와 삼막사三幕寺를 위시하여 14사찰이 있고 연주대, 천정, 낙성대 등 유서 깊은 고적이 많이 있어 아직 보승회保勝會가 이를 보호·관리하고 있으나 장차 국민보건과 국보보존을 위하여 서도 특별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또 방금 이의 추진을 보고 있는 중이다.

02. 연혁

본도 개관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본도의 전후 6, 7차나 되는 구획 변경은 자연 본도에 예속되어 있던 본군에도 영향된 바 컸으니 모체인 도의 구획 변경으로 인한 그때그때의 변모는 둘째로 치고라도 이름만 해도 금주^{衿州}, 금천^{衿川}, 검천^{黔川}, 일시 과천과 통합되었을 때는 금과^{衿果} 등 허다한 이름으로 불리었고 타군과의 병합, 이탈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나 이조 세조^{世祖} 대에는 인군^{隣郡}인 과천과 통합되어 군명까지도 잃고 지낸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오늘의 본 군역^{郡域}에는 원래 금천(본군)·안산·과천의 3군이 정립되어 있어 조그만 삼국시대를 이루고 있었으니 고구려시대의 본군은 잉별노현^{仍伐奴縣}¹⁰이었고 안산은 장구현^{獐口縣}, 과천은 울목^{粟木} 또는 동사힐^{冬斯矜} 등으로 병칭되어 있었고 신라시대에 와서 본군은 곡양^{穀壤}¹¹ 안산은 현을 군으로 개칭하여[신라 경덕왕(단기 3075, 서기 742) 장구군^{獐口郡}이라 일컬었다. 같은 신라의 경덕왕 대에 과천은 울진^{栗津} 등 군명으로 호칭되었고, 부림^{富林}·부안^{富安} 등의 명도 있었다.

지금의 과천은 산중의 일 한촌^{寒村}으로 전락했지마는 당시에는 국토의 중앙을 관통하는 요로이어서 고려조 현종^{顯宗}은 광주^{廣州}에 예속시키면서 현무^{縣務}를 둔 일도 있었다.

고려 현종(단기 3343, 서기 1010)은 나조^{羅朝} 때 장구군이던 안산에도 현무를 두었으나 25대 충렬왕이 다시 안산군으로 환원시키었다. 어떤 사본^{寫本}에는 안산의 고명^{古名}이 연성^{蓮城}¹¹로도 되어 있으나 연성군명은 이조 이후의 명명인 듯싶다.

이러한 정립 상태는 이조 초에 와서도 사뭇 계속되어 이조 7대 세조대왕은 시흥과 과천을 통합하여 시흥 또는 금과^{衿果}라 불렀고 안산에는 안산군·연성군 등의 군명으로 호칭되었으며 과천은 이조 태종이 과천·금과 등으로 부르다가 단기 4247년 3월에 전국의 군역 재편성으로 안산군의 월곡^{月谷}¹²·북방^{北方}·성곶^{聲串} 3면을 수원군에 할양하고는 나머지 과천·안산 양 군을 시흥군에 통합하여 오늘의 시흥군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10 원문에는 잉대호현^{仍代好縣}으로 되어 있으나 잉별노현^{仍伐奴縣}으로 바로잡았다.

11 원문에는 곡과^{穀果}로 되어 있으나 곡양^{穀壤}으로 바로잡았다.

12 원문에는 월북^{月北}으로 되어 있으나 월곡^{月谷}으로 바로잡았다.

가. 3군 정립시대의 군역郡域

이제 안산安山·과천果川·금천衿川의 3군이 본군에 통합되기 이전의 강계疆界를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본다면 “안산군은 동은 과천현계까지 5리였고 서는 인천부계까지 11리, 남은 남양부계까지 35리, 북은 금천현계 14리였고 경도(京都, 현 서울)까지는 53리”로 되어 있다. 이로 보면 현 본군의 군자君子·수암秀岩 양 면과 수원군 반월면半月面의 일부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금천군은 현이었으니 동으로 과천현계까지 11리, 서로는 부평부계까지 17리, 남이 안산군계까지 16리, 북이 양천현계까지 27리였고 노량露梁까지는 23리, 경도가 32리였고 과천군은 현무를 두어 동으로 광주가 13리, 서로 금천현계가 20리, 남으로는 수원부계까지 34리요 안산군계까지는 28리였다. 그리고 북은 노량이 되어 20리 지점에 경도가 34리였다.

즉 현재의 본군 수암면은 옛날 안산군의 치역治域이었던 군내면郡內面·초산면草山面·인화면仁化面의 3면면역面域이었고 마유馬遊·와리瓦里·월곶月串의 3면이 군자면으로 본군에 편입되었으며 현재 본군인 남면南面은 3군 통합 이전에는 과천군역이었다. 이렇듯 본군의 군역은 북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경성부와 대치했었으나 본군이던 동면東面 상도리上道里가 경성부로 편입이 되고 본군 북구로리北九老里·도림리道林里의 일부와 반대방리番大方里의 일부가 본군 동면으로 편입되었던 것인데 단기 4282년 8월 15일을 기한 행정구역 재편성에 의하여 상기 구로리, 도림리, 반대방리가 전부 서울특별시로 할양되어 본 군역은 축소일로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현재는 동면 마장천馬場川이 군계郡界로 되어 있다.

더욱이 상기 할양된 지역은 공도工都 영등포永登浦의 연장지대로 대소 공장시설이 산재하여 본군 내의 생산공업의 대략 반을 접하는지라, 세입으로 본 타격은 상상 외로 막대한 것이었다.

이렇듯 국도로서의 서울특별시의 비약이 본 군역을 침범케 됨을 기회로 그 관할지역으로는 본군의 약 2배 반이나 되면서도 인구밀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유를 가진 인접 군 수원군의 일부를 할양받을 운동이 전개 중에 있으니 아직 그 구체안의 성립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03. 위치

시흥군은 경기도 중앙에서 약간 남부에 있어서 동경 126도 49분으로부터 127도 7분, 북위 37도 21분으로부터 37도 35분 간에 위치하여 동남북은 육지에 연결하고 서남은 해면海面에 임하여 있다.

본군은 동북으로부터 서남으로 와우형臥牛形으로 가로놓여 있으며 동은 광주군廣州郡, 서는 부천군富川郡에 연결하고 북은 서울특별시, 남은 화성군華城郡에 연결하고 서남은 남양해南陽海에 면하여 있다.

군청의 소재지는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66번지의 6호이며, 그 위치는 동경 126도 56분 북위 37도 25분 40초의 지점이다.

군의 위치

경도의 극점			위도의 극점			면적 (평방천) ¹³	광무 ¹⁴ (천) ¹⁵	도청까지 거리 (천)	각 면 일주 이점 ¹⁶ (천)
방위	지점	동경	방위	지점	위도				
극동	신동면 신원리	127.07	극남	남면 부곡리	37.21	354.6	33.10	25.2	26.5
극서	군자면 정왕리	126.49	극북	신동면 잠실리 ¹⁷	37.35				

본군의 군청 소재지인 안양읍은 단기 4282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1주년을 기하여 읍邑으로 승격되는 동시에 안양면도 읍邑으로 개칭되어 비로소 군읍郡邑으로서의 면목을 갖 추게 되었다. 안양읍은 공도 영등포에 버금가는 신흥공도新興工都로 본군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국도 서울까지는 24천(浬, km)으로 기차로 약 50분, 경수철도는 읍에서 서울까지 포장이 완성되어 있어 자동차로는 40분이면 족하다.

이제 안양읍을 중심으로 한 거리표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 평방천平方浬; km²로,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였다.
 14 광무廣袤: '광廣'은 동서東西, '무袤'는 남북南北의 뜻이다.
 15 천浬: km로, 길이의 단위로 쓰였다.
 16 이점里程: 어떤 곳으로부터 다른 곳까지 이르는 거리의 이수里數.
 17 원문에는 잠보리驛室里로 되어 있으나 잠실리驛室里 바로았다.

서울							
3.2	용산						
5.9	2.7	노량진					
9.2	6.0	3.3	영등포				
10.4	14.2	11.5	8.2	시흥			
24.0	20.8	18.1	14.8	6.6	안양		
29.9	26.7	24.0	20.7	12.5	5.9	군포	
41.7	38.5	35.8	32.5	24.3	17.7	11.8	수원

04. 지세

본군은 대체로 타 군에 비하여 구릉지대가 많은 편이다. 태백산맥의 지맥으로 이루어진 관악산冠岳山이 군내의 최고 산으로 629.1m(米, m)밖에 되지 않으나 대평야가 없고 야산과 구릉이 본군의 태반을 점유하고 있다. 동면과 과천면의 대부분은 관악산이 차지하고 있고 수암면에는 수암산秀岩山, 남면과 수암면 사이에 수리산봉修理山峯이 높이 솟아 있다. 군자면 중앙에는 군자봉의 유봉流峰이 면내에 분산되어 있다.

군중郡中의 수봉秀峯은 역시 경기금강京畿金剛의 칭稱이 있는 관악산으로 연주봉戀主峯이 629m요, 수암산 수암봉秀岩峯¹⁸이 373m, 수리산(『팔역지八域誌』¹⁹에는 ‘修理’가 ‘修李’로 되어 있음) 태을봉太乙峯이 수암봉과 비등하다. 이 3봉이 본 군역에 삼각형으로 정립되어 있고 그 산곡이 흐른 데 평야를 이룬지라 비산비야非山非野의 구릉지대가 많은 면적을 점거하고 있다.

특히 동서의 일부는 관악 주봉의 낙맥落脈으로 명실공히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으나 이 관악은 본군의 유일한 저수지니 신동면의 양재천良才川과 안양면의 안양천(安養川, 옛 이름은 安陽川) 유역은 그 수원을 관악 유곡幽谷에서 발하고 있다. 자하구천紫霞舊天²⁰의 청류도 그 수원을 관악에 의존하고 있다.

수암·군자 양 면은 비교적 평원지대를 이루어 수암봉의 낙맥이 광덕廣德·마하麻霞 등의 준봉峻峯을 형성하면서 군데군데 대평야를 전개하고 있고 군자면의 주봉 군자봉은 면내의

18 원문에는 수원봉秀源峯으로 되어 있으나 수암봉秀岩峯으로 바로잡았다.

19 『팔역지八域誌』: 조선 영조 27년(1751)에 이중환李重煥이 지은 우리나라의 지리서. 전국 8도의 지형, 풍토, 풍속, 교통에서부터 고사 또는 인물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록하였다. 『택리지譯里志』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 자하구천紫霞舊天: 자하동천紫霞洞天의 오자로 보인다. 자하동천은 과천에서 연주암戀主庵으로 오르는 약 8km 정도의 계곡 일대를 이른다.

주수원천^{注水源泉}의 역을 다하고 있다. 군자면은 군내 유일한 해안선 보유 면으로 면내 수산 물의 유일한 공급지요 국내 최대의 국립 염전이 있어 현 남한 전체의 천일염 생산의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제 군내의 주요 산맥과 하천 및 도서^{島嶼}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요 산악

단위: 미^米²¹

산악명	표고 ^{標高}	소재지
관악산	629.0	안양읍 신동면·과천면·동면
수암봉	373.0	수암면
청계산	649.0	과천면
수리산	473.8	안양읍 남면·수암면
군자봉	198.0	군자면
운산 ^{雲山}	242.0	서면

주요 하천

단위: 천^千

하천명	유로연장 ^{流路延長}	소재지
안양천	20	안양읍
한내	14	과천면
수암천	8	수암면
자하천	11	동면

도서

도서명	면적 (평방키로) ²²	거주 호수(호)	직업별(호)				적요
			농업	공업	어업	계	
오이도	64	130	20	-	110	130	
옥구도	4	50	-	50	-	20	주민 전부 제염 ^{製鹽} 에 종사함
계	68	180	20	50	110	180	

21 미*: m로, 길이의 단위이다.

22 제곱평방 킬로미터(km²)를 말한다.

05. 토지²³

가. 면적

본군의 토지는 대체로 비옥한 편이나 논은 소위 천수답^{天水畓}이 그 전 면적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어 그해의 강우량이 쌀생산량을 거의 결정하는 상태이다. 금년(단기 4282년) 같은 해에는 1년을 통한 강우량이 평년의 30%에 불과했을 뿐더러 파종기인 5월부터 7월 간의 총 강우량은 50밀리(밀리미터, mm) 정도이어서 이앙^{移秧}은 전군을 통하여 약 30% 내외에 그치었다. 금년도 쌀생산의 총계가 평년작 35%인 것을 보더라도 본군의 벼농사가 얼마나 강우에만 의존하고 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 본군에는 관악·수리·수암 등의 산이 있고, 특히 관악산의 동·서 자하동^{紫霞洞}의 수량은 풍부하니만큼 이 수원을 인공적으로 저수하여 영농케 한다면 어느 정도 한 재해^災를 극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논이 천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받은 대체로 비옥하고 동·신동 양 면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안양읍에는 대소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비료난이 비교적 적으므로 이의 다각적 영농이 시힘되어 있고 군 산업과^{産業課}가 중심이 되어 토양 개량, 영농법의 근대화·과학화에 주력을 하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이제 지목^{地目}별로 토지면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면적²⁴

단위: 반^反²⁵

종별	안양읍	과천면	신동면	동면	서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	합계
답 ^畓	7,331	4,618	7,437	10,467	10,467	4,522	13,229	15,344	73,936
전 ^田	5,908	4,935	6,257	6,463	5,233	3,872	8,313	9,213	50,193
대 ^垵	800	465	634	651	653	488	850	8,484	13,025
지소 ^{池沼}	-	-	-	-	-	-	-	-	-
잡종지 ^{雜種地}	50	3	469	2,062	273	-	-	701	3,558
임야 ^{林野}	21,173	23,663	29,690	38,408	22,401	10,615	33,496	24,720	195,166
합계	35,262	33,685	35,510	58,510	39,027	19,497	55,824	58,450	335,878

23 원문에는 제5절이 제4절로 되어 있는데, 제4절 지세의 다음 절이므로 제5절로 바로잡았다.

24 면적 표에서 가로의 합계와 세로의 합계의 수치에 오류가 많다. 내용상 확인이 어려워 원문 그대로 실어둔다. 이하 본서에 수록된 각종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상 오류가 많으나 그대로 전재하였다.

25 반^反: 단^畓의 일본식 간략표기이다. 땅 넓이의 단위로, 1단은 1정^町의 10분의 1, 곧 300평으로 991.74㎡에 해당한다. 정^町-단^畓-묘^畓-보^步는 1909년 일본에서 도입된 토지 면적단위이다. 본서에는 반^反, 반보^{反步}로 나오는데 관용적으로 단, 단보를 반, 반보로 사용했으므로 그대로 표기하였다.

국유 및 민유지별

단위: 정보町步

구분	답	전	대	지소	잡종지	임야	기타	합계
국유지	73.5	73.3	14.0	8	21.3	315.5	-	519.6
민유지	7,489.6	5,049.3	95.0	95.0	177.7	19,307.5	33.1	32,893.7
합계	7,577.1	5,132.5	687.5	103.0	199.0	19,623.0	33.1	33,413.3

나. 매매가격

본군은 고양군^{高陽郡}과 함께 수도 서울의 외곽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생활방식은 물론 일체의 물가도 서울시에 준열^{準列}된다. 더욱이 해방 후는 서울로 진출하는 지방민과 국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로 하여 주택난이 심하게 되자 철도 연선^{沿線}은 대부분 서울시의 교외 주택지로 化^化한 감도 없지 않다. 서울 시외의 셋방이 매 칸에 보증금이 3만 원부터 10만 원 대까지 오르자 세궁민^{細窮民}의 대부분은 자연 교외에 착안케 되었고 본군의 시흥·안양·군포 등지는 철도 연선인 만큼 통근·통학의 편이 있어 후보지로 되어 고양군과 함께 서울시의 주택공급지가 되어 있는 현상이다.

거기에다 서울시와 인접하니만치 비료 문제가 비교적 타 지방에 비하여 용이하므로 영농의 다각화·근대화·과학화에 착안하는 영농가들이 본군에 유의^{留意}케 되었고, 사실상 소채·과수·목축·축우 등 대도시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융성해서 자연 주택의 고갈을 초래했고 지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편의상 통계에 나타난 본군 전반의 토지매매가격표와 본군의 매매가격표를 인용하여 보기로 한다.

토지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종별	상등지			중등지			하등지			표준지 ^{標準地}		
	지세(전)	매매 가격(원)	임대 가격(전)	지세(전)	매매 가격(원)	임대 가격(전)	지세(전)	매매 가격(원)	임대 가격(전)	상등지	중등지	하등지
전	23.40	13,500	39.00	17.10	9,360	28.50	15.30	8,000	25.50	이천군 이천읍 안흥리 275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222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743
답	14.40	10,500	24.00	6.48	3,000	10.80	4.68	1,000	7.80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65-1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53-13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118-1
대	20.00	8,000	200.00	5.40	1,440	9.09	2.40	8.00	4.00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49-7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56-1	양주군 광적면 주남리 699

경지_{耕地} 매매가격: 춘계_{春季}

단위: 반당_{反當}/원, 4279년 4월 현재

도별	답			전			당시의 인석 _{硯石} 당 가격	중등답 반당 가격과 인 _(畝, 畝) 가격비
	상	중	하	상	중	하		
경기	6,900	4,825	3,375	3,075	3,075	2,138	2,788	1.73
충북	6,960	5,220	3,420	3,600	2,180	1,380	2,069	2.52
충남	5,091	3,982	2,645	2,514	1,759	1,113	2,340	1.64
전북	7,350	4,917	2,267	4,250	2,617	1,233	1,832	2.68
전남	9,160	6,275	4,285	4,827	3,065	1,902	2,317	2.71
경북	11,500	8,789	5,644	7,133	5,050	3,000	2,896	3.03
경남	12,956	9,478	6,439	7,333	4,900	3,547	2,560	3.70
강원	8,400	5,820	3,660	5,820	3,340	2,100	2,640	2.20
평균	8,540	6,163	3,967	4,752	3,273	2,052	2,430	2.54

경지 매매가격: 추계_{秋季}

단위: 반당/원, 4279년 12월 현재

도별	답			전			당시의 인석당 가격	중등답 반당 가격과 인 가격비
	상	중	하	상	중	하		
경기	9,825	6,926	4,331	5,887	4,088	2,625	6,800	1.19
충북	13,800	10,200	6,000	7,800	5,220	2,94	3,50	2.91
충남	9,609	6,755	4,309	5,291	3,545	2,000	3,550	1.90
전북	12,000	8,667	4,550	7,250	4,733	2,400	3,290	2.63
전남	14,444	10,844	6,944	9,745	6,980	3,900	3,450	3.14
경북	19,875	13,500	8,563	10,714	7,200	3,686	3,500	3.86
경남	25,913	19,688	14,038	16,800	11,749	5,894	3,830	5.14
강원	19,125	13,350	9,000	13,500	8,625	4,875	4,400	3.03
평균	15,574	11,241	7,217	9,624	6,518	3,548	3,915	2.87

과거 10년간 경지 반당^{反當} 매매

단위: 원

연대	답			전			당시의 인식당 가격	중등답 반당 가격 과 인 가격비
	상	중	하	상	중	하		
4270	311.84	153.46	67.00	177.29	62.16	19.0	15.11	10.16
4271	344.69	162.49	74.00	187.79	63.73	22.00	15.45	10.52
4272 ²⁶	405.00	172.47	80.00	233.00	69.03	25.00	16.85	10.24
4273	414.00	187.56	91.25	232.00	69.53	25.00	20.37	9.21
4274	417.25	206.31	97.50	237.13	75.16	26.00	21.07	9.79
4275	423.20	231.67	121.43	229.93	93.43	35.08	21.06	11.00
4279 춘	8,540.00	6,163.00	3,967.00	4,752.00	3,287.00	2,052.00	2,430.00	2.54
4279 추	15,547.00	11,241.00	7,217.00	9,499.00	6,518.00	3,549.00	30,915.00	2.87

본군 내 토지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답·전은 반당, 대는 100평당

종별	상등지			중등지			하등지			표준지		
	지세 (전)	매매 가격 (원)	임대 가격 (전)	지세 (전)	매매 가격 원	임대 가격 (전)	지세 (전)	매매 가격 원	임대 가격 (전)	상등지	중등지	하등지
전	74	50,000	40	14	15,000	22	8	4,000	12	안양읍	과천면	서면
답	49	40,000	54	14	15,000	20	5	2,000	6	신동면	동면	군자면
대	250	90,000	400	42	30,000	70	11	5,000	15	남면	수암면	

이상 통계는 단기 4280년 말의 조사이나 기실 당시에도 일반 민간의 거래액이 표시액의 배가 보통이고 심하면 3, 4배의 고가였던 것이다.

이제 그 예를 하나 든다면 본군 남면에서의 토지 매매가격은 대개 이러한 숫자였다.

답(상) 평당 150~250원

답(중) 평당 130~200원

답(하) 평당 100~150원

전(상) 평당 50~100원

26 원문에는 4273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4272의 오자로 보아 수정하였다.

전(중) 평당 50~80원

전(하) 평당 30~60원

대(상) 평당 300~500원

대(중) 평당 200~300원

대(하) 평당 100~200원

물론 이 숫자는 토지와 소작권小作權을 겸한 토지의 매매가격이지만 소작권만도 이 토지의 약 반 혹은 60%를 점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를 단기 4270년의 평당 1원에 비한다면 150배로부터 250배에 해당하고 단기 4278년의 28원의 9배, 해방 익년인 4279년 가을의 매매가격인 51원에 비한대도 4, 5배의 등귀騰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물가지수로 보아서는 역시 저조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일반 물가는 최저 500배, 최고 1000배의 등귀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토지가의 등귀가 일반 농민의 경제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으니 미군정 당국이 토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발설만 해 놓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관계로 지주층은 초조한 나머지 소작인들에게 경작지의 매수買受를 강요했고 소작인들은 이에 불응하면 작권作權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농우를 팔거나 주택을 팔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1할의 고리를 얻는 등 갖은 무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토지개혁土地改革이 완수되기까지는 토지의 매매를 엄금하는 등 비상조치를 했던 것이나 범망을 교묘히 뚫는 악덕지주의 발호로 역시 일부에서는 이 토지의 강매가 행하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어쨌든 이 토지개혁의 실시 지연으로 농민의 불안은 날로 커 가는 형편이다. 이의 조속 실현은 빠르면 빠를수록 농촌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06. 기후

본군의 기후는 대륙적이어서 성하盛夏에는 35, 36도가 표준이나 해에 따라서는 40도 대까지 상승하는 일도 없지 않다. 그러나 반면에 엄동에는 빙점氷點 이하 13, 14도가 표준이나 심한 때는 빙점 이하 20도까지 급강하는 소위 대륙적 기후를 나타낸다. 그러나 본군의 위치가 전국으로 볼 때 그 중위를 점하는 만큼 기후도 상중하의 중이어서 한(寒, 추위)과 서(暑, 더위)가 다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

그러나 군내에서도 기후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일이 있으니 동면과 신동면에 걸쳐 솥은 관악산으로 해서 이 일대는 흡사 산악지대와 같은 기후의 차를 보이는 일도 있으니 2도 내지 3도까지 하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으며 대체로 군내의 기후는 같은 대륙기후라 해도 북만주北滿洲 장춘長春 일대에 비하면 비교적 평온한 기후이지만 북중국의 천진天津 일대와는 여름과 겨울이 다 2, 3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도내와 군내 기온과 강우량을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단, 여기에 인문리文한 군내 기온·강우 표는 단기 4282년임을 참조할 것).

도내 기온 및 강우량 표

단위: ℃, mm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및 총량
기온	(-)3.9	5.3	4.4	10.5	15.9	18.7	22.9	25.1	19.6	11.8	3.5	(-)5.4	9.8
강수량	26.3	4.4	56.5	80.2	44.0	118.6	610.1	320.5	120.7	10.6	30.3	74.1	1,496.3

비고: 기온 빙점 이하는 (-)을 붙임.

본군 내 강우설량降雨雪量 관측 표

단기 4281년

월	풍량風量	우량雨量	설량雪量	운량雲量	적요
1월	32	16	19	180	
2월	29	24	4	190	
3월	42	56		240	
4월	43	48		380	
5월	29	65		250	
6월	34	420		180	
7월	44	570		279	계절풍이 1·2·3·4월은 계속하고, 6·7·8월 3개월 우량이 최고이며, 12·1월 2개월 강설량이 최고이다.
8월	29	262		123	
9월	34	146		215	
10월	32	66		122	
11월	34	15	19	250	
12월	43	24	28	180	
계	425	1,712	90	2,579	

1. 강우降雨 일수 58일
2. 운雲 일수 257일
3. 강설降雪 일수 8일
4. 강상降霜 일수 23일
5. 무霧 일수 15일
6. 초상일初霜日 10월 12일

- 7. 초빙일 初氷日 10월 29일
- 8. 초설일 初雪日 11월 19일
- 9. 지진기동 地震起動 11월 14일 (1·2·3월 풍향 북동北東)

위에서 인용한 통계표는 최근의 것이나 이제 약 반세기 전의 통계로 보면 서울이 섭씨 평균 10도부터 10.5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약 반세기 간에 0.5 내지 1도의 차가 생긴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이 점은 한서 寒暑가 다 그러하고 강우·강설도 이에 준해진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다. 강우기와 건조기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이요 또 자랑인 삼한사온 三寒四溫의 기상을 본받은 전형적인 온난지 溫暖地이다.

07. 인구

가. 인구와 밀도

본군의 인구는 단기 4282년 5월 1일 현재로 총계 10만 3590인이다. 2년 전인 단기 4280년 말의 도의 통계보다 2000인이 감소되어 있음은 본 군역 郡域의 서울특별시 편입과 식량 증배 增配를 꾀하던 유령인구가 정비됨에 기인한 것이다.

이 숫자로 본다면 본군은 10만에 불과한 소군이라 할 것이나 본군의 총면적이 354.06평방천(平方軒, km²)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인구의 밀도가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제 본도 각 군별의 면적과 인구밀도를 대조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행정구역

단기 4280년 말

부군 府郡	면적 方軒 ²⁷	읍 수	면 수	동리 수	1방천대 方軒對	
					호수(호)	인구(인)
인천부	166.27			78	305	1,579
개성부	29.95			17	571	3,007
고양군	401.91		9	94	274	441
광주군	768.64		16	183	26	147
양주군	1,046.72	1	16	158	26	160

27 방천 方軒: 평방천과 같은 의미로, km²를 말한다.

부군 <small>府郡</small>	면적 <small>方秆</small>	읍 수	면 수	동리 수	1방천대 <small>方秆對</small>	
					호수(호)	인구(인)
포천군	512.76		10	66	28	134
가평군	844.47		6	61	23	82
양평군	880.29		11	168	16	107
여주군	642.97	1	9	159	19	144
이천군	461.22	2	9	132	25	208
용인군	633.50		12	115	35	156
안성군	542.07	1	11	170	26	215
평택군	406.69	1	9	129	36	273
수원군	875.76	1	19	290	43	273
시흥군	354.06		8	74	46	299
부천시	377.09	1	9	93	51	263
김포군	386.04		9	87	43	222
강화군	421.40		13	96	37	264
파주군	559.66		11	106	45	178
장단군	248.00		5	41	30	179
개풍군	472.00		11	74	32	188
연백군	777.63	1	19	168	42	340
옹진군	1,023.87	1	12	126	57	163
합계	12,833.87	10	234	2,685	38	223

즉 이 통계에 나타난 숫자로 볼 때 본군은 도내 21군 중 장단의 다음 가는 협소한 면적이면서도 인구밀도로 보면 인천·개성 양 시를 제한 21군 중 제3위에 속한다. 본군의 인군隣郡인 수원군과 이를 비교해 볼 때 수원군은 본군의 약 2배 반에 해당하는 면적에 1평방천에 대한 인구밀도는 본군보다도 16명이나 적다. 그런데다가 본군은 수차數次나 관할구역이 감소되었고 또 서울특별시의 주택난으로 인한 부군 도시와 철도연선의 통근·통학 가능지로서의 서울시민·소개자疏開者 격증으로 날이 갈수록 인구밀도는 증가하는 일편一便이다. 이는 대세로 보아 부득이한 일이면서도 행정 면으로 볼 때는 실로 고충이 없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경기 전도로 보더라도 본도 내의 단기 4268년도의 총인구는 204만 1408인 중 일인日人을 더한 외국인이 13만 8547인이었고 보니 우리 민국의 도내 인구는 190만 2861인이던 것이 단기 4282년 말에는 286만 3136인이다. 이 숫자로 본다면 최근 14년간에도

본도 내의 인구는 96만 275인, 즉 100만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구증가는 역시 국도 서울이 중심이 되었던 만큼 서울시와 접경을 했고 또 군역의 중심을 경부선이 관통하고 있어서 교통의 지편^{至便}과 식생활의 간이^{簡易}, 통근·통학의 가능 등 여러 가지 호조건 때문에 금후에도 서울시의 잉여 인구를 대부분 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기 썩면서도 딱한 사정에 봉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고층에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 중이 요, 본군과 인접한 수원군의 일부 면민은 지리적으로나 교통으로나 본군에 편입됨이 옳다 하여 이를 갈망하고 도 당국에 진정까지 고려 중이라 하니 불원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본군의 인구밀도는 각 면별 호구^{戶口} 수와 인구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나. 면별 인구

4282년 5월 말 현재

면별	총수		한국인		외국인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안양읍	3,906	33,484	3,888	23,451	19	33
신동면	1,713	9,874	1,712	9,873	1	1
과천면	932	3,340	932	5,340		
동면	4,335	23,306	4,268	23,177	67	129
서면	1,701	9,734	1,700	9,733	1	1
남면	1,005	6,055	1,055	6,055		
수암면	2,106	11,006	2,105	11,004	1	2
군자면	2,734	14,960	2,732	14,957	2	3
계	18,482	18,391	18,391	103,590	91	169

읍면별 호구로는 동면의 2만 3177인이 최고이나 단기 4282년²⁸ 8월에 구로리 외 2개 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어 5천여 인이 감소되었으므로 안양읍의 2만 3451인이 수위가 되고 남면의 6055인이 제일 적다. 대체로 최근인 단기 4282년 5월 1일에 시행된 총인구 조사에 의하면 자유증가를 보고 있는데 이는 해방 이후 이북에서 월남한 동포와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가 많음이고 외국인이 근소한 것은 단기 4278년 이래 일인이 철거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169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를 다시 호당^{戶當} 인구와 방천당^{方軒當} 밀도로 본다면 군내 총인구가 매호당 6인으로

28 시흥군의 구로리, 도림리, 반대방리가 서울시로 편입된 시기는 단기 4282년(서기 1949년)이므로 원문의 5282년은 4282년으로 바로잡았다.

되어 있고 남면 같은 면은 매호 7인으로 되어 있다. 이를 본도 내 평균과 비해 보면 도내 평균은 매호당 5인이며 1방천에 223인이나 본도는 299인이다. 그리고 본도의 평균 통계 숫자는 인천부의 1방천당 1579인의 인구밀도와 개성부의 1방천당 3007인의 밀도가 가산되었음을 고려할 때 본군의 인구밀도가 얼마나 심할 것인가를 추산하기에 족할 것이다.

다. 연차별 인구

연차별	총수		한국인		외국인		성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남	여
4279	16,757	97,188	16,753	97,177	4	11	43,908	53,280
4280	17,307	102,877	15,923	102,790	10	87	51,350	51,527
4281	19,937	103,287	17,913	103,149	24	138	52,137	51,012
4282 ²⁹	18,482	103,759	18,391	103,590	91	169	53,505	50,254

본군 총인구는 10만 3759인인데 그중 남자가 5만 3505명이고 여자가 5만 254인이어서 남자가 3251인이 많다. 이 인구조사는 단기 4282년 5월 1일에 시행한 대한민국 제1회 총인구조사에 의하여 완수된 것이다.

라. 주요지 호구

지구	한국인		외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안양	2,777	14,453	5	28	2,782	14,481
시흥	620	2,215	4	16	624	2,231
군포	250	1,800			250	1,800
군자 ³⁰	80	+00			80	70
소하리	300	2,000			300	2,000
과천	180	1,500			180	1,500
양재	70	800			70	800
안산	100	1,200			100	1,200

29 원문에는 4283년으로 되어 있으나 표(연차별 인구) 아래 원문 서술에 단기 4282년 5월 1일 시행한 조사 자료를 이용했다고 하므로 4282년으로 수정하였다.

30 원문에서 군자의 한국인 인구 칸에는 '+00'으로 되어 있으나 '1,000'으로 보인다. 합계 칸의 인구에는 '70'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원문에서 800명인 양재가 인구가 제일 적다고 하였으니 800명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지 인구표는 군자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읍면 소재지이며 인구 1만 4481인이 수위首位인 안양은 관공서를 위시하여 각 회사·공장이 편재되어 비약적 증가를 보게 됨이요, 2231인이 거주한 시흥이 차수次首이고 양재 800인이 최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흥·양재는 서울과의 교통이 지편至便하고 소채 재배에 최적지일 뿐더러 각 공장이 건설 중에 있으니 장차 큰 발전이 기대된다.

현재 4, 5위인 과천·안산은 작금 35년 전 본 군청소재지로 당시에는 상당히 과밀한 인구를 보았으나 단기 4247년에 군 폐합으로 군청을 빼앗긴 것과 과천·서울·영남의 통로 또한 경부선의 시흥 통과로 인하여 국철·국도를 다 상실하게 되자 주민의 다대수多大數가 각 처로 이전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마. 직업별 인구

직업별	한국인		외국인		합계		비율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농업	10,535	61,355	9	51	10,544	61,406	6.09
수산업	160	790			160	790	4.08
광업·공업	3□3	1,5□2			303	1,502	5.00
상업·교통	1,028	5,538	8	27	1,036	5,565	5.09
공무 기타 자유업	2,005	9,770			2,005	9,770	4.09
기타 유업자 ^{有業者}	2,□38	14,341			2,038	14,341	4.20
무직업	984	10,385			984	10,385	10.50
계	17,053	103,681	17	78	17,404	103,759	5.07

직업별 호구 표戶口表는 농업의 6만 1406인이 수위首位를 점하고 있어서 총수의 6할割이 넘고 차위次位가 기타 유업자의 1만 4341인이요, 공무원 기타 자유업의 9717인³¹이 3위三位로 되어 있다.

31 표에는 9770인으로 되어 있다.

바. 인구 동태

연차별	출생	사망	결혼	이혼
4280	2,042	927	213	14
4281	1,946	851	195	7
4282	1,224	698	218	5

인구 상태는 그 정적·질적인 구성의 관찰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동적·양적인 변동을 아울러 관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별로 3년간의 동태를 볼 때 점차 동태 動態 수가 감소되고 있다. 이는 해방 이후에 주로 전재戰災 동포가 귀향하여 모든 계출届出³²에 지연됨이 원인이나 연차별 호구 표와 대조하여 상당 차이가 생긴 것도 그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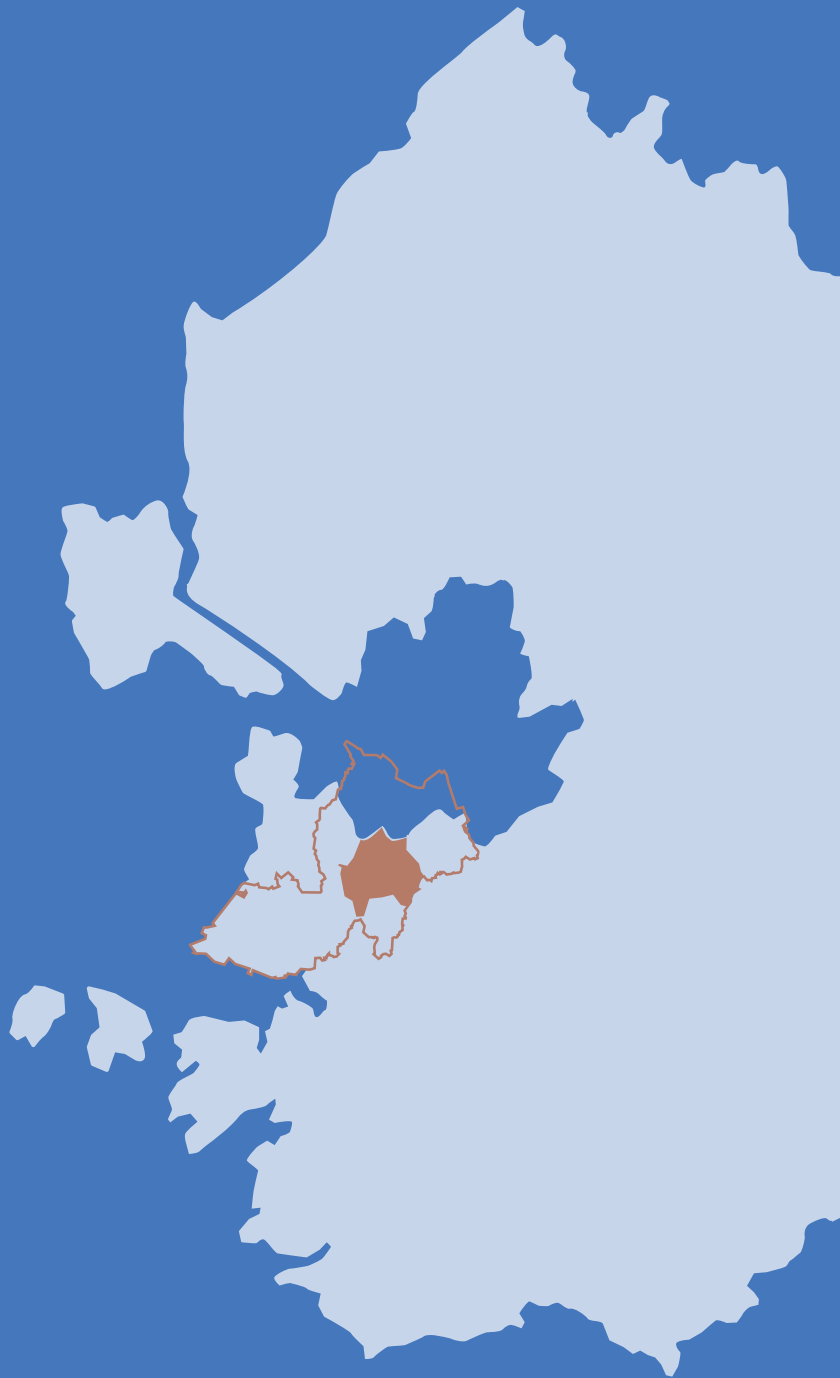
사. 월별 인구 동태

월별	출생	사망	결혼	이혼
1	170	73	20	1
2	180	86	30	1
3	151	86	40	
4	201	88	14	2
5	178	74	23	
6	120	66	12	
7	187	68	11	
8	201	72	16	
9	252	59	20	
10	94	53	7	
11	122	37	15	1
12	201	69	29	1

32 계출: 어떤 규정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상사나 또는 해당 기관에 문서로 냄.

사회

제2편



제1장 어문

1. 언어

본 군민의 언어는 대체로 표준어(標準語)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과 근거리인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원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까지 군민의 대부분이 일정한 장소에 정착·거주하여 타 지방의 방언(方言)이 들어올 여유가 없었던 것도 원인의 하나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방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위’를 ‘가새’라고 한다든가 ‘거울’을 ‘색경’이라고 한다든가 ‘꼬리’를 ‘꼬랑지’·‘꼬랭이’, ‘대님’을 ‘재님’, ‘형님’을 ‘성’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이 방언도 대개는 서울 하층 사람들의 변이 그대로 전해진 것으로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다.

같은 군민 중에서도 농민들의 말에는 변화가 없이 수백 년 내려왔으나 각 지방을 순회도 하고 타 지방인과 접촉도 많은 상인층에는 예를 들면 ‘쌍간나새끼’라든가 ‘문둥이’라든가 하는 북·남의 욕설 같은 것이 전해져서 아이들이 배우고 사용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보다는 우려되는 것은 과거 36년간의 적치(敵治)로 말미암은 일어(日語)의 혼용이니 일어로 알면서도 쓰는 것도 있지만 일어인지 우리말인지 구별을 못 하고 쓰는 말도 적지 않다. 일례로 든다면 노동화(勞動靴)를 ‘지까다비’라든가 떡을 ‘모찌’, 썸을 ‘간쥬’라고 하는 등이다.

이는 반드시 무지한 농민층에 한한 것이 아니다. 아니 되려 지식계급에게 그런 폐단이 더욱 많으니 말은 고사하고 글 속에서도 일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반세기 가까운 동안 강제당한 말이라 일조일석에 근절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나 정부에서는 이를 엄금하고 있고 사회여론도 늘 이에 주의를 환기하고 있으나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함은 국민 각자의 부주의와 태만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외군^{外軍}이 많이 주둔해 있었던 관계로 ‘노-꿇’이니 ‘싸인’ 등 외어^{外語}가 많이 사용되었고 ‘수지^{收支}’라든가 ‘기분이 상^傷한다’든가 하는 신어^{新語}가 아이들에게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당국의 지도와 각자의 주의로써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02. 문자

군민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역시 국문이다. 국문은 영주^{英主}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토대가 되어 있으나 ‘언문’이라 하여 경시되어 온 만큼 사람에 따라서 철자도 다르다. 정통의 ‘한글’은 해방 전까지는 극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용해 왔었으나 해방 후부터는 국민학교 아동용의 전 교과서는 물론, 과외^{課外}로 읽는 책에까지 순‘한글’을 사용하도록 문교부에서 지시가 있었고 각 신문, 기타 문화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해서 지금은 거의 다 순한글을 사용하게끔 되었다.

한자도 해방 전보다는 그 쓰는 숫자가 많이 줄었고 더욱이 국민학교 아동들은 거의 한자를 배우지도 못한 터라 자기 성명 이외에는 별로 쓰지 않게 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한자 전폐론^{全廢論}을 제창하는 사람도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거니와 일시에 폐지하느냐 점진적으로 하느냐의 방법론이 있을 뿐이요, 이 ‘한글’ 사용운동은 우리 민족문화를 위해서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문에도 점차 한글만의 공문이 늘어나고 있고 더욱이 농민 상대인 본군에서도 가급적 한자를 제한하고 있다.

제2장

종교

종교 신도는 불교·기독교를 합해도 전 인구의 1할이 못 되는 숫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숫자만으로서 9할강^{割強}의 군민이 무종교·무신앙으로는 볼 수 없으니 우리 민족 종래의 고유신앙인 ‘밝의 뉘’³³적 교지^{教旨}가 무의식으로 군민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들 자신도 그것을 시인하고 있다.

이 ‘밝의 뉘’적 교지란 곧 하느님을 믿음이니 종교가 군민 속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함도 이 ‘밝의 뉘’의 신앙이 민중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인문·풍토편 ‘신앙’항 참조). 그리고 다음의 인용한 통계표에 나타난 교파별 신도 수를 보면 기독교도가 불교신도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불교신도의 실수^{實數}는 이 이상 되리라 추측된다. 그것은 기독교인은 외계^{外界}의 접촉도 있고 예배당이라는 일정한 교회가 있어 신도 수도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통계에도 자진 신도임을 밝혀주나 불교신자의 대부분은 부녀자로 이를 표명하지 않는 데서 그렇게 되었으리라 추상^{追想}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본군 내에는 관악산의 연주암·불성사·삼막사 등의 고찰을 비롯하여 대소 15기의 암자가 있다는 점이다. 이 승니^{僧尼}³⁴들이 군내에 대개 평균 100인 이상의 시주^{施主}를 가졌다고 한대도 그 수는 훨씬 통계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불교가 신흥종교인 기독교에 일보^{一步} 양^讓하고 있음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본군 내의 10여 사찰의 대부분이 1300여 년 전 원효^{元曉}·의상^{義湘} 양사의 창건이라는 점을 들 수도 있을 것이요, 불교도는 아니면서도 승니들이 오면 물심양면으로 무조건 시주를 하는 풍속이 예로부터 전해져 있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에게는 ‘님’자를 안 붙이면서도 ‘부처’에는 무의식으

33 밝은 누리(광명세계)를 지향하는 우리 고유의 오랜 신앙이다.

34 비구와 비구니.

로나마 ‘님’을 붙이어 누구나 ‘부처님’이라 부르는 것도 이렇게 추단하는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을까 한다.

이 통계 외에도 시천교侍天教, 기독교 구교인 천주교, 단군교인 대종교大倥教 등이 있으나 그 신도를 조사할 길이 없어 여기에 기록치 못한다. 그만큼 신도 수가 비교적 적은 것도 사실이다.

동교同教는 ‘밖의 뉘’교와 혼향되어 군민의 대부분이 유교의 교지를 믿고 있으나 이는 유교만이 아니라 ‘밖의 뉘’교를 순전한 유교사상으로만 오인하고 있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를 교별教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불교

명칭	소재지	승 ^僧 수			신도자 수		
		승 ^僧	니 ^尼	계	남	여	계
삼막사	시흥군 동면 안양리	3	1	4	200	268	468
망월암	동 ^洞	1		1	30	90	120
염불암	동	1	1	2	80	10	180
상불암	동	1		1	25	60	85
창수암	동면 신림리	1		1	40	70	110
성주암	동	1		1	55	90	145
호압사	동면 시흥리	1		1	80	110	190
자운암	동면 신림리	1		1	70	120	190
반월암	안양읍 안양리	1		1	45	60	105
관음사	신동면 금당리	1		1	70	140	210
연주암	과천면 문원리	2		2	310	330	640
불성사	안양읍 비산리	1		1	80	110	190
망해암	안양읍 안양리	1		1	100	200	300
용화전	동	1	1	2	300	380	680
	계	17	3	20	1,485	2,128	3,613

02. 기독교

명칭	소재지	포교자 수			신도자 수		
		한국인	외국인	계	한국인	외국인	계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교회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1		1	남 150 여 250	400
	부림교회	안양읍 일동리	1		1	남 25 여 40	65
	잠실교회	신동면 잠실리	1		1	남 20 여 40	60
	시흥교회	동면 시흥리	1		1	남 120 여 150	270
	가리봉교회	동면 가리봉리	1		1	남 100 여 130	230
	하안리교회	서면 하안리	1		1	남 110 여 150	260
	광명리교회	서면 광명리	1		1	남 140 여 130	270
	군포교회	남면 당리	1		1	남 20 여 30	50
	삼성리교회	동	1		1	남 30 여 45	75
	산본리교회	남면 산본리	1		1	남 40 여 45	85
백왕리교회	군자면 백왕리 ³⁵	1		1	남 120 여 100	220	
기독교대한성결교	안양교회	안양읍 안양리	2		2	남 100 여 120	220
	설월리교회	서면 소하리				남 30 여 35	65
대한예수교감리회	안양교회	안양읍 안양리	1		1	남 100 여 120	220
	거모리교회	군자면 거모리	1		1	남 200 여 250	450
	화정리교회	수암면 화정리	1		1	남 220 여 280	500
남도본사안양안선시교당 (南道本司安養安善施教堂)	안양읍 안양리	3		3	남 220 여 80	300	
계		19		19	남 1,745 여 1,985	3,730	

35 군자면에는 백왕리^{白往里}가 없다. 정왕리^{正往里}의 오자라면 백왕리교회도 정왕리교회로 추정된다.

제3장

후생 · 의료

01. 후생

후생사업은 사회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서 적극적인 사업 면과 소극적인 사업 면의 양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로 본군에는 소극적인 면, 즉 연고자가 없고 거처가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불운아를 따뜻한 시설 안에 수용 포용하여 양육하는 육아사업과 같은 운명의 불운한 노인을 수용 안정케 하는 양로사업 등의 시설 구호사업이 있고 해방 이후 정치·경제 면의 불안한 상태에서 일시 초래된 궁민 구조사업과 해외 혹은 이북에서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고향으로 찾아드는 전이재민戰罹災民의 일시 구호사업 등을 행하고 있다.

가. 시설 구호사업

육아育兒 사업으로 안양읍 비산리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장려한 관악산록에 아이들의 고요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혁명투사 우덕순禹德淳 씨가 경영인 평화보육원平和保育院이 있고 신동면 잠실리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강안漢江岸에 천주교 신부 이우철李宇哲 씨가 경영하는 성심원聖心園이 있다.

양로養老 사업으로는 동면 안양리 안양수영장 월편越便 적막한 산록에 현 사회부장관 이윤영李允榮 씨가 경영하고 있는 불우노인의 시들은 여생을 의지케 하는 박애원博愛院 안양양로원安養養老院이 있고 안양역 월편 울림栗林 속에는 서울시 관할로 오금선吳兢善 씨가 경영하는 육아·양로사업을 겸한 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 안양분원이 있다. 이상 각 시설의 현재 인원의 수용현황은 거의 만원의 정도로 280여 명에 달하고 개설 이래 수용인원은 무려 2800여 명에 달한다.

후생(厚生) 시설 일람표

사업 종별	사업 명칭	경영자 성명	개설 연월일(단기)	소재지
육아사업	평화보육원	우덕순	4279. 11. 1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
육아사업	성심원	이우철	4280. 9. 11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양로사업	박애원 안양양로원	이윤영	4282. 4. 1	시흥군 동면 안양리(석수동)
육아사업	경성보육원 안양분원	오금선	4270. 9. 1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양로사업	"	"	"	"

시설 구호 상황

사업 종별	사업 명칭	경영자 성명	개설 연월일 (단기)	현재 수용자 수		개설 이래 수용자 수		개설 이래 퇴원자 수	
				남	여	남	여	남	여
육아사업	평화보육원	우덕순	4279. 11. 1	34	12	110	31	76	19
육아사업	성심원	이우철	4280. 9. 11	46		72		26	
양로사업	박애원 안양양로원	이윤영	4282. 4. 1	33	13	39	15	6	2
육아사업	경성보육원 안양분원	오금선	4270. 9. 1	85	11	1,399	490	1,214	479
양로사업	"	"	"	23	22	452	194	429	172
합계				221	58	2,072	730	1,851	672

나. 궁민(窮民) 및 전이재민(戰罹災民) 구호사업

궁민구제 및 보건후생사업단체인 보건후생협회(保健厚生協會) 본군 지부는 단기 4280년 5월 1일부로 신발족되어 관민 절대 찬동하에 10만 군민의 보건 향상은 물론 획기적인 궁민 및 전이재민 구호사업에 매진 중인바 현재는 협회 직영 중인 의무실을 본 군청 내에 설치하고 전기(前記) 대상자인 궁민 및 전이재민의 실비(實費) 치료 혹은 무료(無料) 치료를 실시할 뿐더러 박봉생활인 관공서 직원에게도 혜택을 입히고 있다. 이 밖에도 행려병인의 응급치료도 하고 특히 관내 악성전염병 발생 시에는 응급방역과 환자 치료 등의 적극적인 구호사업에 협조할뿐더러 본회 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촉탁의사(1명)를 위시하여 조수 1명, 사무직원 2명, 간호부 1명, 합계 5명이 직접 종사하고 있다. 현금(現今)까지의 수진환자(受診患者) 치료건수는 무려 1800여 명에 달하며 특히 본회 재정관계자는 보건행정에 재정관계자를 총망라하여 연 1회씩 정기회비를 엄출(檢出) 충당하고 있다.

국민 구조 窮民救助

구분	단체명	전년도 조월 ³⁶ 회원 수	신규 회원 수	폐지 회원 수	현재 회원 수	구조금액	비고
계		182	12	24	170	243,500	

동 종업원 從業員 상황

구분	단체명	개설 연월일	종사원 수					비고
			의사	서기	조수	간호부	계	
국민 및 전이재민 구조	보건후생협회 시흥군지부	단기 4280. 5. 1	1	2	1	1	5	

동 치료환자 治療患者 상황

4280년도 치료환자 수	4281년도 치료환자 수	4282년도 치료환자 수	합계	비고
270	792	804	1,856	
계 270	792	804	1,856	

다. 전이재민 응급주택 구제사업

구제대상자인 전이재민으로서 본군 관내에 설상 방황하는 무주택자 수는 무려 150여 세대(가족 590명)에 달하며 국비로써 단기 4279년도부터 금년도(4282년)까지에 응급주택으로는 145동을 건설하였다. 대부분의 다식구 세대를 수용·자활케 하고 있고 노동의 가능자는 관내 대소공장 사업장이 우선 취직 알선하여 자활의 방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전재민 戰災民 응급주택 건설 상황

읍면별	총건설 동수	건설비 보조액	입주상황		연도별 건설호수				비고
			세대수	인원	4279	4280	4281	4282	
안양읍	24	176,358	24	69	8	10	6	24	
과천면	3	17,563	3	13		2	1	3	
신동면	15	80,906	15	54	8	5	2	15	

36 조월^{韓越}: 일정 기간 안에 끝맺지 않고 다음 기간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거나 넘김.

읍면별	총건설 동수	건설비 보조액	입주상황		연도별 건설호수				비고	
			세대수	인원	4279	4280	4281	4282		합계
동면	23	141,357	23	65	13	5	5		23	
서면	7	73,089	7	29		4	3		7	
남면	6	36,000	6	21		6			6	
수암면	12	88,179	12	52	4	5	3		12	
군자면	45	1,615,722	25	98	7	13	5	20	45	
합계	135	2,229,174	115	401	40	50	25	20	135	

라. 재난민 입주^{入住} 및 구호 상황

각지로부터 귀환한 재난민 총수는 무려 4600여 명(1000여 세대)에 달하며 그중 요구호^{要救} 護 대상자 수는 총수의 3/4에 해당한 3600여 명(800세대)이었다. 정부에서 지출한 국고보조비는 현재까지 120만 원(일반생활보조비)이라는 거액에 달할 뿐 아니라 기타 각국으로부터 원조된 운라³⁷ 구호물자(식료품·의료품)를 시여^{施與}하여 현재는 착착 자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재난민 총수 내역 상황

읍면별	38이북 대한		만주지방		중국지방		일본지방		기타지방		합계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안양읍	63	281	53	263	9	36	52	298	92	369	369	1,247
과천면	29	101	2	6							33	117
신동면	19	98	13	56			6	25			38	179
동면	60	250	49	230	6	30	49	187	77	343	241	1,038
서면	45	153	34	119	5	27	28	104	9	28	121	434
남면	10	64	3	16	1	6	3	12			15	88
수암면	60	306	12	56			8	43	70	273	150	678
군자면	93	413	18	46			27	74	51	232	189	765
계	379	1,676	184	792	21	99	173	734	299	1,245	1,056	4,546

37 운라(UNRRA): 유엔구호재활관리국으로 44개국을 대표하는 국제구호기구이다. 1943년 11월에 설립되어 1948년 9월에 해체되었다. 1945년에 유엔의 일부가 되었다. 그 목적은 식량, 연료, 의류, 쉼터 및 기타 기본적인 필수품,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유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전쟁 희생자들의 구제를 위한 조치의 계획, 조정, 관리 또는 준비였다.

재난민 구호 대상자 구호 실시 상황

읍면별	재난민 총수		동 구호 救護 대상자		4280년도 구호		4281년도 구호		4282년도 구호		합계	
	세대	인원	세대	인원	건수	구호 금액	건수	구호 금액	건수	구호 금액	건수	구호 금액
안양읍	271	1,260	269	1,247	72	62,350	89	75,230	224	123,620	385	261,200
과천면	31	107	19	74	28	19,720	27	21,910	60	29,790	115	71,420
신동면	38	179	28	179	39	38,660	53	42,450	99	48,010	191	129,120
동면	241	1,038	175	976	79	63,920	85	74,920	175	100,150	339	238,990
서면	121	431	71	245	46	40,020	52	41,920	94	47,010	192	128,970
남면	15	88	3	11	24	21,040	29	23,740	66	32,070	119	76,850
수암면	150	678	103	452	52	40,990	61	52,960	102	48,790	215	142,740
군자면	189	765	123	434	56	42,130	69	58,470	117	58,480	242	159,080
계	1,056	4,546	801	3,618	396	328,830	465	391,600	937	487,940	1,798	1,208,370

02. 보건위생 상황

본군에는 해방 전에는 의사와 치과 의사를 합하여 7명에 불과하였고 그중 서면·신동면·남면·수암면 등 면이 무의면 無醫面이었으나 해방 후 각 면에 의사가 배치되어 현재에는 무의면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각 면에 의생 醫生·약종상 藥種商 등 의료기관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의약업자 배치통계를 다시 배치 수와 통계의 인구비로 보면 의사 1인에 약 1만 인, 한지의 限地醫³⁸를 가산하면 6000인에 의사 1인이 되고 의생까지를 포함시키어도 3500인에 1인이 되는 셈이요, 산파 産婆는 1만 7000명을 1인이 담당하는 계산이 된다. 전군 8면 面 74동 洞 중 무의촌 無醫村이 56동, 전체의 약 8할이 아직도 무의촌의 현상이다. 더욱이 이 통계에 나타난 치료기관은 안양읍을 중심으로 집결되어 있는 감이 불무 不無하며 오지 촌락에는 의생조차 없는 형편이나 도내 다른 군에 비하여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 기관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민 자체의 위생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 할 것이다. 우리 한국에는 고래의 민간요법이라는 것이 전래되고 있다. 물론 이 민간요법에도 현대과학으로 보아 그 근거가 전혀 없는 바도 아니요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어진

38 한지의: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개업하도록 허가한 의사.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 정책의 하나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요법이 있어서 현대과학으로도 난치의 병을 완치하는 일도 있으나 이 요법의 활용이 생리학적이거나 또는 의학적 원인을 알고서 이에 대한 치료라야 할 것인데 그 대부분이 미신적인 방법과 관념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우생학상으로 보아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금일처럼 과학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생활하면서도 일부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아직도 역환(疫患)을 의학에 기다리지 않고 방귀(防鬼)·퇴귀법(退鬼法)이니 경압법(驚壓法)·화공(火攻)·자상(刺傷)·봉박(封縛)·공물(供物)·주부(呪符)·기도(祈禱) 등 미신적인 요법에 의하여 치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안질에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그 앓는 눈에다 송곳을 꽂아 두면 완치된다는가 말라리아 발병 시에는 새벽에 갔던 길을 탄 길로 해서 귀가하면 전쾌(全快)된다는가, 정신병은 퇴귀법을 이용하여 낫을 하는 등, 현재에도 이러한 몽매한 요법이 성행되고 있다. 이리하여 아직도 무녀(巫女)의 수는 현재 의사의 수에 수배나 되며 이에 낭비된 금액도 전 국민의 1년간 의료비보다 거액을 보이고 있다. 그 일례로 남면 당리 모인(某人)의 유아가 만성 폐렴으로 앓는데 연 5일 맹인을 데려다 경을 읽고 낫을 하는데 총액 3만 3천 원의 대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도 목도한 일이 있다. 1회 낫에 최소한 만 원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래도 다년간의 경험으로서 두창(痘瘡)에 관한 지식만은 보급이 되어 종두일(種痘日)이면 만(萬)難을 무릅쓰고 시행장소로 운집을 한다. 그러나 이 코 밑에는 입이 있다는 사실 이상으로 종두만 하면 두화(痘禍)를 면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두창을 호구(戶口) 별신(別神)의 장난이라 하여 병 중에는 절대로 급식을 중지시키고 급수만으로 13일간, 14일째는 두신(痘神)이 작별하는 날이라 하여 목마(木馬), 색지(色紙), 짚으로 만든 그릇 속에 의복·음식·과실 등을 넣어 송별연을 차리게 하면 그 제물의 다과(多寡)로 별신이 서천석국(西天釋國)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민중의 무지를 계몽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각 학교 생도들을 통하여 이의 몽매함을 역설하고 일반적인 위생 상식을 보급시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군민 보건상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생충의 보유율이다. 우리 한국에는 고래로 변비(便秘)를 주비(主肥)로 하는 관습으로 전 국민의 회충·요충·십이지장충(속칭 채득)·아메바 등 허다한 기생충을 보유하고 그 보유율은 실로 전 국민의 90% 이상이 된다고 하지마는 본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변비의 특별저장시설이 없으므로 이 전염률도 실로 98%나 된다.

본군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변비 저장기를 시멘트로 만들어 최소한 30일 이상 부패시키

어 기생충의 박멸을 계획 중이나 시멘트의 보급이 불여의^{不如意}하여 정돈^{停頓}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 사업만은 만난^{萬難}을 무릅쓰고라도 추진시킬 방침이다.

전염병 방지에는 발생기를 전후하여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이 적극 협력을 아끼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정 전염병자의 은닉^{隱匿}·기피^{忌避}·치료^{治療} 거절 등의 악습이 있어 이의 계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무녀·점쟁이 등 흑세 무녀의 부류는 경찰의 끊임없는 감시로 점차 감소되고 있다.

가. 의약업자 배치상황

이에 의약업자 수와 전염병 발생 수를 기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의약업자 배치 표

읍면별	의사	의생	치과의	의생	산파	약중상	제매업 ^{諸賣業}
인양읍	4	6	2	4	5	11	3
과천면	1			1		1	2
신동면	1						2
동면	3		1	1	2	2	2
서면						1	1
남면	1			1		1	1
수암면	1					2	1
군자면	2			1		4	3
계	13	6	3	10	7	22	15

부기^{附記}: 전표^{前表}에 계기^{揭記}된 의무실은 군청·경찰서·제일방직·조선직물·금성방직·경성보육원의 6개소인데, 특히 군청 의무실은 군청 보건후생협회에서 경영하는 것으로서 일반직원뿐 아니라 군내의 가빈^{家貧}한 요구호자^{要救護者}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실비, 심지어는 무료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나. 주요 전염병 발생상황

단기 4281년도의 주요 전염병 발생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읍면별	지프테리 ³⁹		천연두		발진티브스 ⁴⁰		장질부사 ⁴¹		뇌척수막염		기타 (除마라리아) ⁴²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안양읍	13	4	6	2		1		4	2	3		
과천면												
신동면			3				2	1				
동면			1			1	2					
서면			4	1		1						
남면			7	2			5	1				
수암면	1	1	1			10	1		1	1	5	2
군자면	1						2	1				
계	15	5	22	5		13	12	3	6	4	8	2

다. 1949년 하계 뇌염^{腦炎} 만연 상황

4282년 9월 초순에 개성에 발생한 유행성 하계 뇌염은 미증유의 염천^{炎天}으로 인하여 본군에도 98명의 환자 수를 내었으며 52명의 사망자를 내었으니 이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읍면별	남녀별	10세 미만		50세 미만		50세 이상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안양읍	남	4	2	3	2		
	여	6	4	2			
과천면	남	2	1				
	여	1	1		1		

39 지프테리: 디프테리아.

40 발진^{發疹}티브스: 발진티푸스.

41 장질^{腸疾}부사: 장티푸스.

42 제^除마라리아: 말라리아는 제외.

읍면별	남녀별	10세 미만		50세 미만		50세 이상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신동면	남	4	4	1	1		
	여	1	1				
동면	남	6	2	3	1		
	여	5	3	4	3		
서면	남	7	1	2			
	여	1		2			
남면	남	2	2	2	2		
	여						
수암면	남	8	5	2	1	1	
	여	4	2			2	1
군자면	남	9	4	3	2		
	여	8	4	2	1		
계	남	42	22	16	9	1	
	여	26	15	11	5	2	1

03. 위생시설업 실태상황

가. 음식점

음식점은 해방 후 우후雨後의 죽순竹筍과 같이 증가일로이었으나 위생시설을 참작하여 수차 정비한 까닭으로 현재에는 군내에 104개소의 음식점이 요소要所에 산재하고 있다.

나. 여인숙

여인숙은 본군의 입지 조건의 불리로 특이한 발달은 없으나 안양읍 13개소를 필두로 각 면에 2, 3개소씩 있어 내왕하는 나그네의 좋은 안식처가 되어 있으며 위생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다. 이발 및 미용업

29개소의 이발소와 3개소의 미용원이 있어 신사·숙녀들은 물론 일반대중의 심신 미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발소의 위생시설 완비는 본군의 한 가지 자랑이라 하겠다.

라. 목욕탕

공중목욕탕은 안양읍에 1개소밖에 없으나 본군은 원래 공장지대이라 각 공장마다 목욕탕이 있고 문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까닭으로 각 가정에 욕탕 가진 자가 많아서 공중목욕탕의 이용이 비교적 적은 듯하다. 이상 업자의 공포^{公布}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읍면별	음식점	여인숙	이발소	목욕탕	미용원
동면	17	2	4		1
서면	8		2		
신동면	10	2	4		
과천면	6	1	1		
안양읍	36	13	8	1	2
남면	6	2	2		
수암면	10		4		
군자면	11	1	4		
계	104	21	29	1	3

이상 시설 외에 본군의 직영은 아니나 안양역에서 동북간으로 약 2천(杼, km) 지점에 소금강의 칭^稱이 있는 관악산 유곡을 이용한 수영장이 있다. 이 풀(pool) 일대는 백암^{白岩} 거석^{巨石}에 수목이 그윽하며 수성^{水聲}이 도도하여 1일의 행락에 더 없는 승경지이기도 하다. 물도 맑거니와 수량도 풍부하고 대인용과 아동용의 2구^區로 되어 있다. 군민은 물론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매 계절에는 풀 입구에 정차하는 특별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한여름 동안에도 10만에 가까운 인원이 동원될 것이다.

제4장

교통 · 통신

01. 교통

교통기관으로는 경부국철이 본군의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고 안양역은 시가지의 약 중심점에 있다. 또 2등 도로인 경수가도京水街道가 철도와 병행하여 수원을 지나 대구·부산으로 통했으며 동북으로 여주·이천을 지나서 충주·단양·춘천·강릉에까지 자동차로가 연결되어 있다.

안양읍에서 서울·인천까지에는 포장이 완비되어 있을뿐더러 경수 간을 왕복하는 대형버스가 매 1시간마다 통과하고 있어 수도 서울과 고도古都 수원에는 수시 왕복할 수가 있다.

군내를 통과한 국도의 연장선은 1만 9580천(km)이고 지방도로가 6만 352천에 달하며 읍면 도로는 4만 5300천이다. 군내 각 면에는 읍을 중심으로 3등 도로가 완성되어 있어 군경 어디나 트럭의 통행이 가능하여 산물의 집산이 여의하다.

육상 운반 기관으로는 트럭과 손수레·소수레(소달구지)·리어카 등이 사용되고 있다. 단거리와 소량의 하물은 전래의 지게에 의하기도 하고 쇠등에 실어 운반기도 하나 대량이거나 원거리에는 일반적으로 소수레와 트럭이 이용되고 있다. 가로수 즐비한 신작로에 고삐를 쇠등에 얹고 콧노래를 부르며 가는 소몰이꾼도 정서적이며 한적한 길에서 소 방울 소리를 듣는 것도 인상적이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군내에만 586대가 있다. 시내에 40여 대의 트럭이 상비되어 대기하고 있고 안양역발 서울역행의 통근·통학 열차가 7시 30분과 8시 6분에 2회가 있어 출근 시간을 대어주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주변보다도 오히려 편리한 감이 있다. 오후에는 18시 20분과 19시 9분에 안양역에 각각 도착하는 통근열차가 근로자들을 실어다 준다.

이 외에도 서울·수원 간에 일-왕복, 서울·대전 간의 일 왕복, 경부·호남 양 선의 직통열차가 안양에 정착하여 다대한 편리를 보고 있다. 이에 관한 숫자는 다음과 같다.

가. 철도

경부선

서울								
3.2	용산							
9.2	6.0	영등포						
17.4	14.2	8.2	시흥					
24.0	20.8	14.8	6.6	안양				
29.9	26.7	20.7	12.5	5.9	군포			
33.7	30.5	24.5	16.3	9.7	3.8	부곡		
41.7	38.5	32.5	24.3	17.7	11.8	8.6	수원	
450.5	447.3	441.3	433.1	426.6	420.6	416.8	408.8	부산

수인선

수인 ⁴³									
5.0	송도								
9.6	4.6	남동							
13.4	8.4	3.8	소래						
19.6	14.6	10.1	6.2	군자					
24.1	19.1	14.5	10.7	4.5	원곡				
32.0	27.0	22.4	18.0	12.4	7.9	일리			
41.3	36.3	31.7	27.9	21.7	17.2	9.3	어천		
48.1	34.1	38.5	34.7	28.5	24.0	16.1	6.8	고색	
52.0	47.0	42.4	38.6	32.4	27.9	20.0	10.7	3.9	수원

43 수인⁴³: 1937년 개통 당시 수인선의 종착역은 인천항역이었다가 1948년에 수인선의 종착역이라는 의미로 수인역으로 변경하였다가 1955년 남인천역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나. 철도 연장

단위: 천杆

읍면별	국도	지방도	읍면도	계
안양읍	4.6	5.0	10.0	19.6
과천면		7.0	6.0	13.0
신동면		12.8	6.0	18.8
동면	6.0		2.0	8.0
서면		4.1	5.0	9.1
남면	1.4	5.0		6.4
수암면		16.7	8.0	24.7
군자면		9.4	8.2	17.6
계	12.0	60.0	45.2	117.2

다. 육상 운반구

단위: 대

하물 자동차	분차	수만하차	리어카	하우차	하마차	역마차	자동 자전거	자전거	계
45		78	54	692	67			586	1,522

02. 통신

통신 기관은 안양·과천·시흥(동면)·군포(남면)·수암 등 5우편국(郵便局)이 있어 관내 통신에 이바지하고 있고 안양읍에는 시내전화가 가설되어 있다. 안양국(安養局)에서는 서울을 위시하여 수원·대전·대구·개성 등 국내 중요도시에 직통이 되고 관내 우편국이 없는 면·동에는 경찰이 경비전화(警備電話)를 이용케 해 주어서 다대한 편의를 보고 있다. 또 관내의 철도연선(鐵道沿線)에는 철도의 특설전화(特設電話)가 있어 유사지추(有事之秋), 유사시에는 이를 이용도 하고 있다.

관내에 28개의 우체함과 19의 우표판매소가 설치되어 있고 읍 관내에는 매일 2회의 집배를 행하고 있고 서울을 위시하여 국도(國都)·한성(漢城)·동아(東亞)·경향(京香)연합의 각 신문지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조·석간이 다 서울과 동 시각에 배달되므로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감이 있다.

전신·전화의 발수신(發受信), 우편물의 집배 상황은 다음 숫자에 의한다.

가. 통신 기관

우편국	전신국	전화국	특정 우편국	전신 취급소	공중 전화	우편절수 수입인지 매팔소 ⁴⁴	우편함	전화 취급소	우편사서함	
									설비 수	대여 수
5				2	3	14	28	2	12	7

나. 우편물

통상우편		소포우편	
인수	배달	인수	배달
206,160	202,660	113	310

다. 통신·전화

통신			전화	
발신	착신	가입매수	시내통화도수	시외통화도수
2,856	5,228	71	121,200	5,702

라. 우편 위체^{爲替}⁴⁵

진출 ^{振出}		불출 ^{拂出}	
구수 ^{口數}	금액	구수	금액
712	3,057,506.33	676	4,919,392.30

44 우편절수 수입인지 매팔소: 절수^{切手}는 우표를, 매팔소^{賣捌所}는 판매소를 말한다.

45 위체: 멀리 있는 채권자에게 현금 대신에 어음·수표·증서 따위를 보내어 결제하는 방식. 우편환·은행환·전신환, 내국환·외국환 따위가 있다.

제5장

관아 · 학교 및 각종 사회단체

1. 관아 · 학교

명칭	소재지	명칭	소재지
시흥군청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안산공립국민학교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동면사무소	시흥군 동면 시흥리	화정공립국민학교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서면사무소	시흥군 서면 소하리	군자공립국민학교	시흥군 군자면 ⁴⁶ 거모리
신동면사무소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	군서공립국민학교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과천면사무소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안양경찰서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안양읍사무소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 시흥지서	시흥군 동면 시흥리
남면사무소	시흥군 남면 당리	” 서면지서	시흥군 서면 소하리
수암면사무소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 신동지서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군자면사무소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 과천지서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안양공립공업중학교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 군포지서	시흥군 남면 당리
안양공립국민학교	”	” 수암지서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관양공립국민학교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	안양경찰서 군자지서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흥안공립국민학교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	시흥역	시흥군 동면 시흥리
신동공립국민학교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안양역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신중공립국민학교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	군포역	시흥군 남면 당리
과천공립국민학교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원곡역	시흥군 군자면 신길리
시흥공립국민학교	시흥군 동면 시흥리	군자역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서면공립국민학교	시흥군 서면 소하리	국립가축연구소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운신공립국민학교	시흥군 서면 노온사리	경기도임업시험장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군포공립국민학교	시흥군 남면 당리	경기도안양종축장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46 원문에는 군자공립국민학교 및 군서공립국민학교가 수암면으로 되어 있는데 군자면으로 바로잡았다.

명칭	소재지	명칭	소재지
대한식량공사 시흥분사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귀속농지관리국 안양구서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농산물검사소 안양출장소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국립서울대학 수원농과대학 관악산연습사무소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안양운수사무소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전매국소래염전 군사분소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02. 각 단체

단위: 명

단체명	대표자	인원수	강령의 개요
한국독립당 시흥군지부	권중석	800	국토와 국권의 완전 회복
대한청년단 시흥군지부	장배근	3,600	전국 청년의 단결을 도모함
대한부인회 군지부	장일선	2,000	계몽과 근로문화의 향상
민주당 시흥군지부	장배근	2,200	민족적 자주독립과 국가 완성을 기함
국민회 시흥군지부	김건열	45,000	사상통일과 국력배양 운동
대한독립농민총연맹 시흥군연맹	김동호	50	농민의 복리를 증진키 위함
대한노총 시흥군연맹	장석재	720	노동자 대중의 복리를 위함
시흥군보승회	김건열		국보·명승·고적을 영구히 보존하여 지방발전과 문화향상을 도모
신동건민회	이영섭	1,235	면내 인심 통일과 교화사업 및 생산장려
안양소방대	조남찬	250	화재를 근절하여 주민의 안도를 기함
안양불교 융화회	장배근	1,000	불교 신앙과 자선사업
상불암 안양포교소	신백연일	154	불교의 포교
기독교 조선성결교회 안양예배당	최창도	60	속죄 구원 ⁴⁷ 과 복음 전도
기독교 조선감리교회	이종권	70	복음 전도
기독교 단민노동교회	한태복	85	복음 전도
조선예수교 안양장로회	강인병		예수교 전도
농촌청년구락부 시흥군연합회	김건열		농촌 청년의 질적 향상과 농사 개량 지도
시흥군친목회	김건열	50	도의를정신을 함양하고 회원 간에 연락 협조하여 지방발전을 촉진함

47 원문에는 속죄(俗罪) 구재(救災)로 나오는데, 속죄(贖罪) 구원(救援)의 오자로 보인다.

03. 안양을 내 각 관공서 및 회사공장 각 단체명

4282년 10월 1일 현재

시흥군수	김건열	경기도입업시험장장	김갑성
경찰서장	장한정	경기도총축장장	노용환
안양읍장	조한구	안양우편국장	이병기
안양공립공업중학교장	이부성	시흥군농회장	김영석
안양공립국민학교장	임의준	안양역장	서정원
흥안공립국민학교장	정우석	대한식량공사 시흥지사장	안중윤
관양공립국민학교장	오병선	안양곡물검사서장	이강원
안양고등국민학교장	박영래	중앙토지행정처 안양구서장	김남훈
안양여자중학원장	박영래	안양금련조합 이사	염규환
가축연구소장	김영한	안양소방대장	조남찬
조선직물 안양공장장	장배근	경기도의사회 시흥군지부장	이종철
남해산업공사 공장장	신복현	제일방적공사 안양공장장	신경규
삼덕제지 공장장	김망생	삼길양산 공장장	박철재
제일제지 안양공장장	윤상인	대한노총 시흥군지부장	장덕재
외산철도 침목공장장	신승도	조선빠이푸공장장	안정호
고려석면 호막공장장	박을성	조선견직 공장장	민규식
안양직물회사 공장장	한항길	서울·경향·자유일보 안양지국장	최창조
안양인쇄소	김동호	조선일보 안양지국장	이규원
평화보육원장	최동오	동아일보 안양지국장	백남수
경성보육원장	송재수	한국일보 안양지국장	정사영
대한청년단 시흥군단장	장배근	한성일보 안양지국장	박성재
국도일보 안양지국장	유석희	안양부인회장	장일선
한국독립당 시흥군지부	권중석	민주당 시흥군지부	장배근
안양불교 교화회	권중석		

04. 산업단체

단체명칭	직원	회원	경비
시흥농회	47명	9,156명	7,048,900원
안양금융조합			
안양금융조합 거모지소			

제6장 오락

아직까지 본군에는 특별한 오락 기관의 시설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안양읍에 연와^{煉瓦} 2층 총건평 240평의 안양극장이 건축 중에 있으므로 명년 2월에는 준공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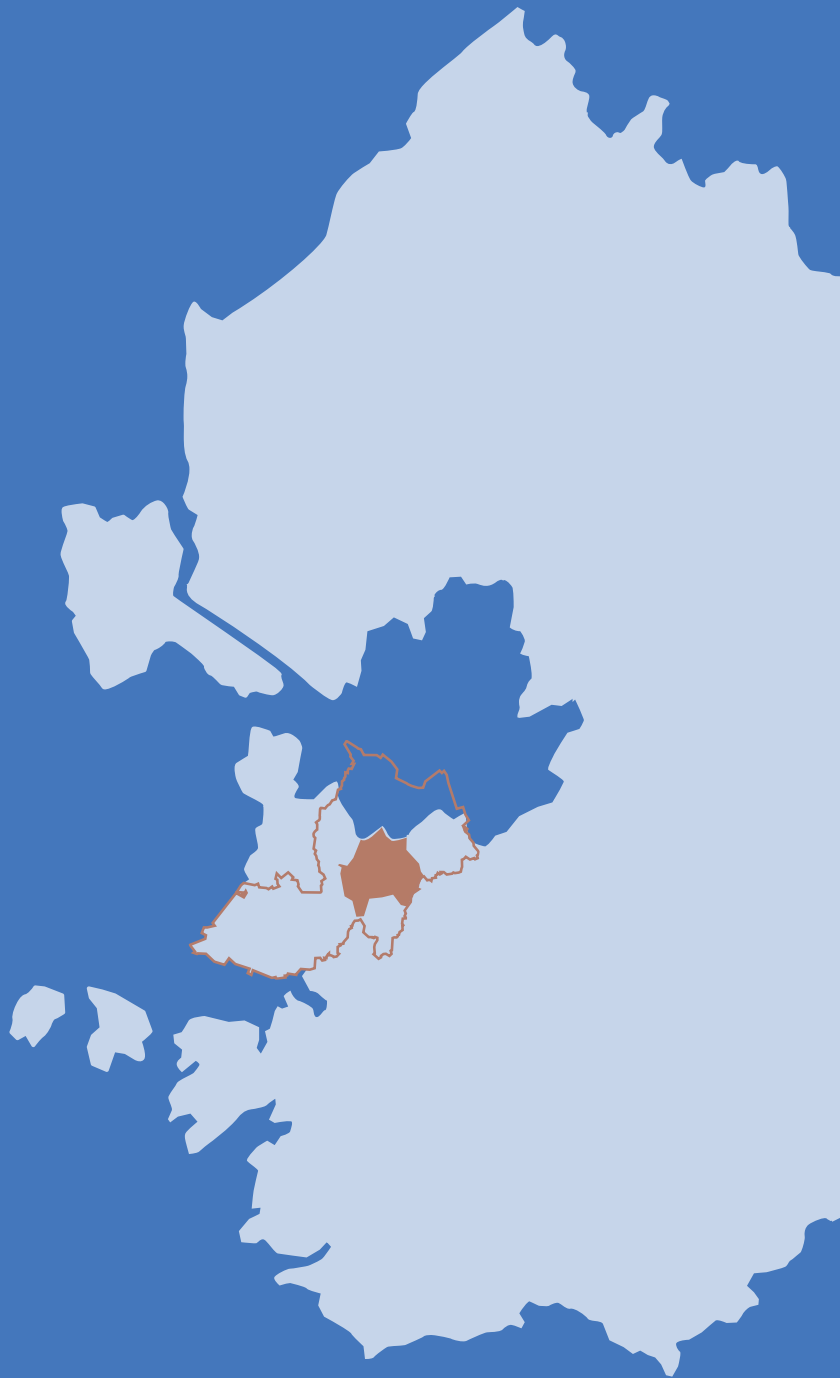
종래에는 농촌인 만큼 무슨 행사가 있을 때를 이용하여 연극·영화·만담 등 대회를 열어서 일반 민중의 노고를 위로하고 생산 의욕을 추진시키는 방법을 써 왔다. 연 1차의 씨름대회, 군민대운동회 같은 즐거운 날은 군민을 위하여 주최하기도 한다. 그리고 군내 각 면 대항의 농악·농민극·운동 등의 종합대회를 갖고자 입안 중에 있다. 이는 곧 추진케 될 것이다.

각 부락에는 종래의 농악이 있어 이를 ‘두레’라고 부른다. 이양·제초 등 농모^{農耗} 시에는 물론 단오·백중·추석 등 명절에는 청장년들이 주식^{酒食}을 서로 권하며 행락한다. 현대 과학 문명의 혜택을 모르고 생활하는 농민들에게도 없지 못할 행사이며 또 시설비도 비교적 적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어 즐길 수 있다는 모든 점으로 보아 군에서는 이를 가급적 장려하고 있다.

이 외에 제기·고누·장기 등이 전래되어 있으나 점차 감퇴되는 경향이 있다. 옛날에는 오늘날의 골프와 같은 장치기며 줄다리기 등 부락 대항의 경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군으로서는 이 중에서 농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가급적 부활시킬 방침이며 또 새로운 방법으로서 그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행사를 수시 개최할 방침으로 있다(차항 인문·풍토편 참고).

제3편

교육



제1장 초등교육

해방 당시의 학교 수 9교, 학급 수가 90학급 6228명이던 것이 금년(4282년 11월 15일 현재)으로 학교 14, 분교장 3교, 학당 수 122, 학급 수 194학급, 생도 수 1만 1789명이라는 비약적 확충과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지장이 없을 만한 교실과 시설의 완비를 보기까지에는 상당한 기일과 막대한 비용을 요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므로 예의銳意 노력 중에 있다.

현재 취학아동은 거의 빠짐없이 입학되고 있으며 만 7세까지도 대부분 수용되고 있으나 그 외 아동은 교실 부족으로 희망 아동도 다 수용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ECA⁴⁸ 물자를 기다리어 급속히 해결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부족 교실에 반하는 학교경영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각 학교는 2부 교수를 실시하고 물론 작업실·공회당 등 가능한 한도의 건물을 이용하여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고 있다.

48 ECA: 미국 경제협력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를 말한다. 1949년 1월부터 1953년 5월까지 미국의 원조법(FAA)과 1948년 12월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 협정」에 의거해 ECA 원조가 제공되어 경제안정과 자립경제 확립을 지원하였다. 이 기간 동안 지원액은 총 1조 920만 달러 규모였으며, 비료·농업용품·유류원료·공업설비·반제품 및 기술용역 등이 제공되었다.

국민학교

교명	소재지	창립연월일 (단기)	교실 수	학급 수	아동 수			경비
					남	여	계	
안양공립국민학교	안양읍 안양리 ⁴⁹	4261.7.6	19	29	1,245	869	2,214	2,860,000
시흥 "	동면 시흥리	4244.9.2	10	23	627	481	1,108	2,414,700
군자 "	군자면 거모리	4244.12.12	12	19	842	513	1,355	465,543
안산 "	수암면 수암리	4245.4.1	10	14	566	317	883	465,543
과천 "	과천면 관문리	4245.2.13	12	13	533	308	841	1,038,800
군포 "	남면 당리	4253.4.1	7	11	544	359	903	81,000
서면 "	서남면 소하리	4260.3.31	9	16	515	341	856	1677,837
신중 "	신동면 서초리	4269.2.15	6	12	510	325	835	480,000
신동 "	신동면 잠실리	4279.3.1	7	7	232	170	402	130,000
군서 "	군자면 정왕리	4280.4.30	6	13	454	216	670	1,200,000
화정 "	수암면 화정리	4280.4.30	6	10	379	226	605	455,000
흥안 "	안양읍 호계리	4278.9.25	4	6	223	169	392	429,200
운신 "	서면 온사리	4280.4.30	5	7	245	184	429	724,553
관양 "	안양읍 일동리	4279.9.1	3	6	192	140	332	517,000
삼성분교장	동면 안양리	4279.9.1	3	5	-	-	-	200,000
장곡분교장	군자면 장곡리 ⁵⁰	4282.6.1	2	2	-	-	-	100,000

49 원문에는 시흥리로 되어 있으나 안양리로 바로 잡았다.

50 장곡분교장의 소재지가 군자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장곡리를 보충해 넣었다.

01. 졸업자 진학 상황

경부선 연선^{沿線} 각 역 소재지 학교는 물론 그 부근 학교 졸업생은 대부분이 서울 각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경인선 방면의 군자·군서 등 학교는 인천시 중학교에 각각 진학하고 있다. 시대의 요청, 사조의 변천에 따라 실업교육 방면에 연년^{年年} 진학률이 높아가고 있으며 안양읍에 안양공립공업학교가 설립되자 안양국민학교는 물론 부근 학교의 아동 중 학자^{學資} 관계로 서울 진학을 주저하고 있던 중산계급의 자제들이 희약^{喜躍} 입학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학열이 매년 향상하고 있다.

단기 4281년도 졸업자 상황

교명	남녀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직자 수	가사 종사자 수	기타
			국립	공립	사립	계			
안양	남	135		42	32	102	31	30	
	여	70		10	18		15	27	
시흥	남	106	2	18	32	62	6	48	
	여	42		3	7		2	30	
군자	남	76	4	17	13	49		43	
	여	39		10	5			24	
안산	남	52		15	4	19		28	5
	여	11						11	
과천	남	44		19	8	28		17	
	여	17		1				16	
군포	남	47	2	16	5	27	5	18	1
	여	18			4			14	
서면	남	42		13	7	25		22	
	여	17		2	3			12	
신중	남	37		4	13	21	10	10	
	여	13			4			8	1
신동	남	26		1	1	24	3	4	
	여	29		1	4		3	21	
군서	남	56		2	4	28	18	10	
	여	12		1	2			8	

교명	남녀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직자 수	가사 종사자 수	기타
			국립	공립	사립	계			
화정	남	36					15	19	
	여	13					5	10	
흥안	남								
	여								
온신	남	35		3	7	15		25	
	여	25		3	2			20	
관양	남								
	여								

02. 보건교육 상황

종래에 등한하였던 위생교육에 일층 유의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 인체생리의 자각과 위생시설에 유의하여 소극적 방면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아동경기를 적극 장려하여 군내 연합운동회 개최, 관내외 경기대회에 참가(과거 우승 4종목) 등 체위 향상에 적극 노력 중이다.

학생 보건 상황

교명	검사생도 총수	개평요양호자 수	백 분 비	영양요주의자 수	백 분 비	호흡기 질환자 수	백 분 비	약시 및 근시자 수	백 분 비	도라 흙운자 수 ⁵¹	백 분 비	충치 있 는자의 수	백 분 비
안양	1,962	20	1	400	20	30	1.5	200	10	40	2	800	40
시흥	1,259	32	5	69				53	4	45	4	199	16
군자	1,218	59	4.5	42	3.4	2	0.2	17	1.3	7	1.5	33	2.7
안산	933	15	1.67	30	3.22	2	0.3	20	2.14	9	1.96	35	3.86
과천	800	19	2.38	32	4.00			7	0.15	15	0.88	89	11.12
군포	827	15	1.81	20	2.42	5	0.6	20	2.42	22	2.66	40	4.84
서면	807	38	4.7	61	7.5	2	0.2	7	0.8	15	2	35	4

51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원문대로 하였다.

교명	검사생도 총수	개평요양호자 수	백 분 비	영양요주의자 수	백 분 비	호흡기 질환자 수	백 분 비	약시 및 근시자수	백 분 비	도라 흙운자 수	백 분 비	총치 있 는자의 수	백 분 비
신중	733	21	3.7	20	2.6	3	0.4	8	1.2	12	2	6	0.9
신동	378	16	4	11	3	2	0.4	5	0.4	6	1.6	13	3.5
군서	412	11	3.5	15	3.1							20	4.3
화정	507	1	0.2	13	2.5	3	0.6	7	0.1	4	0.8	7	0.4
흥안	312	17	5.4	23	7.3			2	0.6			21	6.7
온신	399	5	13	67	17			14	0.5	2	0.5	46	1.2
관양	306	33	10.7					3	0.9	26	8.5	40	13

03. 학교 설비

현금^{現金} 위의 일람표에 보는바 제 방면에 있어서 대단히 빈약한 현상이나 교실 증축은 물론 이에 따르는 부설 건물과 학교원^{學校園}·실습원^{實習園} 등 미비한 학교는 과학교육, 관찰 교육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노력하고 있다.

국민학교 설비 현황

교명	건물				보건장 (평)	학교원 교재원	실습지(평)			직원 주택동 수		
	보통교실	특수교실	강당	기타건물			계	전	답	산림	동	평
안양	17	2			19	2,000		300	800		1	17
시흥	8			2	10	2,505	850	265	150		1	18
군자	10			1	11	2,206	230	1,441	468		2	39.5
안산	10				10	2,370	35	540		15	2	27
과천	9			2	11	1,950	520		3		1	16
군포	7				7	1,000	680		2,100		1	7
서면	8			1	9	1,140	30	3,278			4	52
신중	6				6	1,093	30	301			3	125
신동	6	2		2	10	1,514	50	1,670			4	53
군서	5				5	600					1	8
화정	6				6	1,000	30	682			1	21

교명	건물				보건장 (평)	학교원 교재원	실습지(평)			직원 주택동 수		
	보통교실	특수교실	강당	기타건물			계	전	답	산림	동	평
흥안	4			1	5	1,000					1	10
온신	5				5	2,940	811				1	12
관양	3			1	4	130	150				1	11

04. 특수시설

명칭	소재지	창립 연월일	건평 수	수용력	사용률(%)		비고
					본군	군외	
임간 ^{林間} 학교	동면 안양리	4282. 8. 3	31	100	85	15	

본군 동면 안양리 관악산 서쪽 삼림 울창하며 계수여옥^{溪水如玉}하고 공기 청정하니 그 가경^{佳景}은 일찍이 안양풀을 이룩케 하였나니 차지^{此地}의 교육적 활용을 유의하여 오던 중 본군 아동의 선호와 자연 관찰 교수의 특수한 교육을 위하여 나타남이 임간학교이다.

4282년 8월에 착공 동월 말에 준공하자 각 학교는 다투어 이를 이용하니 아동의 보건 위생은 물론 자연관찰 교육에 다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2장

성인교육

성인교육사업으로 회고하건대 우리 대한민국은 5천 년의 장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갖춘 우수 민족으로서 7할 이상의 대다수가 문맹이라는 것도 전 세계에 타국에 비추어 드문 사실이다. 이는 또한 왜정 40년간의 식민지 교육에서 우리의 교육이 뒤떨어졌음은 확실한 사실인바 독립국가를 건설함에는 도저到底 불가능하다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렇듯 문화수준이 낮은 나라는 결코 패망국으로 되고 말 것이므로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야 그대로 독립을 기대하는 것보다 우선爲先 무지와 문맹을 일소하여 공민公民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 급선急先임을 깨닫고 군정軍政으로부터 중앙에는 문교부에 성인교육국을 설치하고 중앙성인교육협회 총본부가 발족하여 도·군·읍·면 하부에 이르기까지 지부조직이 설치되었다.

본군 협회는 4282년 2월 8일에 조직하고 국문개학운동國文皆學運動을 전개하여 각 부락에 국문강습회를 설치하고 이어서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를 설치하여 현재 공민학교 15개교가 개설되고 생도 수는 952명에 달한다. 금년으로부터 6개년 사업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금월 말까지 군내 각 읍·면·동리별로 기설既設 공민학교公民學校 외 61개교를 설치 중이고 고등공민학교는 5개교 설립하였던 중 도립·구로 2개교는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되어 현재는 3개교 생도 수가 468명에 달한다. 군내 각 읍면에 설치 안 된 면에는 금월 말까지에 1개교씩 설치키로 되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공민학교

교명	소재지	수업 연한	학급 수	교원 수	생도 수			4281년도까지의 졸업자	4281년도 경비
					남	여	계		
화정	수암면 화정리	1	1	1	32	20	52	52	면비(面費) 부담 외 면지부 보조
신동	신동면 양재리	1	2	2	104	20	124	72	12,000원
조직(朝織)	안양읍 안양리	1	1	2		42	42	43	회사경영 부담
안양	동(洞)	1	1	1	20	23	43	43	면지부(支部) 부담
안양직물	동	1	1	1		23	23	20	회사경영 부담
고려석면	동	1	1	1	25	19	44	40	동
삼왕제지	동	1	1	1	35	11	46	32	동
군자염전	군자면 정왕리	1	1	1	10	35	45	42	염전분국 경비
호현	서면 박달리	1	1	1	35	15	5	35	면지부 보조 부락(部落) 부담
일동	안양읍 안양리	1	1	1	14	64	78	71	면지부 부담
조선전선	동면 수산리	1	3	3	50	65	115	82	회사경비 부담 90,000원
오이도	군자면 정왕리	1	1	11	52	20	72	60	부락 부담
조선견직	동면 안양리	1	1	1	20	40	60	52	회사경비 부담
사당	신동면 사당리	2	1	3	20	35	55		부락 부담
신원	신동면 신원리	2	2	1	42	61	103		동

고등공민학교

교명	소재지	수업 연한	학급 수	교원 수	생도 수			비고
					남	여	계	
안양 고등공민학교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3	4	7	220		220	단기 4281.5.7 인가 설립자 박영래
신동 고등공민학교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3	2	5	100		100	단기 4281.8.10 인가 설립자 한대흠
안산 고등공민학교	시흥군 수암면 장상리	3	4	3	148		148	단기 4282.9.22 인가 설립자 유지연
계		9	10	15	468		468	

국문 보급 상황

읍면별	남	여	계
안양읍	6,850	5,644	12,494
신동	3,256	2,532	5,788
과천	1,569	1,229	2,798
동면	6,500	5,000	11,500
서면	2,673	2,579	5,252
남면	1,735	1,281	3,006
수암	4,747	4,377	9,121
군자	3,127	3,110	6,237
계	28,947	27,252	56,199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국문 미해자^{未解者} 수가 상당히 많아 실로 유감이던바 해방 이후에 성인교육이 전개되어 계몽운동에 노력한 결과로 7할 이상의 문맹이 퇴치되어 현재의 해독자는 13세 이상의 미취학아동 및 청장년층이요, 대부분의 노인층과 부녀자층이 미해자로 되어 있다. 이 층에서는 이제 뒤늦게 글을 배워 무엇 하느냐는 식이므로 전 군민이 완전히 국문을 해독시키기는 다른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장

중등교육

01. 안양공립공업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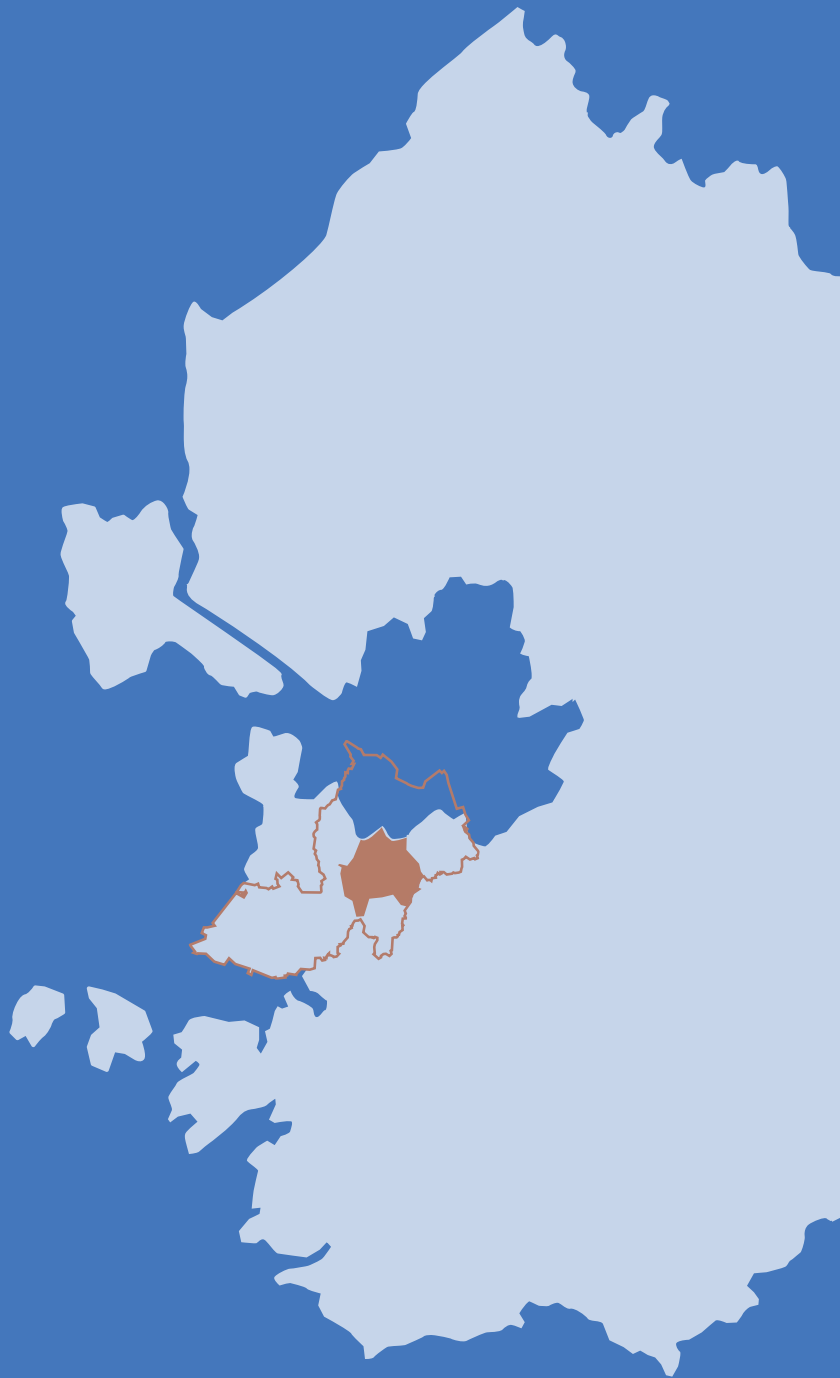
본군의 중학교육은 아직 발아기^{發芽期}에 있다. 이는 적치^{敵治} 연간에는 일정^{日政}의 식민지 정책에 기한 우리 민족의 교육 억압책으로 일어교육을 위한 초등교육에만 전념했던 까닭으로 해방 전까지 단 1교의 중등교육기관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군민의 향학열은 절정에 달하여 단기 4280년 12월 31일 수업연한 6년인 안양중학교의 설립 인가를 얻었고 재단법인 시흥학원의 창립도 동시에 발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군민으로서는 이에 만족치 않고 기필코 공립중학교 건설에까지 매진하자는 결의로 추진시키어 4282년 1월에 도에 이관되어 안양공립중학교의 인가를 얻는 동시에 안양읍이 본도 제1위의 공도인 만큼 공업중학교에 대한 열망이 있어 염직^{染織}·전기 2과를 두기로 하고 교명도 안양공립공업중학교로 변경시키었다. 현재 동교는 염직·전기 양 과에 각 6학급으로 생도 정원은 600명이다.

02. 안양여자중학교

남자중학교의 설립과 함께 여자중학에 대한 요망이 있어 군에서는 다시 여자중학기성회^{女子中學期成會}를 조직하고 이를 적극 추진시킨 보람이 있어 임시로 조선직물^{朝鮮織物}의 건물을 교사에 충당하고 개교를 보아 남녀 중등학교의 완성을 보았다.

제4편 산업



제1장 농업

이. 농정

가. 농정農政

우리나라 자체가 총인구의 8할강이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농본국이듯이 본도가 그러하고 본군 또한 이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군민의 생계는 오로지 이 농영農營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고 행정부면에 있어서의 세입도 또한 이 영농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이 국민의 절대 대다수가 생명을 의존하고 국가가 또한 일체의 세입자원을 농사에 구하고 있으면서도 과거 우리 국민은 이 영농기술의 연마에는 추호의 노력도 안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소위 당쟁에 겨름이 없었고 왜국이 내침한 후로는 우리 국민의 발전보다도 자기네의 생활 안정을 제1의적第一義的으로 하는 방법을 세워 철두철미 우리 민족을 노예화하고 우리 국토를 식민지화하는 데만 주력했던 것이다. 소위 농촌진흥운동도 일으켰고 농지령農地令도 선포하여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자기네 종족의 식량 확보와 균량미 보장을 위한 정책이었고 이 국토에 사는 민생고를 해결하려는 도의심道義心에 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소극적이었고 미봉책이어서 농지는 기름을 짜고 난 깻묵처럼

림 기름기가 없어졌고 농민들은 음양으로 착취만 당하여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비참한 상태를 면키 어려웠던 것이다.

본군은 경성부京城府와 인접해 있었던 만큼 이 피해도 막심하였으니 지리적으로 유리한 만큼 대부분의 농경지와 기업체는 갖은 사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저희들 종족의 수중에 넣었고 또 넣도록 알선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군내에서도 가장 비옥한 경작지의 대부분은 일인의 소유로 화해 버리었고 임야가 그러했고 유리한 일체의 기업체가 또한 그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뿐이 아니다. 외관으로는 그럴듯하면서도 우리 농업을 위한 모든 법규가 예를 들면 토지개량이니 수리조합이니 산업증산 계획하는 등속의 법령은 그 주목적이 자국민의 생활 안정과 전쟁 수행 목적에 영합시키기에만 급급했을 뿐이지 우리 국민의 대부분인 농민들의 행복을 위한 항구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우리 농민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일지라도 자국민에게 큰 필요를 안 느끼는 것이면 이를 장려는커녕 저해했던 사실을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었으니 자국에 풍년이 들어 다량의 식량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그 측석에서 소위 미국정부매상米穀政府買上을 중지해서 농민들의 한혈汗血의 결정이요 농민들의 유일한 환금換金 대상인 양곡을 우리에게 그다지 필요치도 않은 자국의 상품과 교환시키는 등 그 도국민島國民의 본성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갖은 술책에 우리네 농민들은 실로 절치부심했던 것이다.

그러다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군정 3년간은 통제경제에서 일조一朝에 자유경제로 해방된 농민 자체의 정신적 배치와 정치의 혼란, 조류처럼 밀려든 외국자본과 상품 등의 영향을 받아 일부에서는 유위有爲의 지도자들이 눈부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如意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이 군정 3년간의 농민들의 몽리蒙利라면 소작료의 3:1제⁵²가 제정된 것뿐이었고 정신적으로는 외국 비료에의 의뢰심依賴心과 과거 적지 연간에 마음에 품었던 원한으로 선도하는 지도자에게까지 항거하는 심리적 작용을 하는 등 40년간 황폐이

52 1945년 10월 5일 미군정법령 제9호「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을 발표하여 최고 소작료가 수확량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소작료 3:1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실시하였다.

던 농토는 의연 황폐한 대로였다.

이 농경지의 황폐화와 농민의 정신적 배치, 비료의 공급, 농민들의 부동성(浮動性) 회유, 애토(愛土) 사상으로의 환원, 기후풍토의 적급성(適急性) 여부에 관한 연구와 그 영농법의 과학적 기술연마 — 이 허다한 무거운 짐이 신생 대한민국 농림부(農林部)의 두 어깨에 내려 덮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정부는 수리조합의 신설 및 수리·영농법의 근본적 개혁, 종자의 개량, 자급비료의 생산추진, 적치하(敵治下) 금지되었던 양잠의 부활, 토지의 개량, 소작관계의 정비 등 농정에 관한 성안(成案)을 보아 이를 도·군·면의 말단에까지 적극 추진의 방법을 고려키로 되었던 것이다. 이 국가의 지상명령은 본군에도 물론 시달되어 군민의 대부분이 농민인 만큼 이 농정사업 추진에 심혈을 경주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농민 자신의 자각에 기함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농본국으로서 한국의 지위와 농본국 국민으로서의 굳은 이념 배양에 주력하는 한편 적치 연간에 유형·무형으로 지도자층에 침투되었던 관료주의·억압주의를 자가(自家) 청산키 위하여 직원의 재교육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적재적소의 인원 배정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지도자와 농민 간의 친선감을 조성하면서 지도원리의 민주화 운동을 추진시키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의 대중화에 착안하고 농업보도소(農業補導所)의 설치, 기술원 양성, 4H 농촌구락부(農村俱樂部)의 근본정신의 함양 등 각 부면을 통해서 토지의 고도 활용과 합리적 시비법의 교도, 종래의 원시적이요 봉건적인 영농에서 탈피하여 다각적 농작법과 과학적 영농으로써 생산 증강에 주력을 하였다.

그리고 38장벽으로 하여 두절된 비료의 자급을 기하고자 가능한 범위에서 유축농업(有畜農業)을 적극 장려하여 퇴비증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녹비(綠肥)·구비(廐肥)·인노비(人尿肥)·목회비(木灰肥)의 자가 생산을 추진시키고 다량 적비자(積肥者)를 표창, 포·시상하는 등 유효적절한 시비(施肥)를 다하기로 했다.

나. 영농의 합리화

군에서는 농정상의 이러한 질적 향상을 피하는 한편 기술 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였다. 즉 비료의 증산과 함께 종자 갱신의 철저를 기하고 적치 말기의 소위 총력전 운운으로 품종의 개량과 질적 향상의 항구책보다도 모래로 제방을 쌓는 식의 일시적인 미봉책으로서만 구급책을 삼았을뿐더러 전력이 여지없이 기율자 들보가 음으로 방천(防川)을 하는 격의 자멸책으로 인하여 농토는 기름기를 잃고 품질은 저하되었으므로 이의 만회를 책(策)하여

백년대계를 세웠던 것이다.

본군에서는 은방주銀坊主와 풍옥豐玉⁵³이 대부분을 점하고 곡량도穀良都·중은中銀·조광朝光·서광瑞光·애국愛國이 혼용되고 있다. 종자의 개혁과 함께 수도병水稻病에 대한 항구책으로서 종자의 염수선鹽水選⁵⁴을 장려하고 이것이 불능한 종자에는 포르말린·멜크롱 등으로 곡균穀菌을 여행勵行케 하고 도열병稻熱病 예방과 구제에 관한 상식을 양성시키는 동시에 구포이드⁵⁵를 구입 알선도 하였고 소주밀식小株密植⁵⁶이 수도水稻 재배상 가장 효과적이므로 이를 적극 장려하였고 농지의 약 40%가 강우에만 의존하는 천수답이므로 이양용수移秧用水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2단식 묘대(苗迭, 뭇자리)의 설치도 고려하여 최소한 군민 1인당 1석의 생산 목표에 도달시키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다. 환지換地

그래로 우리 민족은 미米를 주식主食으로 하는 관습이 전래해 와서 미 이외의 농산물에는 아주 등한시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과거 쇠국주의를 견지해 오던 시대는 더 말한 것도 없거니와 적지 연간에는 그들은 자국의 식량 부족을 보충할 필요에서 우리 미작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전작田作에는 추호의 노력도 하지 않아서 관념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전곡田穀은 부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았다. 수도水稻 종자에는 시험장을 두어 개량에도 주력하였으나 맥작麥作은 재래종으로 원시적 재배를 그대로 계속한 관계로 도의 원조를 얻어서 종자의 개량은 물론, 강우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천수답을 전작으로 전환시킬 필요를 느끼어 이의 실천을 장려하는 한편 미쌀 주식의 관련을 일소하여 혼식 여행勵行을 기하였다.

이 미 주식 관념과 관습은 우리 민족의 보건상 절대로 재비판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한 인체가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BCD가 다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화된 문제이다. 미의 주성분이 열량(칼로리)을 급여하는 반면에 칼슘 성분과 철분의 요소가 전무하여 미 주식만으로는 실조失調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고 같은 미 중에서도 백미 주식의 악폐는 하루바삐 시

53 은방주와 풍옥: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어 육종育種된 벼 품종이다.

54 염수선: 벼나 보리 따위의 씨를 소금물에 담가서 뜨는 것은 버리고 가라앉은 것은 종자용으로 가려내는 일.

55 구포이드(gupoid): 규산등을 주성분으로 하며 교질성 벤토나이트(bentonite)를 배합한 살균제.

56 소주밀식: 벼의 재식栽植밀도는 단위면적당 포기 수와 포기당 모 수의 다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같은 모 수를 가지고 단위면적당 포기 수를 증가하여 밀식하되 한 포기당 모 수는 적게 하여 이양하는 방법이다.

정되어야 할 급한 문제이므로 이의 재인식을 장려하였다. 미 속에는 오직 비타민 B₁과 B₂를 약간 함유하고 있을 뿐 이것도 현미인 경우에는 0.35가, 백미 때에는 0.25, 7분도미는 0.20, 백미로 도정하면 0.35이던 것이 겨우 0.07이 남을 뿐이다.

도정도 搗精度	원료미	세미 洗米	밥
현미	0.35	0.30	0.25
도정미	0.25	0.20	0.16
7분도정미	0.20	0.13	0.10
백미	0.07	0	0

이 표에 나타나듯이 백미를 씻어서 밥을 지어 놓으면 비타민B₁·B₂는 완전히 영(0)이 되어 버리는 무서운 사실을 일반 민중에게 인식시킨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만난 萬難을 무릅쓰고라도 재인식시키어 우리 군민 아니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킬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의 철저를 기하게 되면 미 주식의 악폐 시정으로 식량의 자급도 기할 수 있거니와 구민의 체위 향상에 큰 공헌을 하므로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과수·소채·약초 등 전작의 다각적 재배에 예의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라. 곡물 검사

미곡 및 맥류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조·조제·포장 등 개량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곡물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본군 내 산물 검사실적은 미곡에는 불합격품이 약간밖에 없었으나 대맥(大麥, 보리)에 있어서는 극히 불량하여 불합격품이 총 검사 수 7441입(畝, 가마)에 대하여 2045입(2할 7분강)이라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의 적극 개량이 요망되고 있다.

곡물 검사 상황

단위: 입

종별 ⁵⁷	검사 총수	합격 석수 ^{石數}	불합격 석수	비고
정조 ^{正租}	86,621	84,847	1,774	
백미 ^{白米}	60,688	60,480	108	
백새미 ^{白碎米}	221	221		
대맥 ^{大麥}	7,441	5,396	2,045	
나맥 ^{裸麥}	2	2		
정맥 ^{精麥}	8,652	8,645	7	
소맥 ^{小麥}	47	42	5	
호맥 ^{胡麥}	31	26	5	

마. 수집

일정시대에 있어서는 마·맥·두류·잡곡에 이르기까지 소위 공출^{供出}을 강행하여 왔는데, 특히 마·맥은 거의 생산품의 5할 정도를 공출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정치 면의 불안정 및 치안과 경제 면의 혼란 등으로 일시는 자유수급 체제대로 방치한 형편이었는데 차차 통제 수급 체제를 실시하게 된 미군정 방침에 의하여 소작료를 원칙으로 한 마·맥의 수집이 실시되었고 그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는 식량국가관리정책하에 양곡국가매상^{糧穀國家買上}을 실시 중에 있다.

그 실적을 들면 다음과 같다.

주요농작물(마·맥) 수집량 누계비교

연차별	미곡 ^(精搗石)	맥류 ^(精搗石)	생산량에 대한 수집량 비율(%)		비고
			미곡	맥류	
4278	15,502		21.46		
4279	14,587		34.89		
4280	27,300	2,123	47.33	36.75	
4281	22,100	2,054	34.33	41.19	단기 4281년산 마·맥에 대한 매상량 ^{買上量}

57 곡물 검사 상황표에 나오는 곡물에서 정조는 벼, 백미는 쌀, 백새미는 싸라기, 대맥은 보리, 나맥은 쌀보리, 정맥은 속꺼풀을 벗긴 보리 쌀, 소맥은 밀, 호맥은 호밀을 말한다.

바. 식산(殖産) 가공품

가공품으로는 특수한 것이 없고 다만 농가 부업으로서 예년 장려하여 오는 연(筵, 명석), 입(屐, 가마니), 승(繩, 새끼) 등이 있을 뿐이다. 일정 당시에는 강력한 장려로 일시 상당량의 생산을 올린 때도 있었고 해방 이후는 생산이 점감(漸減)되어 현재는 명석의 생산은 전혀 없고 가마니가 연산(年産) 약 1만 매(枚), 새끼가 약 250여 관(貫)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장려가 요청되는 동시에 농가의 협조를 요망하고 있다.

식산 가공품 생산 상황

종별	생산고	단가	생산가격
가마니(屐)	9,946매	60원	585,160원
새끼(繩)	251관	65원	16,815원

사. 농업창고

시흥군농회(始興郡農會)에서 경영하고 있는 농업창고 5동(건평 400평)이 있는데 그 공포(公布) 상황은 안양을 위시하여 동·남·수암·군자 각 면으로 되어 있고 모두 국가 매상(米) 양곡, 배급양곡, 비료 등 보관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농업창고 분포상황

경영별	동 수	건평 수	소재지별 동 수 및 건평 수
시흥군농회	5	400	안양읍 안양리 1동 100평
			동면 시흥리 1동 50평
			수암면 수암리 1동 50평
			군자면 거모리 1동 100평
			남면 당리 1동 100평

아. 산업단체

본군에는 군내 산업을 융성케 하기 위한 지도기관으로서 각 부분에 걸쳐 협조·지도에

노력하고 생산자를 대신하여 종자 개량·알선, 비료 구입, 기타 일체의 물자 수입과 생산품 수출에까지 협조하여 생산 의욕 조장에 진력하고 있다. 특히 본군에는 본도 유일한 국립·관립의 연구소가 있어 다대한 지도를 받고 있다.

이제 이를 열거하면 국립종축장(國立種畜場)·가축연구소(家畜研究所)에서는 가축 전반에 걸쳐 종자의 개량, 일반 가축의 병역방지와 예방·시료, 사료의 연구를 거듭하여 지도에 힘쓰고 있고 임업연구소(林業研究所)에 임업시험장(林業試驗場)과 국립서울대학 연습림(演習林)이 있어 조림(造林)·종묘(種苗)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곡물검사소(穀物檢査所)에서는 미곡의 종자 개량과 품질 검사에 주력을 경주하고 있다.

농회(農會)와 농촌구락부(農村俱樂部)가 수행하고 있는 임무는 실로 큰 바 있으며 이외에는 일반 산업진흥을 위하여 군내 축산가를 망라한 축산협회(畜産協會), 소채업자(蔬菜業者)로 편성된 원예협회(園藝協會), 과수업자로서 집성을 본 과수협회(果樹協會), 도미산협회(道米産協會) 지부 등이 있어 각기 자기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서 혹은 종자 개량에 진력하고 혹은 사료·비료의 알선 및 생산품의 검사지도, 심지어 생산품 매매알선까지 하고 있다. 또 농사교도소(農事敎導所)가 있어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나 수시질의하면 응답하여 주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02. 농경지

가. 관개수리상황

답 경지면적이 7241정(町) 2반(反)인데 그중 보(淤)의 설치, 양수기의 비치,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의 설치 등 수리 설비에 의한 몽리면적(蒙利面積)이 약 1500여 정보(町步)요, 자연적으로 비교적 수리조건이 편리한 면적이 3200여 정보인데 그 나머지 2500여 정보는 전연 수리불안전한 천수답(天水답)으로 앞으로의 수리시설이 시급히 요망된다. 그 상황을 비율로 표시하면 수리안전답이 2할 1푼, 수리편답이 4할 4푼, 수리불안전 천수답이 3할 5푼에 해당한다.

나. 경지면적

가. 총 경지면적

총 경지면적이 1만 2028정 2반인데 그중 수답(水답)이 7241정 8반, 전(田)이 4786정 4반

으로 답·전을 구분 고찰하면 총 경지면적에 비하여 답이 6할 0푼이고 전이 4할 0푼에 해당한다.

이를 다시 면별로 경지면적의 광협(廣狹)을 개관하면 군자면이 수위로 2300여 정보, 그다음 수암면이 2100여 정보, 그 외 읍·면은 각각 2000정보 내외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ㄴ. 자·소작별 경작면적

자작(自作) 면적이 4672정 2반, 소작(小作) 면적이 7356정보로 총 경지면적에 대비하면 자작 면적이 3할 9푼, 소작 면적이 6할 1푼에 해당한다. 이를 일정 해방 당시와 비하면 해방 후 민주국책(民主國策)으로서 농지개혁(農地改革)이 실시될 것을 예측한 지주계급의 농지 방매(放賣)와 소작료의 3분의 1제 실시로 인한 농촌경제의 향상 등 관계로 불과 수년간에 자작 면적이 격증되었다. 이를 숫자로 표시하면 해방 당시에 비하여 답 면적에 있어 약 800정보, 전 면적에 있어 약 400정보 합계 1300여 정보가 증가되었고 비율로 보아 해당 당시 2할 8푼이던 것이 1할 1푼이 증가되었다.

ㄷ. 농가 1호당 경작면적

농가 1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답이 정(町) 7반(反), 전이 정 4반 5묘(畝), 합계 1정 1반 5묘인데 이를 경작형태 농가별로 고찰하면 자작농에 있어 1정 4반 6묘, 자작 겸 소작농에 있어 1정 4반 4묘, 소작농에 있어 정 7반 3묘이다. 다시 면별로 1호당 경작면적의 광협을 개관하면 수암면이 수위로 1정 3반 1묘, 과천면이 최하로 정 9반 6묘, 그 외 읍·면은 대략 1정보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이다.

ㄹ. 부표(附表)

부표 1. 답·전별 경지면적 표

읍면별	답(정·반)			전 (정·반)	합계 (정·반)	답전 비율(%)		농가 1호당 경작면적(묘)		
	일모작	이모작	계			답	전	답	전	계
안양읍	714.8		714.8	583.3	1,298.3	55	45	58	47	105
과천면	380.7	55.7	436.4	449.8	886.2	50	50	47	49	96
신동면	737.6	1.9	739.5	628.0	1,367.5	54	46	60	51	111
동면	1,077.4		1,077.4	641.2	1,718.6	63	37	70	42	112
서면	1,035.4	11.3	1,046.7	522.3	1,569.0	67	33	70	35	105

읍면별	답(정·반)			전 (정·반)	합계 (정·반)	답전 비율(%)		농가 1호당 경작면적(묘)		
	일모작	이모작	계			답	전	답	전	계
남면	396.1		396.1	291.5	687.6	58	42	67	49	116
수암면	1,340.7	10.7	1,351.4	834.8	2,186.2	62	38	81	50	131
군자면	1,464.0	15.5	1,479.5	835.3	2,314.8	64	36	82	46	128
계	7,146.7	95.1	7,241.8	4,786.4	12,028.2	60	40	70	45	115

부표 2. 자·소작별 경지면적 표

단위: 정·반

읍면별	종별	자작 면적			소작 면적			합계
		자작 겸 소작의 자작	순자작	계	자작 겸 소작의 소작	순소작	계	
안양읍	답	91.9	8.8	100.7	392.9	221.2	614.1	714.8
	전	189.4	20.0	209.4	280.4	93.7	374.1	583.5
과천면	답	173.8	71.7	245.5	130.2	60.7	190.9	436.4
	전	167.0	80.0	247.0	124.5	78.3	202.8	449.8
신동면	답	147.0	102.5	249.5	324.1	165.9	490.0	739.5
	전	237.4	183.2	420.7	134.4	72.9	207.3	628.0
동면	답	171.9	139.6	311.5	232.2	533.7	765.9	1,077.4
	전	163.8	106.0	269.8	199.9	171.5	371.4	641.2
서면	답	272.0	146.7	418.7	283.2	344.8	628.0	1,046.7
	전	150.5	84.5	235.0	161.8	125.5	287.3	522.3
남면	답	138.8	34.4	173.2	101.3	121.6	222.9	396.1
	전	78.1	19.4	97.5	88.0	106.0	194.0	291.5
수암면	답	210.1	100.9	311.0	642.0	398.4	1,040.4	1,351.4
	전	184.1	85.1	269.2	362.0	203.6	565.6	834.8
군자면	답	417.0	245.4	662.4	394.9	422.2	817.1	1,479.5
	전	346.1	105.0	451.1	253.0	131.2	384.2	835.3
계	답	1,622.5	850.0	2,472.5	2,500.8	2,268.5	4,769.3	7,241.8
	전	1,516.4	683.3	2,199.7	1,604.0	982.7	2,586.7	4,786.4

부표 3. 자·소작별 경지면적 누년累年 비교표

연도별	자작 면적(정·반)			소작 면적(정·반)			자·소작 비율(%)					
							자작			소작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평균	답	전	평균
4278	1,645.7	1,781.2	3,426.9	5,613.9	3,064.6	8,678.5	23	37	28	77	63	72
4279	1,645.7	1,781.2	3,426.9	5,613.9	3,064.6	8,678.5	23	37	28	77	63	72
4280	2,020.5	1,851.3	3,781.8	5,332.9	2,874.7	8,207.7	27	39	32	73	61	68
4281	2,472.5	2,199.7	4,672.2	4,769.3	2,586.7	7,356.0	34	46	39	66	54	61

부표 4. 자·소작별 농가 1호당 경작면적 누년 비교표

연도별	경작형태별 면적(정·반)			경작형태별 호수(호)			경작형태별 1호당 경작면적(묘)		
	자작농	자작 겸 소작농	소작농	자작농	자작 겸 소작농	소작농	자작농	자작 겸 소작농	소작농
4278	1,080.2	6,079.3	4,946.0	584	2,457	6,484	185	247	76
4279	1,080.2	6,079.3	4,946.0	619	3,006	5,917	175	202	84
4280	1,278.8	6,528.5	4,472.0	750	3,800	5,400	171	172	83
4281	1,533.3	7,243.7	3,251.2	1,050	5,038	4,447	146	144	73

03. 농업자

가. 국적별 농가호수

한국인 농가호수 1만 513호, 외국인 농가호수는 단지 중국인 22호가 동면에 있어 소채 경작에 종사하고 있다. 해방 당시에 비하여 귀환 전재동포와 월남 이재동포의 입주, 지주계급의 자작 등으로 인하여 약 1000호의 한국인 농가가 증가되었고 외국인 농가호수에 있어서는 일본인 및 외국인의 퇴거로 인하여 약간 감소되었다.

나. 업태별 농가호수

농업에 전업종사하는 농가가 9311호, 공무원·회사원·상공인 등을 겸업하는 농가가 1224호이고 이를 비율로 보면 거의 9할 정도가 전업농가이고 1할 정도가 겸업농가이다.

다. 경작형태별 농가호수

자작농가 1050호, 자작 겸 소작농가 5038호, 소작농가 4447호로 그 비율은 자작농가 10할 0푼, 자작 겸 소작농가 4할 8푼, 소작농가 4할 2푼이다. 이를 일정 해방 당시에 비하면 자작농에 있어서 약 500호, 자작 겸 소작에 있어서 약 2500호의 증가이고 그 반면에 소작은 약 2000여 호가 감소되었다.

라. 경작형태별 농업인구수

총 농가인구수 6만 1355명(전 인구의 59.9%) 그중 자작농가의 인구수 7723명(1호당 7인), 자작 겸 소작농가의 인구수 2만 5692명(1호당 5인), 소작농가의 인구수 2만 6772명(1호당 5인)이며 그 외 농업 피용자^{被傭者}⁵⁸가 1166명이다.

마. 부표

부표 1. 국적 및 영농형태별 농가호수 표

읍면별	농가 총호수	국적별 호수		업태별 호수		경작별 호수		
		한국인	중국인	전업	겸업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
안양읍	1,245	1,245		997	248	27	868	350
과천면	926	926		883	43	94	571	261
신동면	1,230	1,230		1,193	37	95	411	724
동면	1,538	1,516	22	1,403	135	213	403	922
서면	1,505	1,505		1,223	282	120	949	436
남면	595	595		380	215	87	168	340
수암면	1,678	1,678		1,551	127	169	843	66
군자면	1,818	1,818		1,681	137	245	825	748
계	10,535	10,513	22	9,311	1,224	1,050	5,038	4,447

58 피용자: 노동 계약에 의해 임금을 받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피용인).

부표 2. 경작형태별 농업인구 표

읍면별	자작	자작 겸 소작	소작	농업 피용자	합계
안양읍	162	4,868	1,979	333	7,342
과천면	698	2,897	1,568	89	5,052
신동면	933	3,661	1,809	135	6,536
동면	1,490	2,546	5,433	107	9,576
서면	1,342	2,305	4,610	113	8,370
남면	734	1,424	1,072	94	3,324
수암면	1,164	3,664	5,003	150	9,982
군자면	1,203	4,227	5,498	145	11,173
계	7,724	25,692	26,772	1,166	61,355

04. 농작물

가. 보통농작물

ㄱ. 미작^{米作}

작부반별^{作付反別}⁵⁹ 6280정보로 답 면적의 8할 7푼^[작부부不作付 면적 및 휴반畦畔 면적의 비율을 제외한 비율]에 해당하고 면별로 대별하면 수암면과 군자면이 각각 1000여 정보이고 그 외 읍면은 1000정보 미만이다. 수확량은 6만 4395석(반당 1석 25홉)으로 예년 특히 일정 당시에 비하면 1만여 석이 증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해방 전의 수년간 계속하던 한발^{旱魃}이 일정 해방 이후는 천우신조로 매년 순조로운 천후^{天候}의 자연적 혜택을 입음과 또 한편 농민의 자농^{自農意識}이 양양^{昂揚}되어 작부면적에 있어서나 반당^{反當} 수량^{收量}에 있어서나 상당한 증진을 보이고 있다.

작부 품종을 개요하면 풍옥^{豐玉}이 단연 수위로 4할 1푼이고 팔달^{八達} 및 중생은방주^{中生銀坊主}가 각각 1할 8푼 정도인데 앞으로는 팔달종이 점차 보급될 것이 예상된다.

59 작부반별: 작부단별^{作付段別}, 정^町·단^段·묘^畝·보^步 등으로 나타낸 논밭의 넓이를 말한다. 작부는 작물을 심는다는 뜻이므로, 경작면적 또는 재배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ㄴ. 맥작麥作

작부반별 1634정 2반으로 전 면적의 3할 4푼에 해당하고 예년 특히 해방 전에 비하면 거의 반감^{半減} 이상으로 축소된 현상인데 그 원인은 일정 당시의 소루^{疏漏}한 통계 파악으로 면적이 과대^{過大}되었던 한편 해방 후의 답리작^{畝裏作}⁶⁰의 부작부^{不作付} 기타 작물로의 전작^{轉作} 등으로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다.

이를 면별로 대별하면 수암면과 군자면이 각각 400정보 정도이고 서면이 200여 정보, 그 외 읍면은 100정보 내외이다. 수확량은 정맥수^{精麥數} 5005석(반당 수량 306홉)으로 면적 감소에 따라 감소되었고 반당 수량에 있어서도 약간 저하되었다.

작부 품종은 수원6호가 수위로 2할 6푼, 그다음 수원4호가 2할 2푼이고 그 외는 승맥^{僧麥}과 기타 잡종이다.

ㄷ. 잡곡雜穀

일반 잡곡으로는 주요한 것이 축서^{蜀黍, 수수}와 속^(粟, 조)이 있고 그 외 옥축서^(玉蜀黍, 옥수수)·교맥^(蕎麥, 메밀) 등이 있는데 작부반별에 있어 축서를 1위로 383정 9반, 그다음 속이 144정 3반이고 그 외는 불과 수십 정보에 불과한데 예년에 비하여 축서의 작부 면적이 점증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면별로 작부반별을 대별하면 군자면이 근 200정보, 수암면이 약 220정보 그 외 읍·면은 각각 수십 정보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본군 도심 지대와 소채 지대는 점감되어 가고 산간지대는 약간의 증가 현상을 표시하고 있음이다.

ㄹ. 두류豆類

작부반별 1400정 4반으로 전 면적의 2할 9푼에 해당하고 일정 당시에 비하면 상당히 작부면적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역시 맥작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를 면별로 대별하면 수암면·군자면이 각각 350정보 그 외 읍·면은 100정보 내외이다. 이의 수확량은 6520석(반당 464홉)으로 면적 감소에 따라 감량되었고 반당 수량에 있어서는 대차^{大差}가 없다.

작부 품종은 장단백목^{長湍白目}이 3할 9푼, 충북백목^{忠北白目}이 2할 5푼, 기타가 3할 5푼에 해당한다.

60 답리작: 벼를 베고 난 눈에 보리나 채소 따위를 심는 일.

口. 부표

부표 1. 미* 작부반별 및 수확고 표(정곡)⁶¹

구분	작부반별(반)	수확고(석)	1반보당 수확고(홉)	비고
안양읍	586.4	6,016	1,026	
과천면	362.4	3,780	1,043	
신동면	592.9	6,047	1,020	
동면	987.6	11,456	1,160	
서면	916.7	8,571	935	
남면	373.4	3,693	989	
수암면	1,119.4	11,608	1,037	
군자면	1,341.2	13,224	986	
계	6,280.0	64,395	1,025	

부표 2. 맥류 작부반별 및 수확고 표(정곡)

읍면별	대맥大麥			나맥裸麥			소맥小麥			호맥胡麥			합계		
	작부 반별 (반)	수확 고(석)	반당 수량 (홉)	작부 반별 (반)	수확 고 (석)	반당 수량 (홉)	작부 반별 (반)	수확 고 (석)	반당 수량 (홉)	작부 반별 (반)	수확 고 (석)	반당 수량 (홉)	작부 반별 (반)	수확 고(석)	반당 수량 (홉)
안양읍	143.3	398	278				20.5	82	400	0.2	1	500	164.0	481	294
과천면	104.1	323	323				3.0	12	402	0.2	1	2,000	107.3	336	313
신동면	84.9	271	319				2.5	13	500				874.0	284	316
동면	138.2	467	338	3.2	12	375	8.0	39	484	0.1	1	1,000	146.3	507	347
서면	221.2	693	313				8.0	48	600				232.4	753	324
남면	146.7	472	322				4.2	19	450				150.9	491	324
수암면	332.5	986	297				17.5	79	452				350.0	1,065	304
군자면	377.9	1,030	273	0.8	4	500	17.3	55	301				396.0	1,089	275
계	1,548.8	4,640	300	4.0	16	400	81.0	347	423	0.5	3	600	1,634.3	5,005	306

61 정곡精穀: 깨끗하게 손질한 도정된 곡물을 말한다.

부표 3. 일반 잡곡⁶² 작부반별 및 수확고 표

읍면별	속粟			촉서蜀黍			옥촉서玉蜀黍			교맥蕎麥			합계		
	작부 반별	수확 고	반당 수량	작부 반별	수확 고	반당 수량	작부 반별	수확 고	반당 수량	작부 반별	수확 고	반당 수량	작부 반별	수확 고	반당 수량
안양읍	10.5	63	600	13.1	79	600	1.1	6	550	2.0	14	700	26.7	162	605
과천면	20.9	97	500	37.8	227	600	1.2	7	600	14.8	96	650	74.7	472	572
신동면	15.4	100	650	15.0	98	650	4.0	24	600	2.0	10	500	36.4	232	637
동면	30.5	168	550	30.0	150	500	2.0	12	600	1.9	10	550	64.4	340	528
서면	12.0	60	500	50.0	225	450	3.0	18	600	2.0	10	500	67.0	313	467
남면	13.3	60	450	8.0	40	500	1.0	4	400	1.6	8	500	23.9	112	469
수암면	26.0	151	580	80.0	440	550	4.0	24	600	8.9	45	510	118.9	660	555
군자면	15.7	86	550	150.0	750	500	4.0	24	550	15.8	79	500	185.5	939	506
계	144.3	785	544	383.9	2,009	523	20.3	119	586	49.0	272	555	597.5	3,185	533

부표 4. 두류⁶³ 작부반별 및 수확고 표

읍면별	대두大豆			소두小豆			녹두綠豆			기타			합계		
	작부 반별	수확 고	반당 수량	작부 반별	수확 고	반당 수량	작부 반별	수확 고	반당 수량	작부 반별	수확 고	반당 수량	작부 반별	수확 고	반당 수량
안양읍	90.6	63	675	8.0	48	600	5.0	18	350	3.9	11	289	107.5	689	641
과천면	95.4	480	500	18.9	76	400	3.7	13	350	3.1	14	452	121.1	583	481
신동면	72.5	348	480	10.0	40	400	5.0	20	400	24.5	103	420	112.0	511	456
동면	110.9	532	480	10.0	40	400	2.7	9	350	2.0	7	318	125.6	588	468
서면	120.4	542	450	11.2	45	400	5.0	18	350	9.6	41	427	146.2	646	442
남면	90.1	450	500	5.2	15	300	4.0	12	300	1.0	3	300	100.1	480	479
수암면	306.3	1,348	440	25.0	95	380	10.0	35	350	5.0	15	300	346.3	1,493	431
군자면	314.9	1,417	450	19.5	74	380	7.4	26	350	3.8	13	342	345.6	1,530	446
계	1,201.1	5,729	477	107.6	432	402	42.8	151	353	52.9	207	391	1,404.4	6,520	464

62 부표 3에서 일반 잡곡의 종류로 나오는 속은 조, 촉서는 수수, 옥촉서는 옥수수, 교맥은 메밀을 말한다.

63 부표 4에서 나오는 대두는 콩, 소두는 팥을 말한다.

부표 5. 주요 보통작물 누년 비교표(정곡)

연도별	작부반별(반)					수확고(석)					반당 수량(홉)				
	미	대맥	소맥	나서 ⁶⁴	대두	미	대맥	소맥	수서	대두	미	대맥	소맥	호서	대두
4277	5,523.6	4,341.5	368.9	208.9	2,741.3	46,273	27,788	3,130	1,497	15,872	837	640	809	716	579
4278	6,207.4	2,750.0	209.0	185.4	2,431.3	72,260	9,558	524	1,246	10,164	1,162	348	201	672	418
4279	6,040.8	2,544.4	181.0	184.5	2,022.9	42,950	9,484	961	916	7,659	709	373	530	495	379
4280	6,159.2	1,796.8	75.0	380.7	1,167.7	57,686	5,471	304	1,805	5,136	936	305	405	474	439
4281	6,280.0	1,548.8	81.0	383.9	1,201.1	64,395	4,640	347	2,009	5,729	1,025	300	423	523	477

부표 6. 주요 보통작물 우량품종 작부반별 및 수확고 표

작물명	품종명	작부반별(반)	수확고(석)	반당 수량(홉)	작부비율(%)	비고
미(쌀)	풍옥	2,565.8	26,628	1,038	41	
	팔달	1,146.8	11,522	1,000	18	
	중생은방주	1,121.5	11,491	1,024	18	
대맥(보리)	수원4호	343.5	1,377	401	22	
	수원6호	403.8	1,579	391	26	
	승맥	65.3	286	438	4	
소맥(밀)	수원85호	11.3	57	467	14	
	육성3호	40.4	161	464	50	
대두(콩)	장단백목	462.9	2,236	483	39	
	충북백목	357.6	1,716	480		

나. 특수농작물

작부 종류는 별로 특수한 것이 없고 면화·진임(眞荳·호마(胡麻·피마자(蓖麻子·완초(莞草⁶⁵ 등으로 작부반별 및 수확고는 다음과 같다. 특히 면화에 있어서는 일정 당시 작부통제금(作付統制金)에 의한 강제 작부 실시로 인하여 근 300정보의 작부면적을 차지하고 그 외 마류 등 섬유작물도 일시는 상당한 면적에 달하였으나 해방 후는 농가 임의 작부로 인하여 현재는 불과 70여 정보 정도의 작부반별을 가지고 수확된 면화는 거의 자가 소비에 충당되고 있는 현상에 있고 그 반면 점차 약초 재배에 유의하는 인사가 늘어감을 엿볼 수 있다.

64 부표 5에서 작부반별·수확고·반당수량의 소항목 나서(黍·수서(黍·호서(黍)의 칸에 있는 숫자는 부표 3의 측서(黍)에 해당하는 숫자이므로 측서의 오자로 보인다.

65 특수농작물의 종류로 든 면화는 목화, 진임은 참깨, 호마는 검은깨, 피마자는 아주까리, 완초는 왕골을 말한다.

특수농작물 작부반별 및 수확고

종별	작부반별(반)	수확고	반당 수확고
면화	72.0	26,804근	37근
진입	53.1	285관	536홉
호마	52.8	293석	554홉
피마자	10.4	41석	400홉
완초	2.3	575관	25관
합계	190.6		

05. 비료

가. 자급 비료

자급自給 비료는 퇴비·인분을 위시하여 녹비綠肥·회류灰類·기타가 있는데 총생산량 2900여 만 관(가격 환산 2억 6600여 만 원)으로 농가 1호당 2771관(가격 3500여 원), 경지면적 1정보당 243관(가격 3100여 원)에 해당한다.

앞으로 퇴비의 배량倍量 이상 제조를 목표로하고 장려 중이다.

나. 금비金肥⁶⁶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흥남질소회사 생산 비료로 거의 국내 전 소비량에 충당되고 약간의 부족분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왔는데 해방 이후는 38선으로 인한 경제 두절로 순전히 미주산美洲産 금비를 수입 사용치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본군의 소비상황을 보면 초산안모니아(硝酸安母尼亞, 질산암모늄) 및 유산안모니아(硫酸安母尼亞, 황산암모늄), 약간의 가리(加里, 칼륨) 비료를 합하여 6073입⁶⁶, 과인산회 9440입, 도합 1만 5513입(가격 환산 457만 2400원)을 시용施用하였고 그 시용량을 경지면적에 대비하면 경지 1정보당 1.3입(가격 환산 380원)에 해당한다.

66 금비: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름으로, 흔히 화학비료를 말한다.

다. 부표

부표 1. 자금 비료 생산고 표

종류	수량 (천관)	단가 (원)	금액 (천원)	농가 1호당		경지 반당	
				수량(관)	금액(원)	수량(관)	금액(원)
퇴비	16,548	15	248,220	1,570	23,550	138	2,070
녹비	552	5	2,760	52	260	5	50
분뇨	11,540	10	115,400	1,095	10,950	96	960
회류	552	10	5,520	52	520	5	50
합계	29,192		268,040	2,771	35,280	243	3,105

06. 농업 실태

본 절에서 농업 실태라 함은 주로 농촌 실태를 운위(云謂)함이며 조사방식은 각 경작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것으로서 절대 정확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우나 다소 참고가 될까 하여 경작 형태별 및 경작 광협별 경지면적과 농가인구 및 호수를 게시하였는데 이를 (제4편) 제1 장 농업에서 서술한 단기 4812년 경작 실태에 비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고 특히 자작 면적이 격증된 반면 소작 면적이 감소되었고 농가 인구수와 호수는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경작 형태별 경지면적

단위: 반

읍면별	호수	소작			자작			귀속			합계			자작으로서 3정보 이상 초과 면적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안양읍	1,617	3,802	2,984	6,786	3,434	2,612	6,050	488	461	949	(325) 7,724	(292) 6,061	(617) 13,785	36	159	195
과천면	813	1,444	1,414	2,858	2,513	2,543	5,056	14	102	116	(123) 3,971	(201) 4,059	(324) 8,030			
신동면	1,351	2,099	1,767	3,866	2,986	2,340	5,336	248	1,209	1,457	(141) 5,343	(260) 5,316	(401) 10,659	2		2
동면	1,359	3,759	1,676	5,435	3,144	1,853	4,997	729	1,082	1,811	(192) 7,632	(322) 4,611	(514) 12,243	6	14	20
서면	1,409	4,303	1,887	6,190	5,126	2,535	8,061	501	483	984	(224) 9,930	(206) 5,305	(430) 15,235	6	3	9

읍면별 호수	소작			자작			귀속			합계			자작으로서 3정보 이상 초과 면적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남면	728	2,774	2,117	4,892	1,461	1,308	2,769	32	37	69	(79)	(201)	(280)	2	1	3
수암면	1,864	7,189	3,419	10,608	5,847	3,567	9,414	104	133	238	(260)	(430)	(690)	19	22	41
군자면	2,272	5,708	2,618	8,226	8,506	5,229	13,735	286	93	379	(370)	(633)	(1,003)	6	14	20
계	11,423	31,078	17,882	48,960	33,027	22,391	55,418	2,402	3,601	6,003	(1,714)	(2,545)	(4,259)	75	215	280

적요: () 안은 위토位土를 표시함.

광협별廣狹別 경지면적 및 호수

단위: 호, 반

지역별	5반 미만		5반~1정		1정~1정5반		1정5반~2정		2~3정		3~5정		5~10정		10~20정		총계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안양읍	556	1,746	501	3,597	306	4,075	155	2,771	92	2,177	5	192		2	230	1,617	14,788	
과천면	150	561	200	2,079	185	2,385	91	1,672	66	1,607		1	51			813	8,355	
신동면	515	1,686	431	3,114	197	2,559	133	2,052	65	1,447	10	314				1,351	11,172	
동면	395	1,172	464	3,492	259	3,069	128	2,320	109	2,555	4	150				1,359	12,757	
서면	278	874	449	3,401	317	3,950	287	3,136	165	3,894	13	410				1,409	15,665	
남면	151	440	238	1,854	173	2,099	104	1,769	63	1,575	9	273				738	8,010	
수암면	327	1,257	605	4,426	482	6,155	269	4,645	159	3,963	13	446	1	58		1,864	20,950	
군자면	529	1,725	720	5,228	539	6,926	292	4,585	182	4,149	10	330				2,272	22,943	
계	2,941	8,461	3,688	27,191	2,458	31,217	11,257	22,950	911	21,367	64	2,115	2	109	2	230	11,423	114,640

농가인구 및 호수

지역별	농가인구	농업종사인원수	농업고용인		농가호수			계
			인원수	가족 수	소작	자작	소작겸자작	
안양읍	11,661	5,746	89	13	918	176	523	1,617
과천면	4,997	2,784	43	14	190	186	437	813
신동면	8,390	5,175	101	21	521	242	588	1,351
동면	8,646	4,940	142	37	585	187	587	1,359
서면	8,877	5,152	180	29	407	226	776	1,409

지역별	농가인구	농업종사인원수	농업고용인		농가호수			계
			인원수	가족 수	소작	자작	소작겸자작	
남면	4,558	4,488	76	2	323	68	347 ⁶⁷	738
수암면	11,102	6,557	182	28	606	243	1,015	1,864
군자면	13,460	7,351	175	71	350	594	1,328	2,272
계	71,691	42,193	988	215	3,900	1,922	5,601	11,423

07. 식량 사정

본군은 북으로 서울특별시, 서로 인천시, 남으로 수원 등 3대 도시에 인접해 있고 각 관공서와 20여 개소의 대소공장 등 사업장이 소재하여 비농인구(非農人口)가 전 인구의 5분의 2가 되며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은 식량소비지대에 속한다. 식량 사정을 말하면 1년간의 자가 식량을 생산 보유하는 (농가는) 불과 농가호수의 1할 5푼 미만이며 그 외 농가는 자가 식량조차 부족한 형편인데 이러한 중농 이하의 농가라도 농자(農資)와 생활필수품 구매 등 현금의 필요로 부득이 방곡(放穀)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실정으므로 춘궁기로부터 칠궁(七窮)⁶⁸에 이르기까지는 식량의 곤란을 면키 어려운 현상이고 비농가의 식량 사정도 소정 배급량으로서는 도저히 부족하므로 각자가 타 지방으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4281년 본군의 농황(農況)은 평년작 이상의 수확으로서 당년 생산미, 잡곡 제맥류(除麥類) 및 4282년 산맥류(産麥類)를 합하여 7만 8894석(정곡)이나 전 군민의 1년 소비수요량은 11만 3616석(1일 1인당 3홉씩 1년분)이니 생산 전량을 순전히 군내 식량에만 충당한다 하더라도 식량 부족량이 3만 4722석이나 된다. 그런데 그 외에 수집량과 종자량 2만 5769석을 또 제하고 보면 무려 부족 식량이 6만 491석⁶⁹에 달하는데 그중 관 배급식량은 근근 1만 6761석에 불과한 터이므로 기반여(其搬餘) 실 부족 식량 4만 3730석은 전혀 관외 자유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67 원문에는 337로 되어 있으나 가로 및 세로 합계에 따라 347로 수정하였다.

68 칠궁: 농가에서 음력 7월에 겪는 식량의 궁핍. 묵은 곡식은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익지 않아서 겪는 궁핍으로, 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이다.

69 원문에는 1만 491석으로 나오나 6만 491석의 오자이므로 바로잡았다.

농가 식량 보유량

단기 4281년 미곡연도, 정곡단위: 석

종별	생산 연차별	총수확고	공제할 수량			차인 ^{差引} 농가식량보유미	비고
			종자	수집량	계		
미곡	4281	64,395					
맥류	4282	4,794					
두류	4281	6,520					수확량 23,780석 중 4,539석은 도 지령에 의하여 관내에 반출되었음.
잡곡	4281	3,185					
계		78,894	1,987	23,780	25,769	53,125	

농가 및 세공민 식량 수급상황

단기 4281년 미곡연도, 정곡단위: 석

농가 식량 보유량	농가 소요 식량			세농가 배급량	실농가 식량 과부족량	세공민 소요식량		세공민 식량 배급량	실세공민 식량 과부족량	식량 과부족량 합계
	인구수	식량	차인 과부족량			인구	식량			
53,125	61,355	67,184	부족 14,059	639	부족 13,420	42,432	46,432	16,122	30,310	부족 43,730

제2장 상업

1. 현상

가. 부진의 이유

본군의 상업은 대체로 부진하여 최소한도의 일용품이 매매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의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제의 고갈이니 이 농촌에의 현금순환의 불원활^{不圓滑}은 해방 후 소작농민 자신의 각성과 토지 소유욕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경작지를 구입한 것과 또 하나는 정부의 시책을 무시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강매한 악덕지주의 발호로 하여 1할의 고리를 얻어 토지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무리가 일반적으로 농촌의 구매력을 저하시키었다. 또 하나의 본군의 상업부진 원인으로서는 본군의 지리적 불리를 들 수 있으나, 즉 지리적으로 국도^{國都} 서울특별시와의 상거^{相距}가 60리밖에 안 되고 조석으로 서울시 내에 출입하게 되는 점과 불과 30리 거리에 상도^{商都} 수원^{水原}이 있어 서울과 수원 사이에 끼인 관계로 대부분의 물산이 도시로 직수출되고 구매도 직수입을 하게 된다.

또 하나의 이유로서는 수인철도^{水仁鐵道}의 개통을 들 수 있으니 본군으로서는 오지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국영의 대염전과 서해안을 낀 군자·수암의 두 면민의 그 대부분의 상거래를 인천에 구하고 있을뿐더러 막대한 수의 제염^{製鹽}과 수산물^{水産物}이 본군 시장을 거치지 않고 수인선 철도와 수로에 의해서 직접 인천항으로 출하하게 되고 귀로에는 또 일용품을 구입하게 되므로 본군으로서는 경·인·수의 3대 도시에 협격^{挾擊}되어 있는 격이다. 제4의 이유로서 농가의 현금자원의 일역^{一役}을 맡고 있는 농촌 부업으로서의 여타 수공업이 고식^{姑息}⁷⁰ 상태

70 고식: 잠시 숨을 쉰다는 뜻으로, 우선 당장에는 탈이 없고 편안하게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에 빠져 있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5의 이유로는 반드시 본군만에 한한 특수조건은 아니니 일반 군민의 수지 균형이 되지 않는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를 본군 내의 각종 물가와 봉급·임금 및 서울과 안양시장의 물가 대조, 각 시장 매상액 등에 의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나. 시장

단위: 만원

시장명	소재지	경영자	개시일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산물	기타
안양장	안양읍 안양리	안양읍	5·10	6,600	2,510	5,300	4,130	6,300
군포장	남면 당리	남면	2·7	50	20	25		20
삼거리장	수암면 능곡리	수암면	5·10				1,252	
안산장	수암면 수암리	수암면	2·7	100	82	50		50
계				6,750	2,612	5,375	5,382	6,370

다. 물가

본군의 상업이 부진한 이유로서 대^大 서울과의 지리적 불리를 들었거니와 이제 서울의 물가와 안양시장의 물가를 비교해 보면 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단위: 만원

상품	서울	안양	군포
백미(1두)	2,300	2,350	2,200
참쌀	2,500	2,450	2,400
성냥	40	50	70
양말	400	500	650
내의(상)	6,500	6,500	7,000
고무신(남, 대)	350	400	450

이렇듯 농산물에는 거의 동물이나 일용품 시가는 서울보다도 1할 내지 2할의 고가가 치인다. 이는 인건비, 수송비 등이 가산되고 소자본으로 인한 금리까지를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자연 도시에 갈 기회에 대부분의 일용품을 구입하게 되고 농촌으로 다니는 행상에 가서 물물교환을 하게도 된다.

라. 일반 물가와 노임

단기 4282년 11월 중의 안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 물가와 각층의 현 봉급^{俸給} 및 노임을 대조한다면 상업 부진의 대부분의 이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가. 급료생활자 및 노동임금

일반관리 봉급표

직명	급수	봉급액	직명	급수	봉급액
	1			8	
	2		과장	9	8,900
	3		장학사	9	8,900
	4		계장	11	7,700
	5		서기·기원 ^{技員}	15	6,000
	6		청부 ^{傭夫}	15	4,800
군수	7	10,300	사환 ^{使喚}	15	4,800

임금표

품명	임금	품명	임금
목공 ^{木工}	대공 8,000	염공 ^{染工}	월 12,000
	소공 6,000	양복공 ^{洋服工}	월 10,000
토공 ^{土工}	대공 1,000	공장 직공 ^{職工}	월 10,000
	소공 800	자동차 운전수	월 15,000
와공 ^{瓦工}	대공 2,000	연고 ^{年雇}	대 정조 8가마 ^(마)
	소공 1,200		소 5가마
양철공 ^{洋鐵工}	대공 일 1,000	농업 일고자 ^{日雇者}	대인 350
	소공 일 300		소인 200
화공 ^{靴工}	11,000	자유노동자	700

ㄴ. 일반물가표

곡류

4282년 11월 중순 안양시장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정조正租	1입 ^㉑	시 ^時 5,200 공 ^公	진임眞任	1입	시 21,000
백미白米	1천 ^担 ⁷¹	시 5,000 공 53원 60전	정임精任	1입	시 10,500
조맥租麥	1입	시 5,000 공 34원 80전	대서大黍	1입	시 4,300
정맥精麥	1입	시 7,500 공 48원 90전	교맥蕎麥	1입	시 4,000
대두大豆	1입	시 8,500	정속精粟	1입	시 8,700
소두小豆	1입	시 7,800	맥분麥粉	1근	시 160
녹두綠豆	1입	시 9,600			

과류果類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대조(大棗, 대추)	1두 ^斗	시 3,200	앵도(영두)	1기 ^籠	150
생물生栗	1두	1,500	호도(호두)	1두	3,500
황물黃栗	1두	7,300	사과	1두 10개	400
시(柿, 감)	1접 ^接	1,200	목과(木瓜, 모과)	1접	5,500
건시乾柿	1접	8,000	포도	1관 1등	1,000
도桃	1관 ^貫	1,200		1관 2등	800
은행	1두	시 8,000			

축류畜類

종류	단위	등급별 가격(원)	종류	단위	등급별 가격(원)
모우(牡牛, 수소)	1두 ^頭	105,000	저猪	1관	2,400
빈우(牝牛, 암소)	두	90,000	계鷄	1우 ^羽	1,200
개량종	두	130,000	견犬	1두	3,600
조선말	두	45,000			

축우 가격은 사역使役에 양호한 것을 표시함.

71 천^斤: 킬로그램(kg) 또는 킬로와트(kw)를 나타내는 한자로, 여기서는 kg을 말한다.

어류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생명태	1급	2,000	백어표(백어포)	1매枚	50
건명태	1괘快	750	굴	1기	100
메루치(멸치)	1관	2,000	소라젓	1기	100
해태(김)	1토担 ⁷²	240	건하(乾蝦, 건새우)	1개	100
대해大蟹 ⁷³	1관		해포海布 ⁷⁴	1립立	160
문어	1개介	3,000	장곽(長藁, 미역)	1립	50
점복(占服, 전복)	1개		오징어	1관	450
염장건鹽藏鯉 ⁷⁵	1병瓶	3,000	건대구	1관	3,000
대구	1관	800			

의류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광목	1마碼 ⁷⁶	850	유동	1마	11,000
내광목	1마	620	잠견누에고치	관당貫當	2,000
당목	1마	950	거화巨花	관당	2,500
옥양목	1마	1,000	대금사大金絲	1태太	300
인견	1마	420	삼금사三金絲	1태	350
모본단	1마	3,000	웅	1마	2,000
양단	1마	7,000	주단	1마	3,200

금속류

품명	등급별 가격(원)	품명	등급별 가격(원)
쇠솔	4,000	쇠스랑	300
삽	600	공도公刀	상 550 하 350
호미	200	회중소도懷中小刀	상 350 하 120
도끼	300	후옥구 ⁷⁷	500
톱	2,500	놋공기	

72 토막: 김 100장을 세는 단위인 톳을 한자로 표기한 듯하다.

73 해포海布: 원문에는 해희海希로 되어 있는데, 어류 관련 표이므로 해포의 오자로 보았다. 해포는 해조海藻류라고도 하고, 그중 다시마라고도 한다.

74 대해: '해蟹'는 게(갑각류 꽃게·방게 등), 가물치(가물치파의 민물고기)를 뜻한다.

75 염장건鹽藏鯉: 염장한 가다랑어.

76 마碼: 야드(yard)를 가리키는 한자어로, 1야드는 91.44cm에 해당한다.

77 후옥구: 훅(hook)을 말한다. 쇠스랑 중에 서양의 포크처럼 발과 몸이 곧게 퍼진 것을 쓰기도 하는데 이를 '후옥구', '호꾸'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

품명	등급별 가격(원)	품명	등급별 가격(원)
넛	200	넛대접	1,400
석수	20	넛동이	700
삼발이	100	넛주전자	1,500
왜정(倭釘) (1관)	2,300	넛대야	7,200
쇠갈퀴	200	넛화로	3,500

목재류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목재	1사이 ⁷⁸	100	장작	1평 상	6,000 ⁷⁹
시멘트	공	1,800	목탄	1평 하	4,050
	시	3,500		1관	850
유리	1평 ⁸⁰	3,500	자초 ⁸¹	1관	70

지류(紙類)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품명	단위	등급별 가격(원)
장지	1권		마분지	100매당	450원
삼첩지	1권		신문지	1관	
백지	1매당	60	색지		180
모조지	1연 ⁸⁰ 당	7,500	옥판선지		
선화지		7,000			

공료품류(公料品類)

품명	단위	가격(원)	품명	단위	가격(원)
사탕	1근 (사)	250	참기름	1승	2,500
탁주	1두	1,100	들기름	1승	2,250
약주	1두	2,500	콩기름	1승	2,000
일본주	1두	7,000	낙화생유	1승	2,250
양주	1두	14,000	휘발유	카롱 ⁸¹	1,700
소주	1두	3,000	석유	카롱	700
된장	1승	700	경유	카롱	400
간장	1승	1,500	중유	카롱	400
공염 ⁸¹	1두 (공)	560			

78 사이: 목재나 돌 따위의 크기나 면적을 재는 단위. 또는 그 부피를 계산하는 단위.

79 원문에 장작이 1평⁸⁰에 상등은 “6,000원”, 하등은 “4,500원”으로 나오는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80 연: ‘림(ream)’의 음역어로, 양지⁸⁰를 세는 단위이다. 1림은 보통 종이를 셀 때에는 480장이고, 신문용지를 셀 때에는 500장이다.

81 카롱: 부피의 단위인 갤런(gallon)으로, 영국에서는 약 4.545ℓ, 미국에서는 약 3.785ℓ에 해당한다.

비과류 肥料類

품명	단위	가격(원)	품명	단위	가격(원)
초안 ⁸²	1입 ^㉔	4,000	인분뇨	1차 ^㉕	2,000
초안	1대 ^㉖	5,000	초목회	1차	2,000
과석 ⁸³	1입	1,200	퇴비	1관	10

토기류

품명	크기	가격(원)	품명	크기	가격(원)
항아리	대	4,000	탕기		90
	중	2,500	종자		75
	소	1,500	화분	대	200
사발		120		소	100
대접		130	토관		100
접시		85	화로		200
동이		400			

잡화류

품명	규모	가격(원)	품명	규모	가격(원)
인촌 ⁸⁴	1함 ^㉗	5	내의	1착 상	6,500
				1착 하	2,500
고무화(남)	대	350	초혜 ^(짚신)	1족	40
	소	250			
고무화(여)	대	350	마혜 ^(미투리)	상	120
	소	200		하	70
양화	상	6,650	3층장	상	60,000
	하	3,500		하	40,000
양복	1착 상	115,000	2층장	상	17,000
	1착 중	60,000		하	12,000
	1착 하	15,000			

82 초안: 초산 암모늄의 준말로, 질산 암모늄과 같다. 비료와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쓴다.

83 과석: 과인산 석회의 준말로, 과인산 칼슘을 많이 포함하는 산성 비료이다.

84 인촌: 성냥을 말한다.

품명	규모	가격(원)	품명	규모	가격(원)
장업복 <small>長業服</small>	상	10,500	양복장	상	45,000
	하	5,000		하	15,000
학생복	상	11,000	책장	상	25,000
	하	7,000		하	12,000
종절모	상	13,000	세탁비누	상	220
	중	8,000		하	80
	하	4,000		상	350
농립모		150	세수비누	하	70
양말	상	500			
	하	300			

문방구류

품명	단위	가격(원)	품명	단위	가격(원)
모필 <small>毛筆</small>	1병 <small>瓶</small> 대	1,250	죽척 <small>竹尺</small>		50
	1병 중	500		1병 대	3,700
	1병 소	120	만년필	1병 중	2,500
연필	상	85		1병 소	1,200
	중	50	잉크		150
	하	30	부기봉 <small>富記棒⁸⁵</small>		
철필	상	250	묵지 <small>墨紙</small>		1,250전
	하	170	원지 <small>原紙</small>	1매 상	55
액간필 <small>額間筆</small>	(상)	2,700		1매 하	40
	(하)	1,650	소消고무		250

85 장부에 선을 긋는 데 쓰는 둥근 방망이. 부기봉簿記棒.

마. 특산품

본군에는 본도 내의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산의 대부분이 산출되는 외에 안양에 포도와 밤은 양으로나 질로나 다른 지방 산물에 비하여 탁월하게 뛰어나다. 20세기 배도 안양 명물의 하나였으나 최근 질이 저하된 감이 있다.

이 밖에 관악의 송이, 수리산의 고비, 군포의 수박, 군자의 굴과 대하는 타 지방에서는 별로 맛볼 수 없는 진미를 갖고 있다.

군자면은 본군 유일한 해안 보유 면으로 천일염의 특산지이지만 불과 얼마 안 된 해안 선이면서도 수어(秀魚, 송어)를 비롯하여 석수어(石首魚, 조기)·백어(白魚, 뱀어)·은구(銀口, 은어)·병어·홍어·전어·오징어·노어(鱸魚, 농어)·민어까지 어획되고 조개만으로도 황합(黃蛤, 가무락조개)·죽합(竹蛤, 맛조개)·소라 등이 생산되며 새우류로서 대하는 명물이지만 중하·소하·백하·자하 등이 고르게 산출된다.

단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들 해산물은 군내로 들어오지 않고 직접 수인선과 해로로 인천과 서울로 직행되어 어물(魚物)을 되려 서울에서 사 오게 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3장

광공업

01. 광업

본군 군자면에 있는 흑연광산黑鉛鑛山은 단기 4279년 1월 25일에 개발하였으나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폐광 상태에 빠졌다. 이를 현 대표인 이영태李榮泰 씨의 활동으로 지난 4282년 4월 3일에 재차 개광開鑛하여 방금 소규모나마 작업 중에 있다.

본 광산은 광구 188만 2000평으로 군자·수암 양 면에 걸친 큰 광산으로 안양역에서 서방 약 12천(浬, km)을 격하고 있어 교통도 대단히 편리하다. 생산 광물은 인상鱗狀 흑연으로서 그 매장량이 4000만 톤(噸, t)이나 될 뿐 아니라 질도 극히 우량하여 현재 미국 화성돈(華盛頓, 워싱턴)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매장량으로 보아 금후 동양 제일의 흑연광산이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시흥광산始興鑛山은 단기 4236년에 금·은·동 광산으로 개발하여 많은 시설을 하였으나 8·15해방과 동시에 휴광休鑛 중에 있다. 광구는 87만 8000평이고 매장량이 약 1900만 톤이나 되는 만큼 동광同鑛도 하루바삐 적임자를 만나 개광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밖에 본군에는 도자기의 원료인 장사토長沙土가 동면 일대에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고 또 그 질이 우수하여 국내는 물론 일본 및 미주로부터의 외화 획득의 대상이 되어 있다.

본군에서 생산되는 장석長石은 가리성加里性을 약간 띤 백색 석회장석石灰長石으로 탄산 함유량이 많은 점과 다량의 수분을 완전히 흡수하여서 함수석산含水石酸 알미늄화하며 천연적으로 도토陶土가 되어 있는 우수한 것이다. 이 질의 우수성은 방금 일본에서 수입을 갈망하고 있고 미국에는 앞으로 수출 계획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서면에는 중석광重石鑛, 남면 산본리山本里⁸⁶에는 코발트광이 있어 그 매장량도 상당하나 방금 휴광 중에 있다.

86 산본리山本里 : 원문에는 상본리上本里로 나오나 남면南面에는 상본리가 없고 산본리가 있어 바로잡았다.

광산

광산명	소재지	개광 연월일	광물 명칭	광구 (평)	매장량 (만천) ⁸⁷	월생산량 (톤) ⁸⁸	수출선	대표자	종업원(인)		
									남	여	계
흑연광산	군자면 선부리	4282.4.23	인상 흑연	1,882,000	4,000	150	일본 미국	이영태 李榮泰	62		62
시흥광산	서면 가학리	4236.5.2	금은·동· 아연·연	878,358	1,900	100	국내	허익 許翊	20		20

02. 공업

가. 현황

본군의 공업은 본도 내 타 군에 비하여 그 규모로나 종류·공장 수 어느 점으로나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선·석면·요업 등 본도는 그만두고 우리 남북한 전국에서도 유일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류별로 대별해 보면 방직공업이 그 수위를 점하여 금성방직金星紡績·제일방직第一紡績·조선직물朝鮮織物·조선견직朝鮮絹織 등 그 규모로나 시설로나 가장 완비되어 있고, 금속 공업에 남한 유일한 조선전선朝鮮電線, 화학공업으로서 중앙中央 고무·고려석면高麗石綿이 있다. 고려석면의 시설은 남한 유일의 완비를 보고 있어 본격적으로 운영만 되면 막대한 생산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요업공업으로서는 시흥연외始興煉瓦 공장과 대소의 조선특수도자기공장朝鮮特殊陶磁器工場이 혹은 생산 중에 있고 또 혹은 건설 중에 있다.

이 밖에도 대공장으로서 제지에 삼덕제지三德製紙가 있고 남해산업南海產業의 침목枕木 생산, 조선제함朝鮮製函의 제함과 제재製材, 도료塗料 공장이 있는가 하면 양산洋傘 공장까지 있어 그 수가 실로 20을 산算하고 공원工員만도 3000에 달하는 명실공히 대공도大工都의 면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 비하여 생산은 아직 영성零星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의 주원인은 물론 전기사정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정치·경제 양 면의 혼란이 있었으니 인적으로나 자본으로나 자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87 만천萬畝: 천은 kg을 나타내는 한자이므로 10,000kg을 말한다.

88 돈噸: 질량의 단위인 톤(ton)의 음역어는 톤噸 또는 톤톤을 쓰는데, 돈噸·돈퉁을 쓰기도 한다.

갑자기 해방을 맞은 공업계는 어디에서나 그랬지마는 대외적보다 대내적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권력에 아부하는 일꾼이 아무런 경력도 자신도 자본도 없이 공장을 접수하여 군내의 주요 생산기관은 기계가 정지된 채 모리배^{謀利輩}들의 모리대상이 되었고 한번 접수하기가 무섭게 구지부득^{求之不得}의 좋은 시설과 자료는 한쪽으로 방매되어 사복을 채우는 일이 비밀비재였다. 한 공장에도 1년에 4, 5차의 관리인 변경이 있고 오늘은 목사^{牧師}가 공장장으로 앉는가 하면 내일은 일생 해당 공업을 구경한 일도 없는 문외한이 와서 지배자 자리를 점령했다.

이러한 비^非를 공원^{工員}은 반대하고 신입자^{新任者}는 자파세력의 부식책^{扶植策}으로 신사원^{新社員}을 배치하여 갑론을박, 공장에는 난투극까지 벌어진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금성방직을 위시하여 제일방직·삼덕제지 등은 좋은 지도자를 맞아 상·하 각원이 일치협력, 허물어져 가는 직장 재건에 실로 눈부신 활동을 했으니 특히 금성방직·제일방직의 양 공장은 일면^{一面} 생산, 일면 건설을 꾀하여 비약상을 고이고 있다.

시설로나 특수생산 종목으로나 남한의 유일한 고려석면도 최근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일시 휴면상태에 있던 조선직물도 금성방직의 협조로 재출발이 전해지고 낙랑실업^{樂浪實業}의 견직생산도 최근 비약적 숫자를 보이고 있고 조선전선에서도 전력 외선^{外線} 생산에 착수했다 하며 중앙고무의 제품 또한 면목을 일신하는 등 대한민국 수립 제2년의 우리 군내의 공업계에는 실로 기대되는 바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공장 일람

본군 내 생산공장의 일람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공장

명칭	소재지	창업 연월일	공장 평수 (평)	생산품		금후생산계획		종업원(명)		
				종류	수량	종류	수량	남	여	계
제일방직공사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4289.12.7	10,810	모직물	500마	모직물	28,080마	60	27	117
금성방직주식 회사 안양공장	동 ⁸⁹	4281.10.5	5,600	면사	850 ⁹⁰ 곤	면사	1,000 ⁹⁰ 곤	88	42	138
안양직물공장	동	4278.10.30	351	본건 및 인건물	15,518마	본건 및 인건물	58,500마	9	27	36
조선빠이루 직 공업유한회사	동	4283.3.18	700	시-루 메리야스		시-루 메리야스	6,000 ⁹⁰ 관	9	3	12
낙랑실업공사	동	4279.2	61	본건 및 인건물	100,000마	본건 및 인건물	150,000마	15	22	37
조선견직 주식회사	동면 안양리	4278.10.1	1,026	동	91,430마	동	600,000마	32	133	165
조선직물 주식회사	안양읍 안양리	4278	5,853	동	192,476마	동	250,000마	144	154	289
조선전선 주식회사	동면 수산리	4277.11.1	18,270	동선 기타	299,330 ⁹⁰ 천 3,450,494 ⁹⁰ 미	동선 기타	300,000 ⁹⁰ 천 3,500,000 ⁹⁰ 미	210	40	250
조선중앙 고무공업소	동면 시흥리	4280.9.27	480	고무장화 운동화 가스케트링	42,659 ⁹⁰ 족 19,665 ⁹⁰ 족 37,400 ⁹⁰ 개	고무장화 방한화 훈련화	90,000 ⁹⁰ 족 100,000 ⁹⁰ 족 50,000 ⁹⁰ 족	54	23	77
동신화학 공업사	동	4282.3.20	311	도료	3,600 ⁹⁰ o/M	도료	6,000 ⁹⁰ o/M	10		10
삼덕제지주식회 사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4278.10	4,784	모조지 선화지	803,446 ⁹⁰ 봉도	모조지 선화지	1,220,000 ⁹⁰ 봉도	80	23	103
고려석면고무 공업주식회사	동	4278.10.3	5,741	석면시트 박킹 방직용고무로루 곳등박킹	37,000 ⁹⁰ 천	석면시트 박킹 방직용고무로루 곳등박킹	540,000 ⁹⁰ 천	64	13	77
조선제합공업 합자회사	동면 안양리	4270.11.12	1,200	제재	156,000 ⁹⁰ 재 ⁹¹	제재	350,000 ⁹⁰ 재	9		9
남해산업공사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4280.9	10,529	건축공업텍스 철도침목	10,000 ⁹⁰ 평	건축공업텍스 철도침목	20,000 ⁹⁰ 평	43		43
시흥연공업 주식회사	동면 시흥리	4268	535	연와	2,500,000 ⁹⁰ 매	연와	3,000,000 ⁹⁰ 매	61	25	86
삼길양산 제조소	안양읍 안양리	4278.7	400	양·우산	10,000 ⁹⁰ 본 ⁹¹	양·우산	30,000 ⁹⁰ 본	5	1	6
조선특수자기 주식회사	동	4281.9.10	240	도자기 제품 일반	70,000 ⁹⁰ 개	도자기 제품 일반	60,000 ⁹⁰ 개	12		12
삼신제도 공업사	동	4282.9.15	120	동	40,000 ⁹⁰ 개	동	200,000 ⁹⁰ 개	12	3	15

89 곤책: 포장한 화물, 특히 생사⁹⁰나 견사⁹¹의 개수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90 천책은 kg이고, 미책은 m이다.

91 봉도⁹¹: 무게의 단위인 파운드(pound)의 음역어이다.

제4장

축산

1. 가축 및 가금

축산업이 농업의 근본적 요소가 됨은 물론, 국민의 영양 향상과 아울러 식량 부족의 완화책으로서나 국방상으로 보아 중요한 지위에 있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나 과거 왜정 말기에는 소위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완수라는 일제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부진상태에 있던 축산업은 설상가상으로 해방 후 일시 무질서한 혼란기에 가축·가금의 남살이 횡행하였으나 또 격심한 각종의 수역(獸疫, 돈호열자⁹²·돈단독⁹³·닭페스트 등) 만연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가축·가금의 격감을 초래한 것은 실로 유감이었다. 당국에서도 그간 적극적인 관민의 노력으로 축우를 제외한 대부분이 복구되고 있음은 경하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하 본군의 축산을 각 방면으로 통찰할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혹은 이용적으로 보아 개량 증식의 여지가 아직도 다분히 있음은 통탄을 불금(不禁)케 한다. 본군에서도 축산업의 발전이 급속도로 요구되는 현하 국내 사정에 감(鑑)하여 정부 증식시책에 순응 전력하고 있다.

이를 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축우(畜牛)

축우는 해방 후 무질서한 혼란기에 남살(濫殺)이 성행하였으므로 대폭적으로 격감되어 농경(農耕)에 일대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92 돈호열자(豚虎列刺): 돼지콜레라이다. 호열자는 콜레라(cholera)의 음역어이다.

93 돈단독(豚丹毒): 법정 가축 전염병의 하나. 돈단독균에 의해 일어나며, 주로 돼지를 침범한다.

즉 본군 축우 두수頭數는 3112두로 농가 3, 4호당 1두 평균이나 그나마도 그중 성우成牛는 3047두에 불과하여 본군 경지면적 1만 2028정보를 경작하려면 1두당 부담경지면적은 3정 9반 4묘보로서 과중한 실정에 있는 것이다.

이를 해방 직전 후에 대비하면 약 4할 8푼이 감소된 셈으로 그 후 연년 증식일로에 있기는 하나 아직도 약 3할인 1400여 두나 감소된 형편으로 실로 한심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앞으로 관민 공히 당국 증식시설에 적극 협력하여 이의 만회를 기하지 않으면 영농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나. 돈豚

돼지는 해방 전에 비하여 약 5할 정도의 증식을 보고 있으나 식육 소비량이 많은 대도시를 접하고 있으니만큼 질적·양적으로 더욱 개량 증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 계鷄

닭은 다소 증식의 경향이 보이나 그 역시 질적으로 퇴화되어 산란 성적에 있어 극히 불량한 현상이다. 앞으로 혈액 갱신으로 인한 품종개량이 시급 요청되고 있다.

라. 부표

부표 1. 축우 수

읍면별	사양 호수	현재 두수			1년간 출산두수	폐사	박살	도살
		모牝	빈牝	계				
동면	358	342	16	358	4	1	108	
서면	407	61	347	408	54		31	
신동면	229	226	3	229	3		91	
과천면	187	177	10	187	7		36	
안양읍	390	300	128	428	35	1	192	
남면	251	143	108	251	41		41	
수암면	595	274	321	594	91		42	
군자면	656	352	304	656	97		73	
계	3,073	1,875	1,239	3,112	332	2	613	

부표 2. 양돈상황

읍면별	사양 호수	잡종		개량종		합계 두수	1년간 생산두수	폐사	박살	도살
		모	빈	모	빈					
동면	72	19	10	62	32	123	198	30	23	24
서면	135	70	71			141	150	7	5	
신동면	27		1	6	20	27	75	6		4
과천면	33	8	25			33	67	13	2	
안양읍	142	5	9	69	88	171	121	29	5	25
남면	55	17	38			55	57	3	1	10
수암면	165	76	99			175	129	21	2	
군자면	295	139	235			374	231	16	14	
계	920	334	334	137	140	1,099	1,028	125	52	63

부표 3. 양계상황

읍면별	사양 호수	잡종	개량종	합계	사양 1호당 평균 우(羽, 마리) 수
동면	821	1,688	565	2,253	2.7
서면	751	1,449	440	1,889	2.5
신동면	446	613	3,328	3,941	8.7
과천면	379	874	190	1,064	2.8
안양읍	282	506	483	989	3.5
남면	237	270	251	521	5.8
수암면	631	1,385		1,385	2.1
군자면	823	4,142		4,142	2.1
계	4,370	10,927	5,257	16,184	3.7

부표 4. 종우種牛 표

사양 호수	종모우種牝牛			종빈우種牝牛			종모우	
	도 소유	농회 소유	계	도 소유	농회 소유	계	종부 수種付數	1두 평균 종부 수
10	1	10	11				460	41

부표 5. 유용우乳用牛 표

착유장 수	호루스타잉종 ⁹⁴			기타 종			합계	착유량	암소 1마리당 연평균 착유량
	수소	암소	계	수소	암소	계			
22	3	62	65				65	768되 ^[과]	48되

94 호루스타잉종⁹⁴: 홀스타인(Holstein)종을 말한다. 국내 젖소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표 6. 양봉 표

사양 호수	사양 상자 ^箱 수			채밀 ^{採蜜}			채랍 ^{採蠟}	
	재래종	개량종	계	근량	가액(원)	단가	근량	가액(원)
30	66	44	110	1,325	1,455,000	1,100	26	36,000

부표 7. 마류 및 양·양토 표

사양 호수	마 ^馬			여 ^驢 ⁹⁵	누 ^驢	양 ^羊		양토 ^{養兔}
	모	빈	계			산양	면양	
80	28	10	38	79	61	23	362	

부표 8. 주요 가축·가금 수 누년 비교표

연도별	축우		돈		계	
	사양 호수	두수	사양 호수	두수	사양 호수	우수
4277	4,411	1,642	184	214	3,315	14,358
4278	2,850	888	75	78	3,279	11,715
4279	3,025	970	108	110	2,741	12,081
4280	3,061	875	246	771	3,908	18,873
4281	3,073	3,112	920	1,099	4,370	16,184

부표 9. 축산물 생산표

품명	수량	가격(원)
우피 ^{牛皮}	1,541관	1,232,800
우지 ^{牛脂}	1,230관	2,460,000
돈지 ^{豚脂}	240관	480,000
돈육 ^{豚肉}	3,840관	7,680,000
계란	1,274,800관	22,241,000
계육 ^{鷄肉}	2,095관	4,399,500
우유	768승	115,200
건육 ^{犬肉}	6,092관	5,381,000
아란 ^{鷺卵}	16,600관	464,800
우육 ^{牛肉}	19,680관	39,360,000
마육 ^{馬肉}	120관	240,000
마피 ^{馬皮}	9관	9,000

95 여는 나귀, 누는 노새를 말한다.

02. 축우 매매상황

본군 가축시장은 안양·삼거리 2개소이나 특히 안양시일^{安養市日}의 전일^{前日}이 수원 시일^{水原市日}이며 또한 안양시일이 서울 동대문시일과 삼거리시일과 같은 날이 되어 우상인^{牛商}은 수원시에서 직접 동대문시장 혹은 삼거리시장으로 향하는 관계로 안양시장에는 축우 출회^{出廻}가 전무한 형편이며 다소간 지방우^{地方牛}가 출회되는 정도로 매매상황이 극히 불량하고 삼거리시장은 비교적 양호하다. 시장은 축우의 출회가 많아야 우상인의 출입이 많아지고 매매가 성행되는 것이니 지방 발전상으로 보아 안양시장은 앞으로 시일 변경을 단행함으로써 다소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며 매매상황은 아래와 같다.

축우 매매상황

시장명	시일	입장 두수	매매 두수			매매 총액(원)	1두 평균 가격(원)		
			성우 ^{成牛}	독 ^犊 ⁹⁶	계		최고	최저	평균
안양	5·10	389	60	28	88				
삼거리	5·10	1,386	420	143	563	48,825,000	130,000	20,000	75,000
계		1,775	480	171	651				

96 독: 송아지.

제5장 임업

1. 임정

가. 임정^{林政}

우리 민국에는 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특별한 법령도 기관도 설치되지 못하여, 금산^{禁山}·봉산^{封山} 등의 명목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왕실만을 위한 보림제도^{保林制度}밖에 없었다. 그래서 봉산과 금산, 일부 묘지 부근을 제외하고는 소위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 하여 남벌^{濫伐}을 자의로 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관습은 융희 원년^(단기 4242년) 농상공부^{農商工部} 농무국^{農務局}에 산림과^{山林課}를 설치하고 서울·대구·평양·목포에 임업사무소^{林業事務所}를 개설, 이의 적극 보호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무주공산 관념이 너무도 뿌리 깊이 박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주공산의 관념도 적치^{敵治} 연간의 가혹한 엄벌주의에 억압·소진되어 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은 가상할 만한 것이었다. 본군의 주산인 관악·삼성 양 산에는 소나무·전나무·잣나무·향나무·측백나무, 참나무류로 느티나무·상수리나무·굴참나무·밤나무·박달나무, 황철나무류와 벗나무류, 백양류^{白楊類}, 사시나무류, 단풍, 오리나무, 엄나무 등이 밀생하여 장관을 이루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말기에 들자 왜정 당국은 최후의 육탄전을 한다고 소위 긴급벌채령^{緊急伐採令}이라는 비상특명을 내려 남한 일대에 걸쳐 벌목에 착수하였다. 구역은 철도연선^{鐵道沿線}에 사방 10천^(杼, km) 이내라고 했으나 자동차로부터 10천 이내면 어디고 함부로 베어 넘기었다. 이 목재로 조선^{造船}을 하여 5만 톤^噸의 연합군 군함과 전투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물자의 완전한 고갈을 본 일본은 연료용으로서 석탄 대신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

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던지라, 불행히 서울과 인접한 본군은 10만 평에 달하는 목재와 장작의 공출^{供出} 할당을 받아 군내의 전산^{全山}을 수송 불능한 장소만 내어놓고는 일조^{一朝}에 반 이상이 적산^{赤山}으로 변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뿐이 아니었다. 종전 전 2, 3년간은 이 긴급별채 외에도 일체의 민수^{民需}를 억압하고서 군용재의 조선용재^{造船用材}·항공용재^{航空用材}·군용신탄용^{軍用薪炭用}이라 하여 국유·민유는 물론 심지어는 보호림^{保護林}까지 별채령을 내리었고 송탄유^{松炭油}·송근유^{松根油}·탄닌 원료 등으로 나무뿌리까지 공출을 강제했고 산채^{山菜}에까지 책임량을 지워서 울창하던 산림이 불과 두 달 동안에 화전^{火田}처럼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렇듯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본군의 임상^{林相}은 또 한 번 시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해방과 동시에 국유림과 일인 소유이던 적산^{敵産} 임야를 고래의 무주공산시하고 너나없이 남벌을 감행했던 것이다. 2차대전 발발 이래로 민수^{民需}는 극도로 억압당하고 있던 민중은 해방 후의 무정부상태이던 혼란기를 이용하여 사유·국유·보호림 할 것 없이 용재로 신탄용^{薪炭用}으로 생각 없는 남벌·도벌로 황폐했던 임상은 완전히 적산화^{赤山化}하여 버렸다. 이 피해는 해방 전의 전화 이상이었으니 해방 익년인 단기 4279년의 전국 피해액은 그 당시의 화폐로도 2699만 6870.47원의 실로 방대한 거액이었던 것만으로도 그 피해의 실정은 추측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군으로서의 가급적 별채 허가를 억압하는 한편 산림 보호 직원의 대우 개선과 무장화를 단행하여 일반의 애림사상 환기를 촉진하고 작^昨 4281년부터 정부의 조림^{造林}·사방^{砂防}의 각 10년 계획을 받아 대용 연료의 장려와 아궁이 개조 등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본군에는 다행히 군청 소재지인 안양읍 외에 국립임업시험소^{國立林業試驗所}와 종묘장^{種苗場}이 있어서 1벌10식^{一伐十植}주의를 엄격히 실행 중에 있다.

그리고 주택의 울타리를 수목으로써 대행케 할 운동을 전개 중에 있다. 총 호수 1만 8482호 중 농가 호수가 1만 1310이요 기타 주택의 약 반이 생목 또는 수숫대 등으로 울타리를 매년 새로 한다고 본다면 총계는 1만 5000호를 불하^{不下}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농가 1호가 매년 소요하는 울타리에 밤나무 울설피용으로 최소한 거수^{巨樹} 1주분^{株分}과 송지^{松枝} 혹은 수숫대 다섯 짐을 필요로 한다면 1년 총계 울목^{栗木}이 1만 5000주에 송지 혹은 수숫대가 7만 5000짐이 소요되는 계산으로 된다. 물론 이를 다시 연료로 쓴다 해도 다 써서 화력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1호당 1000원을 계상한다면 1년간의 울타리 비용만으로도 1억 5000만 원의 거액^{巨額}일뿐더러 이로 인한 임상의 피해를 가산한다면

최소한 3억의 상실이 된다.

만일에 이 울타리를 생목^{生木}으로 대신한다면 매년 연료도 공급될 수 있고 과수를 심는다면 과실 수입이 있고 꽃이 있어 미화도 되고 실로 일석이조의 소득이 될 것이다. 종류로는 집방나무·무궁화·울아카시아·노간주나무 등에 대추·밤·감·호두·복숭아 등 과수를 사이 사이에 심게 하자는 것이다.

나. 「식목일」의 설정

ㄱ. 「식목일」 실시 요강

이렇듯 극도로 황폐한 임야의 급조림화^{急造林化}는 관^官의 지도로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니 이에는 민중의 애국·애토 사상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이 애국열의 자발적 발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부문에 명절을 창정^{創定}하였거니와 애무^{愛武}⁹⁷ 사상을 고용^{鼓勇}키 위하여는 4월 5일로 정하고 이날을 기하여 관민이 일체로 황폐화한 우리 땅과 산에 나무를 심기로 한 것이다.

금년 이 식목일에는 군청사 전정^{前庭}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박사의 기념 식수를 비롯하여 각 관하의 관민을 총동원하여 식목을 하였다.

이제 이 「식목일」의 조림운동 실시요강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식목일」 조림운동 실시 요강

① 취지

근 40년간 왜정의 폭압으로 민족의 정혼^{精魂}을 빼앗기고 애림^{愛林}의 관념을 잃은 국민의 감정을 분발시키어 국토보안상 또는 임산자원 증식상 긴급한 조림운동을 촉진하여 그 실천적 성과를 거두고자 함.

② 실시 기일

식수기에 적당하고 역사적 의의가 깊은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고 본일을 전후하여 조림^{造林} 및 애림^{愛林} 운동을 전개함.

97 원문에는 애무^{愛武}사상으로 나온다. 그런데 식목일의 유래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당이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를 무력으로 내 쫓아 신성으로 옮기게 한 날인 음력 2월 25일을 기념한 것이라 하였다.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 4월 5일로 이를 기념하여 식목일로 하였다고 하여 애무^{愛武}사상의 오자로 보았다.

③ 실시 요강

- 본 운동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를 실시·장려하여 민중화하기에 노력함.
- 본 운동은 일대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조림의 긴급성을 철저히 인식케 하고 국민 전체가 빠짐없이 실시 또는 참가토록 권유함.
- 각 관공서·회사단체·학교 등에서는 본 식목일을 중심으로 조림운동을 전개하여 본 운동 목적 달성에 협력토록 권유함.
- 식재장소는 가급적 국공유림, 학교림學校林, 기타 공동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임지林地를 선정하되 중목衆目에 띄기 쉽고 식림사업의 모범을 표시하기 좋은 장소를 택함.
- 식재 묘목은 각 도에서 알선 혹은 무상제공 등으로 주최측에 입수키 용이토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함.
- 임업 직원은 관공서·회사·단체·학교 등의 주최로 식목을 실시할 시에 출석하여 지도 장려함.
- 본 운동 실시기간 중 또는 본 기간 전후에는 라디오 신문 등의 보도기관을 이용하며 또는 강연 선전문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애림사상愛林思想의 보급을 기함.
- 식목지植木地에는 표지標識를 건설하여 일반에게 인식케 함.

다. 「식목일」의 유래

신라가 태조무열왕 7년(단기 2993년, 서기 660년)에 백제를 격멸하고 문무왕 8년(단기 3001년, 668년)에 고구려를 쳐서 삼국을 통일하여 분열하여 있는 우리 민족을 처음으로 단일화한 것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일이다.

그러나 신라는 단독의 힘으로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당(중국)의 세력을 빌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격멸한 까닭에 당나라는 백제 고지故地에 웅진(공주)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고지에 9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고구려·백제의 고지를 통치할 뿐 아니라 신라를 계림도독부라 칭하고 신라까지 그 지배하에 두려고 함으로 신라의 국민은 크게 분개하여 문무왕 10년부터 8년간 당나라와 싸워 17년(단기 3010년, 677년) 2월 25일에 당나라로 하여금 당군의 최대 아성인 안동도호부를 평양으로부터 신성(봉천 부군)에 옮기게 하여 당나라의 세력을 완전히 반도로부터 구축하고 처음으로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문무왕 17년 2월 25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의의 깊은 날로 이날을 양력

으로 환산하면 4월 5일이다. 또 이날은 바로 신라 이후 역대 제왕이 선농단先農壇에 친사親祀하여 오곡이 풍작되기를 빌며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하여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던 바로 그 날이다. 특히 근세 조선의 전성기인 성종 시대에 여러 번 이 친사를 행하였는데 성종께서 24년 3월 10일에 세자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동대문 밖에 나아가 선농단에 친사하시고 적전을 친경하였을 때 유생과 노인·기생들이 왕의 가전(駕前, 어가 앞)에 모여 가요歌謠를 부르며 태평성세를 구가한⁹⁸ 이날이 또한 양력으로 환산하면 곧 4월 5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컨대 4월 5일은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반도로부터 구축하여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성한 날이며 근세 조선의 성종대왕께서 친경의 성전盛典을 거행하신 날로서 우리 민족사상民族史上 또는 농림사상農林史上 매우 의의 깊은 날이므로 이날을 택하여 식목일로 정한 것이다.

02. 임산

가. 면적

본군 임야 총면적은 1만 9691정보인데 이를 소유구분별로 보면 국유림과 사찰림이 약 100여 정보이고 그 외는 거의 전부가 사유림에 속한다.

다시 이를 임상별로 대별하면 입목지立木地가 임야 총면적의 3할 3푼, 산생지散生地가 5할 3푼, 미입목지未立木地가 1할 4푼 정도로 일정 당시에 비하면 점차 임상이 황폐하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조림

정부 10개년 조림계획에 의한 일반 신규 목재 본수가 23만 4000본이었고 그중 도비 전액 보조 식재가 22만 4000본 소유자 부담식재가 9000본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 기념식수 행사로서 식재한 것이 17만 6595본으로 1년간의 총 식재 본수는 41만 595본에 달한다.

98 원문에 “왕의 노전駕前에 모여 가요를 부르며 태평성세를 구가한”이라고 되어 있으나, 노전은 가전의 오자로 보이고 문맥도 매끄럽지 않아 수정하였다.

다. 묘포

양묘사업(養苗施業, 반별反別 4281년 실적) 3849평인데 그중 경기도 임업시험장 안양묘포(安養苗圃)에 1100여 평, 사영 도지정업자에 2700평이 시업되고 있다.

성묘(成苗) 생산 수는 임업시험장 분(分)이 44만 9939본, 지정업자 안양읍 이봉희(李鳳喜) 씨 분이 2만 5000본, 합계 47만 4939본에 달한다.

라. 임산물

임산물은 주로 신탄재(薪炭材)이고 용재(用材)는 겨우 50석에 불과한데 신탄재에 있어서는 일정 해방 후 석탄 수입의 불능으로 인한 연료난에 봉착하자 나날이 임상이 황폐하여 가는 형세에 있다. 연 생산량은 신탄(薪材), 목탄(木炭), 기타 연료재를 합하여 20여 만 관으로 용재(用材)를 합한 총생산 가격이 근근 300여 만 원에 불과한 현상이다.

부표 1. 임야면적표

단위: 정^㉔.%

구분	국유		공유	사찰림	사유	합계	백분비
	요존림	불요존림					
입목지	5	10			6,523	6,128	33
산생지	3	8			10,425	10,436	53
미입목지	5			93	2,619	2,717	14
여지(餘地) 기타							
합계	13	18		93	19,567	19,691	

부표 2. 조림상황표

단위: 본·인

소유 구분	조림 구분	신식(新植)		보파(補播) 또는 보식(補植) 수량	합계 수량	기념 식재	
		면적	수량			출동인원	식부 본수
국유	파종						
	식재						
공유	파종					1,500	20,000
	식재						
사유	파종		234,000		234,000		
	식재					1,500	156,000

부표 3. 시업(施業)상황

구분	국비	도비	면 및 학교	사영		합계
				지정	기타	
묘포 수		1		2		3
면적		1,149평		2,700평		3,849평
세묘(畝苗) 생산 수		449,939본		25,000본		474,939본

부표 4. 임산물 생산상황

단위: 원

구분	용재	신재	기타 임산연료	목탄	지엽	기타	합계
수량	50석	162,000관	20,000관	4,000관	16,700관	84관	50석 202,780관
가격	1,000	2,430,000	80,000	16,000	167,000	480,000	3,174,000

제6장

수산·잠업

01. 수산

가. 어업

본군은 황해에 면한 군자면의 외곽으로서 겨우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영세함을 면치 못한다. 전업·겸업 종업자를 다 합하여도 25호에 137인에 불과하다.

어업은 주로 수암면의 일부와 군자면의 일부 서해안 주민들의 오끼섬(오이도)을 중심으로 하여 4월부터 11월 말까지의 7, 8개월 종사하고 계절을 따라서 연평도에 출어하여 민어·대하·송어·준치·새우 등이 주로 잡힌다.

어업 종별은 안강망·진강망이 대부분으로 종업자는 137명에 어선이 14척, 어망이 185매이다.

나. 제염

어업은 이렇듯 영세하나 본군에는 군자면에 국립염전이 있어 그 면적이 600여 정보에 연산액(年産額)은 3617만 4193천(畝, kg)에 달한 일도 있다. 특히 금년은 강우량이 적어서 그 생산량은 남한 전국의 총생산량의 약 35%를 올리어 외염(外鹽)에만 의존하고 있던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수미(愁眉)를 펴게 하였다. 종업원은 연(年) 연인원 16만 8627명이 동원되고 있다.

어업자 어선 및 어구 표

종별	어업자		어선구			어구		적요
	호수	인구	어업양식	수산제조 운수기타	계	총수	가격	
한국인	25호	137인	9척	5척	14척	185	252원	주요어장은 군자면 오이도 근해
외국인								

주요 어획물

종류	민어	뱅뱅이	갈치	새우	송어	조기	꽃게	대하	가막조개	병어	준치	꿀뚜기	등족	벗족
수량	125	2,500	6,600	6,680	1,918	2,850	1,250	1,450	1,250	950	850	560	1,855	955
판매고	750	187	330	800	115	213	56	62	81	33	29	14	65	36

어업별 어획고

어업종별	출어선수	승조인원	어획고	어업계절	주요어장	비고
안강망	9	28	25,850관	4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오이도 근해	
건강망	10	65	18,003관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오이도 근해	

염전

구분	경영별	염전면적	원염 사용수량	생산고	가격	종업원 연인원	1개년 취업일수
천일염	국영	603정보	1,000톤	36,174,193천(kg)	578,787,088원	168,627인	205일

02. 잠업

가. 상전桑田

상전 면적은 97정 8반으로 그중 본반별本反別 23정 9반, 추산반별推算反別 73정보 9반에 불과하고 신규 식재가 별로 없이 예년의 실적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현상이다.

상전 면적

단위: 정반

상전 면적			수형용 _{樹形用} 면적						
본반별	견적 반별	계	근예 _{根刈} 상전		중예 _{中刈} 및 고예 _{高刈} 상전		입통 _{立通} 상전		합계
			본반별	견적 반별	본반별	견적 반별	본반별	견적 반별	
23.9	73.9	97.8	12.3	3.9	7.3	28.0	4.3	42.0	97.8

나. 양잠상황

사육 호수 313호(농가 호수의 3분)로 잠종 소립_{掃立}⁹⁹ 매수_{枚數} 260매(1호당 1매 미만) 견산_{繭産} 733관(眞, 잠종 1매당 2관 790문¹⁰⁰)에 불과하고 앞으로 외화 획득을 위하여서는 적극 장려가 요청되는 바이나 현재는 겨우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양잠상황

구분	상전 반별	사육 호수	잠종소립 매수	견산량 (관)	가격 (원)	양잠가 1호당		잠종 1매당	
						견산량(문)	금액(원)	견산량(문)	금액(원)
춘잠 _{春蠶}		161	150	450	630,000	2,800	3,920	3,00	500
하추잠 _{夏秋蠶}	97.8	152	110	283	373,000	1,800	1,320	2,570	550
계		313	260	733	1,003,000	2,300	2,620	2,790	525

다. 수견_{收繭} 및 공동판매

수견량 733관 중 502관(견산량의 6할 3분)을 공동판매에 출하하고 그 나머지는 자가 소비에 충당되고 있다.

견(누에고치) 공동판매상황

단위: 관·원

춘잠			하추잠			합계	
판매수량	가액	단가	판매수량	가액	단가	판매수량	가액
305관	484,950	1,590	197관	286,918	1,450원	502관	771,868

99 소립: 알에서 깨어 나온 누에를 누엇자리에 떨어 놓음. 누에떨기라고도 한다.

100 문: 잠종 1매당 2관(眞, 3.75kg)의 1/1000인 3.75g이다. 1909년 개정된 「도량형법」으로 도입된 일본식 중량 단위이다. '돈'이라고도 한다.

라. 잠종蠶種 및 상묘桑苗

잠종 제조와 상묘 생산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업이었으므로 왜정 착취정책에 의하여 일정 당시는 주로 일본인만이 이 사업에 종사하여 온 형편이었다. 그래서 본군에 있어서도 신동면 잠실리에 거주하던 일인 수호數戶가 본업에 전종專從하여 왔고 해방 이후는 한국인이 접수 경영하게 되어 현재는 이영섭李英燮 씨 외 2인이 잠종 제조에 종사하여 연 5000매 정도를 생산하고 상묘는 안양읍 일동리 이봉희李鳳喜 씨가 접목(接木, 노상魯桑) 3만 본, 실생實生 20만 본을 생산하고 있다.

제7장 원예

01. 과수

본군 과수작(果樹作)의 중심지대는 안양으로 일찍이 배와 포도의 명산지로 전선(全鮮)에 명성이 높았었고 특히 안양 일대는 지질이 사질양토(砂質壤土)로 과수작에 적지인지라 양과 질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우량품이 있다. 본군에서의 과수 재배 시초는 거금(距今,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한일합방 당시 일인 오키이(沖井)라는 자가 안양에 정착하자 지질·기후 그 외 소비도시 대서울에 인접하는 등 과수작의 제반 호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배와 포도 등 수십 정보를 재배하게 됨에 이르자 차차로 재배기술이 보급되고 한편 경제조건도 타 작물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하여 부근 일대뿐 아니라 군 전체에 금(金)트하여(걸쳐) 과수 재배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 후 일정 당시 일제 침략전 소위 대동아전쟁이 시작되자 식량 증산을 빙자하는 작부 통제령(作付統制令)에 의하여 과수의 발굴 신규 재배의 억제 등으로 침체상태에 들어간 채 일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해방 후의 현황은 과수의 고령으로 인한 개폐작(改弊作) 또는 관리의 불충분 등으로 배는 거의 전멸상태이고 포도만은 예년의 실적을 유지하는 정도에 있는데 앞으로의 이 사업발전을 획책코자 군내 과수업자 100여 명을 총망라한 과실 생산조합을 기축으로 맹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앞으로 포도와 도(桃, 복숭아)는 상당한 증산이 예상된다.

재배면적 이(梨, 배)·도(桃)·포도 및 울(栗, 밤)을 합하여 132정 3만인데 그중 배가 25정, 복숭아가 30정 6반, 포도가 44정 2반, 밤 및 기타가 32정 5반으로 예년에 비하여 이 면적은 축소되고 복숭아와 포도 면적은 점차 증가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면별로 개관하면 안양읍과 동면이 거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는 각 면에 산재되어 있다.

이의 총 수확량은 17만 7000여 관, 생산가액으로는 8000여 만 관에 달하고 그중 포도가 약 10만 관으로 수위이고 복숭아와 배가 각각 3만 7000관 정도이며 그 외 밤 및 기타가 약 5000관 생산되는데 특히 안양 일대는 밤의 소산지로서 이름이 높다.

02. 소채

본군 소채작(蔬菜作)은 신동면을 중심으로 하여 과천면·동면 등 서울시 인접 면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특히 신동면은 지질이 적합하고 일찍이 재배기술이 진보되어 생산량에 있어서 서울시 수요량의 3, 4할을 공급한다고 일컫는다. 지금 그 발달경로를 찾아보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일인 수개(數個) 호가 한강 유역인 신동면 잠실리에 착농(着農)하여 축성(促成) 재배를 시작한 것이 그 시초로 일반 농가의 생산보다 월여(月餘)나 일찍이 생산하여 시장에 출하케 됨으로 상당히 고가의 수입을 거두게 됨에 이르러 부근 일대는 순식간에 축성재배의 기술이 보급 향상되어 상당한 소채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고 차차로 서울시 인접 면에 보급되어 현재는 수암·군자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는 널리 판매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 상황을 일정 해방 당시와 비하면 면적에 있어서나 생산량에 있어서나 점증일로에 있고 특히 이 발전을 기도코자 군내 소채업자 2000명을 총망라한 소채조합(蔬菜組合)을 기축으로 적극 장려를 실시 중에 있다.

재배면적은 무·백채(白菜, 배추)·호과(胡瓜, 오이)를 위시한 20여 종으로 합계 1754정 2반(전면적의 3할 7푼)인데 그중 무가 468정 5반, 배추가 364정 5반, 오이가 165정 8반으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면적을 면별로 대별하면 신동면이 약 500정보, 동면·과천면이 각각 200여 정보, 그 외는 각 읍면에 산재 분포되고 있다. 수확량은 도합 800만 관에 달하고 생산가격은 무려 6~7억만 원에 달하는데 그중 무가 300여 만 관, 배추 250여 만 관, 그외 오이·진과(眞瓜, 참외)·토마토 등의 수량도 100여 만 관에 이른다.

부표 1. 과수 작부반별 및 수확고 표

단위: 정반·관

읍면별	이 ^梨			도 ^桃			포도 ^{葡萄}			울 ^栗 및 기타			합계		
	작부 반별 (정반)	수확 고(관)	반당 수량 (관)	작부 반별 (정반)	수확 고(관)	반당 수량 (관)	작부 반별 (정반)	수확 고(관)	반당 수량 (관)	작부 반별 (정반)	수확 고(관)	반당 수량 (관)	작부 반별 (정반)	수확 고(관)	반당 수량 (관)
안양읍	8.2	11,550	141	1.4	1,120	151	14.3	58,460	409	31.8	3,790	12	55.7	75,920	136
과천면	5.7	7,680	135	5.5	2,600	47	6.8	9,970	147	2	120	60	18.2	20,370	112
신동면	2.3	4,000	174	1.6	6,000	375	0.2	600	300				4.1	10,600	259
동면	3.1	5,300	171	9.8	20,500	209	10.2	20,400	200	2	300	150	23.3	46,500	200
서면	0.2	400	200	3.7	2,050	82	4.9	4,320	86	2	500	250	9.0	8,270	92
남면	3.3	3,300	100	1.6	1,520	95	7.1	3,550	50				22.0	8,370	70
수암면	0.9	1,300	144	1.9	400	21	0.7	250	36				3.5	1,950	56
군자면	1.3	3,000	231	5.1	2,000	40				1	250	250	6.5	5,250	81
합계	25.0	36,530	146	30.6	38,190	125	44.2	97,550	221	32.5	4,960	153	132.3	177,230	134

부표 2. 과실 수확고 누년 비교표

연도 별	과수원 경영자 (인)	이			도			포도			울 및 기타			합계	
		작부 반별 (정반)	수확고 (관)	반당 수량 (관)	작부반 별 (정반)	수확고 (관)	반당 수량 (관)	작부반 별 (정반)	수확고 (관)	반당 수량 (관)	작부반 별 (정반)	수확고 (관)	반당수 량 (관)	작부반 별 (정반)	수확고 (관)
4277	90	34.3	77,830	227	17.1	24,830	145	42.6	103,350	243	30.0	4,500	15	124.0	210,510
4278	95	34.3	32,630	95	14.5	18,370	127	45.5	89,010	196	30.0	4,750	16	124.3	144,760
4279	102	42.3	93,150	220	38.4	37,600	98	50.0	124,870	250	32.0	4,700	15	162.7	260,320
4280	110	30.0	37,200	124	29.5	29,000	98	42.5	94,500	222	32.5	4,900	15	134.5	165,600
4281	125	25.0	36,630	146	30.6	38,190	125	44.2	97,450	221	32.5	4,960	15	132.3	177,230

부표 3. 소재¹⁰¹ 작부반별 및 수확고 표

종별	작부반별 (정반)	수확고 (관)	1반보당 수확고(관)	종별	작부반별 (정반)	수확고 (관)	1반보당 수확고(관)
마령서	137.7	293,800	213	고초	108.5	82,175	76
감저	58.3	103,070	188	가자	29.9	102,020	341
무	468.5	3,029,200	646	총	25.0	71,940	287
백채	364.5	2,561,500	703	대산	28.7	35,340	123

101 부표 3의 소재 종별에서 마령서^{馬鈴薯}는 감자, 감저^{甘藷}는 고구마, 백채는 배추, 양백채는 양배추, 고초^{高草}는 고추, 가자^{茄子}는 연밭, 총^총은 파, 대산^{大蒜}은 마늘, 우방^{牛蒡}은 우엉을 말한다.

종별	작부반별 (정반)	수확고 (관)	1반보당 수확고(관)	종별	작부반별 (정반)	수확고 (관)	1반보당 수확고(관)
양백채	6.5	46,250	700	우방	3.5	31,100	359
오이	165.8	500,520	302	토란	8.7	31,200	348
참외	92.8	324,800	350	시금치	17.7	23,000	130
호박	108.0	348,750	338	기타	85.4	179,025	210
수박	12.2	37,350	306				
토마토	32.5	145,600	447	합계	1,754.2	7,928,140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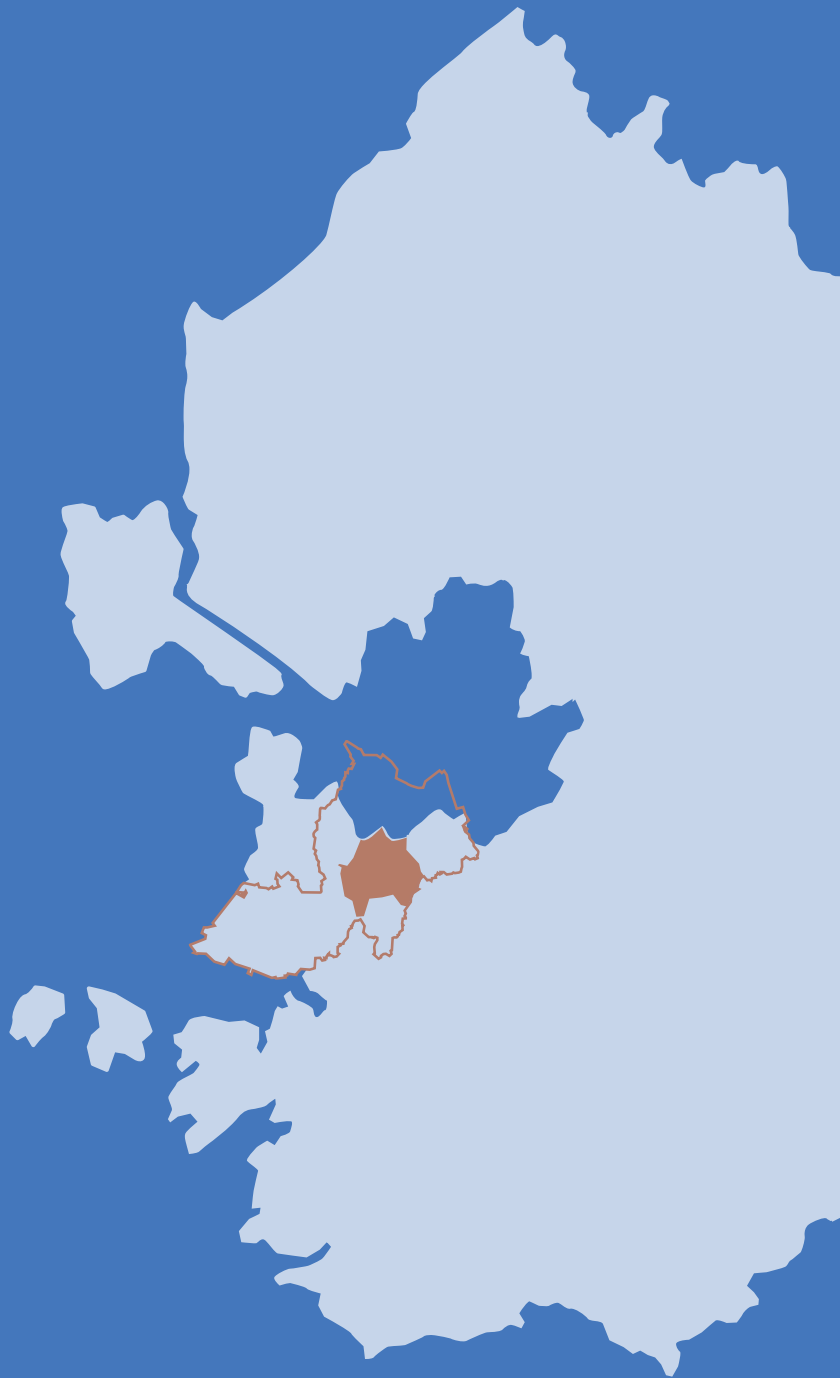
부표 4. 읍면별 소재 작부반별 표

읍면별	작부반별(반)	전면적에 대한 비율(%)	농가 1호당 작부반별(묘)	비고
안양읍	1,580	27	13	
과천면	2,143	48	23	
신동면	5,674	90	46	
동면	2,504	39	16	
서면	1,286	25	9	
남면	957	33	16	
수암면	1,438	17	9	
군자면	1,960	23	11	
계	17,542	37	16	

부표 5. 주요 소재 수확고 누년 비교

연도	작부반별(반)					수확고(관)					반당수확고(관)				
	무	백채	오이	참외	고초	무	백채	오이	참외	고초	무	백채	오이	참외	고초
4277	3838	3293	187.5	273.6	106.8	1,251,113	1,049,719	730,000	1,007,950	94,390	326	319	389	368	88
4278	4205	3414	159.4	14.0	109.1	1,724,800	1,142,725	432,495	27,265	58,528	411	335	271	195	54
4279	(원문 미 표기)														
4280	4690	3540	157.9	13.6	108.7	3,098,500	2,489,100	457,300	33,550	67,050	661	703	302	350	76
4281	4685	3645	165.8	92.8	108.5	3,029,200	2,561,500	500,520	324,800	82,175	703	703	302	350	76

제5편 행정·치안·재정



제1장 행정

가. 개황

단기 4278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이는 오로지 국내·외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해 온 선열들의 거룩한 피의 대가이었다.

그러나 일정의 철의 장막 속에서 살아온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이 위대한 날이 올 것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적치의 뒤를 받아 민심은 수습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일제는 36년간의 가혹한 학정의 증거를 말살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행정서류를 소각했고 또 대부분의 기재器材를 파괴 혹은 매각하여 행정의 유기적 활동을 저해하는 만행을 감행했으므로 행정 임무를 수행하기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행정 면의 수난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으니 해방과 함께 정치·경제의 혼란과 불안은 덮치어 좌익의 전위대인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가 각 행정기관을 접수하려 했고 적치 연간에 가슴속에 뭉치었던 보복적 심리가 일인이 철거한 후의 우리 동포 행정자에 게로 폭발을 시키는 등 실로 가탄可嘆한 바 있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인은 이에 모든 난관과 잘 싸웠다. 그리고 이기었다. 이 실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결정이 실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위대한 저력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 면이 모든 혼란을 무릅쓰고 이만한 치적을 남기었음은 오로지 치안 부문에서의 결사적인 협조가 주효했기 때문이니 해방 후 역대의 우리 군 치안 책임자들의 공은 자못 큰 바 있다 할 것이다. 안으로는 10만 주민의 신상을 돌보고 공산분자와 혈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38선 수호의 일역까지 맡고서도 해방 5년간 악당의 발호를 단호히 불허하였다. 이 치안의 주효가 실로 행정 수행에 크게 이바지해 주었던 것이다.

특히 현 행정·치안의 양 책임자는 위정·통치자로서보다도 민중의 ‘아저씨’로서의 덕을 위주로 임무수행에 임하고 있어 10만 군민으로 하여금 도원경(桃源境) 그대로의 낭환지(琅環之地)로 알고 생업에 전력을 경주케 하였다.

해방 후의 본군 행정 책임자를 들면 아래와 같다.

군수 성명	부임 연월일	퇴임 연월일	사유	비고
손영기(孫永琦)	단기 4278년 10월 6일	단기 4279년 9월 25일	도 농무국 식량과장으로 전임	
한창수(韓昶洙)	단기 4279년 9월 25일	단기 4281년 3월 31일	의원 면관	
김건열(金健烈)	단기 4281년 5월 15일			

나. 5·10선거

이렇듯 혼란 속에서 군정 시대를 지나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정부를 수립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단기 4281년 5월 10일의 관시하(管視下)의 총선거가 바로 이것이다.

UN에서는 갖은 방법으로 남북한을 통일한 총선거 실시를 꾀했으나 소련의 반대와 북한 공산분자들의 불응으로 이의 결실은 보지 못하고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케 된 것은 우리 민족으로 보아 일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파괴 공산분자들의 치열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본군에서는 5월 10일을 기하여 군민이 일제 투표를 개시한 결과 총인구의 97%가 등록했고 기권을 3%라는 호성과를 거두었다.

입후보자는 장배근張培根·이재형李載瑩·유지연柳志淵·이영섭李英燮 등 4씨^氏였고, 본군 남면 산본리 출신인 이재형 씨가 우리 10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선량진選良陣에 파견되었다.

시흥군 선거구 선거상황 일람표

1946.8.25. 현재 인구수			유권자 수			대 ^對 인구 비율	등록인 수				대 ^對 유권자 비율	확정명 부등록 인원수	총투 표 수	동상 ^{同上} 내역		기 권 자 총 수	기 권 율	비 고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43,576	42,665	86,241	19,296	17,506	36,802	42%	18,956	17,015	35,971	97%	35,969	34,918	34,362	556	1,051	3%		

다. 기후

시흥군청 군공무원 직종별 정원표

단기 4282년 4월 현재

직종별	군수	내무과					산업과					합계	
		과장 (주사)	과 직원				과장 (주사)	과 직원					
정원 수	1	1	주사	장학사	서기	소계	1	주사	기사	서기	기원	소계	42
			6	2	7	16		2	5	4	13	25	

라. 관구

본군은 1읍 7면으로 편성되어 있다. 면·읍에 안양읍·동면·서면·신동면·과천면·남면·수암면·군자면¹⁰² 7면으로 총면적 354.06평방천(km²)의 본도 21군 중 제20위에 해당한다.

본 구역의 남북 거리는 23천(km), 동서는 35천으로 황해 해안선까지는 자동차 도로가 완성되어 있어 약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이를 다시 표로 작성하면 군청 소재지 안양읍 과 각 면과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102 원문에는 군자면이 누락되어 포함시켰다.

각 면 간 거리표

서울										
18.21	동면									
22.46	4.25	서면								
16.14	15.70	19.95	신동면							
21.26	13.74	17.99	5.11	과천면						
30.96	12.75	18.10	16.02	10.90	남면					
32.96	11.12	10.14	21.80	16.68	10.90	수암면				
43.39	19.95	15.70	33.14	28.02	22.24	11.34	군자면			
24.42	6.21	11.56	14.17	9.05	6.54	7.13	18.97	안양읍		

행정구역

4282년 9월 현재

읍면별	이수 里數	면적 (평방천)	1평방수 평균 ¹⁰³		면장	부면장	서기	기사	구장	반장
			호수(호)	인구(인)						
안양읍	5	39.07	3,791	20,026	1	1	18	2	34	167
신동면	8	41.28	1,675	9,582	1	1	13	2	35	105
과천면	6	36.80	932	5,204	1	1	11	1	14	67
동면	6	68.53	2,421	12,363	1	1	15	2	24	194
서면	8	46.53	1,702	9,733	1	1	12	2	28	126
남면	5	21.36	1,055	5,866	1	1	11	1	12	56
수암면	19	61.01	2,114	11,588	1	1	13	2	39	165
군자면	14	53.95	2,921	15,644	1	1	14	2	40	168
계	71	370.53	16,612	90,006	8	8	108	14	226	1,042

마. 읍면별 개황

읍면 개황

읍면별	면장 성명	직원 수	동리 수	구장 수	면적	호수	인구수			예산액 (원)
							남	여	계	
안양읍	조한구	22	5	34	39.07	3,791	9,835	10,191	20,026	6,499,820
과천면	맹준섭	14	6	14	36.80	932	2,683	2,521	5,204	1,716,850

103 호수와 인구는 각 읍면별 호수와 인구인데, 1평방수 평균이라고 한 것은 착오인 듯하다.

읍면별	면장 성명	직원 수	동리 수	구장 수	면적	호수	인구수			예산액 (원)
							남	여	계	
신동면	권완식	17	8	35	41.28	1,675	4,881	4,701	9,582	4,905,660
동면	유지소	20	6	24	68.53	2,421	6,801	5,562	12,363	3,855,085
서면	노재철	17	8	28	46.53	1,702	4,973	4,760	9,733	2,472,250
남면	양재호	14	5	12	21.36	1,055	2,950	2,916	5,866	1,662,300
수암면	유지연	17	19	39	61.01	2,114	5,862	5,726	11,588	2,772,509
군자면	한중현	14	14	40	55.95	2,921	7,884	7,760	15,644	3,039,790
계		147	71	229	370.53	16,612	45,869	44,137	90,006	26,925,264

본 표는 8월 13일로 서울시로 편입된 동면·도림·구로·번대방 3개 리의 인구를 제외한 숫자임.

7. 안양읍

① 위치 및 지세

안양읍(安養邑)은 단기 4282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1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면으로서 읍으로 승격을 한 본군의 군청 소재지다. 동은 화성면계(華城面界)와 상접했고, 서는 수암(秀岩·서)의 양 면과 접했으며, 남은 본군의 남면(南面)과 북은 동면(東面)을 격(隔)하여 서울특별시와 대치했다. 국철 경부선 안양역에서 국도까지는 불과 40분으로 도달한다.

지세는 대체로 평원지대를 이루고 있어 토지도 비옥하고 청계산(淸溪山)에서 발원한 안양천(安養川)의 유역은 더욱 관개하기 좋아서 농업지대로서도 천혜적인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거니와 지리적으로도 국도 서울로 통하는 경수가도(京水街道)와 경부선(京釜線)의 국철이 읍심장부를 통하고 있어 근대도시로서도 유리한 지위에 있다.

특히 예로부터 수질이 좋기로 일러오는지라 음료에도 이상적이거니와 대공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읍내에서만도 금성방직을 비롯한 제일·조선 등의 각 방직공장과 석면·금속·요공업의 각 공장 수 20을 산(算)함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행정 면에 있어서도 군청·읍사무소 등이 있어 중심지이지만 10만 군민의 치안은 물론 국도 대서울의 외곽 수호의 대임(大任)을 맡고 있는 경찰서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기타 교육·금융·통신·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음은 물론 종축장(種畜場)·임업시험장·가축연구소 등 국가적으로도 사명이 큰 기관이 있어 신흥 군시(郡市)로서의 면목이 약연(躍然)한 바 있다.

또한 안양읍 일대는 지질이 원예에 특히 적합하여 각종 과수의 다량 생산지이어서 본군의 명산일뿐더러 경기금강·소금강 등의 칭이 있는 관악산 탐승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

② 인구

총호수¹⁰⁴는 3791호요, 총인구는 2만 26명으로 본군 8읍면 중 면적으로는 제6위면 서도 인구수로는 제1위를 점하는 밀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남녀별로 보면 남이 9825명이요, 여가 1만 191명으로 여자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안양읍이 공도^{工都}로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교육

교육기관으로는 안양·시흥의 양 국민학교를 비롯한 초등교육기관과 각 공장의 공민학교·고등공민교, 중등교육기관으로 안양공립중학교와 안양여자중학이 있다.

④ 명승

읍 입구의 만안교^{萬安橋}를 위시하여 산자수명^{山紫水明}한 풀(수영장) 일대의 유곡^{幽谷}, 신라시대의 고찰 삼막·연주를 비롯한 14사찰의 탐승 등을 들 수 있겠으나 명승편이 따로 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ㄴ. 수암면

① 위치 및 지세

수암면^{秀岩面}은 본군 서단에 접하여 군자면과 함께 본군의 해안선 보유 면이다. 동은 본군 안양읍과 수원군 반월면과 접하고 있고 서는 본군 군자면과 부천군 소래면에 접했으며 북은 본군 서면과 접경했고 남은 황해에 면했다.

동^同 면역^{面域}은 단기 4247년 왜정하 군면 폐합에 의한 시흥·안산·과천 3군의 시흥군 개편으로 인하여 전 안산군역이던 군자면과 함께 본군에 편입되었다. 현 수암·군자 양 면역이 원 안산군의 치역^{治域}이었다.

지세는 대체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다. 동 면의 중앙부를 점유한 수암 주봉은 광덕^{廣德}·마하^{麻霞} 등 치봉^{峙峰}을 이루어 이 유곡의 수원을 가진 보통천^{普通川}·월피천^{月陂川}¹⁰⁵ 등이 동

104 원문에는 총호구 수로 되어 있으나 호구 수^{戶口數}는 호수^{戶數}와 구수^{口數}를 병칭한 말로 집의 수호와 식구 수를 말한다. 여기서는 집의 수호인 호수를 말하므로 총호수로 수정하였다. ‘읍면별 개황’에서 다른 면의 서술에서 총호수를 총호구 수·총호구·총인구수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총호수로 수정하였다.

105 원문에는 월파천^{月波川}으로 나오나 월피천^{月陂川}으로 바로잡았다. 월피천은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수암봉에서 발원하여 양상동·월피동·성포동·고잔동 등을 거쳐 시화호를 통해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인 안산천^{安山川} 중에서 월피동을 지나는 구간을 가리킨다.

에서 서남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가고 있다. 이 양천川은 동면 농작에 다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니 수암은 대체로 식량의 자급을 하고 있는 면이다.

면사무소는 면의 최동부인 수암리秀岩里에 있고 전면 19개 리 41부락으로 그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교통은 안양·안산 간의 지방도가 있어 자동차로 약 1시간여, 수원·인천 간의 지방도와 안산·군자 간의 면도, 소사·원곡 간의 지방도, 수인선과 경부선(안양역)에 접속되는 목감·능곡 간의 면도가 면 내의 중요 지점을 口자형으로 사통四通하고 있다. 수인철도(수원·인천 간)가 서남부 해안지역을 통과할 뿐 아직 역이 설치되지 않아 이에의 요망은 날로 커 가고 있다.

② 인구

동면은 총호수 2062호로 총인구는 11만 1706명이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이 5840, 여가 5760이요, 직업은 농업이 90%를 점하고 있다.

식량 생산은 백미白米 9242석과 정맥精麥 3141석에 두류豆類 2000석을 산출하고 있어 대체로 면민의 소용 식량은 자급하고 있다.

이를 다시 면적별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답 총면적	1341정 4반
전 총면적	807정 9반
대 총면적	75정보
임야 총면적	3300정보

그러나 임야는 적치 말기의 소위 긴급 벌채와 해방 후의 무지한 사람들의 남벌濫伐·도벌盜伐로 완전히 황폐해 버렸으나 면·군의 긴밀한 제휴로 방금方今 조림에 최대능력을 경주하고 있다.

③ 교육

해방 전까지는 1만을 초과한 동면의 교육기관으로서 안산국민학교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 1교만으로 면내 학령아동의 반도 수용키 어려움으로 면민의 쫓기로 해방 직후 화정국민학교를 신설하였다. 이 외에 안산교의 분교실分教室과 안산공민학교가 있다. 이의 명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명	교실 수	학급 수	재적생 수	직원 수
안산국민학교	9	15	881	13
동 분교	1	1	51	1
화정국민학교	6	9	507	8
안산공민학교	3	2	40	2

성인교육은 아직 이상점에 도달치 못하고 있다. 13세 이상 50세 미만의 약 50%가 아직 문맹이어서 적극 이의 타파를 추진 중에 있다.

④ 명승고적

명승으로서의 동 면 해안선 부락인 성포리^{聲浦里}의 귀범^{歸帆}¹⁰⁶을 예로부터 일러오고 있으며 인안수리저수지^{仁安水利貯水池}의 은좌수조^{銀座垂釣}는 이 일대가 승경지이기도 하려니와 1일 향락에는 가위^{可謂} 적임지라 할 것이다.

고적에는 화정리^{花井里}에 김녕김문^{金寧金門}¹⁰⁷의 고송정각^{枯松亭閣}¹⁰⁸과 정각^{旌閣}¹⁰⁹이 있고 안산에는 문묘^{文廟}¹¹⁰가 있다.

㉔. 남면

① 위치 및 지세

본군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수원군과의 접경이다. 전면이 비산비야의 평원지대를 이루어 토양은 비옥하여 일체의 경작에 적합하나 약간의 고대^{高臺}를 이루어 대부분은 천수전^{天水田}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북은 안양읍이 접하고 서는 수리산 정상으로 수암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면사무소는 군포역전에서 약 500(m) 지점에 있다. 국철을 이용하면 본군에서 약 10분이면 족하고 서울과의 연락은 국철로 1시간, 경수가도의 버스를 이용할 때는 구군포에서 내려 남양으로 통하는 지방도로로 도보 약 20분을 요한다.

106 원문에는 소범^{蘇範}으로 되어 있으나 귀범^{歸帆}의 오자로 보았다. 성포리는 옛 안산군의 유명한 포구마을로, 고기잡이를 하러 멀리 나갔던 어선이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 광경으로 복적였다고 한다.

107 원문에는 선녕김문^{仙寧金門}으로 되어 있으나 화정리는 김녕김씨^{金寧金氏} 김문기^{金文起} 후손의 집성촌이라 김녕김문으로 바로잡았다.

108 원문에는 점령정각^{點嶺亭閣}으로 되어 있으나 화정리에는 고송정^{枯松亭}이라는 정자가 남아 있어 고송정각으로 바로잡았다.

109 정각: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인 정문^{旌門}을 한곳에 모셔놓은 건물이다. 화정리에는 김녕김씨 다섯 인물의 정문을 모신 오정각^{五旌閣}이 남아 있다.

110 문묘는 향교 내에 있는 대성전을 말하는데, 안산향교는 6·25전쟁 때까지도 존재하다가 1957년쯤 철거되었다고 전해진다.

동면은 단기 4247년까지는 과천군에 속해 있었던바 과천·안산의 양 군이 본군에 통합되는 동시에 본군 남면南面으로 개편되면서 부곡리富谷里에 있던 면사무소를 단기 4257년에 현 소재지인 당리(군포역전)로 이전하였고, 현 건물은 4262년에 신축하였다.

② 인구

남면의 총호수는 1055호(단기 4282년 5월 1일 현재)로 인구는 5866인이요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이 2950인, 여가 2916인이요, 다시 이를 직업별로 본다면 농업의 4196인이 수위요, 상업 및 교통 종사자가 2950인, 광업 및 공업이 292인, 공무원이 310인, 기타가 159인으로 되어 있다. 식량생산은 최소한 6335석을 필요로 하나 그 소요량의 약 8할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2할강은 타 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이 있다.

③ 교육

남면에는 단기 4252년 고 조중완趙重完 씨의 노력으로 설립된 현 군포국민학교가 있을 뿐이다. 해방 전까지는 동 면 산본리와 부곡리에 사설 강습소가 있었으나 해방 후 양 강습소 아동을 동교에 편입시키어 현재 10학급 편성으로 총아동 수는 903명이다.

교사校舍는 목조 평동平棟이요, 총건평 153평으로 지현식池賢植 교장 이하 9명의 교직원 이 배치되어 있다. 면내 학교 아동은 전부 취학하고 있고 금년도에 20명이 미취학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학비 부담이 곤란한 극빈 아동이다.

④ 명승고적

동 면은 비산비야의 평원지대인데다가 면 내에는 산이라 이를 만한 것은 수리산의 동측 일면이 있을 뿐이요 물도 내라 이를 만한 것이 없다. 군포천이 있으나 한발기에는 거의 건천이 되다시피 하는 내이어서 이름 지어 승경이라 할 만한 곳이 없고 후세에 전하기에 족한 고적도 없다. 구태여 승경을 든다면 산본리 뒤 수리산상의 태을봉에서의 황해 조망 정도일 것이다.

ㄷ. 동면

① 위치 및 지세

동 면은 본군의 북동부를 점하고 있어 북은 마장천馬場川을 경계로 서울특별시와 접하고

있고 서남은 안양읍 안양천을 끼고 서에 접했으며 서에는 본군의 서면과 김포군과 접경했다.

지세는 소금강의 칭이 있는 관악산이 중앙을 점유하고 있어 대체로 산악지대의 감이 있다. 이 관악에는 연주암·삼막사 등의 고찰이 있어 승지로 이름이 있거니와 동 면의 유일한 수원지로 동 면의 농경지로 이 수원에 의존하는 면적은 실로 광범하다. 안양천은 면의 서쪽을 관류하고 관개에 이용되고 있다.

② 인구

동 면의 총호수 2421호로 인구는 1만 2363인이다. 총인구의 약 7할강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토지가 비옥하니만큼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

③ 명승고적

경기금강의 칭이 있는 관악산이 동남으로 달리고 있어 금주동천¹¹¹을 비롯하여 호압산의 승경, 호압사를 위시한 대소의 고찰이 산중에 산재했고 사경^{寺境}, 사찰의 풍경은 다 일컬어지는 절승지이다. 동면^{東面} 봉천리에는 고려 충신 강감찬^{姜邯贊} 장군이 탄생한 낙성대가 있다.

ㄱ. 서면

① 위치 및 지세

서면^{西面}은 본군 서에 위치하여 면명이 생기었다. 동은 본군의 동면과 접하고 서는 부천군, 남은 본군 수암면, 북은 부천군의 일부와 인접되어 있다.

지세는 대체로 산야상반^{山野相半}하고 평야는 토지도 비옥하다. 운산^{雲山}¹¹²은 면 중앙지점을 점하고 있고 남에 서독산^{書讀山}, 북에는 도덕산^{道德山}이 남북으로 연결^{連擊}되어 이 산줄기를 타고 내린 데서 평야가 이루어졌으니 칭하여 산동평야^{山東平野}·산서평야^{山西平野}라 한다. 안양천은 동부평야를 스치어 관개의 혜택을 입히며 한강으로 유입한다.

관하에 28개 동^洞을 포함하고 있고 면적은 4만 4851방천^(方秆 km), 동서의 폭이 4천^(秆 km), 남북의 길이가 8천이며 관내 일순^{一巡} 이정^{里程}은 약 16천, 면사무소와 군청과의 상거^{相距}는 약 6천이다.

111 금주동천^{衿州洞天}: 원문에는 금주동천^{衿州東天}으로 되어 있으나 승경지를 일컫는 말이므로 수정하였다. 동천^{洞天}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을 이른다.

112 운산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과 노온사동에 걸쳐 있는 산으로, 구름산으로 불린다. 높이는 237m이다.

② 인구

서면의 총호수는 1702호로 총인구는 9734명이다. 이를 다시 남녀별로 보면 남이 4975명, 여가 4761명으로 역시 남자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총인구의 약 8할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생활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③ 교육

서면국민학교와 온신국민학교의 양 국민학교가 있어 학령아동을 전부 수용하고 있다. 양 교의 학급 수는 23학급, 아동 총수 1463명이요 단기 4281년도에 학령아동으로서 미취학아동은 138명이나 이는 교실보다도 주로 아동 자신의 생활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과천면

① 위치 및 지세

과천면果川面은 본군의 동남에 위치하고 동에 청계산淸溪山을 넘어서 광주군과 접하고 서는 관악산으로 본군 동면과 인접했으며 남은 안양읍, 북은 남태령을 격하여 본군 신동면과 이어 있다. 동 면은 단기 4247년 군면 폐합 당시까지 과천군이던 것이 시흥군으로 편입된 것이다.

지세는 동의 청계와 서의 관악을 끼고 있어 대체로 중첩한 산중의 감이 있으나 문원평文原坪·관문평官門坪, 상화평相和坪 등의 경지의 전개를 보고 있고 청계산에서 발원한 송내松川과 관악산에서 흘러내리는 향교천鄉校川은 남충교南充橋에서 합류되어 한내寒川를 지나 면의 심장부를 관류, 신동면 양재천良才川과 합류하여 한강에 주입되고 있다. 동 면은 군 내의 최고 치령峙嶺인 산악을 끼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관개의 편의로 농경에 큰 혜택을 입고 있다.

관하는 6개 리 14부락으로 남면 다음가는 작은 면이다. 남북은 약 4천畝, 동서가 5천, 관내 순회 이정은 12천이며 군청까지의 거리는 9천이다.

② 인구

면 내의 총호수는 932호로 인구수 5340명이다. 이를 다시 남녀별로 보면 남이 2703명, 여가 2637명이요 농업 호구 수는 약 8할을 점한다. 총면적은 본군 내 8읍면 중 제7위인 3680방천으로 본군 내 최소 면인 남면의 2136방천보다 약 8할강이 크면서도 인구는 남면보다도 600여 명이 적다.

③ 교육

학교 교육기관으로는 과천국민학교 1교가 있을 뿐으로 13학급에 550명의 아동이 훈육을 받고 있다. 금년도 학령아동으로서 미취학한 아동은 31명이 있으나 이 또한 생활난으로 자진 취학하지 않은 숫자이다. 일반 성인교육은 해방 이후 급격히 추진되어 문맹도 날로 줄어들고 있으나 이의 완수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을 요하지 않을까 한다.

사. 군자면

① 위치 및 지세

군자면(君子面)은 본군의 면 가운데 수암과 함께 해안선을 보유한 면으로 본군 서남에 위치한다. 면적으로는 본군의 면 가운데 제3위를 점하고 있고 대체로 평탄한 평원지대를 이루고 있으나 토지는 비옥한 편이 못되어 관개의 천혜적 조건도 불리하다.

그러나 동 면은 수암의 수리산맥이 황해로 흘러 이루어진 반도인 만큼 서남북이 황해에 면하게 되어 이 천혜적인 불리를 보충하고 있다.

② 인구

총호수는 2921호로 총인구 1만 5649명이요 남녀별로는 남이 7884, 여가 7600명으로 역시 남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농가호구는 총호수의 7할강이요 약간의 어업과 제염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③ 교육

국민학교 2교에 학급 수 34, 아동 수 1966명으로 총인구 대비 89%에 불과하다. 이를 다시 총인구수 2921호에 대비할 때 58%에 해당한 놀라운 숫자가 나타난다.

이 취학률을 타 면에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남면 총호수 1055호에 취학아동 930명이니 93%다. 동 면의 금년도 미취학 아동은 실로 833명으로 총 학령아동 수의 40%에 해당한다. 이 원인으로는 교실 부족과 생활난이 상반될 것이니 이에의 그 무슨 긴급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 신동면

① 위치 및 지세

신동면(新東面)은 양재평야(良才平野)를 넘어서 광주군과 접해 있고 서는 관악산을 격하여 한강과 서울특별시와 인접했으며 남은 과천면, 북은 한강에 이른다.

대체로 산악과 평야로 반분되어 있으나 수리(水利)의 편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토지는 비옥하고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가까운 관계로 과수·소채·양돈·양계 등이 성행하고 또 적임지이기도 하다.

② 인구

총호수는 1675호로 총인구 9582인을 용(擁, 포괄)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군내 5위이면서 인구로는 제6위를 점하고 있고 8개 리에 35부락이다. 인구를 다시 남녀별로 보면 남이 4881인, 여가 남보다 180인 적은 4701인이다.

③ 교육

국민학교가 있어 면내 적령아동은 전부 수용하고 있고 서울시와 근거리인 만큼 서울시로 통학하는 편도 많다.

제2장 치안

가. 치안 개황

해방 후의 군내 치안상태는 행정 면에서도 지적인 바이지만 치안 면은 행정 면보다도 더한층 혼란했으니 인민위원회가 행정기관보다 먼저 치안기관, 즉 경찰권을 접수함으로써 행정 면에 실권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곧 실권과 실권과의 충돌이었고 생명과 생명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초대 치안책임자인 정규설(丁奎高) 씨를 위시하여 주신곤(朱信坤)·김성중(金性中)·신진갑(申眞甲)·김원식(金元植) 씨 등 역대의 책임자는 외부적·내부적의 일체의 치안 파괴자를 예제(刈除)¹¹³해 가면서 민주경찰도(民主警察道)의 확립에 전력을 경주, 오늘날과 같은 평화 환경 건설에 성공했던 것이다.

국립경찰에서는 민주경찰의 제일보로서 과거 일제강점기의 착검제도(着劍制度)를 폐하고 곤봉으로서 대신했으며 관료 독재, 관존민비(官尊民卑)의 봉건적 관념을 일소하는 동시에 민의를 존중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민중의 벗이 되기를 기(期)했으며 ‘경찰은 인민의 충복’, ‘우리는 시민의 지팡이’ 등의 표어를 내걸고 경찰에 대한 민간의 오해를 일소하는 한편 경찰 자체의 재교육을 단행했다. 이러한 부단의 노력이 10만 군민으로 하여금 고침안면(高枕安眠)¹¹⁴의 행복을 누리게 했던 것이다.

특히 해방 후 제7대로 본군 치안의 대임을 맡은 장한정(張漢鼎) 서장은 이러한 민주경찰도 확립에 주력하고 한편 경찰 자신의 심신 양면의 훈련 강화, 파괴분자의 발본색원적 근멸(根滅), 민폐일소, 민주경찰도 확립 등 4대 시책을 강화하고 서장훈(署長訓)으로서 엄정무사(嚴正無

113 예제(刈除): 풀 등을 베어 없애거나 악인(惡人)을 없애 버린다는 뜻이다. 원문에는 애제(艾糶)로 나오나 바로잡았다.

114 고침안면: 베개를 높이 하여 편안히 잔다는 뜻으로, 근심 없이 편안히 지냄을 이르는 말이다.

私, 상하일치, 군·경·관·민의 일체 강화의 3훈三訓을 강조하여 상하 일사불란의 태세를 갖추 고 여하한 내외의 내침來侵에도 대비하고 있다. 과거 5년간 56차에 걸친 파괴분자들의 폭 동음모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나. 관구

본군 치안의 대임을 맡은 안양경찰서는 인천 제1관구청 소속으로 본군 행정구역인 동면·신동면·서면·군자면·수암면·남면 각 면 소재지에 지서를 설치하고 지서 주임 이하 지서 원을 배치하여 치안 확보를 기하고 있다.

그리고 안양역전에는 직할 파출소를 설치하고 양재·군자역전·소래역전에는 각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본군에는 경찰서 1, 파출소 2, 지서 7, 출장소 3개소로 여하한 돌발사건에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다. 기구

본군의 현 경찰기구는 최고 책임자인 장한정 서장 직할 하에 다음의 기구가 편성되어 있다.

계명	직무	책임자
경무계	전 서원의 규율 보전, 교양 실시, 인사처리, 경리, 후생 등	김선재
보안계	풍기, 교통, 소방, 호구 등	안흥선
사찰계	사상, 정치, 문화 등 일체의 사찰과 선도	유종협
수사계	방법과 일체 범죄의 과학적 수사	허 갑
경비계	치안 확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와 유·무선 통신 등	
지서 및 출장소	임지 구역 내의 일체 치안을 담당함.	

라. 외곽단체

1) 후생협회 厚生協會

10만 민중으로 하여금 고침안면케 한 경찰관에의 감사의 생각으로 민간인들로 조직된 경찰 원호 援護 단체이다.

2) 안양민보단(安養民保團)

경찰을 보좌하여 치안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 장서장(張署長, 장한정)의 발의로 탄생된 지 불과 반년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안양소방대(安養消防隊)

안양소방대는 해방 직후 의용소방대로서 발족을 했다. 그러나 그 소방시설의 빈약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읍도(邑都)로서나 공도(工都) 대안양의 면목에 상대할 소방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제3장 재정

01. 국조세_{國租稅} 및 국조잡외수입조_{國租雜外收入調}

4281년 말 현재

세목	세액(원)	세목	세액(원)
제1종소득세	12,230,558	광세 _{礦稅}	8,210
제3종소득세	10,084,576	주세	12,112,527
법인자본세	93,963	직물세	2,236,387
지세	6,959,512	물품세	37,235
법인사업세	1,259,703	유흥음식세	714,143
개인사업세	905,613	법인임시소득세	9,042,581
특별행위세	14,848		
상속세	632,746	계	56,296,755

구분	세목	세액(원)
국조세별 수입	인지 수입	936,750
	관유물 대부료	6,282
	벌과금	148,780
	잡수입	1,162
	과태금	1,526,262
	계	2,619,236

02. 도세 수입

세목	금액(원)	세목	금액(원)
지세부가세	3,760,985	어업세	3,400
사업세부가세	207,134	도축세	193,840
광구부가세	426	차량세	4,711,936
호별세	3,768,498	입정세 <small>入亭稅</small>	51,930
가옥세	77,051	잡수입	303,980
임업세	113,254	계	13,945,734

03. 도비 세출

경상부 經常部

단기 4281년도

관款	항목	예산액(원)
사무비	(소계)	2,038,185
	봉급	1,003,080
	임금	62,225
	여비	332,790
	수용비	261,683
	수선비	33,000
	잡비	345,407
	사회대책비	(소계)
양곡매입비		307,520
구호비		686,555
사회대책제비		22,000
노동대책비		43,920
징세비	(소계)	383,000
	납세장려비	128,000
	체납처분비	220,000
	납세선전비	35,000
보건비	(소계)	46,500
	보건제비	46,500

관* 관	항목	예산액(원)
생산조장비	(소계)	291,360
	생산조장제비	145,380
	임야비	43,580
	농사개량비	102,400
공노비工勞費	(소계)	36,500
	공노제비	36,500
통계조사비	(소계)	11,300
	인원조사비	11,300
합계		3,866,840

04. 직접세 부담액

종별	세액	1호당 평균	1인 평균	적요
국세	29,808,198	1,790	331	
도세	15,086,053	909	167	
읍면세	12,087,470	728	134	
학교비 부과금	11,291,820	679	125	
계	68,273,541	4,171	758	

각호별 연수입 재산조

연소득액(원)	호수	연소득액(원)	호수
5,000 미만	1,697	45,000 이상	134
5,000 이상	2,093	50,000 이상	99
7,000 이상	2,205	60,000 이상	61
10,000 이상	2,754	70,000 이상	60
15,000 이상	1,873	80,000 이상	44
20,000 이상	1,394	90,000 이상	34
25,000 이상	905	100,000 이상	27
30,000 이상	590	120,000 이상	12
35,000 이상	376	140,000 이상	20
40,000 이상	251	160,000 이상	15

연소득액(원)	호수	연소득액(원)	호수
180,000 이상	7	450,000 이상	1
200,000 이상	3	500,000 이상	3
250,000 이상	4	600,000 이상	1
300,000 이상	1	700,000 이상	1
350,000 이상	1	900,000 이상	1
400,000 이상	-	계	14,667

단기 4282년도 읍면 예산표(세입)

시흥군

관목	안양읍	과천면	신동면	동면	서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	계
면세	2,419,110	737,650	1,364,720	2,446,875	1,262,853	789,860	1,341,443	4,724,960	12,087,471
국세 부가세	872,730	200,000	449,270	870,898	516,870	264,010	588,140	811,180	4,572,738
도세 부가세	1,365,720	414,000	729,800	1,265,207	555,673	442,700	681,923	862,400	6,317,423
특별세	181,020	123,650	185,650	310,770	290,310	83,150	71,380	51,380	1,197,310
재산 수입	21,540	1,500	3,890	31,574	27,249	1,790	48,616	3,700	139,859
기본재 산수입	21,090	1,000	3,880	30,077	27,015	1,300	48,275	3,200	135,837
적립금 수입	450	500	10	1,497	234	490	341	500	4,022
사용료 및 수수료	943,020	170,210	219,520	439,520	110,410	217,210	377,010	317,010	2,793,910
사용료	577,510	103,400	112,010	369,510	8,100	119,200	166,000	137,000	1,592,730
수수료	365,510	66,810	107,510	70,010	102,310	98,010	211,010	180,010	1,201,180
교부금	150,000	42,040	91,220	125,686	105,858	59,320	87,164	156,000	817,288
국세 교부금	60,000	12,040	24,890	40,344	26,532	22,500	29,553	66,000	281,859
도세 교부금	45,000	15,000	24,360	38,335	39,456	20,790	31,590	54,000	268,531
학교비 교부금	45,000	15,000	41,970	47,007	39,870	16,030	26,021	36,000	266,898
보조금	303,060	433,060	327,060	386,060	427,060	433,060	327,060	363,000	2,999,480
재정조 정보고	303,000	433,000	327,000	386,000	427,000	433,000	327,000	363,000	2,999,000
사무비 보조	10	10	10	10	10	10	10	10	80

관목	안양읍	과천면	신동면	동면	서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	계
공영비 보조	10	10	10	10	10	10	10	10	80
근업비 보조	10	10	10	10	10	10	10	10	80
사회비 보조	10	10	10	10	10	10	10	10	80
교회비 보조	10	10	10	10	10	10	10	10	80
경비비 보조	10	10	10	10	10	10	10	10	80
기부금	30,000	50,010	40,000	30,000	20	20,000	150,000	10,100	330,000
일반기 부금	10	10	10,000	30,000	10	10	10	10	40,060
지정기 부금	30,000	50,010	30,000	10	10	20,000	150,000	10,000	290,000
조입금 繰入金	10	10	10	10	10	10	10	10	80
재산 매각대	20	20	20	10	20	10	20	20	140
부동산 매각대	10	10	10	-	10	-	10	10	60
동산매 각대	10	10	10	-	10	-	10	10	60
전년도 조월금	300,000	220,000	127,000	179,008	20	70,000	315,000	400,000	1,611,038
일반조 월금	100,000		127,000	179,008	10		315,000	400,000	1,121,018
사업비 조월금	200,000				10			10	200,020
잡수입	143,050	62,350	2,732,210	256,333	539,750	71,030	126,176	65,010	3,995,918
부담금 수입	20	20	20	20	10	20	10	-	120
부역대 납금	10	20	10	10	10	10	10	-	80
금수시 설비	10	-	-	-	-	-	-	-	20
과태금	20,000	12,000	5,000	7,050	10	17,990	28,626	8,510	99,186
도선장 수입	-	-	2,674,000						2,674,000
잡입 雜入	123,020	50,310	53,170	249,252	539,720	53,010	97,530	56,500	1,222,512
세입 합계	4,309,820	1,716,850	4,905,660	3,895,085	2,473,250	1,662,300	2,772,509	3,039,790	24,775,264

단기 4282년도 읍면 예산표(세출)

관목	안양읍	과천면	신동면	동면	서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	계
회의 및 선거비	340,000	80,000	230,000	266,000	170,000	45,500	165,000	100,000	1,397,220
회의비	240,000	60,000	180,000	146,000	105,000	28,500	105,000	35,000	894,500
선거비	100,000	20,000	50,000	120,000	65,720	17,000	60,000	65,000	497,720
사무비	2,066,030	1,327,390	1,639,870	2,588,900	1,588,900	1,212,160	1,694,984	1,838,070	13,924,814
봉급	1,021,780	705,950	822,870	1,364,500	709,000	716,160	840,184	940,070	7,117,514
잡급	549,240	281,440	415,000	666,400	441,400	164,000	459,800	402,000	3,389,280
여비	220,000	140,000	170,000	250,200	197,000	130,000	170,000	200,000	1,477,000
수용비	230,000	158,000	188,000	250,000	190,015	150,000	170,000	198,000	1,534,010
수선비	10	14,000	20,000	30,000	10	30,000	35,000	40,000	169,020
잡비	45,000	28,000	14,000	28,000	20,000	25,000	20,000	58,000	238,000
공영비	430,020	13,500	2,299,050	50,040	20,040	24,530	80,040	75,000	2,982,250
도로 교량비	340,000	13,410	25,000	50,000	20,000	23,500	10	50,000	511,920
치수제방비	10	40	10	30	-	1,030	10	15,000	16,130
영선비	70,070	40	30	20	30	-	80,000	10	150,160
공영제비	20,000	10	10	-	10	-	-	20,000	30,040
도선장비	-	-	2,274,000 ¹¹⁵	-	-	-	-	-	2,274,000
권업비	35,000	10,000	25,000	35,000	25,000	5,000	110,000	35,000	275,020
토지개량비	10	30	5,000	-	10	-	20	4,000	9,060
농사개량비	6,500	5,030	13,000	11,500	10	1,500	20,000	9,000	55,540
임업비	17,463	2,000	5,000	2,000	-	-	10	5,000	28,470
시장비	10	-	10	-	-	1,500	45,000	-	46,520
권업제비	11,011	2,940	4,990	21,500	24,400	2,000	5,000	3,000	135,430
사회비	361,400	11,760	31,314	94,410	2,410	36,000	84,000	55,000	697,350
방역비	19,400	2,220	5,800	17,400	2,400	10,000	25,000	13,400	94,620
청소비	25,000	20	10	2,000	10	2,000	10	3,000	32,050

115 신동면의 도선장비 예산은 2,774,000이고 도선장비 합계는 2,274,000로 되어 있는데, 신동면의 공영비 합계로 판단하면 2,274,000이 맞으므로 이에 수정하였다.

관목	안양읍	과천면	신동면	동면	서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	계
구호비	30,000	-	7,000	10	15,000	5,000	10,000	-	67,010
하수도비	2,000	-	10	-	-	-	10	-	2,020
도장비	80,000	9,520	16,500	55,000	-	19,400	19,200	30,000	229,620
묘지비	240,000	-	2,000	-	-	-	20,000	-	226,000
화장장비	-	-	10	-	-	-	10	-	20
사회제비	1,000	-	10	20,000	5,000	-	10,000	10,000	46,010
교화비	26,000	16,000	20,000	26,000	40	4,010	150,000	30,000	272,050
제비	10,000	6,000	8,000	10,000	20	2,000	104,000	10	140,030
수용비	8,000	5,000	6,000	8,000	10	2,000	20,000	13,990	63,000
잡급	8,000	5,000	6,000	8,000	10	10	26,000	16,000	69,020
경비비	185,000	20,000	50,000	60,000	20	10,000	30,000	30,000	385,000
소방비	180,000	15,000	20,000	20,000	10	10,000	20,000	20,000	285,000
수방비	5,000	5,000	30,000	40,000	10	-	10,000	10,000	100,000
징세비	75,000	30,000	65,000	95,000	50,000	18,000	66,500	50,000	449,500
납세시설비	45,000	18,000	40,000	65,000	25,000	8,000	46,500	30,000	277,500
체납처분비	30,000	12,000	25,000	30,000	25,000	10,000	20,000	20,000	172,000
재산비	60,200	17,540	53,500	140,000	29,500	17,000	120,000	107,000	544,740
재산조성비	26,190	10,540	25,000	100,000	15,000	8,000	100,000	100,000	384,730
재산관리비	34,010	7,000	28,500	40,000	14,500	9,000	20,000	7,000	160,010
면채 _{面債}	-	-	10	14,295	352,680	-	-	-	366,993
잡지출	405,040	90,000	122,040	200,030	136,030	115,350	170,000	191,000	1,429,510
기부금	10	10	10	10	10	10	10	-	70
보조금	10	10	10	10	10	10	50,010	-	50,700
잡출	405,020	89,980	122,040	115,010	136,000	115,330	120,010	191,000	1,329,309
예비비	326,130	100,660	369,840	325,412	109,400	184,350	101,715	533,290	2,000,797
세출합계	4,309,820	1,716,850	4,905,660	3,895,085	2,473,250	1,662,300	2,772,509	3,039,790	24,775,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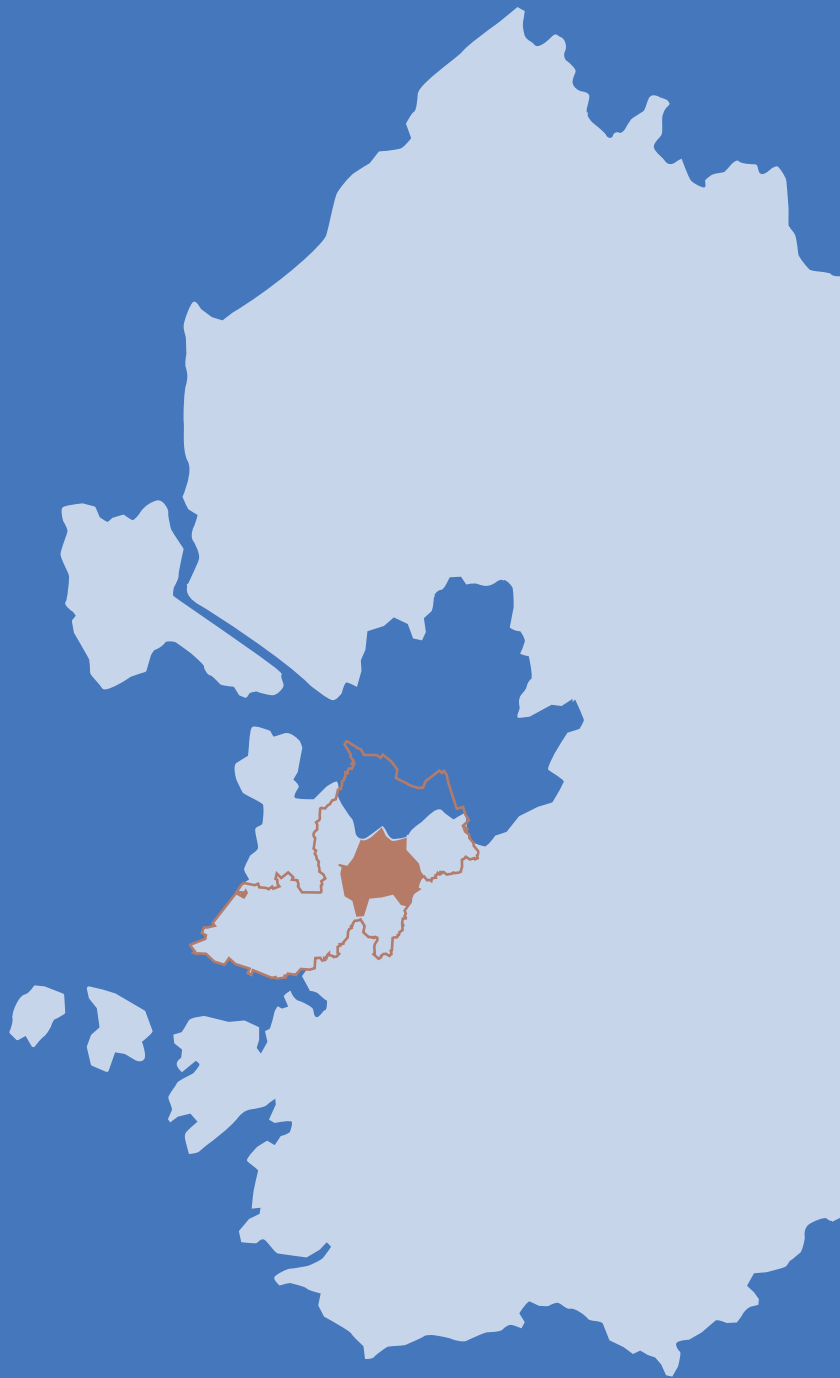
학교비 세입출

학교비 세입출	학교 수	예산액	1학교비 예산		
			최다	최소	평균
	1	28,826,560원	동同	동	동

향교재산 세입출

향교재산 세입출	향교 수	예산액	1향교비 예산		
			최다	최소	평균
	1	40,000원	동	동	동

제6편 인문·풍토



제1장 생활

어떠한 민족이나 종족을 막론하고 그 민족의 생활형태와 양식은 그 민족 자체의 관습과 전통을 극력 유지하면서도 외계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재래¹¹⁶하였지만 우리 한민족도 또한 이 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래로부터 우리 민족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중국이었더니만큼 우리의 생활문화는 이 중국의 변천에 좌우된바 실로 적지 않다. 특히 고구려시대는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더니 만큼 피아^{彼我}의 문화 교통, 생활양식의 교체는 의식주 각 부분에서 이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전래되는 생활문화는 몽고와 원^元·한^漢 시대였으니 우리의 복장형태가 몽고에서 그 형을 받아들인 점이라든가 기후와 사회 불안으로 대가족주의를 견지^{堅持}치 않으면 안 되었던 중국의 대가족제도가 그대로 전래된 점이라든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 관념, 봉제사^{奉祭祀}·치로^{致老}·충효^{忠孝}에 관한 이념, 명절^{名節} 같은 데 대한 관습 등 허다한 중국민의 생활문화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이 수천 년간의 생활문화의 전통은 단기 4243년의 왜국 일본의 내침^{來侵}으로 해서 일대

116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옴.

변환을 강요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의 왕래의 빈번과 일체의 신문화가 일본을 경유해서만 우리 민족한테 전래되었던 여러 가지의 불리한 조건도 있었지만은 왜의 식민지정착을 민족성의 말살은 민족의 생활문화 파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의 시책은 반 이상의 강제적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4천 년간의 쇠국주의로부터 이탈하였다는 것이 왜 일국에의 문호개방이 되었고 세계 신문화 사조의 수입이란 것이 곧 일원문화가 되고만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二

가령 그 일례를 든다면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하여 모발 한 올이라도 자르는 것은 불효의 망동이라고만 수천 년간 배워 왔고 이것이 거의 진리처럼 관념적으로나 생활이념으로서나 우리 민족을 지배해 왔었으나 정부가 국민에게 단발령^{斷髮令}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광무 2년 왜의 세력이 이미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때인 것이다. 광무 2년 11월에 발표된 국왕의 조서¹¹⁷에는 “짐^朕이 머리를 깎아 신하와 백성들에게 우선하니 너희들 대중은 짐의 뜻을 잘 새겨서 만국^{萬國}과 대등하게 서는 대업을 이룩하게 하라.”고 되어 자발적인 듯이 보이나 그 실체는 왜의 압박이 이를 강요하였던 것이다.

이 혁명적인 단발령이 당시의 유생들을 얼마나 놀래고 분개시켰고 비탄케 하였던가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는 정도였다. 단발령의 발표를 본 지 10여 년 후인 4250년대에도 부득이 단발을 하기는 하였으나 봉제사에 열석^{列席}을 못하였고 삭발로 두발이 땅에 떨어질 때면 으레 대성통곡을 하였고 조상께 죄를 지었다 하여 수일씩 단식하는 등 허다한 희비극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왜의 내침으로 야기된 우리 민족의 생활혁명에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으니 이제 갑오정변^{甲午政變}¹¹⁸ 이후의 문물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토^{韓國土}에 전차나 철마^(철도)가 달리기 시작한

117 단발령을 내린 시기는 광무 2년(1898) 11월이 아니라 1895년(고종 32) 을미년 11월 15일이다.

118 갑오정변: 1894년(갑오년)에 추진된 근대화 개혁으로, 갑오경장^{甲午更張} 또는 갑오개혁^{甲午改革}이라고 한다.

것은 광무光武 3년이요, 전화가 광무 2년, 한성과 개성 간의 장거리 전화 가설이 동 6년, 전 등이 6년 4월이었으니 모든 생활문화가 이 연간에 일대 혁명을 당하였던 것이다.

이제 이 광무 연간에 야기된 생활제도 중에서 우리 생활문화에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준 몇 개를 들어본다.

양력제 채용: 광무 원년 구 태양력을 폐지하고¹¹⁹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1월 1일로
서 사용하였고

병원 개설: 종현(鍾峴, 현 전주교당 부근)에 광혜원廣惠院을 설치하고 서양의학에 의한 시료를 시
작한 것도 광무 2년이다.¹²⁰ 이 광혜원은 후에 제증원濟衆院, 즉 현재의 세부
란서(世富蘭西, 세브란스) 의원이다.

신극新劇: 종래 광대라고 비하해 오던 연극운동을 위한 원각사圓覺社가 창립된 것은 광무
2년이다.¹²¹ 이인직李人植의 「설중매雪中梅」, 「은세계銀世界」 상연이 우리나라
신극의 효시인 것이다.

이렇듯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문화와 태도, 형식에까지 일대전환을 초래하
였으니 그 무엇보다도 심하였던 것은 구 봉건제도에 의한 계급관념이었다. 양반과 서민의
계급 폐기는 생활은 물론 의·식·주의 형식까지를 일조에 변케 하였으니 양반이 아니면
와가瓦家도 못 짓던 관념이 일소되어 돈만 있으면 서민이라도 수십 칸의 와가도 지었고
양옥도 지을 수 있었다. 의복제도에 있어서는 양반계급이 아니면 쓰지 못하던 탕관도 아무나
썼고 새님(새님, 생원님)·생원生員·참봉參奉 등의 호칭도 자유로 붙이게 되었고 특히 같은 민족의
일원이면서도 생활상의 차별은 물론 예법·교육·교제交際·씨명氏名·민적民籍·거주居住·처형處刑
에까지 가혹한 차별을 받아만 오던 백정白丁 계급 등의 소멸에서 재래된 생활형식의 변혁
등은 실로 상전벽해의 감이 없지 않았다.

개중個中에서도 더욱 심한 예를 몇 든다면 백정계급은 씨명에 있어서도 인·의·충·효와 같
은 고상한 문자의 사용이 엄금되었고 행별行別도 불가하였으며 억석億石·만돌萬斗·검돌劍斗
등 노비奴婢·예복隸僕¹²²의 이름만을 따게 하였고 민적이 없어서 입학入學·과거科擧 등의 공

119 태양력을 채택한 해는 개국 504년, 즉 1895년(고종 32) 11월 17일을 1월 1일로 해서 1896년(고종 33)부터이지만 광무 원년(1897)이라고
서술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120 광혜원廣惠院을 설립한 시기는 광무 2년(1898)이 아니라 1885년(고종 22)이다.

121 원각사圓覺社는 광무 2년(1898)이 아니라 1908년(순종 2)에 창립되었다.

122 예전에, 노릇하는 사내중, 비뺀 계집중, 예복은 남의 집에 달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을 뜻한다.

권公權도 납세·병역의 의무도 없어서 일체로 국민의 수효에도 들지 못하였고 거주지도 지정이 되어 일정한 장소에 집단거주를 강요하였고 처형에 있어서도 보통 인민은 대상臺上에 놓고 태형笞刑 집행에도 백정은 지상地上에 누어 놓고 행하였던 것이다.

三

선악의 구별은 어쨌든 왜의 내침으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혁은 실로 각 계급, 각 부문에 걸쳤으니 그 대부분이 왜의 소위 식민지정책에 의한 한국 민족성의 말살을 주안主眼으로 한 것이었다. 이 적치 40년간 감염되었던 왜식 생활문화는 단기 4278년 8·15해방을 계기로 일인과 함께 구축驅逐되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까지 침윤된 이 왜식의 생활관념은 정부의 적극 진력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일례를 들면 주탁양식, 인사에 따르는 태도와 용어, 의복형衣服型과 용어 등에까지 아직도 왜인 냄새가 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는 조만간 근멸根滅될 것으로 믿고 또 되어야 할 것이다.

싫든 좋든 간에 왜식 생활을 강제당하던 우리는 8·15해방과 동시에 생활양식에서도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이 왜식의 퇴진과 함께 일조에 양식洋式 생활이 연합군의 진주로 인하여 재래되었으니 특히 여자의 의복과 두발의 색·형型 등은 수일래數日來로 서양 여자처럼 된 느낌까지 있었다. 적발장안(赤髮裝眼, 붉은 머리에 눈 치장)에 적순(赤脣, 붉은 입술), 단고(短袴, 짧은 바지) 등 육체의 노출이 한 유행이 되어 뜻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의 정情까지 일으키게 하였고 소위 전래해 온 동양의 미풍으로 해아려지던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의 관념은 적치 간에는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해 왔었으나 외군 주둔은 이를 더욱 전복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일부 무교양한 무리가 범한 과오였지만 소위 지식계급과 상류계급의 남녀들이 이에 합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군은 이미 철폐했고 정부에서도 이의 시정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니 이도 불원 근멸될 것으로 믿고 또 바라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국가를 가졌고 정부를 가졌으니 우리의 전통이 될 생활도 가져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민족에게 전래된 모든 미美와 장長을 살리고 추醜와 단短을 배제한 새로운 생활문화의 창설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큰 과제의 하나이므로 본군에서도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농촌으로서의 독립적이 생활의 개선, 의복, 의례법 등의 개혁에 주력 중에 있다.

생활을 다시 의·식·주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이를 소개코자 한다.

1. 의생활

가. 백의(白衣)의 유래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 일컬어 왔고 우리 자신도 백의동포(白衣同胞)라고 자칭해 온 만큼 우리 민족의 복색은 백색(白色)이다.

백의의 유래를 보건대 백색은 고결·청아·담백·광명·희망·정결·순일(純一)·명랑·엄숙 등 이러한 용어로 표현될 일체의 고(高)와 결(潔), 우(優)와 명(明)을 표징함이니 이 백색의 애호는 곧 우리 민족성의 표현인 것이다.

인류는 예로부터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태양을 숭배해 왔으니 이는 각 민족의 민족설화가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태양에 대한 경모(敬慕)의 예를 극진히 해 온 민족이니 태양 즉 해를 하느님에 비하고 우리 민족은 태양의 아들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서 믿어 왔던 것이다. 이 태양은 백색으로 표현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 민족이 태양의 아들인 만큼 백의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 백색을 애호하고 존경하는 예는 백색숭배 민족인 바빌론·에굽(埃及, 이집트) 등에서도 그 공통성을 볼 수 있으니 바빌론과 이집트도 태양의 숭배민족이요 또 백의를 입는 종족인 것이다.

그러면 이 백의는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입기 시작했는가? 우리의 문헌으로는 이를 고증할 만한 기록이 없어 유감이나 멀리 부여를 시초로 신라·고려·조선의 모든 왕조 대에 우리 민족이 백의를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고려견문록(高麗見聞錄)』에서 산견(散見)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본다면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백의를 애용해 왔고 보니 기록이 있기 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백의를 입어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태양을 숭상하는 또한 예증으로서 우리가 예로부터 지켜오는 동방숭배를 들 수 있으니 동방(東方)은 해가 뜨는 곳이라 태양의 궁(宮)이 있는 곳이요 태양궁은 또神明(神明)의 집이라는 것이다. 태양은 일체 만물의 생명력과 번식력을 장악한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와 이 태양이 있는 동방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숭상해 왔던 것이니 그 예로서 우리는 천신께 올리는 제단도 동방, 주택의 문도 동방, 민간의 토좌(土座)도 동편측을 상(上)으로 정하는 관습 등이 이의 단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예복과 상복(喪服)의 백색은 곧 옛날에는 예복만이 백색이었던 것도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예식에만 착용하던 것이 점차 민간에 유포되

어 백색으로 통일이 된 것도 같다.

어쨌든 이 백색으로서 우리 민족이 자고로 고결과 평화와 광명을 애호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窺知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래된 백의의 제도는 어떠하며 종류는 어떠한가 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나. 제도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이 애용하고 있는 의복의 제도는 멀리 고구려시대로 소급하니 삼한시대에는 주로 몽고 민족의 제복을 습용한 것 같다. 특히 여복女服에 있어서는 몽고제도에 의했었다. 여성복의 혁신은 이조 태종이었으니 태종은 17년에 여말부터 몽고복제를 닮아 온 여성복을 개혁하였고 그것이 그 저고리가 점점 짧아져서 오늘날처럼 젓가슴만 덮게 된 것이다. 이 저고리도 단기 4240년대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짧았었으니 반회장 저고리의 본이 바로 그것이다.

남자복은 몽고복에서 명복明服으로 그것이 다시 명대에 이르러 대변혁을 이루었고 명복이 주가 되어 오늘날의 남성복에까지 변천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의복이 저고리와 바지로 상하 별재別裁된 것이 중국의 몽고를 위시한 현대복과 일치하는 점이며 대남을 매는 것도 같은 양식이다.

그러나 의복이란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기호도 변하는 것이요 그 시대의 환경에 의해서 양식도 변천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대에 와서만 하더라도 남자의 저고리가 단기 4260년대 전후에는 허리에 내려오도록 길어졌던 일이 있다. 규중처녀나 노부인들도 이 신유행의 긴 저고리를 따라갔고 그것이 점차 짧아지자 노부인들도 또한 이에 추수追隨케 되었다. 지금은 소매 끝에 남藍 끝동을 달지 않으나 4250년부터 656년까지도 반드시 남색 끝동을 다는 것이 유행이었고¹²³ 치마도 이에 따라서 길어지고 짧아지고 했던 것이다.

이 최근 반세기 동안의 우리네 의복 변천을 보면 끝동이 없어진 것과 남자의 장의長衣가 없어진 것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입지 않던 남자의 두루마기를 여자들도 입게 되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실일 것이다.

여자들의 치마는 양반의 부녀자는 외로 입고 평민은 바로 입던 풍속이 있었으나 이도

123 단기 4250년(서기 1917년)부터 소매 끝에 남색 끝동을 다는 저고리가 유행하다가 지금(1950년)은 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656년까지 유행했다고 하였다. 이는 문맥상 4656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서기 2323년이 되어 오자로 보인다. 4256년(1923년) 또는 4265년(1932년) 정도로 추정해 본다.

양반계급의 자연적 소멸과 함께 혼용되어 현재는 거의 그런 관념까지도 없어졌다 할 수 있다.

다. 종류

우리 의복의 종류로는 평복·예복·상복 등이 있어 그 제도도 특이한 바 있으나 현재에는 혼·상복만이 따로이 전해질 뿐이다. 이를 다시 남녀별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ㄱ. 남자용

바지·저고리·조끼·마고자·두루마기·도포·토수(토시)·버선·대님·행전 중 4250년대부터 토시는 점점 쇠퇴하여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도포는 일부 제용(祭用)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이도 거의 퇴멸(退滅) 상태이다. 행전은 상복에나 쓰여지고 있다. 그 밖에는 대부분 특별한 변천이 없었다. 버선도 노인계급에서나 이용되고 양말이 유행한다.

ㄴ. 여자용

저고리·치마·단속곳·장의(長衣)·적금(赤衿)·버선 등이 있으나 장의는 자연 도태되었고 버선만은 젊은 부녀자까지도 애용되고 있다. 남자 전용이던 두루마기도 남녀 공용하게 된 것이 달라졌을 뿐이다. 버선은 특히 ‘외씨 같은 발’ 모양을 내기 위해서 되도록은 좁게 해 신던 풍속도 위생상의 해석으로 푼터분해졌고 젊은 여성과 지식계급의 여성들이 해방 이후에 긴 치마를 애용하는 경향이 생긴 것도 적치를 벗어난 반동적 심리도 작용되었겠지만 그 대부분의 이유가 여자용 양말 1족에 3, 4천 원이라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라. 전래 의복의 유래

ㄱ.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원래는 옷웃이 아니라 양반계급의 속옷이었다. 즉 바지·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도포를 입고 외출하던 것인데 평민은 도포의 착용을 불허했기 때문에 평민만은 부득이 두루마기를 상의로 사용해 왔다. 그리고 고래의 두루마기는 현재의 상복처럼 소매가 넓고 화장이 길었고 세 자락 혹은 네 자락으로 터서 따로 돌게 만들었고 세 자락은 창옷, 네 자락은 중치막·도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사방이 트이면 방한 기타 제사(諸事)가 불편하므로 그 속에다 전부 막힌 속옷을 입게 한 것이 지금의 두루마기이니 이

명칭도 두루두루 막았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 갑신년, 왜의 세력이 증대로 개화를 강요당하였을 때 의복제도의 변혁도 고려되었던 것이다. 즉 넓은 소매와 너털거리는 자락의 창옷, 중치막, 도포 등이 폐지되고 속두루마기이던 오늘날의 두루마기로 상의를 삼게 하자 이것이 일반용 두루마기로 화한 것이다. 양반계급의 일부 가정에서 아직도 사당 출입 기타 제전에 도포를 입는 것도 그때의 유풍이 남아 있는 까닭이다.

ㄴ. 망건과 탕건

망건網巾은 원래 당唐의 유풍이다. 두발이 어수선하니까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수건이나 노끈으로 동여매다가 명 태조가 어느 도사의 망건 뜨는 것을 보고 그 용도를 묻더니 이를 국내에 장려해서 전 국민이 애용케 되었다 한다.

우리 한국에 이 법이 전해진 것은 명나라 증엽이고 망건을 말총으로 뜨기 시작한 것은 우리 한국이 시초이다. 이것이 다시 명나라로 역수출되어 실로만 뜨던 명나라의 망건이 오늘의 말총 망건으로 변하였다. 이 망건을 백정 계급을 제하고는 다 일반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탕건도 명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설도 있으나 순전한 한국민만의 전용모자라는 설이 더 유력한 것 같다. 고전古傳에 의하면 대체로 우리 한민족은 머리에 모자 쓰기를 좋아하였던 모양으로 모자가 없었을 시대에는 수건을 모자 대신 쓰고 다니었다 한다. 그러다가 남한인이 오늘날의 상두건喪頭巾 같은 모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자 이를 본 서양인들도 이를 모방해서 전국에 퍼졌는데 그 상두건이 오늘날의 탕건으로 모양이 변한 것을 중국에서 전래된 복두幘頭·사모紗帽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개조된 것이다.

이 탕건도 원래는 포(布, 베)로 만들던 것인데 망건과 함께 인모人毛·마미馬尾 등을 이용케 되었고 이조 말경에는 벼슬한 사람에게만 탕건 쓰기를 허락해서 관모官帽가 되었으나 이는 한국민의 유일한 모자였다.

이조는 서도(西道, 서양) 사람을 배격하였으므로 서양에서는 탕건 쓸 만한 벼슬이 나지 않아서 자연 탕건 대신 남한인의 초기 모자, 즉 오늘의 상두건 같은 것을 탕건 대용으로 쓰는 것이 고풍이었으니 이는 곧 고구려시대의 모자 ‘절풍折風’을 재모방한 것이다.

ㄷ. 행주치마

부녀자들이 부엌에 들 때에는 앞치마를 찬다. 이것을 행주치마라 하거니와 이 행주치마는 부엌에 들면 옷이 더러워질 염려가 있는 데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멀리 우리 역사상의 6대

전첩戰捷 중의 하나인 권율權율 장군의 행주전幸州戰에 밤섬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날려 작전을 유리케 유도한 기념으로 평시에도 부녀자들에게 앞치마를 입게 하였던 것이다.

이 행주치마의 행주는 곧 행주이니 국가 유사시에는 남자는 물론 부녀자까지도 총동원한다는 의미이고 보니 의식하지 못하고 입고 있으나마 우리 한국의 부녀들도 언제나 비상에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마. 현상

그러나 이러한 백의생활의 전설은 적지 36년간의 소위 왜의 색의色衣 장려정책과 현대의 생활환경이 백의생활만을 허락하지 않아 점차 허물어져 가는 도정에 있다.

자택에서 유유 한적한 생활을 할 때는 덧없이 우아하고 고상하고 너그러워 보이거나 현대 과학문명의 외증에서 남과 생존을 경쟁하는 데는 부자유한 결함도 있고 세탁·재봉 등 경제적 이유도 있어 의복은 양복으로 백의는 색의로 변천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 하겠다.

더욱이 우리는 과거 36년간이나 일본 제국주의의 실로 강도 이상의 착취를 당한 터라 극소수의 한인을 제외고는 대다수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조반석죽朝飯夕粥의 빈한한 생활을 근근 유지해 온 터라 육체를 가리기 위한 의생활에도 실로 막대한 곤란을 받았던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소위 대동아전쟁 말기에의 농촌생활상은 실로 목불인견의 참상이었으니 의생활상이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경지였다.

이럴 즈음에 한국은 왜의 학정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해방은 한국민을 정치에서만 해방을 시켰지 경제적으로 오히려 방심한 질곡에다 몰아넣었으니 미군정하는 통제경제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유경제체제로 급변하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인플레이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산이 저하된 우리 경제계는 날로 등귀하는 물상物像만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상태는 이 서울과 인접한 농촌의 대부분을 치역으로 하고 있는 본군에 끼친 바 영향이 많다. 그래서 한복 바지에 셔츠 나부랭이도 걸치었고 부인들이 미군의 상의를 걸치는가 하면 왜들이 팔아먹은 소위 ‘일바지(몸배)’를 입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한·미·일 삼국의 의복을 한 몸에 걸치어 흡사 세계복장 전람회를 이룬 감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면에도 오랫동안 금제당하였던 백의 한복을 자유스럽게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백의를 자랑삼아 입는 경향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었고 일부 철없는 사

랍들 간에는 일제의 퇴각이 곧 왕년의 봉건시대에의 환원으로 알고 감투와 탕건을 꺼내어 쓰고서는 다시 양반행세를 하려다가 봉변을 당하는 등 희비극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이러한 생활의 해결은 초미의 급선무의 하나인지라 정부에서는 건국과 함께 의복의 제도를 개혁 발표하고 생산공장을 독려하여 국민의 의생활 해결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02. 식생활

가. 개관

우리 한국은 한온도지방寒溫度地方이어서 음식도 한대와 온대의 요리법이 병전並傳되고 있다. 북방의 인접국인 중국은 돈육을 그 주재료主資料로 하여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왜국은 도국島國인 만큼 주로 생선류의 조리법이 발달되고 있으나 우리 한국은 우육이 가장 많이 쓰여진다. 이는 재료의 생산에 좌우된 때문도 있겠지마는 생리적으로 중국민은 지방질을, 일국日國은 칼슘을, 우리는 단백질을 요구하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대체로 한국민은 육류·어류보다도 채식을 좋아하는 국민이라 전작田作 채소요리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심산深山의 산채 요리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하다. 우리의 김치는 세계적으로 동채법冬菜法이 뛰어나서 한대寒帶인 소련의 동채보다도 맛으로나 영양으로나 탁월하다는 것은 세계 식객의 정평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의 명물음식을 들어보아도 그 대부분이 육肉을 주재료로 한 것이 아니니 전주 명물의 콩나물이 그렇고 진주의 명물 음식이라는 비빔밥이며 대구 육개장, 회양淮陽의 웅지전과熊脂煎果, 충주의 칼국수, 강릉의 방풍죽, 삼수갑산三水甲山¹²⁴의 돌배·말국, 평양의 냉면, 해주의 승가기勝佳妓 등이 그러하다. 개성은 예로부터 옛과 저육豬肉이 유명하다 하니 육요리로 알려진 것은 이뿐이다.

그리고 춘하추동 사계의 각 명절의 음식인 시식時食을 보더라도 정월 초하루의 떡국, 대보름의 약식, 2월의 물썩청포, 한식의 개피떡, 3월 3일의 화전, 4월 8일의 도미국수, 단오의 수단, 6월 유두의 밀쌈, 추석의 송병(松餅, 송편), 9월 9일의 국화전, 동지의 팔죽이 다 그렇고

124 삼수갑산: 함경남도의 삼수군과 갑산군을 통칭하는 용어다.

고기구이는 납향^{臘享}¹²⁵뿐인 것을 보아도 우리의 주식이 육이 아닌 것만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육요리가 다른 민족에게 뒤졌다 함은 아니니 고기의 적육법^{炙肉法}과 자육법^{煮肉法}을 시작한 것은 고구려였던 점으로 보아 수렵을 일삼는 북방종족들보다도 육의 요리법이 앞섰던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고기찜과 고기구이 법을 중국은 고구려에서 배워 갔다는 기록이 중국 문헌에 남아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식생활의 최대 결점은 백미 주식이니 우리 민족이 주식을 쌀에 의존하고 있음과 이로 인하여 받는 피해의 개념만은 '산업편 농업조 환지향(제4편 제1장 다향)'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우리의 식생활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과거 우리 농민과 세민층의 대부분은 혼식이 강제되어 왔었지만 해방 이후 3·1제 소작료의 제정과 자작농의 증가로 백미 주식의 경향이 많아진 것은 한편 기쁘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니 백미 주식으로 인하여 받는 우리 국민의 보건상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는 화학적 분석으로서 정백미반(精白米飯, 흰쌀밥)과 혼반(混飯, 잡곡밥)과의 영양적 차이가 명료하거나 과거 우리네 농민들이 그렇게 불우한 식생활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체를 유지해 온 데는 실로 혼식의 혜택이 컸던 것이다. 이는 백미 주식을 세우는 지식계급과 부유계급에 각기^{脚氣}와 각기로 기인되는 심장병 기타 소화불량증 같은 질환이 많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백미 주식의 비과학적인 관념은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국가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마는 지방질적^{脂肪質的} 성분을 취하기 위하여 가축 장려에 국민 자신의 자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 두 점만 개량된다면 우리의 식생활은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과학적이며 영양적일 것이므로 군에서도 이의 실현을 기하고 예의 추진 중에 있으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이는 시정되리라 믿는다.

나. 전래되는 요리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요리가 전래되어 있으며 그 조리법은 어떠한가 이를 상별^{床別}로 개관하기로 한다.

125 납향: 납일^{臘日}에 한 해 동안 이룬 농사와 그밖의 일들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

ㄱ. 반상飯床

반상이란 밥을 주식으로 하는 밥상이란 뜻인데 이 반상에도 찬饌의 가짓수에 따라서 3첩·5첩·7첩·9첩·12첩의 각종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결상이라는 것이 있다. 결상에는 대개 반주·전골·음과飲果가 놓인다. 이제 이의 종류를 들어보면 1) 밥, 2) 국, 3) 김치, 4) 짬두기, 5) 종지(주로 장그릇인데 7첩까지는 간장만 놓아도 그 이상에는 간장·초장·계자 혹은 초고추장), 6) 구이, 7) 나물, 8) 장아찌, 9) 젓갈, 10) 마른반찬, 11) 전유어, 12) 회, 13) 조치(찌개나 찜) 등으로 첩에 따라서 가짓수도 다르나 7첩 이상에는 상기 13종이 대개 전부 들어간다.

ㄴ. 면상麵床

국수를 주식으로 하는 간단한 주식상晝食床이다. 1) 국수, 2) 김치, 3) 간장, 4) 지짐, 5) 파실, 6) 떡[餅], 7) 화채-이렇게 차리는 것이 정식이나 끝으로 몇 가지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ㄷ. 교자상交子床

교자상은 주로 잔치상이어서 국수가 주식이 된다. 종류로는 1) 국수(온면 혹은 냉면), 2) 만두, 3) 신선로, 4) 떡(색편·백편·꿀편·시금치편·증편·인절미·송편·개피떡·경단·절편 등), 5) 김치(장김치·통치미·통김치·닥김치 등), 6) 전유어(생선·패류·간·천엽 등), 7) 편육(수육·우설·양지머리·저육 등) 8) 약식, 9) 떡볶이, 10) 잡채 또는 겨자채, 11) 수란, 12) 찜(생선·갈비·영계·송이·애호박 등), 13) 생선회(민어·농어·뱅어·도미·문어·낙지·오징어·전복 등), 14) 어만두, 15) 육회(우육·콩팥·양·천엽 등), 16) 포(육포·어포 등에 잣·호두를 깬다), 17) 화채수 전과(水煎果·식혜), 18) ㊦ 숙과(약과·유과·굴·만두과·중백기[중계中桂]¹²⁶·한과), ㊧ 전과·연근·문동·생강·산자·청매·행인·모과·건포도 등, ㊨ 다식(깨다식·검은깨다식·송화다식·생강다식·녹말다식·밤다식·시금치다식·찰쌀다식 등) ㊩ 강정(잣강정·매화강정·깨강정·계피강정·시금치강정·매화연사·세반연사·빈사과 등 또는 소채강정·소당정인데 이는 제사용임), 19) 건과(황율·대추·호두·은행·실백·용안여지·곶감 등), 20) 생과

ㄹ. 주안상酒案床

술을 주로 하는 상인데 양과 수보다도 주객의 식성에 맞춘다. 예를 들면 1) 국(매운탕·지지미 등), 2) 김치(되도록 매운 짬두기), 3) 포, 4) 회, 5) 전육煎肉, 6) 젓갈, 7) 실과 등이다.

126 중계과中桂果: 중배끼. 유밀과의 하나로, 밀가루를 골과 기름으로 반죽하여 네모지게 잘라 기름에 지져 만든다.

ㄱ. 큰상

회갑·결혼 등의 경사용으로 수화연壽華蓮이라는 조화를 장식하고, 음식으로는 1) 병(餅, 편·색편·경단쑥·구리·주악·색떡 등), 2) 적과 전(색누루미·행적·생선적 등), 3) 포(육포·복어포·오징어포·붕항형 전복·화형花形 문어), 4) 당류(원당·오화당·옥춘), 5) 과류 ㉠ 건과(乾果, 밤·대추·잣·호두·은행·용안여지·곶감 등인데 잣과 은행은 염색하여 문(紋, 무늬)을 놓아 고인다.), ㉡ 숙과(熟果, 유과·전과·다식·강정 등), ㉢ 생과(生果, 여자상과 같다.), 6) 주(酒, 술)

ㄴ. 돌상

ㄷ. 제상

ㅇ. 대소상大小祥 제상

ㄹ. 식기 종류

- 1) 식기: 주발(늦밥그릇)·사발(사기밥그릇)·바리(여자용 밥그릇)
- 2) 공기류: 탕기·갱기·공기
- 3) 대접류: 대접·합·도반기(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있어 용도는 합과 같다)·반병두리
- 4) 보시기류: 종지·보시기·접시·조치보(짚·피개그릇)

우리 민족은 원래 유기를 애용하여 왔으나 적치 말의 강제 공출로 막대한 유기가 징발되어 사기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해방 후 다시 유기를 사들여 주로 하기夏期에는 사기를 쓰고 그 외에는 유기를 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전문가는 유기가 위생상으로 좋지 못할뿐더러 고가이고 닦기가 힘든 여러 점으로 점차 폐지되었으면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기 사용을 적극 장려 중에 있으니 불원 특수한 것 외에는 개량될 것이다.

ㄱ. 요리

ㄱ. 반(飯, 밥)의 종류

1) 백반, 2) 팔밥, 3) 조밥, 4) 보리밥, 5) 오곡밥, 6) 감자밥, 7) 약밥, 8) 비빔밥, 9) 연어밥(연어를 삶아 부서뜨려 밥에다 얹어 먹는다), 10) 굴밥(굴과 밥을 함께 담는다. 밥이 끓을 때쯤 밥 위에 굴을 퍼서 갖히는 것이다), 11) 김치밥, 12) 무밥

ㄴ. 침채류(沈菜類, 김치)

1) 통김치, 2) 섞박지, 3) 비늘김치, 4) 보김치, 5) 장김치, 6) 나박김치, 7) 김치, 8) 무싱건지, 9) 짬뽕김치, 10) 오이지, 11) 가지김치, 12) 오이소박이, 13) 풋김치, 14) 채김치, 15) 동치미, 16) 엇저리(일명 총각김치), 17) 깍뚜기, 18) 무깍뚜기, 19) 굴깍뚜기, 20) 오이깍뚜기, 21) 멸치젓깍뚜기, 22) 곤쟁이젓깍뚜기, 23) 젓무, 24) 알무깍뚜기, 25) 무청깍뚜기, 26) 소금깍뚜기

ㄷ. 고기류

1) 소고기류

① 상육(上肉)

안심(속 로스): 구이

등심(겉 로스): 구이

② 중육(中肉)

갈비새김: 구이

우둔(牛臀): 포회, 장조림

소갈비[小肋骨肉]: 구이

양지머리: 편육

엄주니[前胸肉]: 찜

대접살[大腿肉]: 포회

채끝살[腰肉]: 구이, 찜

③ 하육(下肉)

사태: 국, 찜

홍두깨살: 국, 찜, 장조림

도가니[膝蓋肉]: 국, 찜

꼬리: 국, 찜

족: 국, 찜, 족편

송치[牛糞]: 곰

④ 내장

염통: 구이, 산적

간: 전, 조림, 회

천엽: 부침개, 회

양: 회, 국

콩팥: 회, 구이·볶음

허파: 찜, 국

곱창: 구이, 국

발장·훗이불자[大臟]: 국

곤자소니[脂助夾腹間膜]: 국

만하, 지라: 곶, 국

⑤ 잡육

우현, 선지: 국, 우음牛飲

소머리: 전, 편육

혀: 편육

골: 국, 부침개

등골: 국

주라통[氣管]: 국

우랑[牛囊]: 국, 편육

우신牛腎: 국

우담: 약용

〈소고기 요리〉

너비아니, 선산적, 갈비구이, 염통구이, 파산적, 육포, 염포, 육전, 간전肝煎, 천엽, 전골煎骨, 편육, 전골, 갈비찜, 족편, 곶국, 간조림, 골탕骨湯, 별탕別湯, 양집, 장조림, 육회

2) 저육猪肉

돈육은 저육이라 통칭하는데 널리 기후가 난온한 만큼 중국처럼 기름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 돈육 요리도 비교적 담백한 편이다. 종류를 들면 고추장구이, 조림, 누름적,

머리편 등이 보편적 요리법이다.

3) 계육雞肉

영계백숙, 닭찜, 닭고기구이, 닭적, 닭조림, 꿩포, 꿩구이, 만두 등

ㄹ. 음료

영두화채, 딸기화채, 꿀화채, 복숭아화채, 배화채, 진달래화채, 순채화채, 노탕장미화채, 보리수단, 흰떡수단, 미수, 얼음수박, 수전과(수정과), 식혜, 소주온미燒酒溫米

ㄱ. 과류

연근전과, 인삼전과, 생강전과, 산사山楂전과, 동문冬門전과, 모과전과, 청매青梅전과, 행인杏仁전과, 건포도전과, 굴전과, 울란과栗卵菓, 울초과栗炒菓, 울주약栗酒藥, 밤경단, 대추단자, 조란棗卵, 실백편과實栢片菓, 은행단자銀杏團子, 석의단자石衣團子, 약과藥菓, 굴병橘餅, 과굴菓橘, 한과漢菓, 중계과中桂菓, 타래과, 매과작梅菓雀, 밤다식, 검은깨다식, 송화다식, 찹쌀다식, 강정, 연사과宴沙菓, 빈사과賓沙菓, 잣엿, 호두엿, 밤엿, 깨엿, 호콩엿, 무엿

ㄴ. 병류餅類

개피떡, 수수경단, 찹쌀경단, 울무경단, 청매경단, 생울경단, 흰떡, 절편, 잔절편, 백편, 녹두편, 꿀편, 싱검지편, 느티편, 백설기, 콩설기, 썩버무리, 인절미, 증편, 고사떡, 이중병二重餅, 썩구리, 잡과병雜果餅, 찰전병, 밀전병, 개떡

마. 특수요리

ㄱ. 정월 음식

설음식

정월 초하루는 ‘설’이라 하여 대부분의 지방에서 떡국을 먹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 ‘떡국’은 나이의 대명사처럼 쓰여지니 떡국을 먹으면서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하기도 하고 “떡국이 농간을 한다.”고 하여 나이를 먹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그 예다.

설날 음식으로서 최소한 장만하는 것은 떡국, 만두, 인절미, 적(누름적·빈자적·전유어 등), 수정과, 다식, 과실 등이요. 이 밖에 차례를 지내므로 각 육류와 명태·청어·채소·미역 등이 나온다.

열나흘

열나흘날은 오곡밥에 나물을 되도록 많은 종류를 구한다. 잘하는 집은 열두 가지 나물을 차리는 것이 원칙이다.

○ 약자藥字 음식

우리 한국에는 예로부터 약자가 붙은 음식이 많으니 약주·약과·약식 등이 그것이다. 약은 곧 귀하고 진하다는 뜻이다.

① 약식藥食

약식은 다 알다시피 밤·대추·잣 등을 꿀에 가미하여서 찐 찰밥이니 밥 중에서는 가장 공이 들고 물자도 들고 노력도 드는 밥이다. 이에 약자를 붙িয়ে 귀한 밥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이 약식은 그 유래가 유구하니 멀리 신라 21대 비처왕(毗處王, 일명 소지왕) 10년부터이다. 이제 『삼국유사三國遺事』 비처왕조에 보면 사금갑射琴匣이란 이야기가 있으니 이것이 곧 약식의 기원이다. 이를 요약하면 비처왕 즉위 10년 무진,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천천정天泉亭에 거동할 때 노상에서 까마귀와 쥐가 싸우고 있는지라, 왕이 괴이하게 여겼더니 쥐가 말하기를 까마귀의 가는 곳을 좇으라 한다. 왕이 다시 기사를 시키어 까마귀를 좇게 하니 피촌避村(현 양피사촌讓避寺村으로 경주 남산 동쪽에 있다)에 이르러 까마귀의 행방을 잃었다.

이에 옆의 연못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서 한 장의 봉서를 내민다. 겉에는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 떼어보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써 있는지라 왕은 떼지 않아 한 사람이 죽는 게 옳다 했으나 일관이 보고서 “두 사람이란 서민이요 한 사람이란 국왕을 이룹니다.” 아뢰어 뜯고 보니 “사금갑射琴匣”의 3자가 쓰여 있었다. 왕이 사수에게 명하여 궁내의 거문고를 쏘게 하였더니 그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는 궁주요, 또 하나는 궁내에서 분수焚修하던 중이었던지라 그들의 잠통潛通이 발각되어 양인을 처형하니 이날이 곧 정월 15일이었다. 그래서 왕은 정월 15일을 오기일烏忌日로 정하고 정월의 상해上亥·상자上子·상오上午 등의 날에는 매사를 삼가고 근신하도록 하고 해당일에는 밥을 지어 까마귀를 먹였던 것인데 이것이 곧 약식의 유래라는 것이다.

이 설화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나 이것이 전래되어 정월에 약식을 먹는 풍속이 생긴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에는 팔보반八寶飯이라 하여 8종의 과실을 넣어 지은 밥이 있기는 하나 우리의 약식이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 아님은 『삼국유사』의 사기史記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것이 때를 지나는 동안에 까마귀에의 향응이 인간의 향응으로 변했을 뿐이다.

② 약과藥果

약과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과자 중에서 가장 고급 과자로 원명은 유밀과油蜜果라고 한다. 기름과 꿀로써 튀긴 과자라는 뜻이다.

이 유밀과는 물자와 노력이 많이 들어 고가에 치이므로 대사가 아니면 쓰지 않았고 옛날 나라에서도 이를 한번 쓰자면 5년 내지 10년씩 별려야 썼다고 한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 민가에서 유밀과를 쓰면 곤봉 80대라는 범규가 있는 것을 보아도 이 유밀과가 얼마나 많은 물자와 노력이 드는지를 짐작하는 동시에 이 과자를 진귀하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가 있다. 약과의 약은 역시 귀하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③ 약주藥酒

약주는 주류에서 기술한 바 있거니와 약은 귀하다는 뜻으로 쓰여진 것뿐이요, 타의는 없다.

ㄴ. 고기구이

고기구이는 동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으니 만큼 종류와 방법이 실로 많다. 우리나라의 고기구이는 멀리 고구려시대의 유품으로 수렵을 일삼는 북방민족들도 고구려의 고기구이를 배워서 날고기 먹던 것을 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ㄷ. 신선로神仙爐

우리 요리 중에서 가장 이름난 것이 이 신선로다. 아무리 성찬일지라도 이 신선로의 유무가 곧 그 성찬의 정도를 결정하리만큼 진귀하게 평가도 되거니와 사실 육류·조류·어류를 비롯하여 채菜的 각종과 잣·은행·호두의 고급 과실, 산삼이라는 도라지, 갓은 버섯류[茸類]와 건포·패류 심지어 소고기까지 드는 우리 요리의 백미이다. 일부 사실주의자들은 신선로를 중국의 휘귀[火鍋]로, 십경대과十景大鍋 등의 모방이라고 생각하니 그 용기의 독특함으로나 재료의 가짓수로나 맛으로나 완전히 이는 우리만의 특유한 요리다. 왜식의 지나친 원시적 담백미와 중국의 기름투성이인 요리와 비할 때 우리의 하늘과 같이 맑고 고상한 맛을 가졌다. 이 신선로에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잃고 찾았더니 신선이 되어 올라가더라는 전설이 있지만은 비교적 적은 재료로도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이다.

ㄹ. 채만두菜饅頭

중국의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가 부군 부하의 병사를 위문하기 위하여 만들어 가지고 간

것이 만두의 시초라고 전한다. 중국에서는 고기가 주이지만 우리의 만두는 신선로가 종합 요리이듯이 만두에도 여러 가지 재료를 쓴다. 임진왜란 때 왜인들이 휴대용 음식으로 이 만두를 택했다는 기록도 있지만은 찬은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휴대용에는 이상적 음식이다. 만두 속에는 반드시 숙주나물을 다량으로 쓰는 이유도 숙주나물은 제양(除陽)을 하기 때문에 출정군인에게 적응시키기 위함이라 전하나 그 여부는 고증할 만한 기록은 없다. 만두는 예로부터 의주(義州)를 일러오는 것을 보면 임진란이 아니라 중국과의 무슨 전란 때 일이 아닌가도 한다.

ㄱ. 회와 포

우리 음식 중에서 다른 나라에 별로 없는 것이 회와 포다. 일본에도 소위 건어라는 것이 있으나 그것은 지극히 원시적이며 육치는 방법도 단순하다. 순대 등 장물(藏物) 요리는 우리 음식의 독특한 것이며 소·돼지 등의 편육도 특이한 것이라 하겠다.

ㄴ. 찜

찜은 세계를 통해서 우리 한국만의 음식법이니 취찜은 고구려를 통해서 중대륙(中大陸)에도 전해졌으나 상추·배추·숙갓 등이 우리네 찜처럼 먹는 나라는 아직 없다. 산채 등의 갖은 나물과 잎·열매로 반찬을 만드는 방법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형식이다.

ㄷ. 주류

우리나라에는 술로서 탁주·약주·소주 외에도 과하주(過夏酒)·송순주(松筍酒)·감로주(甘露酒)·감홍로주(甘紅露酒)·이강주(梨薑酒)·오미주(五味酒)·백일주(百日酒)·송주(松酒) 등이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것은 탁주와 약주·소주의 3종이다.

① 탁주(濁酒)

탁주는 술이라기보다도 중노동자에게는 일종의 부식물이며 때로는 삼시 식사의 대용적 역할도 해 주어 중국민의 차수(茶水)와 비슷한 것이니 그것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즉 알콜 성분은 최저 5%에 불과하고 약주는 이의 약 50%강 정도이다.

탁주	비중	주정	산미	휘발성	액기스	당분
최고	1.050	15.20	2.134	0.960	12.20	11.00
최저	0.997	5.02	0.472	0.065	3.15	0.16
약주	비중	주정	산미	휘발성	액기스	당분
최고	1.050	19.95	1.829	0.120	2.029	14.060
최저	0.079	11.95	0.224	0.014	9.663	1.195

② 약주藥酒

약주란 명칭은 귀하다는 뜻이니 갖은 과실과 귀한 것을 넣어 만든 밥을 약밥, 기름에 튀긴 과자를 약과라고 부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약주란 귀한 술이라는 뜻이 분명하다. 그리고 술이란 적당한 분량이면 보약이 된다는 해석에서도 약주라 일컬어 왔다.

본군 농촌에서는 송주松酒와 백일주는 아직도 양조되고 있으니 송주란 송엽주松葉酒라 일종의 약이요 백일주는 지하에 백일 간 묻어두면 아무리 여름이라도 변미變味하는 일이 없으므로 술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상비주로 마련해 두는 집이 있는 정도이다.

이 각종 술의 양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③ 감홍로주甘紅露酒

감홍로주로 유명한 곳은 평양이니 평양 감홍로주라면 술 중의 왕으로 일컫던 명주이다. 원료는 소주로 담홍색의 감주甘酒의 일종이다. 꿀과 계피에 소량의 생황을 찌어 넣고 홍국紅麴으로 담홍색을 낸다. 강계지방에 딸이 이빠야 감홍로주 맛을 본다는 민요가 전해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술이 얼마나 일반의 선망이 되어 왔던지를 알 수가 있다.

④ 과하주過夏酒

과하주는 원래 서울의 특산이다.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던 대갓집에서는 자가의 독특한 과하주 양조법이 있어서 술맛만 보아도 아무개택 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특미를 내었던 모양이다. 원료는 역시 소주로 30도 내외 술에다 계절 따라서 진과珍果를 넣어 조미하는 것으로 과실 종류에 따라서 맛도 달라진다. 오늘의 포도주니 임귤주林橘酒 하는 유로서 알콜 성분은 14, 15도 정도가 상식이었다.

⑤ 송순주松筍酒

송향松香을 주로 한, 술이라기보다 음료수에 가까운 알콜 성분도 10도 이내의 술로 갱미

粳米와 국자麴子로 약주 담그듯이 주모酒母를 만들어 찹쌀과 소주, 술순을 꺾어서 곡주가 되게 하고 이에 용수를 넣어 떠 마시게 한다.

⑥ 이강주梨薑酒

이강주도 원료는 소주이다. 소주 1말에 껍질 벗긴 배 5개와 1/3근가량의 생강즙을 내어 놓고 따로이 울금·계피의 가루 약간을 끓인 소주에 풀어서 꿀과 가미해서 3, 4일 두면 이강주가 된다. 이강주는 예로부터 전주를 일러왔고 진상주로 유명하다.

⑦ 죽력주竹瀝酒

죽력주는 전라의 명주이니 청죽靑竹을 불에 쪄 뽑은 즙을 섞어서 고은 소주이다. 죽력주를 마시면 청죽처럼 원기가 나고 노인도 다시 소년이 된다고 하는 말까지 전해진다.

⑧ 오미주五味酒

오미주는 소주 1말에 오미자 1되를 넣어 두었다가 4, 5일 후에 적색소와 수렴성 물질을 건져 내고 꿀로 가미한 것이다. 이는 보통 가정에서도 과하주過夏酒로서 애용되고 있다.

⑨ 두견주杜鵑酒

전주의 이강주, 전라의 죽력주와 병칭되는 김천의 명주로 원료는 역시 소주이다.

⑩ 백일주百日酒

백일주는 보통 막걸리 담그는 법과 같고 다만 지하에다 독을 묻어두는 것과 3차로 나누어 백일을 경과시킨다. 그러나 이는 위법이므로 점차 소멸되는 중이다.

03. 주생활

가. 구조

우리나라의 집 구조를 대별하여 남한형南韓型·서한형西韓型·북한형北韓型의 3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집이란 주위환경과 기후 등 외적 조건에 많은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남·

북·서한의 가옥구조가 다른 것도 이 생활환경과 기후의 차에서 온 것이다.

즉 서북의 주택이 보온에 치중되어 주방과 내실이 연결된 데 비하여 남한에서는 기후가 난온함으로 구조부터가 개방적이다.

본군도 우리나라의 중부에 위치함으로 가옥의 제도는 남한식이다. 종류로는 이르는바 3칸 초옥의 一자식^{字式}과 ㄱ자식, ㄷ자식, ㅁ자식의 4식으로 나눌 수 있다.

ㄱ. ‘一’자식

‘一’자식은 대개가 주방을 중부에 놓고 방이 양쪽으로 붙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엌을 끝으로 보내고 방을 둘 연결되게 하거나 방들이 불필요하면 헛간으로 쓴다거나 하는 식이다. ‘一’자 집이니 만큼 규모도 적고 보기도 초라하나 우리나라 가옥구조의 최대 결함인 채광이 양호하여 이 4종의 구조 중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ㄴ. ‘ㄱ’자식

그러나 3칸이 단 1칸만 늘게 되어도 부엌을 내실 전면에다 붙여 내실은 낮이라도 붙을 처지 않으면 물체의 형태도 분별할 수 없으리만큼 어두운 것이 보통이다.

이 ‘ㄱ’자식의 대부분은 5칸부터 7, 8칸 정도 가옥인데 구조를 보면 방향은 동남향이라도 부엌이 남으로 오고 안방이 북으로 가서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마루가 놓였다. 그리고 방이 3개 필요한 집에서는 부엌 끝으로 대어 짓거나 건넌방에 잇대어 짓는 것이 보통이다. 이 부엌의 남향 구조는 첫째 내실이 어두운 것과 부엌의 음식물이 부패키 쉬운 점 등 ‘일거양손^{一舉兩損}’이니 이 점은 개조되어야 할 것이다.

ㄷ. ‘ㄷ’자식

‘ㄷ’자 혹은 ‘ㄱ’자식에다 부엌 쪽으로나 건넌방 쪽에서 꺾어 잇대어진 것인데 소위 뜰아랫방이라는 것이 여기에 붙기도 하고 광·헛간 혹은 외양간이 붙고 대문 내지 삼짱¹²⁷이 달린다.

ㄹ. ‘ㅁ’자식

‘ㅁ’자식은 사방이 꼭 막히어 대문만 닫으면 개도 못 들어오게 되어 일견 아늑하고 외

127 삼짱: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짝인 사립짱의 준말이다.

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어 이상적인 듯하나 안뜰이 여간 넓지 않고서는 광선을 볼 수가 없는 것이 폐단이라 할 것이다. 이런 집은 대개 서남쪽으로 사랑이 붙고 중앙에 대문, 좌우로 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쪽은 주인이 쓰고 한쪽은 고용인이 쓰게 되어 있다.

나. 결언

상기한 것이 오늘날 우리네 집의 구조요 우리 군내도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수를 손꼽을 정도이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에 비하여 주택이 손색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과거 이조시대에 가옥에도 계급에 따라 이를 몹시 제한해 온 것도 한 이유이지만 이조 말의 정치적 부패로 양반계급의 소위 '토구질'로 해서 가급적 생활에 여유 있음을 숨기는 습관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가옥구조는 개량해야 하고 또 되어야 할 것이다. 군에서는 아직 거기에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나 금후 신축 가옥에는 가급적 온돌의 아궁이를 서북식으로 합병하는 방법과 울타리를 생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되도록은 문의 높이를 높게 하고 넓이를 넓게 해서 문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네 주택은 다락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높고 어두워서 쓸모가 적다. 이를 현대식 반침으로 개량할 것도 고려 중에 있으며 대체로 창이 높아서 광선을 받기 위해서보 다도 외부로부터의 침입 방지에만 주력한 감이 없지 않다.

온돌은 대체로 우리네 생활에 맞는 구조이다. 연료대책상 아궁이는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온돌은 고구려시대의 '항炕'이란 것이 오늘처럼 발달된 것으로 장판에는 유지를 바르나 농촌에서는 짚을 깔아서 섬유를 만들어 바른 짚장판을 하는데 종이보다는 수명도 길고 또 따뜻한 것이 장점이라 할 것이다.

제2장 풍속

01. 개설

우리나라에는 오랜 옛날부터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풍속이 전해 내려왔다. 어떤 것은 상고시대부터 그대로 이어 내려온 것도 있고 신라·백제의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의 각 시대에서 혹은 소멸되고 혹은 새로이 창안되어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어 그 수효는 실로 많은 바 있다.

우리 지방에도 그 대부분이 그대로 전승되어 왔으나 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민속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은 만큼 모두가 민족신앙이던 '밝의 뉘', 즉 '부루교敎'에 그 근원을 두니만큼 적치 40년간 그들이 되도록은 우리의 민속까지도 왜국화하기 위해서 혹은 강제로 금지도 시켰고 혹 반강제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비난하기도 하여 어떤 것은 자연 소멸된 것도 많았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그 대부분은 규모라든가 범위에는 차가 있어도 거의 복구되고 있고 또 되는 도정에 있다. 이 소멸된 것 중에는 미신적인 것이 비교적 많음은 우리 민족의 문화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증명함이니 크게 찬양할 바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문화를 돕고 우리 민족성을 미화하는 풍속이면 금후 이를 가급적 조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 구체안도 강구 중에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래된 풍속에 어떤 것이 있는 있는가 이를 월별로 찾아보기로 하자.

02. 일반 풍속

가. 정월

ㄱ. 설

예로부터 정월 초하룻날 아침은 ‘설’이라고 일러 365일의 첫날을 기념해 왔다. ‘명일’이라 하면 다른 명절을 지목하기 전에는 ‘설’을 의미할 만큼 소중히 아는 것이 설 명절이다.

설이란 슬프다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조심한다는 말로도 쓰여졌으니 곧 365일의 첫날인 정월 초하룻날은 매사에 조심한다는 뜻이다. 이 정월 1일을 명절로 정하고 축복하는 것은 비단 우리 민족뿐이 아니라 세계 각 민족이 다 그해의 첫날을 즐거이 맞는 풍습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정월 상달을 즐거이 보내기 위해서 갖은 행락을 한 민속이 전해 지고 있다. 이를 따로따로 들어 그 유래와 방법을 적어보기로 한다.

ㄴ. 설빔

설빔(설빔)은 세장(歲粧)이라 하니 새해 새 단장이란 뜻이다. 이 설날을 맞기 위해서 선달그믐에는 목욕을 하며 목은때를 다 떨어버리고 몸과 마음과 의복까지 일습을 갈아 새 마음 새뜻으로 이 경건한 아침을 맞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빔’이란 말은 주로 부녀자와 어린이들에게 쓰이고 있으나 원래는 남녀노유의 분별이 없었던 것으로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경도잡지 京都雜志』·『열양세시기 洙陽歲時記』 등에 “남녀노소비유자 개착신의왈세장 男女老少卑幼者 皆着新衣曰歲粧”¹²⁸ 운운한 것으로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다.¹²⁹ 『열양세시기』에는 ‘세비음(歲庇蔭)’이란 용어를 썼으니 이는 곧 ‘설비음’의 한자음화인 것이 분명하다.

ㄷ. 세배

남녀노유(男女老幼) 없이 새 옷을 내어 설비음(설빔)을 하고는 세배를 다니는 풍습이다. 세배(歲拜)는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가는 법인지라 이날은 알롱달롱하게 차린 어린아이들

128 “남녀·노소·비유 모두 새 옷을 입는데 세장이라 한다.” 『금천지』 원문에는 개책가 습책으로, 왈피이 일피로 되어 있는데 바로잡았다.

129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경도잡지』에 “남녀가 모두 새 옷을 입는데 이를 세장(歲粧)이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고,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의 『열양세-시기』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새로 만든 의복 한 벌을 입는데 이것을 세비음이라 한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홍석모(洪錫謨, 1781-1850)의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에는 “남녀 어린이들은 모두 새 옷으로 단장하는데 이것을 세장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때를 지어 세배를 다닌다. 세배를 받는 어른들은 세배하는 상대에 따라서 적당한 인사를 한다. 즉 어린아이들이면 ‘공부 잘할 꿈 꾸었다지?’ 하는 의미로 응수하고, 미혼 총각이면 장가들 꿈 타령이 나오고, 장가를 들었으면 아들 낳을 꿈을 꺼낸다. 상대가 성년인 경우에는 “피시고 과세^{過歲} 잘했나?” 하는 식이다. 세배를 오면 아이들은 세배 과실이나 다식약과 혹은 돈을 주는 풍속이요 어른한테는 세배 술을 내는 법이다. 원래는 설달그믐날 묵은세배도 하는 법이더니 이는 점점 없어지고 일부 가족에서 자기 부모에게만 행하고 있다.

여자들은 내외가 심하고 옛날에는 문안비^{問安婢}라고 종을 대신 보내기도 했으니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 『동국세시기』에도 “방죽척장로왈세배 궤이시식왈세찬 주왈세주^{訪族戚長老曰歲拜 饋以時食曰歲饌 酒曰歲酒}”¹³⁰라 한 것을 보면 그때의 풍습이 오늘날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설날 아침에는 선조의 영 앞에 차사^{茶祀}를 지내니 일종의 세배라 차례^{茶禮}를 지내기 전에는 남의 세배를 받지도 않고 세배를 하러 가지도 않는다. 그러나 상주는 절대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받는다.

ㄹ. 정초 액일^{正月初厄日}

정월 초하루부터 12일까지는 12간지에 의해서 노동을 하지 않는 관습이 있다. 이 동안에는 옷·제기·연날리기·고누·돈치기·사방치기·돌치기 등 유희를 하고 논다.

초자일^{初子日}

쥐날이라 하여 쥐의 번식을 방지하는 예방법으로 밤중에 빈 정구질을 하기도 하고 온 집안을 깔깔하게 하여 쥐가 곡식을 못 찾게 한다는 풍속이 있다.

이 쥐날에는 ‘쥐불’이라 하여 들로 나가서 잔디에 불을 놓는다. 이것은 풀을 무성케 하기 위한 방법에서 생긴 풍습이다.

초축일^{初丑日}

초축일은 농사에 없지 못할 우마의 애호일^{愛護日}로 되어 있어 이날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우마한테 노역을 시키지 않고 먹이는 것도 잘 먹인다. 말하자면 소·말의 생일날이요, 또 설날이기도 하다.

130 “집안 어른을 찾아뵈는 것을 세배, 시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세찬, 이때 마시는 술을 세주라고 한다.”

초인일(初寅日)

이날은 범의 날이라 하여 부녀자들은 절대로 외출을 금한다. 더욱이 부녀자가 남의 집에 가서 방변(放便, 오줌이나 똥을 놓)을 하면 그 집에서 호액(虎厄)을 입는다는 말이 있어 부득이하여 가는 일이 있더라도 방편만은 자기집에 돌아와서 한다.

초묘일(初卯日)

속칭 토끼날이라 한다. 이 토끼날에는 아침에 여자가 먼저 발동(發動)을 하면 그해 그 집안에 큰 액운이 온다 전해짐으로 새벽에 남자가 먼저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연기가 굴뚝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야 여자가 부엌에 들어서는 풍습이다.

이날은 또 명사일(命絲日)이라고도 하여 이날 실을 자아서 남편의 의복을 하면 명(命)이 길고 그해 무병하다는 풍속이 있다. 그래서 여자들은 부지런히 실을 자아서 되도록 여러 사람의 옷을 꿰매고 주머니 끈에다 '명실'이라고 실을 찬다. 남자들도 이 명실을 차는 풍속이었으나 점점 없어지고 있다. 지금도 농촌 부녀자들은 명실을 찬다. 명실을 '뜻실'이라 함은 토끼날의 실이란 뜻이다.

초액일(初厄日)

속칭 용날(初辰日)이다. 천상의 용이 이날 새벽에 우물에 내려와서 알을 낳는다고 믿어지는데 농촌 부녀자들은 서로 다투어 새벽물을 길는다. 용이 낳은 알을 건져다 남편을 먹이면 무병장수도 하고 그해 비가 잘 와서 농사에 대풍(大豊)이 든다는 것이다.

또 이날 여자들이 머리를 빗으면 머리가 용처럼 길어진다고 해서 서로 다투어 머리를 빗지만 초사일(初巳日)은 머리를 빗으면 뱀이 집에 든다 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초유일(初酉日)

닭의 날이라 하여 이날은 절대로 바느질을 않는다. 만일 바느질을 하면 손발이 닭의 발처럼 된다는 데서 온 풍속인데 정초부터 바느질을 한다는 것은 부지런을 의미하기보다 그만큼 게을러서 보름 입을 옷 마련도 못했다는 훈계에서 생긴 것이다.

초인일(初人日)

이날은 남녀를 불문하고 외박을 앓는 습관이다. 만일 부득이 외박을 하게 되면 주·객이 서로 거꾸로 누워 잔다. 그래야 우정을 지탱할 수 있다 함이다.

대체로 대보름 전에는 일도 않고 더욱이 여자는 남의 집을 안 가는 법이니 정초에 여자가 드나들면 그 집 액운이 나쁘다 하여 몹시 꺼린다.

ㄱ. 민속

답교

정월 15일을 대보름이라 하여 설 못지않게 소중히 여긴다. 보름 명절이라 하여 갖은 음식을 차리고 답교(踏橋, 다리밧기) 풍속이 있다. 원래 남자는 14일, 여자는 보름날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름날 남녀가 함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답교 방식은 다리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왕복을 하는 것인데 중국에도 ‘주교(走橋 주백병(走百病))’이라 하여 다리를 달리면 백병이 달아난다 했으니 건강(健脚)을 위한 풍습이라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멀리 고려시대부터 이 풍속이 성행해 왔는데(『지봉유설(芝峯類說)』) 이조에 들어와서 대유행이 되었다. 더욱이 여자들은 외출이 금지되어 온 터라 이날은 여자들이 다투어 다리밧이(다리밧기)를 하는데 남녀 풍기가 어지러워져서 나라에서 금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남자들만이 답교를 하나¹³¹ 농촌에서는 부녀자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

알품기

정월 12일 밤 농촌 아이들은 솔방울을 수백 개씩 주어다가 쇠똥에다 다 묻어 둔다. 이것은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 깨우는 것을 모방한 것인데 정월달에는 우선 병아리를 깨우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풍속이다.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길로 쇠똥을 헤치고 솔방울을 꺼내면서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린다.

더위팔기

정월 14일은 더위를 파는 날이다. 이날은 아무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답을 하면 “내 더위 사 가거라.” 해서 그해 더위를 떠안고 만다. 이는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계절을 나누는 풍속에서 온 것인데 정월 13일은 봄, 14일은 여름, 15일은 가을, 16일이 겨울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날은 또 오곡밥을 먹고 나무 아홉 짐과 밥 아홉 그릇을 먹는다 하고 또 이날은 찰밥을 많이 해 두었다가 오는 사람마다 먹이는 풍속이 있다. 이는 3성(姓)의 집밥을 얻어먹으면 그

131 원문에는 남자가 남녀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풍기 문란으로 금지되어 지금은 주로 남자들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여 수정하였다. 『연려실기술』에도 “남자는 귀천을 물론하고 무리를 이루어 다리를 밧는 것이 지금까지 풍속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였다.

해 운이 좋다 해서 서로 청해서도 먹이나 절대로 물만은 주지 않는 법이니 물을 주면 그해 자기 논이 말라서 작농^{작농}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날은 또 저녁을 일찍 해 먹는 날이다. 저녁 새이때(오후 3시경, 새참) 벌써 저녁을 해 먹고 놀러 나간다. 그러나 이날은 무를 먹지 않는 풍속이니 무를 먹으면 몸 썩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신수점

정월은 상달이라 하여 그해 신수^{신수}를 점^占치는 풍속이 있어 부녀자들은 토정비결^{土亭秘訣}도 보고 점복도 치고 옷·점 등 갖은 방법으로 자기네 1년 행운을 점쳐 보는 것이다.

목화놀이

이것은 정월 12일 아침에 하는 놀이로 대개 10세 전후의 소녀들이 나뭇가지에 목화송이를 달아서 지붕이나 담 같은데 많이 꽂아서 마치 목화밭처럼 보이게 하고 각시를 만들어서 목화 따는 것처럼 가장^{假裝}을 한다. 목화 풍년을 상징한 풍속이다.

망월

정월 보름은 망월(望月, 달맞이)이라 하여 대보름 맞이를 한다. 남녀동락^{男女同樂}으로 긴 화에다 불을 떨어 되도록 높은 데 가서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이 그해 복을 탄다는 것이다. “달님 달님 절합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치며 절을 세 번 한다. 어른들은 자기의 가장 바라는 바를 축원하고 미혼남들은 혼처가 나기를 축원한다고 한다.

이날 밤 미혼남녀가 달을 먼저 보면 그해 혼처가 나시고 성혼자가 먼저 보면 득남한다고 하며 달의 위치와 색 여하로 그해의 흥풍을 점칠 수 있다 하여 농촌에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되도록 높은 봉우리에 올라 맨 먼저 이 달을 보려고 애를 쓴다. 선조 조의 대역학자^{大易學者} 요 시인인 차창주^{車滄洲}¹³²의 「망월설^{望月說}」¹³³에 보면

農家正月望 常候月昇天
近北豊山峽 差南稔海邊

132 창주는 차운로(車雲路, 1559~?)의 호이다. 본관은 연안, 자는 만리萬理로,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의 동생이다. 1589년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고, 문장과 시에 뛰어났다.

133 차운로의 시로,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 「농가후월^{農家候月}」이란 시로 전문^{全文}이 실려 전해 온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참고하여 오자를 수정하였다.

赤疑焦草木 白怕漲川淵
圓滿深黃色 方知大有年¹³⁴

이라 하였으니 달빛이 붉으면 큰 가뭄이 들어 초목까지 마른다가 둥글고 짙은 황색이라야 풍년이 든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농로들의 비결도 기실其實은 이 창주 선생의 글이 전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또 망월은 가끔 햇불싸움의 동기가 되니 이 봉^峯 저 봉^峯 진 치고 있던 타동끼리 설왕설래 욱도 하고 농도 하다가 편쌈이 되면 서로 햇불을 들고 응전을 한다. 그래서 햇불이 다 꺼진 쪽이 패하는 것이다.

부럼

대보름날 아침에는 일어나는 길로 부럼이라고 하여 밤·팥·호두 등을 딱 물어 떼는 풍속이 있다. 이를 부럼이라고 하는데 부럼을 깨물면 그해 부스럼, 즉 종기를 안 앓는다는 것으로 보아 부스럼이 변하여 부럼이 된 모양이다. 실과가 없는 집에서는 콩도 볶아 먹으니 딱딱한 것을 먹으면 이가 강해진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치아 보호일이다. 또 보름날 아침에는 ‘귀밭이술’이라 하여 냉주(冷酒, 혹은 냉수)를 마시니 『웅치잡지(龔池雜志)』에는 “청신(淸晨) 작을(작을) 흑라복(嚼栗或蘿蔔) 축일일년십이삭무사태평(祝日一年十二月無事太平) 위지작절(謂之嚼齋) 우음소주일잔(又飲燒酒一盞) 영인이충(令人耳聰) 안섭정규(案葉廷珪) 해록쇄사(海錄碎事) 사일음치롱주(社日飲治蠶酒) 금속이어상원(俗移於上元)”¹³⁵이라 기록이 있고, 더위팔기도 “이날은 남자나 여자나 꼭두새벽부터 갑자기 상대방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 가라.’고 한다.”¹³⁶라 하여 더위 파는 것을 전해 주고 있다.

134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농가에서 정월 보름이면 / 늘 하늘에 오르는 달 기다리네.
북쪽에 가까우면 두메에 풍년 들고 / 남쪽으로 기울면 해변에 풍년이라.
붉으면 초목 탈까 의심스럽고 / 희면 냇물 불어날까 두렵네.
완전히 둥글고 짙은 황색이면 / 크게 풍년을 조짐임을 알겠네.”

135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새벽에 밤이나 무를 깨물고 ‘일 년 열두 달 무사태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풍속을 ‘부럼 깨물기(嚼齋)’라 한다. 또 소주를 1잔 마시면서 귀를 밝게 해달라고 한다. 섭정규(葉廷珪)의 『해록쇄사(海錄碎事)』를 살펴보면 ‘사일(社日)에 치롱주(蠶酒)를 마신다.’라 했는데, 지금의 풍속에서는 정월대보름으로 옮겨왔다.”

이 인용문은 유득공의 『경도잡지』에 나오며, 이를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정조지(鼎朝志)』에서 인용하였는데, “작을(작을) 흑라복(嚼栗或蘿蔔)”이 “작을(嚼栗)”로만 되어 있다. 『웅치잡지(龔池雜志)』는 서유구의 저작이나 유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으며, 『임원경제지』 등에서 많이 인용하여 부분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36 “사녀능신(少女凌晨) 졸연상호(猝然相呼) 낙지즉알매오서(諾之則曰貴吾農)”

ㄴ. 정월의 오락

웃놀이

웃놀이는 멀리 신라시대부터 전래된 놀이로 정월 오락 중에 가장 애호되어 남녀노유의 구별이 없다. 종류로는 가래웃과 밤웃의 2종으로 가래는 나무토막을 쪼개서 만든 것이요, 밤웃은 콩조각 또는 밤나무로 콩만큼 잘라서 쪼갠 것이다.

장자웃은 지방에 따라서 길이가 7, 8치^[寸]가 되고 4개를 쥐면 손 아금이 벌어져서 1개는 엄지손가락 끝에 겨우 만져질 정도로 큰 것이 있으나(충북지방) 우리 군에서는 박달로 만든 가래웃이다. 『경도잡지』에서 보면

사부왈모^{四俯曰牡}: 모, 5점, 속칭 없다

사양왈웃^{四仰曰扭}: 웃, 4점, 속칭 흰죽

삼부일양왈도^{三俯一仰曰徒}: 도, 1점, 속칭 돼지

이부이양왈개^{二俯二仰曰个}: 개, 2점, 속칭 개^[犬]

일부삼양왈걸^{一俯三仰曰傑}: 걸, 3점, 속칭 걸직하다

사양^{四仰}, 즉 네 짝이 다 자빠진 것은 웃이라 하고 이것이 명칭이 되어 있다. 웃은 2인 이상이면 10여 명씩도 일시에 놀 수 있고 술내기·음식내기들을 편 지어 놀아서 유희한다.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웃 벗기기 웃을 잘 논다. 이것은 주로 말판을 쓰지 않고 높은 끝수로 단번에 승부를 결정해서 지는 자가 웃 한가지씩을 벗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발가벗게 되는데 코를 쥐고 실내 사람한테 절을 해야 한다. 절 한 번에 웃 한가지씩을 찾게 되므로 모두들 웃고 재미있어 한다.

이 웃은 동리 대항도 한다. 지는 동리에서 보리 흥년을 떠안아 간다고 하여 자기네 선수들이 모 한 번만 하면 지화자를 부르고 춤을 추며 온 동리를 뒤집어엎는다.

밤웃을 그대로 던지기도 하고 토수를 세워 놓고 그 속에 넣기도 한다.

널뛰기

주로 부녀자들의 놀이다. 가운데 돌음을 놓고 그 위에 널판을 질러 놓은 후 양편에서 번갈아 구르면 상대방이 높이 올라간다. 여자가 돌음을 밟으면 어머니가 요통이 생긴다 하고 대보름 후에 널을 뛰면 보리 흥년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녀들이 보름 지나 웃을 놀면

보리 흉년이 든다는 것과 같으며 보름 동안이나 놀았으니 그만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 널뛰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미상이나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현(沖繩縣)이 되어 있는 유구국(琉球國)에도 ‘판무(板舞)¹³⁷라 하여 우리의 널뛰기와 비슷한 부녀자 유희가 있다는 것이 『경도잡지』 세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고려 때부터 시작이 되어 조선에 전해진 것 같다고 한다. 유구는 당시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이므로 그때 배워 간 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옛 풍속으로서 웃은 남자에게, 널뛰기는 여자에게 가장 즐거워지는 놀이의 하나라 할 것이다.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삭전(索戰)이라고 쓴다. 웃은 개인 경기요, 줄다리기는 단체 경기다. 가장 작은 규모로는 위아래 동네로 나누어서 줄다리기를 하고 그것이 수면(數面), 나중에는 면 대항전까지 벌어진다.

우래는 축보(築沸)를 하기 위해서 바를 드리다가 서로 잡아당기기 내기를 한 것이 시초인데 줄에는 암줄·수줄이 있어서 서로 맞추어 비녀장을 지른다. 그래서 일정한 위치를 정해 놓고 그 경계선을 넘으면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줄의 ‘용두머리’는 큰 줄이면 두세 아랍씩 되고 가닥줄이 많이 달려서 수백 명씩, 어떤 때는 천여 명이 붙어서 잡아당기는데 이 인원수로 대부분은 결정하지만 서로 밀정을 놓아서 저쪽의 실력 기타 전술을 내탐케 하고 또는 자객을 놓아서 줄에다 소위 칼침을 주게 한다. 이 밀정과 자객은 전쟁과 같아서 실로 결사적인 것이다. 적진 속에 거지 혹은 상인으로 변장하고 침입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수십 명이 둘러싸고서 밤을 새우는 줄 부근에 접근하는 것인데 만일 발각이 되면 갖은 악형을 다 겪고 죽는대도 큰 시비를 못하는 정도이다.

줄이 준비가 되면 서로 경계 내에서 청병을 하면 원군(援軍)은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에 승복을 입은 무동을 두셋씩 춤을 추이면서 들어온다. 이 원군은 영접을 받아서 들어오는 법으로 이쪽에서도 주연을 차려 들고 마중을 간다. 이것이 큰 줄이면 하루 종일 계속되어 실전은 그날 밤부터 시작된다.

양편 두목이 만나서 암수에 비나봉(棒)을 질러놓고 양편 합의하에 북을 세 번 친다. 3고(鼓)전에 달리면 위법이라 고치고 3고 후에 늦는 것은 그쪽 책임이다. 군호는 ‘의여차’니 곧 ‘義於此’다. 싸우되 의로 싸우고 한번 다리는 것이 위대한 의가 된다는 뜻이다. 양편에는

137 원문에는 발무(拔舞)로 되어 있는데 『경도잡지』에 판무(板舞)로 나와 바로잡았다.

응원군이 붙어서 북을 치고 소리를 질러 백군을 격려한다. 예로부터 이 줄다리기에는 엄격한 법규가 있어서 휴식고(休息鼓)가 울리면 딱 쉰다. 만일 휴식고 때도 당기면 위법이요 또 그런 비열한 행동은 서로 절대로 삼간다. 그래서 어떤 때는 2, 3일씩 승부가 안 나는 때도 있다.

승부가 결정이 되면 승자들은 대축하회를 열고 패자는 줄도 빼앗기고 그해 흉년을 떠맡는 것이다. 승자 측에서는 그 줄을 이용해서 공동용에도 쓰고 보를 막는 데도 이용하기 때문에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이 농민의 경기는 적지 간에는 군중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금지되어 있었다.

장치기

장치기(擲球)도 줄다리기와 같이 편전 경기다. 그 기원을 멀리 고려시대에 두고 있는 편쌈의 일종으로 오늘날의 '골프와 그 형식과 도구·방법이 거의 같다 할 수 있으니 상·하동 혹은 동리끼리 각각 산봉(山峯)에 진을 치고 골프봉과 같은 끝이 주걱처럼 된 장대로 목구(木球, 관솔을 깎은 것)를 치는 것이다. 이 목구에는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니 이 목구를 양편 주장이 북소리와 함께 치기 시작해서 적진에 돌입하는 것이다. 현대 골프와 다른 것은 끝이 축구처럼 한 개 한 개 없다는 것뿐이니 축구와 골프를 겸한 남성적인 경기다.

목구가 골짜기 같은 데 가서 끼이면 양편 장정들이 한데 10여 명씩 몰려서 드잡이를 놓는다. 그러다가 손을 안 대고는 안 된다는 것을 판관(심판)이 인정하면 양편 판관 주회하에 판관이 손으로 꺼낸다.

이 경기는 나무하러 가서 노는 시간에도 잘하는 경기이지만 대규모인 때는 산 관리권을 걸고도 한다. 그래서 지는 편은 멀더라도 그 산에서는 나무를 못 하게 되는 법이다. 경기가 백열전(白熱戰)에 들어가면 천지가 진동하게 함성이 오르고 북을 울리며 응원이 벌어진다. 목구에 빠져 선혈이 쏟아져도 경기는 그대로 계속이 된다.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동민들이 주효(酒肴, 술과 안주)로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 경기는 일종의 군사훈련으로 지금은 거의 근절되다시피 했으나 아직도 소규모의 장치기는 초동(樵童) 사이에 행해지고 있다. 큰 산을 운동장으로 해서 실로 남성적인 점과 따로 이 도구가 들지 않아 비용이 없는 점,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점 등 금후 장려되어도 좋을 것이다.

편전

편전(便戰)은 편쌈(편싸움)이다. 편이 갈려서 일정한 경계선 내에서 돌로 싸우는 때문에 석전(石戰)이라고 불리어진다. 이 경기도 장치기 그대로의 규모와 방법에 의해서 진행된다.

중국에도 석전이란 경기가 있다 하나 우리나라의 편싸움과는 다르다. 이 경기는 멀리 고구려시대부터 창안되어 조선 중엽까지 국방 예비군의 군사훈련 대신 장려되었던 것이다. 수·당의 고려전(高麗傳)을 보면 “고려에는 매년 정초에 패수(溟水) 상에 모여서 좌우 2부로 나누어 석전을 한다. 이날 국왕은 친히 요거(腰擧)를 타고 와서 구경하더라.”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 경기가 대규모적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또 “신우왕 6년 5월에 왕이 석전 구경을 가려고 함에 지신사 이존성(李存性)이 이의 중지를 간하자 왕이 대로하여 내시(內侍)를 시켜 존성을 때리게 하고 또 친히 활로 쏘았다.” 이런 기록도 있으며 동 13년에는 왕이 매바위에 올라 석전을 보느라고 이들을 묵었다 했고, 『이조실록』에도 “세종대왕이 고려시대의 석전이 폐절된 것을 걱정하여 어명으로 편싸움 지원자를 모집, “세종 3년 5월에는 석전을 붙이어 병중이신 상왕 태종도 어람하시게 하고 부상자들에게는 친히 시의(侍醫)를 보내셨느니라.” 하였으니 이로 보더라도 석전을 국방상 얼마나 중대시했든가를 알 수 있다.

이로 보면 원래는 정월 유희(遊戱)로 시작된 것이나 나중에 4월 8일, 5월 5일 등 수시 시행케 되었던 모양이다. 이제 『동국세시기』와 『경도잡지』에 기록된 서울의 편전기를 보면 서울 편싸움은 불전(不戰)이 주가 아니라 육모방망이와 발길질, 주먹질이 장기요 주가 되어 그대로 전쟁의 단병접전의 상태였던 모양이다. 그 장기에도 유가 달라서 문안 사람은 육모방망이에 발길질이나 강대(江帶, 마포·용산 지대) 사람들은 참나무 몽치, 버들방망이질과 주먹질이 장기였다고 한다.

이 편싸움은 임진란까지는 실로 왕성했고 나라에서도 장려를 해서 중종조 5년(단기 2839년, 서기 1506년)에는 삼포(三浦)에 상륙한 왜군이 석전으로 격퇴한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임진란 때는 왜군에게 조총이 있어서 석전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 민간 경기가 되어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일부 아이들끼리의 편싸움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이 편싸움을 보니 이는 경기로서가 아니라 물과 나무터 등으로 이 해가 상반된 동리끼리 정말 편쌈이 가끔 있으니 이는 전래의 편싸움과 형식도 관념도 다르다.

제기

제기란 엽전(葉錢)을 한지(韓紙)로 싸고 구멍 사이로 꼬리를 달아서 차면 올라가게 만든 것으

로 멀리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유희방법이다. 이 제기 유희는 신라통일에 주역이었던 29대 태종무열왕이 일찍이 김춘추金春秋였을 때 김유신金庾信이 자기 누이를 김춘추에게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김춘추의 옷고름을 떼어 그 고름을 자기 누이에게 달아 주도록 했다. 전하지만 그때 김춘추와 김유신이 놀던 경기가 이 제기였다. 제기로 해서 김유신의 누이는 왕비가 되었으니 바로 문명부인文明夫人이 태종무열왕의 왕비다.

방법은 서로 가짓수를 정해서 최고점이 이기는데 패자는 승자의 명령에 의해서 ‘종’을 드린다. 종을 드리면 발로 차고 해서 패자를 종(노예)처럼 부려 먹는데 이로만 본대도 과거의 특권계급인 양반이 노예를 얼마나 부려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돈치기·돌차기

돈치기는 척전擲錢이라고 하여 역시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도전성賭錢性을 띤 유희다. 돈을 던지고 먹지로 맞추어서 승부를 결정한다.

돌차기는 사방四方차기¹³⁸나 비석차기¹³⁹ 등이 있어 주로 아이들의 장난이다.

나. 2월

ㄱ. 2월 초1일

2월 초하룻날은 예로부터 청결일淸潔日처럼 되어 이날에는 정월 대보름날 풍년고사로 세운 벼이삭, 목화木花놀이로 만들어 꽃은 목화송이 등을 말끔히 걷어내고 송편을 만들어 머슴과 부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습관이었다.

옛날에는 중화척中和尺이란 실백척實栢尺을 만들어 나라에 진상도 했고 정월의 설과 같이 2월 설날이라 하여 명절로 세워왔다는 기록은 있으나 유품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도 농촌에 전해 오고 있는 풍속은 노낙각시(노래기)를 떨어 버린다 하여 집안을 떨고 쓸고 솔잎 같은 것을 따다가 마당에 뿌리어 노래기를 방지하는 습관이 있다. 또는 종이에다 “향랑각씨속거천리(香娘閣氏速去千里, 향랑각시는 천리 밖으로 어서 떠나라)”라고 써서 붙이는데, 이 향랑이란 노래기니 『중종실록』 권7에 향랑은 마륙馬陸이라고 했고 마륙은 노래기의 한문명이다. 그 노래기를 부를 때 지금도 ‘노낙각시’라고 함은 이에서 나온 말이다.

138 사방차기: 사방치기인 듯하다. 땅바닥에 여러 공간을 구분해 그려 놓고, 그 안에서 납작한 돌을 한 발로 차서 차례로 다음 공간으로 옮기다가 정해진 공간에 가서는 돌을 공중으로 띄워 받아 돌아온다.

139 비석차기: 비사치기 또는 비석치기인 듯하다. 일정한 거리에 작은 비석 돌을 세워놓고 이를 맞춰 쓰러뜨리는 어린이 놀이이다.

ㄴ. 한식

한식寒食이라면 조상 묘지에 성묘 가는 날이다. 중국에서도 당 때부터 전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부터 벼슬아치로 하여금 이날 성묘케 했던 것이 조선에 들어와서 상하가 다 같이 성묘케 되었다.

이 한식날의 유래는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왕실에 알력이 생기어 왕이 궁을 탈출하여 방랑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때 왕의 탈출을 보고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왕의 뒤를 따라 19년간 왕을 위로하였던바 후에 왕이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왕위에 오르면서도 자추를 통 돌아보아 주지 않았다. 왕의 이 배신행위를 보고 자추는 입산하여 나오지 않았다. 후에 왕이 잘못을 깨닫고 자추를 찾다 못하여 산에 불을 지르면 나오리라고 불을 지른 것이 그 불에 자추는 타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추를 동정하여 그날은 찬밥을 먹는다고 전한다.

다. 3월

ㄱ. 3월 3일

3월 3일을 흔히 '삼짇날'이라고 한다. 혹은 3월 3절三節이란 뜻이라고도 하고 조선음화로 해서 변했다는 설도 있으나 후자가 옳을 것이다.

3월 3일은 9월 9일에 강남으로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날로 3월달의 명절로 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부터 3월 3일에는 동면도 끝난 새 기분으로 봄맞이를 하기 위하여 불계裊袂¹⁴⁰·답청踏靑·유상곡수流觴曲水¹⁴¹의 연宴을 베풀었으니 곧 겨울 동안의 동면에서 봄기운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때를 씻고 풀을 밟으며 술추렴을 하였던 것이다.

이 왕실의 유풍이 민간에 전하여 고려·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날은 진달래꽃잎을 쌀가루 떡에 붙여 기름에 지져 먹는 풍속이 있다. 이 떡을 화전花煎이라 한다.

유한계급에는 화전놀이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으나 일반은 그저 꽃놀이라 하여 날짜를 3일에만 국한하지 않을 뿐 형식은 같다.

140 불계: 신에게 빌어 재앙으로 인한 불행을 떨어 버림. 또는 그 제사.

141 유상곡수: 삼월 삼짇날, 굽이도는 물에 잔을 띄워 그 잔이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시를 짓던 놀이.

라. 4월

ㄱ. 4월 8일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라고 소위 파일 등놀이를 하는 풍속이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의 탄생일에는 4월설과 2월설의 두 설이 있으니 같은 고려시대에도 8대 현종 2년(단기 3331, 서기 998) 6대 성종 이후로 폐지되었던 연등회를 2월 14일에 부활시킨다 했고 9대 덕종도 2월 14일 연등으로 말미암아 왕륜사王輪寺에 행행하시었다 했고 11대 문종이 2월 14일을 11일로 한 것은 한식날이 마침 2월 14일이었던 관계로 3일을 당겼을 뿐이다. 18대 의종대에도 2월 14일로 되어 있다. 의종은 2월이 선왕 인종의 기월_{忌月}이라고 해서 2월 14일을 고치어 1월 15일에 연등을 거행했다.

『악학궤범_{樂學軌範}』에 나오는 가곡에도

정월_{正月}스 나릿 뜨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흥을로 녀셔
아으 동동_{動動}다리

이월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_燈스불 다호라
만인 비취실 즈이샷다
아으 동동_{動動}다리¹⁴²

142 현대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정월 넷물은
아아, 열다 녹다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고는
이 몸은 흥로 지내누나
아으 동동다리

이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
등불 같아라
만인 비취실 모습이로다
아으 동동다리”

라 했고, 『지봉유설 芝峯類說』에도 “국속자왕궁국도 國俗自王宮國都, 이급향읍 以及鄉邑, 정월망연 등이야 正月望燃燈二夜, 지공민왕조역연 至恭愍王朝亦然, 이최이어서월팔일 而崔怡於四月八日, 연등위 락운 燃燈爲樂云, 양설부동 兩說不同, 금속사월팔일연등 今俗四月八日燃燈, 인위출어불가 人謂出於佛家, …… 운운 云云”¹⁴³ 한 것을 보면 공민왕조까지는 정월 보름(望)에 연등한 모양이다. 백과전서에는 석가모니의 탄생일은 4월 8일로 되어 있다. 이는 어쨌든 이날은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하고 그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연등하는 풍속이 생기었으니 이날은 대개 2일간이나 연등을 해서 광명의 세계를 이루었었다. 그리고 이날 쓰이는 등에는 실로 그 수효가 많았으니 산(蒜, 마늘)·연등(연꽃)·서과(西瓜, 수박)·압(鴨, 오리)·이(鯉, 잉어)·병(瓶)·홍(紅)·배(船)·북(鼓)·칠성(七星)·수자(壽字)의 여러 가지 형상을 모조한 등에다 불을 켜서 달았던 것이다.

이날 종이에 화약을 써서 청죽(靑竹)에 매어서 공중에서 폭발시키니 지금의 불꽃과 같았다.

마. 5월

ㄱ. 단오의 유래

5월 5일을 단오(端午)라고 하여 4대 명절의 하나로 친다. 5월 1일은 단일(端一), 2일은 단이(端二), 3일은 단삼(端三), 4일은 단사(端四), 5일을 단오(歲時記)라고 한 것을 보면 단오는 단오(端五)로도 쓰는 모양이다. 이 ‘단오(端午)’라는 명사가 우리 역사에 처음 나타난 『삼국유사』 권2의 문호왕 법민조에는 “뫼 端午也(내 이름은 단오다.)”라고 했고, 주월(註曰) 속칭(俗稱) 단오(端午)는 ‘차의(車衣)라 했으니 ‘차의’는 우리말로 ‘술의’, 즉 ‘술이’니 『열양세시기』의 ‘수뢰일(水瀨日)도 이 ‘술이’의 한음(漢音)인 것이 분명할뿐더러 단오일에 만들어 먹는 쑥떡(艾糕)의 원료인 쑥잎(艾葉)을 ‘술의취(戍衣翠)’라 하니 이는 곧 우리말의 ‘수리취’의 한음인 것이다. 이로 보면 단오는 단오·술의(車衣)·술이·수뢰 등으로 쓰였던 모양이다.

ㄴ. 단오 사화(史話)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단오일인 5월 5일은 마치 9월 9일처럼 큰 액일(厄日)로 알아왔다. 그 유래는 전국시대의 초나라 초희왕(楚懷王)이 사랑하던 굴원(屈原)이 간신의 모해로 숨어 살다가 장사(長沙) 벽라수(汨羅水)에 투신자살을 한 것이 바로 5월 5일이어서 어부

143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의 풍속에, 왕궁과 국도에서 시골까지 1월 15일부터 이틀 밤 연등을 하는데, 공민왕 대까지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최이(崔怡)가 4월 8일 연등을 즐겼다고 하니 양설(兩說)이 같지 않다. 지금 풍속에는 4월 8일에 연등을 하는데 사람들이 불가에서 나왔다고 한다. …… 운운.”

들이 그의 넋을 위로하느라고 죽통에다 쌀을 넣어 제사를 지내고 굴원을 건진다는 의미로 배의 경기를 하는 풍속이 전해지더니 하루는 그 굴원이 나타나서 제물을 모두 문룡(蚊龍)이 뺏어 먹으니 동나무(棟樹) 앞에다 음식을 쌓고 오색실로 동여서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쭉과 수리취 같은 풀로 떡을 지어 먹게 되었다 한다.

그래서 5월 5일은 액일이라 하여 5월 5일 생일은 부모들이 몹시 꺼리는 풍습이 전해졌으니 6국(六國) 시의 귀공자로 알려진 맹상군(孟嘗君)의 생일이 단오일이라 부모가 내다 버린 이야기며 진나라의 명장 왕맹(王猛)이 손자(孫子)에게 진악(鎭惡)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든지 송의 유명한 임군(임금) 호광(胡廣)도 5월 5일생이기 때문에 부모가 내다 버렸던 것이라 한다.

이 유풍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와서 『삼국사기』 궁예조를 보면 그는 신라 47대 헌안왕(憲安王)의 서자로 태어났으나(단기 3190, 서기 857년) 그 생일이 5월 5일인지라, 나라에 유해할 줄 알고 왕이 중사(中使)를 시키어 죽이게 하였다 한다. 아기를 강보에 싸서 높은 데서 땅에 떨어 뜨리어 죽이었던바 이를 미리 안 유비(乳婢)가 아기를 받아 가지고 숨어서 길렀는데 그때 잘 못 받아서 눈 한쪽이 병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궁예가 후에 신라왕조에 한을 품고 모반하여 태봉국(泰封國)을 철원에다 세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이 또한 전해져서 5월 5일생은 꺼리게 되는 관념이 길러진 것이다.

또 『삼국지(三國志)』에도 단오일이 액일처럼 전해지니 동한(東漢) 말에 조간(曹肝)이란 현악가(絃樂家)가 단오일에 수신제(水神祭)를 지내다가 빠져 죽자 그의 딸 조아(曹娥)가 14일간을 통곡하다가 아버지를 따라 죽었다 하고, 질투심이 많기로 이름난 한무제가 궁녀 천 명의 수절 여부를 판단기 위해서 매년 도마뱀 액으로 주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도마뱀을 잡기도 5월 5일이요 그 액을 뺏 날도 다음 해 5월 5일, 즉 단오였던 것이다.

지금은 단오가 연중 4대 명절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모든 사회가 액일을 만들어서 가지가지의 제액법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㉔. 단오 민속

애호

단오일에는 나라에서 애호(艾虎)라는 썩으로 만든 호랑이를 중신(重臣)에게 내렸으니 이는 중국에서 전해온 풍속이다. 그래서 궁중에서도 여인들의 머리에 애호를 달았는데 콩만큼 썩한 적은 것도 있었다 하여 민간에게는 그날 조기(早期)에 썩을 베어다가 문에 달았으니 이 유풍은 지금도 우리 농촌에서 성행되고 있다. 이것은 단오일인 5월 5일을 옛날부터 9월 9

일과 같은 액일로 안 데서 그 액의 예방책으로 행해진 것이다.

창포주菖蒲酒¹⁴⁴와 창포잠菖蒲簪

이날은 여자들이 홍록紅綠의 새 옷을 펼쳐 입었고 창포물에 목욕을 했으며 머리에는 창포뿌리를 깎아서 끝에다 주사朱砂질을 해서는 이것으로 비녀를 만들어 꽂으니 이것이 소위 ‘단오장端午粧’이라는 것이다. 이 풍속도 단오날의 액을 없앤다는 중국 풍속에서 전해온 것인데 이 유풍은 아직도 우리 군내에 남아 있다. 이날이면 여자들이 앞을 다투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비녀를 만들어 꽂기도 한다.

단오선

단오에는 단오선端午扇을 만들어 나라에 진상하는 풍습이 있고 나라에서는 또 이들 시종侍從에 반사頒賜¹⁴⁵하는 법이었다. 종류로도 10여餘를 산算하니 승두선僧頭扇·사두선蛇頭扇·유환선有環扇·무환선無環扇·외각선外角扇·육각선六角扇·활연선闊沿扇·합죽선合竹扇·이대선二臺扇·삼대선三臺扇·채각선彩角扇·소각선素角扇·광변선廣邊扇·협변선狹邊扇 등이 있었고, 그 형태가 다르고 색채도 5색은 물론 자紫·녹綠·청靑·운암雲暗 등의 각 색이 있어 큰 부채는 살이 50이나 되어 백첩白貼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전해진 것은 합죽선과 태극선·살부채뿐이다. 태극선은 적치간에 제조가 금지되어 일시 중단되었으나 해방 후 다시 유행되었고 살부채가 일반 농가용이요 합죽선은 외출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고려사』에 보면 8대 현종, 18대 의종의 2대에 큰 가뭄이 있어 부채 사용을 나라에서 금한 기록이 있으니 지금 한발에 삿갓 쓰는 것을 시비함과 같다.

그네

5월이라면 단오를 연상하고 단오라면 그네를 연상할 만큼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기의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시초에는 한식일에 그네를 뛰는 풍속이 있었던 모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단오에 뛰었다.

이 그네 풍속은 중국 북방의 오랑캐족에서 중국에 전해졌다 하거니와 당나라 현종은 매년 궁녀를 모아 놓고 그네경기를 시키고 이를 반선희半仙戲라 불렀다.

144 원문에 창포주菖蒲酒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데, 창포주란 빚고자 하는 술의 고두밥·누룩에 창포뿌리를 짓찧어 만든 즙을 넣어 발효시키거나, 가늘게 썬 창포잎을 술통이나 잔에 띄운 술을 말한다.

145 반사: 임금이 녹봉이나 물건을 내려 나누어 주던 일.

이 그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삼국시대로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의하면 고구려시대에 그녀 퓌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에 와서 매우 성행하게 되어 고려 23대 고종의 권신 최우崔瑀가 재상을 모아 놓고 그녀놀이를 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新嫁娘言舊家娘 皇姑皇舅福應長
爲吾好送今端午 百尺青絲繫綠楊¹⁴⁶

이 시로 보아 새댁들이 얼마나 그녀를 타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지금도 단오절이면 그녀를 어디다 매는지가 젊은 부녀자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있거니와 속俗에는 양귀비가 애인 안녹산安祿山을 보기 위하여 그녀를 자주 뛰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바. 6월

ㄱ. 유두절

6월 15일 유두절流頭節이라 하니 이날에는 동으로 흐르는 물가에 가서 부녀자들이 머리를 감으면 그해 제액除厄이 된다고 한다. 옛날에는 수단水團이란 떡을 만들어 먹었다 하나 지금은 참외와 수박에 밀적(밀전병)을 부치어 조상께 유두 차례를 지내니 절과節果를 갖추고 햇밀가루를 자손이 먼저 먹기 한恨이 되어 제사 지내는 것이다.

이 풍속은 신라 때부터 시작이 되어 고려·조선을 지나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니 지금은 머리만 씻는 것이 아니라 ‘유뒸날 물맛이라 하여 약수를 찾아 목욕을 하고 미역으로 국을 끓여 밥도 짓고 해서 하루를 청유淸遊한다. 이날은 특히 부정不淨 탄다 하여 3일 또는 7일·10일 이렇게 조섭을 하고야 가는 법이다.

ㄴ. 삼복

6월에는 대개 삼복三伏이 든다. 초복일初伏日부터 10일 후가 중복중伏, 또 10일 후가 말복末伏이니 만일 월복越伏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복부터 20일째 날이 말복이 된다.

146 원문에는 이 시의 4구에서 계擘이 격擘으로, 녹絲이 녹絲으로 되어 있으나 그녀가 푸른 버드나무에 매어 있다는 뜻이므로 고감하였다. 이 시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한국고전번역원, 김민선 번역, 김중태 감수)

“새댁이 친정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네.
우리 시부모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를 이번 단오에 선뜻 친정에 보냈는데
백 척의 푸른 그냘줄 녹양에 매었어요.”

복(伏)에는 예로부터 개장을 먹는 습관이 있으니(『동국세시기』) 개는 보양제라는 말도 있고 서병(暑病)을 없앤다는 설도 있다. 세간에는 ‘복날 개 패듯 한다.’는 말이 있거니와 이 짓도 복에는 개를 먹게 마련이 된 데서 나온 말이다.

삼복이 다 더위의 한 고비인 때라 심한 노동과 더위로 해서 허약해진 농민들은 다른 명절보다도 더 즐긴다. 혹은 산에 혹은 내에 자리를 잡아 개장을 안치고는 술을 마시며 즐기는 것인데 ‘개’란 어음(語音)이 듣기 싫어선지 최근에는 ‘개장’이라 하지 않고 ‘용탕’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니 이는 말소리(어음)의 미화이기도 하나 인삼·녹용보다도 더 보하는 보약이란 뜻이다. 개장을 먹고는 냉수(冷水)를 안 먹는 법이 사(瀉, 설사)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사. 7월

ㄱ. 칠석

7월 7일 밤을 칠석(七夕)이라고 하니 이날은 천상의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오작교(烏鵲橋)를 건너서 1년에 한 번 기다렸던 정회(情懷)를 풀다는 날이다.

이 전설은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옛날도 옛날 저 태고시대에 천상에 계신 상제(上帝)님의 손녀로 베를 잘 짜는 직녀가 있었고 또 부지런하고 마음 착한 하교(河鼓)라는 목동 총각이 있어 상제가 몹시 사랑했다 한다. 그러나 웬일인지 둘이 다 선량하고 부지런하나 혼처가 나서지 않아서 불쌍히 생각하여 둘을 혼인시켰더니 노총각과 노처녀는 초정(初情)에 빠져 일은 커녕 매일 맞붙어 있기만 하는지라 상제가 노하여 신부 직녀는 은하수(銀河) 등에 보내고 신랑 하교, 즉 견우는 은하수 서에 가서 살게 하고는 1년에 꼭 한 번 7월 7일 밤에만 만나도록 엄명을 내리었다. 그리고 이 칠석날 밤에 그들이 건너다닐 다리를 까마귀와 까치를 시켜 놓게 했다 해서 이름이 오작교요, 그날은 지상의 까마귀·까치가 한 마리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농촌에 가면 칠석날에는 반드시 비가 오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저녁 비는 견우와 직녀가 타고 갈 수레를 닦는 물이 지상에 떨어지는 것이라 해서 세겨우(洗車雨)라 하고 밤비는 1년 동안 그리던 기쁨의 비요 이튿날 새벽 비는 이별을 아끼는 슬픈 비라고 한다.

이날 농촌에서는 밀적을 붙이고 제사하는 풍습도 있고 칠석놀이(칠석놀이)라 하여 주효(酒肴)를 갖추어 가무로 밤을 밝히는 일도 있다.

나. 백중

7월 15일을 백중(百種, 백중)이라 하여 농촌에서는 설 명절보다도 더 치는 날이다. 백중은 원래 불교에서 온 풍속으로 이날 불교에서 우란분(盂蘭盆)이라 하여 조상의 영(靈)에 위로하는 불공을 드리는 날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순전히 농민들의 명절이 되어 버린 감이 있다.

즉 7월 15일경은 농민들이 봄부터 손·발에 묻은 흙을 털어도 좋을 시기인지라 발뒤꿈치의 흙을 씻는다 해서 백중(百踵)이라고도 쓴다.

이날 농민 더욱이 남의 집 머슴을 사는 사람들은 주인한테서 고의적삼을 얻어 입는 날이요, 백중 씨름이 벌어지고 혹은 '별시(別市)', '변신'이라고 해서 그날만은 조선 고래의 곡예사인 광대 줄타기와 가면극인 박첨지(朴僉知)놀이 등이 벌어지고 특히 도박도 공개해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즐거이 놀 수 있게 한다.

대개 장날을 이용해서 놀이가 거행되므로 농민에게 있어서는 '백중장이 백중(百種)이란 관념이 생겼으며 이날은 장도 크거니와 각 동의 농악대가 패팔에, 피리에, 무동을 세워 주악을 하면서 운집한다.

옛날에는 국기(國技)처럼 되어 있던 씨름을 세우는 것도 이날이니 일본의 '스모'가 황소가 뜰배질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있어서도 배지기·꼭두잡이·안아찍기·복상거리·무릎찍기·등지기·들구나기 등의 묘기가 있어 실로 흥미진진한 바 있다. 중국에 '고려기(高麗技)', '요교(撓跤)' 등으로 전해지니 요교는 정강이를 놀린다는 뜻으로 무릎찍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래 이 씨름 경기는 5월 단오에 하는 풍속이었으나 단오보다는 백중이 농한기라 자연 7월로 옮겨진 것 같다.

어쨌든 이날은 농민의 설이다. 씨름판에는 햇불을 높이 달고 밤을 새워 씨름이 벌어진다. 대개 3일간 주야 속행으로 초일이 애기씨름, 2일이 중씨름, 3일이 상씨름으로 되어 최후 결승은 마지막 날에 하고 1, 2, 3등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아. 8월

ㄱ. 추석

8월 15일을 추석명절이라 하여 4대명절로 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 명절이란 대개가 중국에서 전해 온 것이 많지만 이 추석명절만은 우리 민족이 창안해 낸 독특한 명절이다. 즉 중국에도 8월 15일을 명절로 치기는 하나 추석이라 하여 달구경을 하는 날로만 지켜 오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우리 신라 초창기부터 월석을 예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와

경제와 관련시키어 국정명절^{國定名節}로 정했고 그 행사도 가지가지 재미있게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신라 유리왕은 3대 왕이니 추석절이 시작된 것은 동왕 9년 임진(단기 2365, 서기 32년)이다. 신라의 건국이 단기 2277년이고 보니 건국한 지 불과 80년이건만 신라의 국토 경주는 호수 17만 8936호에 인구가 100만을 셈했던 것으로 보아도 우리 조상들의 위업에 감탄을 금할 수 없거니와 이 유리왕은 남자에게는 경작을 장려하고 여자에게는 베짜기를 권하였다.

이 추석명절의 기원은 이 여자들의 베짜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즉 왕은 서울 안의 각 부락 여자들을 모아서 베짜기 경기를 시키었다. 이 경기는 왕후·공주·귀비·기타 왕족인 여자들이 각각 책임자가 되어 총지휘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니 왕후와 공주가 시민 여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베짜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도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평민적이며 민주적이다.

방법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만 한 달 동안 두 패로 나누어 왕후·공주들이 각 대의 대장이 되어 총지휘를 해서 8월 15일에 그 승부를 결정한다. 진 편은 이긴 편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법으로 되어 있고 같은 편 중에서도 가장 성적이 불량한 여자가 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다행히 부잣집 여자면 찬으로 때우지만 가난한 여자인 경우에는 실로 사정이 딱했던 모양으로 신라 가곡으로 전해오는 저 유명한 ‘회소곡^{會蘇曲}’ 이야말로 가장 성적이 불량한 여자가 가난하여 찬벌^{餐罰}도 못다 하고 한탄한 노래를 적은 것이다.

진 것도 분하고 창피한데 진 편이 예^禮도 못 하는 가난한 그 여인의 슬픈 심회가 이 노래에 서려 있다.

會蘇曲會蘇曲 西風吹廣庭 明月滿重屋 王姬壓坐理纜車 六部女兒多加簇 爾筐訖盈我筐空 釃酒擲揄笑相謔 一婦歎千室勸 坐令四方勤杼軸 嘉俳縱失閨中儀 猶勝跋河爭嗚嗚¹⁴⁷

이의 대의를 추린다면 “회소회소 슬픈 회소 가을바람은 넓은 들에 불어오고 맑은 달밤 큰집에 비치는데 왕희^{王姬} 높이 앉아 실 감개 트니 6부의 여인들이 눈에 발처럼 모여든다. 그대 광주리는 벌써 찾는데 내 광주리는 비었으니 술 빛으라 빈정대고 웃고 조롱하누나.

147 회소곡^{會蘇曲} 원문은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점필재집^{沾畢齋集}』 중 동도악부^{東都樂府}에 실려 전해 내려온다. 원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 참고삼아 실는다.

“會蘇曲會蘇曲 西風吹廣庭 明月滿華屋 王姬壓坐理纜車 六部兒女多加簇 爾筐既盈我筐空 澆酒擲揄笑相謔 一婦歎千婦 勸坐令四海勤杼軸 嘉俳縱失閨中儀 猶勝跋河爭嗚嗚。”

한 여인 탄식하나 천 집에 권장되어 앉아 사방에 길쌈을 잘 시킨다. 가위 명절에 뛰노는 것
여자의 예 아니나 물 건너기 경쟁하며 떠들어 대느니보다야 안 나으랴.”

신라에서 8월 15일을 명일로 정한 데는 또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동기가 있었으니 그것
은 일찍이 신라가 발해국과 싸워서 대승한 날이 바로 이 8월 15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추석명절은 그대로 새 옷 입고 송편을 만들어 먹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선조들의 지향한 바 큰 뜻을 잘 마음에 아로새겨 정말 우리나라의 뜻깊은 명절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추석절에는 증병蒸餠을 만드는 지방도 있으나 우리 고을에
서는 역시 송편松片이다.

추석 행사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제물을 차리어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또 성묘省
墓를 나갔다. 이 묘제는 5대조 이내의 산소에만 지내는 법으로 되어 있다.

자. 9월

ㄱ. 9월 9일

9월 9일은 중양절重陽節이라 하여 3월 3일과 함께 명일로 일컬어 왔다. 이 명절은 멀리
신라 때부터 1년에 맨 마지막 되는 국화를 바라보며 나라에서는 군신이 자리를 같이하여
국화주를 마시었고 조선에서는 3월 3일과 이날 두 차례로 나누어 노인宴老人宴을 베풀었
다. 민간에서는 국화전을 부치고 술에 국화잎을 띄워 마신다.

지금도 이 유풀은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또 이날은 고래로 명산에 올라서 단풍 구경을
해 왔으니 지금 말하는 ‘하이킹’이 그것이다. 더욱이 본군에는 소금강의 칭이 있는 관악이
있어 단풍 시절이면 하이킹 애호가들의 발이 그칠 사이가 없다. 또 관악산 중에는 10여 사찰
이 있어 고고학적으로도 연음이 많아 도립공원 계획이 추진에 있는 것이다.

차. 10월

ㄱ. 개천절

오늘로 기산起算해서 4282년 전 천신께서 1부 3인一符三印을 가지시고 풍백風伯·우사雨師·
운사雲師·뇌공雷公과 함께 사람으로 화신化身하여 태백산 단목檀木 아래 내리시었고 신神의
도道로서 인물을 화육化育하시고 곡穀·명命·병病·선·악으로 인간人間 366사事를 다스리게 되
시었다.

이 신인이 곧 단군檀君이시니 인민이 단군을 추대하여 대군주로 모신 날이 바로 4282년 전 무진 10월 3일이었다. 이날이 곧 개천절開天節이다.

개천절에는 제천대회를 열어 군·신·민이 함께 국조께 절을 하고 신곡新穀으로써 떡을 만들어 경축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소위 고사를 지내는데 우매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지 마는 이 고사의 내력이 바로 개천절인 것이다. 이토록이나 잘살 수 있는 고마움을 1년 내 애써 지은 신곡으로 술을 빚고 떡을 치고 밥을 지어 새 과실을 받들어 천지신명께 치성을 드리는 것이니 이 천지신명이 바로 단군이신 것이다.

10월 상달의 고사와 치성이 단군께 드리는 것을 일반 민간이 알게 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그전에는 아는 사람만 알았지 일인이 무서워서 개구開口도 못했던 것인데 단군의 교화가 새로워짐에 따라 고사·치성의 참뜻도 일반에게 알려졌고 개천절의 기원도 보급되었다.

10월 3일은 또 신라가 건국한 날이기도 하니 우리 민족에게 더욱 뜻이 깊다.

카. 11월

ㄱ. 동지冬至

11월은 동짓달이라 해서 더 실감이 날 정도로 보편화했다. 가을부터 차츰차츰 짧아져 내려온 해가 마지막으로 짧아지고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동짓날이니라 이날은 일양一陽이 내복來復하는 날로 경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날은 팔죽을 쑤어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농촌에서는 팔죽을 장독대에 떠다 놓고 동지할머니를 봉양한다. 이 죽이 아침에도 얼지 않아야 다음 해 연사年事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 시험하는 풍속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도 같다.

동짓날을 새해의 기점으로 치는 관념이 있으니 동지팔죽을 먹고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농가에서는 동짓날 쑤 팔죽을 벽에나 문에다 뿌리는 풍속이 있는데 그래야만 제액이 된다고 믿는 때문이다. 이 유래는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있는 공공씨共工氏의 불효자가 죽은 날이 동지라서 그날 원귀가 되어 집안에 들까 걱정이 되어 평시에 팔죽을 싫어하고 팔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팔죽을 쑤는 기록이 전해진 것도 같다. 이 풍속은 아직도 많이 유행되고 있다.

03. 예식민속

예식禮式에 관한 민속만을 따로 추리어 보면 인생이 처음 이 세상에 나온 때부터 죽을 때까지에도 정례定例로 행하는 잔치가 허다하니 이를 연순年順으로 적어보려 한다.

가. 득남례

우리나라에는 오랜 옛날부터 남존여비의 낡은 사상이 전래되어 같은 아기를 낳아도 남아는 특히 우대를 한다. 그래서 여아를 낳았어도 남산男産을 한 것처럼 문간에다가 고추를 다는 등 여아 멸시의 풍속이 고식姑息치 않는다. 득남례得男禮란 남아를 낳으면 그 톡으로 친구들이 뺏어 먹고 또 널 줄 아는 예식이다. 득남례를 해야만 다음에도 남동생을 본다는 풍속이 있어 친구가 그런 말을 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나. 백일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 떨어지자 부모는 벌써부터 혹이나 어떨까 걱정을 한다. 이것이 사람의 정이요 또 부모의 천륜일 것이다. 그래서 어린 아기가 제대로 뛰어다닐 때까지 마음을 못 놓고 7일·삼칠일·백일百日·돌, 이렇게 한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동안의 무고했음과 앞날에도 무병장수할 것을 바라고 비는 마음에서 돌차리(돌잔치)를 한다.

7일은 부정 탄다 하여 일체 막아온 외인 중 근친자만을 집안에 들이는 날이요, 삼칠일이 지나면 아무나 드나들 수 있다. 백일에는 흰무리(백설기)를 해서 돌리는데 이 흰무리는 백수白首 장수하라는 뜻이다.

다. 돌

돌차리(돌잔치)는 일생에 처음 맞는 생일이라 하여 격별格別히 성대하게 차리어 집집마다 돌린다. 이 돌떡은 그대로 받는 법이 아니라서 돈이고 곡식이고를 가져온 그릇에 담아 보낸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첫아이 때에 돌을 차려주지 않았으면 뒤에 낳는 아이들 때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경우도 차리지 않는 법이니 이는 아마 첫아이가 알면 섭섭해 할까 하는 데서 온 풍속인가 한다.

이제 돌상 차리는 절차와 내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국수: 국수란 긴 것이라 장수를 축원하는 뜻이니 모든 생일날 잔치에는 반드시 국수를 씬도 이 때문이다.
- ② 청홍명주실 한 타래, 흰 무명실 한 타래: 이도 역시 장수 축원의 뜻이다.
- ③ 글씨[書]: 가훈 또는 조상의 문집을 잘 지키며 학문을 닦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 ④ 책: 권학^{勸學}
- ⑤ 필묵: 글씨 잘 쓰기를 축원함.
- ⑥ 활과 화살: 무용^{武勇} 축원
- ⑦ 대추 한 그릇: 대추는 미리 늙기 때문에 대추를 먹으면 안 늙는다는 뜻과 자손 번창을 축원함.
- ⑧ 백미 1기(一器, 한 그릇): 양도^{糧道}에 주리지 말고 부유하라는 뜻
- ⑨ 돈: 재복의 축원

‘돌잡히다’ 하는 것은 이런 상^床을 차려주는 뜻이기도 하지만 지필묵^{紙筆墨}과 낫·호미 같은 것을 아기 앞에 벌려놓아 아기가 무엇을 먼저 집나 하는 것으로 그의 소원과 장래를 점치는 습관이 있는 데서이다. 중국에서는 이 돌차리(돌잡이)를 ‘시아^{試兒}’, ‘시주^{試周}’라 하여 육조시대부터 시행해 왔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라 한다.

라. 환갑연

지금은 60이라면 장년 같은 인상을 주지만 옛날에는 60수^壽도 상당히 드물었던 모양으로 인생칠십^{人生七十}은 고래희^{古來稀}라고 하여 육십 장수는 육순, 61은 환갑, 70은 칠순이라 하여 자손 된 자는 부친의 친지와 동민을 불러 대축연을 베푸는 법이다.

이 환갑연^{還甲宴}에 대한 자손의 관심은 실로 크니 도적을 잡아보니 아는 사람인지라 꾸짖어 가르치니, 부친의 환갑은 수일^{數日}밖에 없고(몇 일 안 남았고) 조반석죽^{朝飯夕粥}도 어려운 형편이니 죄를 지었다고 통곡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비밀비재다.(상^床의 음식 절차는 제6편 제2절 식생활 ‘큰상편’을 참조)

마. 삼년상

양친께서 백약에도 효^效를 못 보시고 돌아가시면 3년상^{三年喪}을 입는 법이니 부친이 생존하시고 모친이 돌아가신 때는 1년상이다. 이 풍속은 유교에서 나온 것으로 자식들이 부모의 품속에 있는 동안이 3년이니 적어도 삼년복^{三年服}은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때부터 준수되어 왔으나 고려시대에 와서도 불교의 영향으로 백일성복^{百日成服}이 유행되었다. 그것을 여말의 대학자요 정치가인 이색^{李穡}이 30대 공민왕에게 간하여 삼년상으로 고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 들어오도록 민간에서는 여전히 백일상^{百日喪}을 지키므로 11대 중종^(단기 3839, 서기 1506년)에 이르러 조광조^{趙光祖}의 유교적 대개혁으로 국민 전체가 삼년상을 입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삼년상은 기간도 길뿐더러 현대 생활관념으로 보아서도 맞지 않으므로 우리 민국정부에서도 일년상제^{一年喪制}를 입안 추진 중에 있다.

04. 농민 풍속

위에서 월별로 행해지는 명절놀이와 민속·오락의 대부분을 소개하였다고 믿는 바이나 따로 계절을 가리지 않는 민속과 오락 중에서 그 중요한 것을 따로 추려보기로 한다.

물론 이 중에는 현재 성행되는 것도 있고 점차 쇠퇴되는 도정에 있는 것도 있으며 혹은 아주 소멸된 것도 있으나 아주 없어졌다 해도 원래 수천 년간 내려온 풍속이요 오락인 만큼 역시 일부에서는 전해지고 기억되어 있고 하기에 되도록은 여기에 열거하기로 하는 것이다.

가. 두레

우리 농촌에는 어디를 가나 동 단위로 두레와 농약이 있다. 먼저 이 ‘두레’의 유래를 알아보기로 한다. 두레란 말은 ‘돌아가며 한다’는 뜻이니 곧 윤번^{輪番}이란 의미다. 어떤 동리에 몇몇 동지들이 모여서 싸우를 짠다. 그래서 순번으로 모내기로부터 제초·추수·타곡^{打穀}까지의 일체를 번갈아 가며 공동작업을 하는 아름다운 풍속이다.

이 두레는 농사農社라는 조직 밑에 예속되는 것이 보통인데 농사를 따로 갖지 않고 두레만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을 혹은 ‘농청農廳’·‘농기農旗’·‘농계農契’ 등 여러 이름을 가졌으나 그 조직과 운영 방법은 대개 일치한다.

한 동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 두레에 든다. 그렇지 않으면 품앗이를 할 수 있고 또 두레에 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ㄱ. 농계의 유래

이 농계는 처음에는 또 둘이서 ‘품앗이’를 시작한 것이 발전해서 열 사람이 되고 열 사람이 다시 스물이 되어 전동全洞 농민이 가담케 된 것으로 멀리 신라시대부터 전래한 것이다. 이 농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원조한 이는 고려 현종이니 이는 일반 문무가인文武家人으로도 ‘계契’를 조직시키어 상호부조의 정신을 길렀고 이를 본받아서 농계가 조직적으로 발전이 되었다.

ㄴ. 조직

이제 그 조직체를 보면 지금은 고문이니 계장이니 하는 문구가 생겼지만 원래는 최고지도자가 ‘행수行首’, 그다음에 ‘도감都監’이 있어 보좌하니 바로 부행수 격이다. 이제 이를 약도로 표시하면 이러하다.

영좌領座: 일명 두레목아비, 자작농

수총각(首總角, 1인): 총감독 격, 소작인, 머슴 중에서 선발함.

도감(都監, 1인): 부행수 격, 자작농 중에서 선발함.

조사총각(調査總角, 1인): 계규契規 감독, 소작인 장정

서사(書士, 1인): 서기·회계

방수감(放收監, 1인): 우마의 방수 감시원, 노인·소년

ㄷ. 행사

두레는 공동작업·공동식사제로 되어 있고 모내기·물대기·제초·수확 등 많은 인원을 요구하는 작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농악이 따른다. 악기로서는 징·북·소고·팽과리·재란·장구·호적(胡笛, 태평소) 등이 사용되고, 반드시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고 쓴 농기를

앞세우고 작업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공동작업은 염천하(炎天下)의 중노동도 즐거운 행악으로 만들어 마치 줄다리기가나 씨름터에 나가는 것처럼 환희에 넘치게 한다. 흑은 뛰고 흑은 춤을 추며 노래도 부른다. 백도가 넘나드는 고열 아래로 고역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한 행복을 맞으러 가는 것처럼 그들은 즐거워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호미시세(호미씻이, 洗鋤宴)’를 할 때는 적장의 목이나 따 가지고 온 때처럼 몸부림치듯 기뻐 날뛰는 것이다.

이 호미시세란 말뜻대로 ‘호미를 씻어 두는 식’이니 7월 중순에 어느 날 하루를 택해서 두레 단원 전부가 주효(酒肴)를 만들고 동리를 일순(一巡)하면서 농악과 가무로 하루를 즐기는 것이니 금년 농사는 이로써 일단락을 지었다는 종업(終業) 연회인 것이다.

ㄷ. 농기

두레에는 반드시 농악이 있고 농악대에는 농기(農旗)가 있는 법이니 농악과 두레는 다른 것이다. 흔히들 두레가 농악의 대명사로 아는 사람이 있으나 농악이 없는 두레 조직도 있고 두레 조직이 없이 그대로 대동(大同) 농악만 있어 농악이 두레적 역할을 하는 수도 있다.

농악에는 상수(上首, 상쇠)라 하는 총지휘관이 있어서 일종의 컨덕터(지휘자)적 임무를 받고 그 밑에 부상쇠가 있어 보좌한다. 상쇠의 꿩과리채는 끈도 길고 머리에 쓴 패랭이 모자 끝에 달린 상모도 제일 길다. 상쇠의 일거일동이 그대로 대원에게는 지상명령이다. 주악의 명령·정지·행동 일체를 상쇠가 꿩과리와 동작으로 좌우하는데 그 규율 정연한 행동은 실로 현대적 군사훈련을 받으니만 못지않다.

농기는 그 두레의 상징으로 동의 명예를 대표한다. 농기의 권위는 절대 불가침이어서 여하한 사람이라도 농기를 모욕하면 큰 벌을 받는다. 고관도 농기 앞에서는 경의를 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농기에도 등급이 있으니 아무리 대동(大洞)이라도 소동(小洞)에 양반이 살면 대동 농기는 언제 어디서 양반 동리의 농기를 만나든지 먼저 기선을 기울여 절을 하기 마련이다. 절을 받은 농기는 반례(返禮)를 하는 법이니 만일 2급 농기가 1급 농기를 보고도 먼저 절을 않거나 받은 절에 반례를 하지 않으면 일대 충돌이 생기어 사생을 무릅쓰고 싸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1등급의 결정은 양반의 고하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무리 양반 동리의 농기라도 연중행사인 이 줄다리기에 진다든가 장치기에 지면 진 동리 농기가 1년간을 승자한테 먼저 절을 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절대 불가침이어서 만일 위반하면 연

합농악대가 제재를 주기 마련인 것이다.

이 ‘두레와 농악의 정신은 실로 찬양할 만한 것으로 대외적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도의에 벗어진 행동자에게는 실로 준엄한 바 있어 상호부조·단결심의 함양 등 오늘날 현실에도 통절한 것이다.

과거 일제 치하에서는 이러한 조직제도 색안경을 쓰고 보았고 악기도 공출이란 형식으로 압수했으나 해방 후 새로이 재조직되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나. 천렵

농민에게 있어서 천렵(川獵)은 없지 못할 유흥이니 눈에 물도 들고 큰물이 가면 탁주나 소주에 초고추장만 가지고 회도 먹고 생선죽을 끓이어서 천변에서 하루를 청유(淸遊)한다.

천렵은 고구려시대에 왕성하던 산렵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산렵대회는 국가에서 춘추 2회에 나누어 엽물(獵物)로 천지신명과 산신께 제를 지내고 상도 주고 했었으나 이에 참가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남도 산렵(山獵) 가니 우리는 천렵이나 하리라고 시작된 것이라 한다.

다. 고누

농민들은 언제나 바쁘고 또 오락을 즐길 만한 장소가 없으므로 아무 데서 그리고 언제나 단둘만 만나도 놀 수 있는 오락을 강구케 되었으니 ‘고누’가 바로 그것이다. 고누는 땅에다 꼬챙이로 발을 그리고 돌이나 나뭇가지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농민들에게는 실로 이상적인 놀이이다.

이제 그 종류를 들어보면 ‘곤지고누’, ‘사마(四馬)고누’, ‘팔팔(八八)고누’, ‘패랭이고누’, ‘자동(自動)고누’, ‘호박고누’, ‘강(江)고누’ 등이 있는데 농촌에 가면 사랑방 나무 재떨이 뒤에 이 말판이 그려져 있다.

이제 그 대표적인 팔팔고누 두는 법을 보면 종횡으로 각 10선씩 바둑판처럼 그리고 양편 끝에 각각 말을 놓고서 한 발씩 전진한다. 그래서 내 말 사이에다 적 말을 협격(挾擊)하면 적 말을 한 마리씩 잡아 죽이고 죽인 칸에는 ×표를 질러서 다시 하지 못하게 한다.

그중 가장 쉽고 아이들도 잘 노는 것이 강고누인데 이것은 원을 치고서 +자를 써서 4변 중 1변을 떼어 버려서 강을 만들고 양쪽에 말 둘씩을 놓고서 적의 진로를 막으면 이기는 것이다. 이 고누는 고려시대부터 전래하여 조선에 와서 발달된 것이라 한다.

05. 아동 민속

가. 글자 맞추기

이것은 주로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의 놀이로 쪽 둘러앉아서 군명_{郡名} 찾기를 한다. 예를 들면 하나가 '영동군_{永同郡}' 하고 선창하면 다음이 '영천군_{永川郡}', 다음이 '영흥군_{永興郡}' 하고 잇대어 부른다. 부르지 못하고 막히는 아이가 코 쥐고 자지 쥐고 절을 한다.

또 성_姓 부르기도 하니 '박서방' 하면 다음이 '백서방', '방서방' 하고 연달아 부르고 지면 역시 진 값을 한다.

나. 풀쌈

주로 여아들의 장난으로 풀잎을 따서 맞걸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풀포기를 훑어서 끝에 맺히는 풀물 방울을 맞대면 작은 방울이 큰 방울에 흡수된다. 흡수당한 편이 지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풀 장난으로 풀맺음이 있으니 이것은 노변의 풀 끝을 맞동여매어서 뒤에 오는 동무가 모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 어른들도 곧잘 그런 장난을 한다.

다. 진_陣뺏기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유희로 다분히 군사적이다. 동서에 진을 각각 펴고 동·서 2대로 나누어 서로 적진을 점령하는 것이니 적의 손에 맞으면 포로가 되어 적진에 세워 놓는다. 만일 자기편이 적에게 맞지 않고 포로와 손을 잡으면 포로도 생환하여 다시 출전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라. 연액막이

아이들은 겨울이 되면 즐기어 연을 띄운다. 연은 저 멀리 고려 유산으로 조선에까지 전해 온 것이다. 아이들은 연쌈을 시키는데 실에다 사기 깨진 것으로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풀이나 밥풀에 개여서 실에다 먹이어 공중전을 시키는 것이다. 이 아이들 연쌈은 배후에 어른이 끼어서 실로 대규모의 연쌈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연은 겨울 동안 띄우다가 정월 대보름에

자기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써서 액막이를 시키니 연을 두어 발쫓 남기고 거기에 노끈을 달고 노끈에 불을 붙이어 높이 띄우는 동안에 노끈 불이 실에 옮겨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액막이라 하니, 즉 액을 막는다는 뜻이다. 이 액막이의 유래는 고려 말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고려를 쓰러뜨리려고 군대를 왕실로 돌릴 때 감연히 왕실을 지키다가 드디어 패한 후 이성계가 세운 창왕의 손에 목이 잘린 고려 충신 최영崔瑩 장군의 넋을 위로하는 데서부터 시작 되었다고도 하고 최 장군이 제주도 토벌 때 연을 타고 진격해서라고도 전한다.

조조잡기

조조잡기란 중국에서 전래된 유희로 중국의 명신·명장의 이름을 조조曹操니, 공명公明·장비張飛·마초馬超·운장(雲長, 관우) 등을 써서 1장씩 나누어 갖는다. 물론 서로 비밀로 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공명을 뽑은 사람이 “장비야 조조를 잡아들여라” 하고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장비는 시치미 떼고 있지만 조조는(태연을 가장하지만) 불안해서 눈치를 채이어 잡히는 것이다.

마. 비석치기

비석치기는 약 14, 15척 거리에 비석처럼 돌을 세워 놓고 일정한 지점에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차기도 해서 비석을 쓰러뜨리는 경기이니, 예를 들면 첫 번, 선 자리에서 단번에 묵지(墨子)를 던져서 쓰러뜨리고, 둘째, 돌을 네 번까지 차서 비석을 쓰러뜨리고, 셋째, 발등에다 돌을 올려놓고서 다섯 걸음에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리고, 넷째, 두 무릎 새(사이)에다 끼고서 역시 다섯 걸음 뛰어서 비석을 쓰러뜨리고, 다섯째, 두 발등 새에다 돌을 끼고 다섯 걸음까지에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리고, 여섯째, 가슴에 돌을 놓고 뒤로 자빠져 가서 돌을 떨어뜨리어 비석을 쓰러뜨리고, 일곱째, 어깨 한쪽에 돌을 얹고 가서 돌을 떨어뜨리어 비석을 쓰러뜨리고, 여덟째, 머리 위에 돌을 얹고 가서 비석을 쓰러뜨리고, 아홉째, 달에다 돌을 놓고 가서 비석을 쓰러뜨린다.

바. 사방치기

연속된 구획을 그려놓고 발로 돌을 차서 선에 닿지 않게 일주를 한다. 한 동, 두 동, 석 동, 이렇게 열 동을 한다.

사. 자치기

자는 척^尺이니 자를 만들고 땅에 구멍을 파서 이를 떠넘기어 원근으로 승부를 낸다.

이 밖에도 실뜨기, 낫치기, 갈퀴치기, 팽이놀리기, 돈치기, 공기 등이 있다. 공기는 주로 여아들의 유희요, 낫치기·갈퀴치기는 초등^{樵童}들의 유희다. 술래잡기니 도적놈잡기, 닭잡기, 풍간뭉기, 거북놀이 등도 있다. 거북놀이는 아이들이 출출하면 짚으로 거북형을 만들어 쓰고 집집에 다니며 익살을 부린다. 그러면 주인이 “왜 그러느냐?” “우리 거북이가 배가 고파 그런답니다. 뭐 있거든 좀 주십시오.” 이렇게 떡이고 과실을 얻어다가 한자리에 모아 놓고 먹고 논다. 귀여운 장난이라 하겠다.

06. 가요

가. 일반 민요

1. 일년가^{一年歌}

정월^{正月}이라 보름날에
망월^{望月}하는 소년들아
망월도 하려니와
부모봉양^{父母奉養} 늦어가네
아미산^{峨眉山} 돋은 달은
반공산^{半空山}에 높이 올라
벽공^{碧空}에 진^陳을 치고
대장도^{大將道}로 별렸으니
동남^{東南}은 생문^{生門}이오
서북^{西北}은 사문^{死門}이라
무저울은 축^軸이 되고
시비성은 옹위^{擁圍}로다

그믐을 다 보내고
2월이라 한식寒食날에
지절志節 높은 개자추介子推는
한식寒食날에 돌아와도
보고 싶은 올 아부진
오실 줄을 모르난고

2월 그믐 다 보내고
3월 동풍東風 연燕제비는
옛 주인을 찾아와도
보고 싶은 올 아부진
찾아올 줄 모르난고

3월 그믐 다 보내고
4월이라 초파일에
조선팔도朝鮮八道 선배들은
관등觀燈 구경 강능 간데

4월 그믐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오端午일세
머리 좋고 고흔 처녀
동쪽으로 벌은 가지
휘휘청청 그네 매어
추천공부 힘쓸 적에

5월 그믐 다 보내고
6월 초승 다다르니
초야草野에 농부들은
농사를 힘을 쓰고

6월 그믐 다 보내고
7월 칠석^{七夕} 밝은 달에
조선팔도 사람들이
시초^{柴草}하러 다니난데
보고 싶은 올 아버지
오실 줄을 모르난고

그달 그믐 다 보내고
8월 추석^{秋夕} 다다르니
나단기던 선배들은
절사차^{節祀次} 다 오는데
슬프다 올 아버지
오실 줄을 모르난고

8월 그믐 다 보내고
9, 10월 밝은 달에
청천^{靑天}에 외기리기
벗을 잃고 높이 떠서
슬피 울고 날아가네

그달 그믐 다 보내고
11월을 다다르니
사당^{祠堂} 양단 모신 집에
동지^{冬至} 차례^{茶禮} 지내는데

그달 그믐 다 보내고
선달이나 그믐날에
놀이좋다 사랑방에
부모 연갑^{年甲} 친구들은
장기바둑 두시는데

슬프다 올 아버지
찾아올 줄 모르난고

ㄴ. 화전가^{花煎歌}

얼시구 절시구 졸졸시구
춘삼월^{春三月}이라 화전^{花煎}노리 간다
춘향^{春香}의 방문 앞의 이도령 걸음으로
아그작 아그작 거들거리고 나간다.
제모래 마당 앞에
금자래 걸음으로
아그작 아그작 거들거리고 나간다.

ㄷ. 관등가^{觀燈歌}

정월 상원일^{上元日}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踏橋}하고 노니는데
우리 님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난고

2월 청명일^{淸明日}에
나무마다 청기^{靑氣} 들고 잔디 잔디 속잎 나니
만물이 화락^{和樂}한데 우리 님은 어디 가고
춘기^{春氣} 들 줄 모르난고

3월 3일날에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現身}하고
소상강^{瀟湘江} 기러기만 가노라 하직한다
이화도화^{梨花桃花} 만발하고 행화방초^{杏花芳草} 훗날린다
우리 님은 어디 가고 화유^{花遊}할 줄 모르난고

4월이라 초팔일에 관등觀燈하러 온고대溫高台하니¹⁴⁸
 원근고저遠近高低의 석양은 비겼는데
 어룡봉학등魚龍鳳鶴燈과 두루미 남생이며 종경등鍾磬燈 선등仙燈이며
 수박등 마늘등과 연꽃 속 선동仙童이며
 봉란 우에 천녀天女로다
 배등 짚등 산디등과 영등影燈 알등 병등瓶燈 벽장등壁藏燈 가마등 난간등欄干燈
 사자 탄 채골이며¹⁴⁹ 호랑이 탄 오랑캐라
 발로 차 구을등에 일월등 밝아있고
 칠성등 버렸난대 동산령東山嶺 월상月上하고
 곳곳이 불을 난다¹⁵⁰ 우리 님은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난고

5월 단오일에
 남의 집 소년들은 높고높게 그네 매고
 한 번 굴러 앞이 높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추천하며 그네 난대 우리 님은 어디 가고
 추천함을 모르난고

나. 부인 민요

ㄱ. 시집살이

시집온지 삼일만에 벅히라고 내려와서
 가마뚝경 여러보니 엉거미가 줄을치고
 낫거미가 줄을치고 냄비뚝경 여러보니
 붉은동녹 켜켜안고 화가나고 열이나서
 대문밖을 썩나서서 앞집아가 뒷집아가
 보리밭이 어디메냐 저기저기 저기올새

148 ‘온고대하니’는 다른 자료에는 ‘임고대臨高臺하니’로 나온다. 높은 곳에 오른다는 뜻이다.

149 ‘사자 탄 채골이며’는 다른 자료에는 ‘사자 탄 채골이머’로 나온다. 채골攄骨은 나무로 다듬어 만든 인형의 하나. 팔다리에 줄을 매어 그 줄을 움직여 춤을 추게 한다. 망석중이라고도 한다.

150 ‘불을 난다’는 다른 자료에는 ‘불을 현다’로 나온다. 불을 켜는 뜻이다.

푸른보리 제쳐놓고 누른보리 제쳐다가
한번씻고 두번씻고 보리밥을 지여놓고
삼간마루 뛰올라서 찬장문을 엿드리니
영거미가 줄을쳐서 화가나고 열이나서
뒷문밖을 썩나서서 미나리밭 뛰어가서
누른잎은 제쳐놓고 푸른잎만 제쳐다가
한번씻고 두번씻고 세번네번 씻고나서
미나리채 못쳐놓고 안방문을 엿드리고
숫닭같은 시아버지 미나리채 진지잡슈
암닭같은 시어머니 미나리채 진지잡슈
긴는방문 엿드리고 동글동글 동세님네
미나리채 진지잡슈 장옥같은 시아주범
미나리채 진지잡슈 사랑방문 엿드리고
시큼시큼 신우님네 미나리채 진지잡슈
아랫방문 엿드리고 이귀저귀 친친놈이
영동이에 해돋았다 뜨물통에 빠질놈아
빨래줄에 눈걸릴나 미나리채 밥먹어라
시아버지 허는말이 아가아가 새아가야
재답이나 허려므나 뒷간답이 재답이쵸
아가아가 새아가야 오늘밥은 돌도많다
밥에돌이 많다하나 성에성돌 베고지고
아가아가 새아가야 오늘밥은 매우질다
밥진것을 질다하나 한강수를 베고지고
아가아가 새아가야 밥에뉘도 넘우많다
밥에뉘를 뉘라합나 버리발을 베고지고
시아버지 묻는말이 이야기나 허려므나
큰애기는 할머니고 중애기는 어머니고
새애기는 저을시다

ㄴ. 시앗

하늘에다 벼를 놓고 구름에다 잉어걸고
짚각짚각 찌느라니 부고한장 드러온다
한손에 받아들고 두손으로 펼쳐보니
시앗죽은 편지로다 고년요년 잘죽었다
인두불로 지질년 고기반찬 가춘밥도
맛이 없더니만 소곰밥도 달달도다

ㄷ. 통

신통 반통 노방통 금부통
장구통 여우홀림통 껏껏이통 원산새불통
웃집옴통 아랫집똥통 우리집절구통 술집뜨물통
장님복통 돼지오줌통 수비대나팔통 얼근놈상통
목수먹통 설은사람애통
이통 저통 우리누나 시집갈대 국수통

ㄹ. 통타령

통골집 통도령님이 통감을 끼고
통새원댁으로 통학중이었다
불통을 함으로 담배통으로 대갈통을 얻어맞고
울통불통 하야 골이통통 났다
절구통 뒤에 가서 있다 가물통을 뒤여쓰고
숨통이 막히여 복통증이 생겼다지

ㄷ. 아동 민요

ㄱ. 팽이 노래

팽글팽글 잘두돈다 요리조리 잘두돈다
고추먹고 매암매암 담배먹고 매암매암

ㄴ. 파랑새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ㄷ. 동대문 노래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아 원을 치고 아래와 같은 문답을 하면 그중 둘이 동대문을 만들고 모두 들어간다.)

어디 군산가 경상도 군살세
몇천 명인가 삼천 명일세
몇백 바퀴 돌았나 삼백 바퀴 돌았네
무슨 칼을 찼나 장도칼을 찼네
무슨 신을 신었나 가죽신을 신었네
동대문이 어디인가 여길세(열어준다)

ㄹ. 나팔소리 휘휘

1.

나팔소리 휘휘 북소리 둥둥
우리 군사 들어간다 우리 대장 들어간다
어깨총 허리에칼 걸음 높여 척척
동대문을 열어라 우리 군사 들어온다
우리 대장 들어간다 일본 군사 물러가고
우리 군사 들어와라

2.

나팔소리 휘휘 북소리 둥둥
우리 군사 들어온다 우리 대장 들어간다
어깨총 허리에칼 걸음 높여 척척
창덕궁을 열어라 경덕궁을 열어라
우리 군사 들어간다 우리 대장 들어간다
일본 국기 잡아떼고 조선 국기 내걸어라

제3장

신앙

1. 민족신앙

가. ‘밝의 뉘’적 신앙

우리 한국에서는 신앙과 종교·미신 이 세 가지가 실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과학으로 볼 때는 실로 치기 졸렬한 미신도 우리 민족 전래의 신앙과 통하는 것이 많고 종교 또한 그러하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전래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족韓族은 예로부터 하느님을 믿어 왔다. 천도天道를 신앙함으로써 우리의 자랑을 삼았으니 천도는 곧 신도神道요, 신도의 주재신은 태양이다. 이 태양을 제사하는 것을 천제天祭라 불리왔던 것이다. 우리의 시조 단군檀君은 곧 이 천도를 맡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내림來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므로 고대로 이 천제는 매년 1회씩 여하한 곤란이 있더라도 시행해 왔으니 부여의 ‘영고迎鼓’가 그것이요 고구려는 이 천제를 ‘동맹東盟’으로 일컬었고 신라 중엽에 이르러 이 천제는 ‘팔관회八關會’라고 불리어 오다가 궁예의 태봉국과 왕씨의 태봉국이 이를 그대로 계승했고 조선은 팔관八關이란 명칭이 불교에서 나온 만큼 불교 배척을 일삼았던 당시의 유학儒學들이 ‘부군府君’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렇듯 명칭만은 시대에 따라 변했지만 그 형식과 이념은 변하지 않았으니 천도란 천상의 선신계善神界의 생활규범으로 이 천계의 생활을 인간생활에 시범하는 것이다.

이 영고니 동맹이니 팔관·부군 등 여러 이름으로 전해진 민족의 신앙은 요약하면 ‘밝의 뉘’의 변천이다. ‘밝의 뉘’란 천상의 신계神界란 뜻이니 그 이름이 변하고 형식이 달라졌어도 천상의 신계생활은 우리 민족의 이상으로 삼은 데는 조그만 변천도 없었던 것이다. ‘밝’

은 광명^{光明}이요 광명은 천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밝의 뉘’, 즉 천계에는 무수한 등불을 다는 것도 인간의 암흑세계를 천상의 광명세계처럼 밝게 하자는 뜻에서이다.

이 ‘밝의 뉘’를 조선에서는 부군으로 개칭하고서 궁전에는 물론 대소관청에도 반드시 ‘부군당^{府君堂}’을 설치하여 큰 제사를 바치었고 관리의 신임·전임 등 진사^{進仕}하는 예식으로 이 부군당에 진배하는 것이 정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골에서도 이 부군당제를 본떠서 소위 ‘부군굿’이라는 천제를 각 부락에서 대대적으로 지내왔던 것이다.

이렇듯 반만년을 내려오면서도 우리 민족이 중시일관한 신앙을 전해 왔다는 것은 실로 경이하거니와 이 ‘밝의 뉘’의 근본정신을 찾아보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하고 광명을 숭상하며 생명의 신인 태양을 최고신으로 받들어 우리를 태양처럼 빛나고 생명력이 강한 민족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창왈^{稱曰} ‘삼계^{三界}’라고 하지만 이 삼계도 이 ‘밝의 뉘’에서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으니 우주를 상·중·하 삼계로 나누어 상계를 천계, 즉 천상의 선신계로 하여 인간의 최고낙원을 삼은 것이요 중계가 인간사회이니 위로는 상계, 즉 신계를 받들고 선신의 광명생활을 본받고 암흑과 악신의 소굴인 하계에서 침범하는 일체의 비행과 악을 예제^{刈除}하면서 인간세계를 미화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며 종교인가.

이제 우리 민족의 신앙이 이 ‘밝의 뉘’의 어원만 찾아보아도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알 수가 있으나 ‘밝’이란 광명이요 선이요 미요 태양이다. ‘뉘’란 누리의 본말이니, 즉 세계란 뜻이다. ‘밝의 뉘’는 ‘광명의 세계’요, ‘선적^{善積}의 세계’ ‘미의 세계’요, ‘빛의 세계’이다. 이 미와 선의 지향하는 그칠 줄 모르는 민족정신이 신앙의 형태로 전통을 지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천상에 하느님이 계시다 했고 지하에는 ‘꿋꿋’, 즉 귀신이 있어 광명과 미와 선에만 지향하려는 민족성을 침범하므로 이를 배격함으로써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숭고한 이념은 유교와 불교가 우리 민족에게 전해지기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속 깊이 깃들이고 있었으나 오늘날의 유교와 불교·기독교의 총 종지^{宗旨}와 그 이념을 합친 것이 우리 민족의 신앙이요 종교였던 ‘밝의 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불교의 선화^{禪化}, 기독교의 천당^{天堂}은 곧 우리 ‘밝의 뉘’의 천계요, 지옥은 하계의 꿋꿋인 악신의 소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로서 우리의 ‘밝의 뉘’ 교지^{教旨}가 얼마나 광범한 그리고 얼마나 보통성과 영원성을 띤 교지였던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숭고한 데 이상을 두어 왔느냐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나. 국가와 민족신앙

그러면 이 민족의 신앙은 우리 민족의 형성한 국가에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우리 민족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했는가?

원래 고대의 우리 민족은 국가라는 형태의 조직체도 갖지 않았고 또 임금이란 지위의 영도자도 없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던 중 하계의 악귀신 ‘꿇것’이 우리 인간세계에 악을 퍼트림으로 이를 격퇴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국가를 형성케 되었던 것이다. 이를 상고사^{上古史}에 의해서 보면 우리 민족을 영도키 위해서 상계에서 선신^{善神} 한 분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곧 단군^{檀君}이시라 한다.

그래서 상고시대의 조선이 탄생했으며 이 국가는 상계 선신의 지시와 지도를 받아서 하계악령의 재화를 물리치고 세계를 광명의 빛으로 비치게 함이 목적이었던지라 그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 조직적 세력을 필요로 했고 이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밝의 뉘’의 신앙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 상고시대의 ‘밝의 뉘’는 후에 자꾸 변음이 되어 ‘부루’가 되었으니 이 부루 교단의 신앙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막대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즉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정립되었을 때 가장 문약하던 신라는 삼국통일을 신라의 자력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먼저 국민의 정신통일을 기하기로 하고 우선 착안한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신앙인 ‘밝의 뉘’, 즉 부루 신앙을 강화했던 것이다.

이 조직의 강화책으로서 귀인의 자제 중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을 택하여 신화^{神化}하는 한편 그를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여 국민도덕의 연마, 국풍^{國風} 가락의 송상, 국토순례의 수행을 면려^{勉勵}했고 그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국가의 요직에 등용했다. 이 부루 교단의 중심이 된 성동^{聖童}은 풍월주^{風月主}·원화^{源花}·화랑^{花郎}·국선^{國仙}·선랑^{仙郎} 등의 명칭으로 불렸고 이 부루 교단의 신조^{信條}를 풍월도^{風月道}니 국선도, 화랑도라 했으며 이에 종사하는 단원을 풍월도^{風月徒}, 선도, 화랑도 등으로 일컫던 것이다.

이 제도를 강화한 이는 신라 24대 진흥왕^{眞興王}이니 진흥왕으로부터 신라통일의 위업을 완성한 문무왕^{文武王}까지의 약 100년간에 국가에 공헌한 인물의 거의 전부가 이 선도^{仙徒}, 즉 화랑도중^{花郎徒中}이었고 그 수도 실로 200을 산^算했다는 사기^{史記}를 보더라도 이 부루 교단이 신라통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신라시대의 이른바 화랑도가 어떤 것이었던가를 신라 말년의 문호 최치원^{崔致遠}의 기록에서 찾아본다면 “우리나라에는 신통한 도가 있으니 부루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그 내용에는 유교·불교·도교의 요지가 다 들어 있어 인생뿐만 아니라 만물을 교화하기에도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는다. 그 일부분을 들기로 한다면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라에는 충성하라는 것은 공자의 도와 같고 권리 찾지 아니하는 의무를 다하고 이론 찾지 않는 실행을 주장함은 노자¹⁵¹의 도요, 악을 금하고 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를 행하라 하였으니 이 곧 불타의 도와 같으니라.” 하였으니 이 실천의 신조란 실로 오늘날 우리가 최고이념으로 삼아야 할 명언들이다.

신라의 화랑도는 그때 이미 단원의 도의^{道義} 양성에 첫째 국가에의 절대적 희생과 둘째 단체생활에 필요한 신의, 셋째 단원끼리의 상호부조, 넷째 사회적 결함에 대한 의협과 동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본다면 공자의 유교, 불타의 불교가 인류사회에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유·불·도·기독교의 제 종교의 모든 교리를 종합한 보편성과 영원성을 겸유한 신앙을 가졌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 고유의 신앙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어서 현대에도 하느님을 상계의 선신^{善神}시하고 하느님은 선을 권장하며 악을 징계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악을 볼 때 ‘하느님도 무심하시다’든가 ‘벼락도 안 친다’든가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신앙의 유흔인 것이다.

다. 본 군민의 신앙

그러면 군민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에 관한 통계를 별표에 의해 보건대 총인구의 9할 이상이 무신앙·무종교로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의 군민들은 전부가 이 우리 민족 전래의 ‘밝의 뉘’, 즉 상계를 선신, 하계를 ‘꿇것’의 악신세계로 믿어 악의 화신인 꿇것을 징계·억제하면서 상계의 선신세계에로 자아를 인도하는 성스러운 신앙의 실천자인 것이다. 모든 구원과 일체의 선은 이를 하느님께 구하고 모든 죄와 악은 이를 악귀에게 들리는 신조는 거의 생활화되어 있어서 일거일동이 그대로 신앙의 실천인 것이다.

이 ‘밝의 뉘’ 신앙은 아직도 군민의 대부분을 지도하고 있으니 그 예로서 농작의 흥풍을 결정하는 것도 하느님(즉 선신)이요 악을 징계하는 것도 하느님이어서 그 방법으로는 적악자^{積惡者}에게는 하느님이 무심치 않아 ‘벼락을 친다’든가 일체의 기원은 ‘하느님께 축원합니다’라든가 하늘 위에는 선녀가 살고 있다는 민족설화, 모든 것이 하느님에 의거하고 있는

151 원문은 효자^{孝子}이나 문맥상 노자^{老子}로 보았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나친 과학적 해석으로 비도 하느님, 벼락도 하느님 한다고 비과학적 몽매로만 비난하는 이도 없지 않으나 이 하느님이란 선·미·광명·희망 등 가장 선한 사랑의 상징일 뿐이지 다른 종교처럼 우상화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를 가끔 우리에게 전해진 설화에서 그 예를 들어본대도 알 수 있으니 『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시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설화가 기록되고 있다. 즉 “김신(金旻)이라는 사람은 원나라 조정을 섬기고 있는 고려인이었다. 그때 마침 왜구의 내침으로 김신의 어머니는 비참한 죽음을 했으므로 그는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자 현장에 달려갔다. 그러나 원래 시일이 오래되어 백골이 된 것이 한둘이 아니라서 김신은 자기 모친의 백골을 찾을 길이 없었다.

김신은 땅을 치고 울면서 그대로 자기 모친의 백골일 성싶은 뼈를 추리기는 했으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자신이 생기지 않는지라 땅에 엎드리어 하느님께 그 진위를 알려 달라고 애원을 했다. ‘하느님 하느님 이 불효자식은 어머니께 그런 비참한 죽음을 하시게 하고 이제 또 백골조차 모시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이 불효의 심회를 돌보시사 이것이 어머니의 백골일세 분명커든 색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갖은 정성을 다하며 이렇게 하느님께 빌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요란하며 비가 쏟아지더니 금세로 백골이 청색으로 변했다. 이 이야기를 전문(傳聞)한 고려 왕은 그 효의 지극함이 하느님께 통했다 하고 사(祠)를 세워 제사 지내게 했다.”¹⁵²

이 설화는 지금도 봉숫방¹⁵³이나 발머리에서 설화되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의 하느님은 우상으로서보다는 극진한 효성을 알아주는 선인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라시대의 부루 교단, 즉 화랑도의 도의신조인 ‘집에서 들면 효하고’의 아름다운 전설이 한 설화로서 민족의 생활 속에 파고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비과학적이라고 한다면 비과학적임에는 틀림없으나 이 하느님으로 해서 인간이 얼마나 미화하는가를 생각하면 과학 운운만 할 것도 아니다. 이렇듯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에는 이 외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 용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금강산 산상에는 하늘에서 팔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했고 그중 한 선녀의 옷을 감추어서 총각 초부가 선녀한테 장가를 들었다는 등 하늘에는 선신만이 산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뱃의 뉘’ 신앙을 토대로 한 하느님에 관한 설화와 전설은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니 종교 신자의 수가 적은 것은 군민에게 신앙심이 없다가보다 마음의

15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라도 금산군(鎭山郡) 인물조.

153 봉숫방: 여러 나그네가 한데 모여 자는, 주막집의 가장 큰 방. 봉노·주막방이라고도 한다.

신앙, 즉 우리 민족 고유의 ‘밝의 뉘’적 신앙이 생활 속에 완전히 용해되어 있어 따로이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문인 것이다.

02. ‘밝의 뉘’적 민족설화

그러면 이 ‘밝의 뉘’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를 밝히자면 우리 민간에 전해 내려온 민족설화를 뒤져 보는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이야기는 농한기의 봉긋방에 앉아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

이 봉긋방에 돌아다니는 민족설화 중에서 ‘밝의 뉘’적 요소를 가진 설화를 추리고 이를 다시 층·효의 2종으로 분류해 보면 우리 민족신앙의 핵심을 알 수가 있다.

가. 충충의 전설

가. 호국을 거부한 김유신의 혼백

김유신(金庾信)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신라의 충신이요 명장이다. 신라 29대 무열왕과 30대 문무왕 양대에 걸쳐 국정의 대임을 맡을 뿐 아니라 조그만 나라이면서도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으로 나뉘어 싸움을 일삼는 것을 슬퍼하여 이의 통일을 기하고 밖으로는 고구려와 백제를 제어하면서 안으로는 국정개혁을 단행하고 민심을 수습하여 마침내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한 명장이다.

이 김유신 장군이 죽은 지 120년 후인 36대 혜공왕 15년(당 태종 대력 14년, 서기 779년)의 어느 날 김유신의 무덤이 들먹이더니 굉장한 회오리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회오리바람 속에 위풍이 당당한 한 장군이 있고 그 주변으로 갑옷에 투구를 쓰고 기장(器仗)을 짊어 지는 부하 40여 명이 장군을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 그 장군이야말로 왕년에 신라통일을 완수한 명장 김유신이었고 부하는 그가 생전에 데리고 있던 심복지인(心腹之人)들이다.

장군 일행은 무덤을 나오더니 일로(一路) 죽현릉(竹峴陵)에 내닿는다. 죽현릉은 태종대왕, 즉 왕년의 김춘추(金春秋)이던 무열왕의 능이니¹⁵⁴ 일찍이 김유신 장군이 받들던 왕이다. 장군

154 죽현릉: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신라 제13대 미추왕의 무덤으로, 정식 명칭은 ‘경주 미추왕릉’이다. 여기서 죽현릉을 태종 무열왕의 능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일행은 이 죽현릉에 이르러 능을 뚫고 들어가더니 능 속에서는 곡성이 진동을 하고 회오리바람이 딱 그친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다시 곡성이 그치고 이번에는 김유신의 간諫하는 음성이 들려 나오며 “신이 일찍이 평생을 바치어 국토를 진호^{鎭護}한 것은 대왕께옵서도 잘 아실 줄 아옵니다. 이 제민구국^{濟民救國}의 충성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았거늘 신의 자손은 아무런 작죄도 없이 죽음을 당하오니 이 어찌 선정이라 하오리까. 신은 이제 나라를 떠나 호국^{護國}의 대임을 벗고자 하오니 대왕은 이를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태종대왕에게 아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듣자 태종대왕은 “자손을 애호함은 가상하나 호국 대임을 저버림은 불가하니라.” 이렇게 꾸짖었다. 그래도 김유신은 다시 세 번이나 대왕의 허락을 빌었으나 끝끝내 대왕의 승낙을 받지 못하고 일행을 데리고 자기 묘 속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이 생긴 것은 36대 혜공왕대이니 경신년에 김유신의 후손이 무고를 입어 주살을 받은지라 혜공왕은 크게 당황하여 김경신^{金敬信}을 보내어 김유신 묘에 진사^{陳謝}를 시키는 한편 유신 공을 위하여 취선사^{鷲仙寺}에 공덕보전^{功德寶田}을 두게 하였더니 그 후로는 김유신은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신라 시조 이후의 사적을 기록한 저자도 미상인 『동경잡기^{東京雜記}』 제3권(후에 조선 18대 현종조의 민주면^{閔周冕}이 증수)에 있는 이야기로 널리 민간에 설화로 전해진 것이다. 이 설화도 ‘밖의 뉘’ 신앙의 구국·호국의 충조^{忠條}의 설화화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삼국유사』 기이^{紀異} 제1권에 기록되어 있는 같은 김유신의 삼선녀^{三仙女} 호국신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이다. 이제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이리하다.

ㄴ. 신라의 3호국여신^{三護國女神}

김유신이 뵈히어 국선(國仙, 즉 ‘밖의 뉘적’ 신앙의 구국단체가 된 부루 교단에서 뵈힌 화랑도)이 된 것은 신라 26대 진평왕 때로 당시 유신은 18세였다.

유신은 국선이 되자 벌써 그때부터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야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어 주야로 이를 꿈꾸고 있었다. 그때 마침 유신이 가까이하던 친구에 백석^{白石}이란 사람이 있어 유신의 심중을 알고 늘 그를 격려하여 주었다. 양인은 늘 만나기만 하면 “고려와 백제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우리 신라가 통일을 할 것인가.” 이런 공론을 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백석이 명안을 내어 “적을 치자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하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양 적의 국정을 내사해서 그에 따라 방책을 강구함이 가할까 하오.” 이렇게 권하는지라 유신은 그 말이 옳다 하고 백석과 함께 적의 국정을 살피고자 적국을 향하여 떠났었다.

둘이 고개를 넘어 잠시 쉬고 있는데 낫선 두 처녀가 나타나더니 동행을 청한다. 그러더니 골화천(骨火川)에 이르러 또 한 처녀가 나타나서 유신에게 과실을 주고 먹기를 권한다. 유신이 사양치 않고 과실을 받아먹으니 세 처녀들은 안심한 듯이 눈짓을 하여 유신을 따로 불러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유신은 기이한 생각이 들었으나 거절할 수도 없어 따라가노라니 깊은 숲속에 들더니 세 처녀는 갑자기 여신으로 변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고는 유신을 향하여 “공께 아뢰옵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니오라 내림(奈林·혈례(穴禮)·골화(骨火) 세 곳을 지키고 있는 호국여신이옵는바 지금 적국에서는 공의 뛰어난심을 듣고 공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후환이 미칠 것이라 하여 백석이란 자를 우리 국내에 들여보낸 것이옵니다. 공은 이를 깨닫고 백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기가 무섭게 자취를 감추는지라 유신은 그 길로 돌아와서 그날은 백석과 함께 골화관(骨火館)에서 밤을 밝히었다.

이튿날 아침 백석이 떠나기를 재촉할제 유신은 깜짝 놀란 듯이 “아차 중요한 문서를 잊었습니다그러. 적을 알자면 꼭 그 문서를 가져야겠는데 ……”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떠나기로 백석을 띄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로 백석을 고문하니 과연 고구려에서 보낸 간첩임이 판명된지라 유신은 백석을 형(刑)하고 호국의 세 여신을 제사 지냈다. 제사 당일엔 그 세 여신이 나타나서 제물을 먹었더니라 하였으니 이 기록은 곧 상계의 신이 중계의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계의 악귀인 백석을 방어한다는 신앙을 설화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시대와 인물이 변해서 혹은 고려 혹은 조선으로 된 허다한 유사의 설화를 만들고 있으니 이는 그 설화자가 연대와 인물을 기억치 못한 데서 기인된 것이다.

나. 용에 관한 설화

이 허다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것이 용(龍)인 것은 용은 비를 맡아 보는 우신(雨神)이라는 말이 전해져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대부분이 하느님의 비로 생사를 결정하는 농민들이 용, 즉 비의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인간 특히 농민에게 비를 내리는 것이 하느님이요 이 비를 맡은 선신이 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굳게 믿어지고 있다. 그래서 용에 관한 전설과 설화는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용의 출처는 어떠한가. 물론 고래로 상계, 즉 하늘에는 용이 있고 용이 우신이라는 것은 태고시대부터 구전되어 민족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지마는 이것이 문헌에 나타난 것은 신라 30대 문무왕대이다. 문무왕은 태종왕, 즉

무열왕 김춘추의 뜻을 이어 신라통일을 완성한 성군이다. 재위 21년에 많은 치적을 남겼거니와 애국·애민으로도 알려진 임금이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무열왕의 용의 설화를 보면 대략 이러한 이야기다

무열왕의 애국지성(愛國至誠)은 놀라운 바 있어 왕은 평시에도 늘 자기가 죽거든 동해에 묻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면 호국의 대룡이 되어 신라를 지키고 비를 나리어 백곡을 길러 국태민안의 대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재위 21년 7월 왕이 홍(薨)하니 유조(遺詔)를 받아 왕을 동해암(東海岩) 상에다 장사했다. 그리고는 왕위를 이어받은 신문왕은 동해변에다 감은사(感恩寺)를 지어 선왕의 영을 위로했던바 신문왕 2년 5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뢰기를 “동해에 난데없는 소산(小山)이 생기더니 감은사를 향하여 자꾸 가까이 오나이다. 이 무슨 변이 아닌가 하오니 빨리 조처케 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신문왕은 급히 일관(日官)을 보내어 점치게 하였던바 일관은 대길(大吉)의 징조라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는 산이 아니오라 선왕(문무왕)께옵서 평시의 뜻을 이루시어 해룡으로 화하사 승천하심이니 빨리 감은사로 가시어 선왕의 뜻을 받으소서.” 하는지라 왕은 기뻐하여 감은사로 나갔다.

감은사에 가서 다시 사람을 그 바닷속의 산에 보냈더니 산의 형상은 흡사 귀두(龜頭)와 같고 산상에 청죽(靑竹)이 있어 낮에는 2개이나 밤에는 1개로 합죽(合竹)이 되는 것이다. 왕이 감은사에 묵으며 승천을 기다리는데 그 이튿날(5월 8일)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정각 오시에 합죽이 되더니 천지가 진동하고 풍우가 몰아친다. 이러기를 만 7일간 5월 16일에서야 비로소 풍우가 걷히고 파도도 가라앉는지라 왕은 배를 내어 해중의 산에 올랐다.

왕이 산에 오르자 산두(山頭)에서 홀연히 용이 나타나서 왕을 맞으며 흑옥대(黑玉帶)를 내어 주며 “이 옥대는 동해의 대룡이 되시어 승천하신 선왕(문무왕)과 천신으로 화한 김유신 장군이 동심일체가 되어 저로 하여금 왕께 올리라 전하신 것이오니 잘 간수하소서.” 하는지라 왕은 기뻐서 이를 받아들고 합죽된 이유를 물어보았다. 용은 다시 “손바닥도 한쪽이면 울지 않듯이 국가도 군·신 한쪽만으로는 태평할 수 없음을 아뢰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왕이 치하를 하고 다시 배에 올라 감은사로 나오다가 돌아보니 용도 산도 없어지고 바다는 잔잔하다. 그때 용에게서 받은 진옥(眞玉)은 모두가 진룡(眞龍)으로 왕의 태자가 1개를 떼어 물에 넣었더니 그 자리에서 용이 되어 승천을 했고 산에 있던 청죽으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더니 외구(外寇)는 물론 국내가 태평하고 가뭄에 불면 감우(甘雨)가 내리고 장마에 불면 비가 그치어 청죽백일(靑竹白日)이 되었으며 물결이 세어서 어선이 위태로울 때 불면 또 파도가 잦아들었다. 그래서 왕은 이 피리를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이름을 지어 국보로서 길어 보

전하였다더라.

이 설화에서 보듯이 군·신 지금으로 말하면 관과 민이 합심이 되어 국태민안國泰民安하다는 것을 시사한 점이며 용이 승천하여 인간의 안락을 도와준다는, 즉 ‘밝의 뉘’와 화랑도의 가르침을 민의 생활 속에 엮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가끔 비가 몹시 오면 용이 승천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승천하는 용의 꼬리를 보았다는 말을 노인들에게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용이 승천할 때는 반드시 오색이 영롱한 채운彩雲이 떠돈다는 관념이며 용의 몸도 오색이 영롱하다는 관념 곧 미美이니 미는 선善이요, 선은 광명光明이라는 신앙에서 나온 말이다. 이 일체의 미와 선과 광명은 천상에 있고 지상인 중계의 인간도 선하면 천상에 올라 선신과 자리를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이니 김유신은 신라통일의 위업을 이룩한지라 만민이 우러러 받들어서 그 선과 미가 상계에 계신 하느님께 이르러 33신 중의 1신으로서 승천했다(『삼국유사』 제2권 문무왕 법민항)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좋은 재료인 것이다.

요컨대 일체의 미와 선은 천상에 있되 인간도 ‘밝의 뉘’라든가 ‘부루’교, 즉 신라에 와서 화랑도로 불리어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앙인 오계五戒와 삼이三異만 잘 지키면 천상의 신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오계란 ① 임금을 섬기되 충忠으로서 할 것, ② 아버이를 섬기되 효孝로서 할 것, ③ 벼를 사귀되 신信으로서 할 것, ④ 싸움에는 물러섬이 없게 할 것, ⑤ 살생殺生은 반드시 가려서 행할 것이요.

삼이란 ① 남의 위에 있으면서도 남의 아래에 앉을 것, ② 남보다 부富하되 입기나 먹기에 검소할 것, ③ 귀한 자리에 있되 위엄을 쓰지 말 것의 세 가지니 이 오계와 삼이만 잘 지킨다면 인간세계도 상계의 선신세계와 함께 행복스럽고 아름답고 광명이 비치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낙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또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善, 오계와 삼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계(戒, 경계)하는 ‘흥부놀부’ 이야기며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 노인’ 이야기며 고려충신 포은(정몽주)이 이성계의 심복지인 조영규趙英珪의 철퇴를 맞아 쓰러지자 후에 조선 태조가 된 이성계는 그의 묘 전에 조선의 관직인 의정부 영의정직을 내린 비석을 세워 주었으나 이는 의義 아닌 예禮라 하여 뇌성벽력과 함께 그 새 비석을 깨뜨리더니 정씨 자손이 ‘고려문하좌시중高麗門下左侍中’이란 직명을 쓰자 아무런 대우(大雨, 큰비)에도 끄떡없이 서 있었다는 이야기『팔역지八域誌』 등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03. 귀신신앙

우리 민족의 신앙은 민족의 고유한 신앙, 즉 ‘밭의 뉘’적 ‘부루’ 신앙과 미신적인 귀신신앙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위에서 말한 모든 설화와 사기는 이 민족설화 중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면 미신적인 귀신신앙은 어떠한가.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민간신앙으로서의 귀신의 위치와 성질·습성 같은 것을 대별해 보기로 한다.

가. 신과 귀신

신에는 선신善神·악신惡神의 두 가지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즉 선신은 신神이라 부르고 악신은 귀신鬼神이라 부른다. 신은 상계의 신이요, 귀신은 하계의 악신이다. 신은 건설적이며 귀신은 파괴적이다. 신은 광명을 좋아하고 청결·고상·담박·청렴을 좋아하지만 귀신은 양보다도 음, 광명보다도 암흑·불결·탐욕 등 우리 민족신앙의 주대主臺가 되어 있는 오계五戒와 삼이三異의 정반대되는 나쁜 점만을 좋아하고 즐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인간의 미화를 돕고 행복과 안락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반면에 귀신은 갖은 병과 갖은 액을 인간에게 갖다주고 잘 차려서 먹이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인간이 오계에 벗어난 일을 할 때나 인간과 교섭을 갖는다. 그 인간의 행실이 도에 지나치면 신은 노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벌을 내린다. 이것을 사람은 ‘천벌天罰’이라고 부르고 이 천벌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벌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제 그 실례를 들어본다면 옛날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어찌도 몹시 빈민의 고향을 빨았는지 만인의 원성을 듣다가 하루는 낚시질을 갔었다. 낚시에 큰 자라¹⁵⁵가 물리어 좋아라고 망태기에다 넣으니까 자라가 자꾸 울면서 놓아달라고 애원을 했다. 그러나 욕심쟁이는 그대로 집어넣고 오는데 갑자기 천둥 벼락이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져서 노변의 큰 괴목槐木 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데 번갯불이 번쩍하면서 벼락을 내리쳤다. 하느님이 노하시어 그 탐욕자에게 천벌을 내렸다.

이러한 이야기는 방방곡곡 어느 지방에 가도 실화처럼 전해지고 있다. 또 이러한 정도

155 원문에는 ‘자래’로 나온다. ‘자라’의 사투리로 봐서 자라로 수정하였다.

의 악은 아니라도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천벌을 받은 이야기로 사기에까지 남아 있는 강릉 경포대의 비화를 들 수 있다. 즉 강릉 경포대에 정모鄭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악인은 아니나 어찌도 인색한지 통 남을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서 거지는 물론 중이 동냥 한 번 얻어 가는 일이 없었다. 그런 어느 날 정이 마침 거름을 치고 있는데 중 하나가 와서 동냥을 청하니까 자루를 벌리라 하고 거름을 퍼넣어 주었다. 이것을 본 그집 며느리가 어찌도 딱 하던지 몰래 쌀을 한 되 퍼주니까 중이 자기를 따라오되 뒤를 돌아다보아서는 안 된다 한다. 그래서 며느리가 따라나서니까 갑자기 집터가 호수로 변하고 그 많이 쌓아두었던 쌀은 모두 조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연못이 있는 지방이면 어디나 전해지는 전설이다. 즉 선신은 선인善人을 돕고 악인惡人을 징계하기 때문에 인간이 크게 잘할 때는 그를 상 주어 복을 받게 하고 심한 악은 행하면 천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귀신은 그 상대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구별도 없이 함부로 덤비어 해치고 파괴하고 약탈을 한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지만 귀신은 병 주고서 또 얻어먹어야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인 신과 귀신에 대한 관념이다.

나. 귀신의 종류

ㄱ. 삼한시대의 귀신

우리 민족은 상고시대부터 귀신에 대한 신앙이 깊었던 모양으로 고서古書·고기록古記錄에서 얼마든지 이를 산견할 수가 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을 몇 들어본다면¹⁵⁶

삼국지三國志

三韓. 常以五月祭鬼神, 歌舞飲食, 日夜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¹⁵⁷

진서晉書

馬韓.¹⁵⁸ 俗重鬼神, 常以五月耕種畢, 羣聚歌舞, 以祭神, 十月農事畢, 亦如之.¹⁵⁹

156 중국 사서四書 원문은 오자가 여럿 있어서 바로잡았다.

157 “삼한.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추는데, 그 가락과 울동은 중국의 탁무桴舞와 흡사하다.”

158 원문에는 삼한三韓으로 되어 있으나 『진서晉書』에는 마한馬韓으로 되어 있어 수정하였다.

159 “습속은 귀신을 믿어 항상 5월에 씨를 뿌리는 작업을 마친 뒤 떼지어 노래하고 춤추며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10월에 이르러 농사를 마친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후한서後漢書

馬韓. 常以五月田竟祭鬼神, 晝夜酒會聚歌舞, 舞輒數十人相隨, 踏地爲節, 十月農功畢, 亦如之.¹⁶⁰

통고通考

弁辰與辰韓風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¹⁶¹

위지 삼한전魏志三韓傳

馬韓.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¹⁶²

후한서

三韓. 諸國邑各以一人祭天神, 號爲天君 又立蘇塗, 建大木以縣鈴鼓 事鬼神.¹⁶³

이로써 본다면 삼한시대에는 오로지 천신만을 제사했고 또 그 방식과 제기祭期도 대개가 일치한다. 그리고 그 시계時季의 5월이 오늘날 우리 농촌에서 행하여지는 ‘호미거리’ 또는 ‘호미시세’로 불리어지는 제1 제초除草 종료기인 5, 6월과 같은 점과 10월의 농필기農畢期란 곧 오늘의 추수제秋收祭와 같은 10월인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군중이 많이 모여 주식酒食을 나누고 가무를 향락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촌의 ‘두레’, 즉 농필기의 농악대वाद도 비슷한 점이다. 또 ‘입대목立大木’이라 했으니 이 대목이 후일 농기의 유래가 되었을 것이다.

나. 신라통일 이후의 귀신

통일신라 이후의 귀신을 『삼국유사』에서 추려보기로 한다. 『삼국유사』는 고려조 21대 희종熙宗 2년에 출생하여(단기 3538, 서기 1205년) 25대 충렬왕 기축년(서기 1289)에 죽은 여조麗朝의 명승 일연一然의 찬으로 된 우리 사서史書에도 없지 못할 진서珍書다.

160 “마한. 항상 오월에 파종을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무리를 지어서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춤을 출 때, 매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줄을 서서 땅을 밟으며 장단을 맞추었다. 10월에 농사일을 끝마친 다음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161 “법진과 진한은 풍속이 서로 비슷하였다. 귀신을 제사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조왕신을 차려놓은 것이 모두 입구의 서쪽에 있었다.”

162 “마한. 귀신을 믿는데,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니, 그를 이듬하여 천군주이라고 불렀다. 또한 여러 나라마다 별읍이 있는데, 이를 이듬하여 소도주라고 하였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어 달고 귀신을 섬겼다. 여러 도망자들이 소도 내에 이르러도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163 “삼한. 여러 국읍에 각각 한 사람이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는데, 천군이라 부른다. 또 소도를 두어 큰 나무를 세우고 영고를 매달아 귀신을 섬긴다.”

천신天神

신라에는 33三十三의 천신이 있어 국가를 돌보고 민정을 살피고 외구外寇로부터 신라를 수호했다고 전한다. 신라통일에 큰 공헌을 남긴 김유신도 기실 중계의 인간이 아니라 원래 33천신 중의 1신一神이었던바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라를 통일한 후 사후에는 다시 승천하여 33천신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동서同書 제5권 신문왕대의 대성효大城孝 이세부모二世父母조에 보면 대성大城이는 두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친부모를 위하여 불국사佛國寺를 짓고 전생부모前生父母를 위해서는 석불사石佛寺를 지어 효성이 극진했었는데 석불을 만들 때에 감개蠶蓋를 만들자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깨어져 통분했더니 그날 밤 천신이 내려와서 감쪽같이 감개를 만들어주고 올라갔느니라—이러한 사기도 남아 있다.

산신山神

명산에는 반드시 산신이 있어 산을 수호하고 산 일대의 인간으로 하여금 산신의 보호를 받게 한다. 신라 35대 경덕왕 때에 오악삼산신五岳三山神이 궁전 뜰에 내려와서 선정을 치하했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 49대 헌강대왕憲康大王이 포석정鮑石亭에 나아가 놀제 남산南山의 산신들이 현형現形하여 왕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전하고 또 왕이 금강산에 거동했을 때도 산신이 나와 지리다도파도파智理多都波都波 등이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 노래는 지智로 이국理國하는 사람이 알고 많이 도망하여 도읍이 망하리라는 예언이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되레 산신의 출현을 좋은 상서라고 탐락함이 심하여 마침내 나라가 망했다고 한다(『삼국유사』 제2 처용랑).

진한¹⁶⁴ 41주主 헌덕대왕憲德大王 김씨의 자子 석釋 심지心地가 보은 속리산에 입산수도를 하고 불골간자佛骨簡子를 얻어 가지고 내려오자 산신이 선자仙子들을 데리고 와서 맞아주며 수계授戒를 했다고도 한다.

용신龍神

저 앞에서도 인용한 바와 같이 신라 30대 문무왕이 죽어서 해룡주海龍主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신라 49대 헌강왕이 해변에서 쉬고 있자니 용신이 검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 암흑천지를 만들었다. 이것을 본 왕이 크게 놀라서 창사創寺 명령을 내리니 용이 비로소 기뻐

164 진한 : 원문에는 마한으로 되어 있으나 『삼국유사』에는 진한으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여기서 진한은 신라를 가리킨다.

하여 왕의 가마 앞에 나서서 노래와 춤으로 왕의 성덕을 치하하더니 데리고 온 7자^子 중 한 아들을 왕에게 주었다. 왕은 이 용신의 아들에게 처용^{處容}이라는 이름을 주고 미녀를 처로 삼게 했던바 처용의 처가 너무도 아름다워 역신^{疫神}이 밤이면 동침하였다.

어느 날 이를 발견한 처용은 역신을 꾸짖는 대신, “동경명기월랑^{東京明期月良}, 야입이유행여가^{夜入伊遊行如可}, 입량사침의견곤^{入良沙寢矣見昆}, 각오이사시량나^{脚烏伊四是良羅}. 이혈은오하어질고^{二胎隱吾下於叱古}, 이혈은수지하언고^{二胎隱誰支下焉古}. 본의오하시여마어은^{本矣吾下是如馬於隱}, 탈질랑을하여우리고^{奪叱良乙何如爲理古}.”¹⁶⁵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물러나니 역신이 꿇어앉아 공의 얼굴 형상만 보아도 그런 집에는 다시 아니 들어가겠노라 한다 했다고 한다. 신라시대에 역신 방지법이 이 처용의 얼굴을 문전^{門前}에 그려 붙였다 하니 이 법이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용신에 관해서는 신라 51대 진성여왕의 아찬^{阿飡}, 양패^{良貝}의 두 아들이 당에 사신으로 가다가 용신을 만난 이야기가 있다. 신라에서 당에 사신을 보낸다니까 백제가 통로를 막는지라 궁사^{弓士} 50인을 거느리고 골화도^{骨火島}에 이르니 마침 풍도^{風濤}가 심한지라 여러 날을 근심 중에 있다가 일관^{日官}에게 점을 치니 섬에 있는 신지^{神池}에 제를 지냄이 옳겠다 한다. 사신공^{使臣公}은 그 말이 옳다 하고 못 위에 전^奠을 차리기가 무섭게 못물이 한 길이나 용솟고 밤에는 공의 꿈에 한 노인이 현몽키를 “사수^{射手} 1인만 섬에 머무르게 하면 순풍하리이다.” 한다. 그래서 왕은 50명으로 하여 곧 목관^{木管} 50편^片에 각각 기명하여 물에 던지게 했더니 거타지^{居陀知}¹⁶⁶란 사람이 뿔히어 섬에 머물렀다. 하루는 거타지가 못가에 섰는데 홀연히 그 노인이 또 나와서 나는 서해신이로라 하여 매양 한 중이 해가 돌을 때쯤 되면 나타나서 축문을 외이고는 내 자손의 간을 빼어 먹어 자기 부부와 딸 하나만이 남았노라. 마침 내일이 또 올 날이니 그 중을 쓰아 달라 하였다. 서해신의 청대로 그 중을 쓰니 늙은 여우인지라 거타지는 서해신 사위가 되었고 당에까지 무사히 갔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용에 관한 전설이 많으니 황해도 장단 용연면 용정리에 있는 용정^{龍井}에서 황룡이 나왔다는 이야기며, 신라의 청을 받아서 백제를 치러왔던 당의 소정방^{蘇定方}이 부여 백마강을 건너려 할 제 용의 장난이 심하므로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았다는 조룡대^{釣龍臺} 전설, 개성의 박연폭포^{朴淵瀑布} 구경을 하러 갔던 박 진사가 폭포 확에서 나온 선녀와 결혼을 했다는 금강^{錦江}이 생긴 유래¹⁶⁷와 용당포^{龍塘浦}의 이름도 원래 조그만 시내였던 내^川에

165 “동경 밝은 달에 밤새도록 노닐다가 /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 돌은 내 것이지만 돌은 누구의 것인가 / 본래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 하리.” (처용가)를 포함한 처용의 이야기는 『삼국유사』 권2, 기이^{紀異}2 처용랑 망해사조에 나온다.

166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권2, 기이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에 나오는 이야기로, 원문에 거시지^{居時知}로 잘못 표기되어 거타지^{居陀知}로 바로잡았다.

167 ‘금강이 생긴 유래’는 바로 뒤의 용당포와 관련된 고사에서 금강이 생겼다는 것을 박연폭포 관련 이야기로 잘못 삼입된 듯하다.

서 용이 승천昇天을 하는 바람에 황해물이 밀려들어 금강이 생기었다는 등 허다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용의 전설도 기실은 상기 사기의 이야기가 근원이 되어 자꾸 퍼지고 만들어지고 한 것이다.

호국신護國神

호국신은 (제6편 제3장 제1절) ‘민족신앙’에서 인용한 김유신과 3여신 이야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일월신日月神

일월신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제1권 연오랑延烏郎·세오녀細烏女조에 있으니 단기 2490년(서기 157년) 정유에 연오랑·세오녀 부부가 살다가 하루는 연오랑이 바다에서 해조海藻를 따는데 웬 바위가 신고 일본으로 갔고 남편을 찾아 세오녀 또한 일본으로 가니 신라는 암흑천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 신라에서 사자를 보내어 모시러 갔더니 연오랑은 일본의 왕이 되어 있어 나올 수가 없다 하며 비妃가 짠 것이라 하여 세견細絹 1필을 내어주고 이로써 천제天祭를 지내라 한다. 사자가 돌아와서 지시대로 제사하니 일월이 여구如舊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본근과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전해지는 일월신 전설은 남매가 승천하여 하나는 해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되었다는 것이다.

역신疫神¹⁶⁸

귀신鬼神

신라에 전해진 귀신은 잡신雜神이니 신라 35대 진지왕(단기 2919, 서기 579년)년 이 재위 시에 도화랑桃花娘¹⁶⁹이란 인처人妻가 희세稀世의 미인임에 혹하여 궁중에 불러들이어 관계를 맺자 하거늘 도화녀桃花女가 “한 계집으로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으니 남편이 죽은 후라면 몰라도 지금은 불가하다.” 이렇게 거절하자 왕은 그럼 네 남편이 죽은 후면 듣겠느냐, 도화녀

168 ‘역신’은 항목만 설정되어 있고 내용 서술은 없다.

169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권1, 기이 도화녀 비형랑조에 나오는 이야기로 원문에 도화랑桃花郎으로 잘못 표기되어 도화랑桃花娘으로 바로잡았다.

그렇소이다 대답을 하니 왕이 물려 보내었다. 그러나 진지왕은 재위 4년에 국정이 어지러워 국민國人이 왕을 폐하고 그해 붕崩하였다. 왕이 죽은 지 3년 만에 도화녀의 남편이 또한 병사하였는데 10일 후 도화녀의 방에 죽은 진지왕이 나타나서 선약을 지키라 한다.

도화녀 할 수 없이 왕을 맞아 7일간 동거했던바 오색채령五色彩靈이 방 안에 가득 차며 향기가 돌고 도화녀는 태기를 보이어 옥동자를 낳으니 이름을 비형鼻荊이라 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차대 진평왕이 비형을 궁중에 데려다가 길러서 15세에 집사執事를 시켰던바 밤이면 꼭 어디로 나가는지라 이를 미행케 했더니 월성月城 넘어 황천荒川 언덕에 이르러 못 귀신과 함께 뛰고 노는지라 왕은 비형을 불러들여 “네가 귀신을 데리고 논다 하니 그대로 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신원사神元寺 북쪽 개천에 다리가 없어 곤란하니 귀신을 시켜서 다리를 놓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었다. 그랬더니 비형은 하룻밤 안에 석교石橋를 놓아 이를 귀교鬼橋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평왕 때 정사를 돕던 길달吉達은 비형이 귀신 중에서 왕께 추천한 귀인鬼人이라고 전해지고 있다(『삼국유사』 권1, 비형랑).

호신狐神

조수신鳥獸神¹⁷⁰

ㄷ. 고려시대의 귀신

- ① 천신天神: 2월 15일 등불을 켜서 천신을 제사했다(『해동역사海東釋史』).
- ② 세신歲神: 高麗國東有穴. 號歲神. 常以十月望日迎祭. 謂之八關齋. 禮儀甚盛. 王與妃嬪登樓. 大張樂宴飲. 賈人曳羅爲幕. 至百疋相聯以示富¹⁷¹ …… 云云(『해동역사』송사¹⁷²편).
- ③ 산신山神
- ④ 해동성모海東聖母: 고주몽高朱蒙의 어머니로 목조여상木彫女像이었다.
- ⑤ 용신龍神
- ⑥ 종묘사직신宗廟社稷神
- ⑦ 조선신祖先神

170 ‘호신’과 ‘조수신’은 항목만 설정되어 있고 내용 서술은 없다.

171 이 부분은 『해동역사』 권18, 예지禮志1, 제례 잡사조에 있다. “고려국의 동쪽에는 구멍[穴]이 있는데, 이를 세신歲神이라고 부르며, 항상 10월 보름날이면 세신을 맞이하여 제사 지내는데, 이를 팔관재八關齋라고 이른다. 그 예의禮儀가 아주 성대하여 왕이 비빈妃嬪들과 함께 누에에 올라가 크게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며, 장사치들은 비단을 펼쳐서 장막을 치는데, 1백 필을 서로 잇대어 치기까지 하면서 부를 과시하기도 한다.”

172 원문에는 종사宗史라고 되어 있으나 송사宋史의 오자라 바로잡았다.

ㄹ. 조선의 귀신

조선의 귀신도 신라·고려시대의 귀신이 그대로 전래된 것이 많다. 다만 조선에 와서는 자연신과 인신人神, 민신民神이 모두 수요가 늘고 있다.

① 자연신

사직신社稷神

산악신山嶽神 4악신嶽神: 지리산신, 삼각산신, 송악산신, 비백산신(정평)¹⁷³

칠독신七瀆神

삼해신三海神: 동해신(양양), 남해신(나주), 서해신(풍천)

성황신城隍神

천체신天體神: 영성신靈星神, 노인성신老人星神, 천신, 풍운뇌우신風雲雷雨神, 태백성신太白星神

② 인신人神

전왕신前王神: 삼성사三聖祠, 승령崇靈, 승인崇仁, 승덕崇德의 각전各殿

훈공신勳功神: 민왕閔王, 충민사(忠愍祠, 충무공) 등

③ 교화신教化神

육묘신六廟神, 선농신先農神, 선잠신先蠶神, 사한신司寒神, 마신馬神, 포신誦神

④ 무사귀신無祀鬼神

⑤ 무격귀신巫覡鬼神

삼신三神: 일명 삼신제석三神帝釋으로 단군의 3세世 환인·환웅·왕검의 3신으로 황해 구월산에 삼성사三聖祠가 있음.

시왕十王: 진광대왕秦廣大王, 초강대왕初江大王, 송제대왕宋帝大王, 오관대왕五官大王, 염라대왕閻羅大王, 변성대왕變成大王, 태산대왕泰山大王, 평등대왕平等大王, 도시대왕都市大王, 오전륜대왕五轉輪大王¹⁷⁴

삼불三佛: 불타삼존佛陀三尊

만명신萬明神: 신라 김유신 모친이 사후 전신轉身한 여신

에비대왕(魚鼻大王): 신라 처용이 처한테 덤빈 역신을 방어했다 하여 역신 예방법으로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이는 데서 에비(무섭다는 뜻)대왕이 되어 전래됨.

173 비백산은 함경남도 정평군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 4악의 하나였고, 영조대 백두산이 추가되었다. 원문에는 골백산(骨白山)으로 되어 있으나 비백산(鼻白山)으로 바로잡았다.

174 오전륜대왕은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을 말한다.

베리공주[鉢里公主]: 처용의 처는 전신이 용녀龍女였으나 딸만 일곱을 나 용왕이 서해에 내어다 버렸다는 데서 ‘베린공주’가 베리공주로 변한 것.

성황신城隍神: 각 지방의 수호

대감신大監神: 전내대감殿內大監, 토주대감(土主大監, 지신대감), 수문대감(守門大監, 문신), 왕래대감往來大監, 부군대감府君大監, 군왕대감君王大監, 건립대감建立大監¹⁷⁵, 업왕대감業王大監, 용궁대감(龍宮大監, 수신), 호구대감(戶口大監, 역신), 성주대감(城主大監, 성주신, 종신)

04. 민간신民間神

우리나라에는 위에 보아온 바와 같이 많은 귀신이 있다고 믿어 왔다. 시대에 따라 새 귀신도 생겼고 현 귀신은 없어지고 했으나 이 귀신은 아직도 우리 민간의 교육을 받지 못한 층의 신뢰를 받아오고 있어 위정자는 이의 근멸을 꾀하여 진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내에 아직도 남아 있는 미신은 어떠한가. 이를 종별로 나누어 열거해 보면 그 수의 많음에 아연함을 금할 길이 없다.

가. 일반신

- ① 산신
- ② 수신(물귀신)
- ③ 용왕님(웃물귀신)
- ④ 화신火神
- ⑤ 목신木神
- ⑥ 석신石神
- ⑦ 칠성신(칠성님)
- ⑧ 당수堂樹: 동리신洞里神으로 고목古木에 살고 있다고 믿어진다.
- ⑨ 산신(産神, 삼신할머니): 자녀는 이 삼신할머니가 점지한다고 전해진다.
- ⑩ 업業: 업신은 그 가산의 주로 재물을 맡아보는 신으로 업이 슬며시 나가면 패가敗家를

175 원문에는 건주대감建主大監으로 되어 있는데 건립대왕으로 바로잡았다.

한다.

- ⑪ 성주城主: 터주신이 노하면 패가망신敗家亡身과 인명이 손損을 본다.
- ⑫ 주당: 측신廁神으로 변소에 살고 있다.
- ⑬ 풍신風神: 여신으로 공중에 살고 있어 바람을 맡은 신이다.
- ⑭ 독깨비(도깨비): 도깨비는 키가 크고 패랭이를 썼고 다리가 길뿐더러 천리안을 가졌고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다리는 하나라는 설도 있으니 본군에서는 역시 둘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외다리 도깨비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다. 도깨비는 파란 불을 켜고 다니어 이를 도깨비불이라 하는데 이것은 나무가 썩어서 인隣이 발광하는 것이다.
- ⑮ 당신堂神: 고개 같은 데 당을 짓거나 나무에 각색 형질을 매달은 돌무덤이 있다. 이는 외구外寇를 막기 위하여 언제나 고개에서 석전石戰을 할 수 있도록 돌을 준비시킨 데서 유래한 것인데 특히 임진왜란 때 이를 장려했다고 한다. 이 앞을 지날 때는 돌을 하나 던지고 침을 세 번 뱉으면 귀신이 안 붙는다.

이를 대별하면 민간에서 믿어지는 미신에 2종이 있으니

① 집이 있는 귀신

즉 집 있는 귀신으로는 고총古塚·고성古城·고목古木·고지古池 등 고물古物이 된 데는 반드시 귀신이 생긴다는 것이다. 고옥古屋에는 도깨비 장난이 심하다는 것도 이 예이다.

② 이동하는 귀신

③ 물체가 化해서 된 귀신

이것은 낡은 비, 절구, 심지어 신짚 같은 것도 사람의 선혈鮮血이 묻으면 귀신이 된다고 한다. 이것은 폐물廢物로 잘 이용하거나 못 쓰게 되면 불에 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신이다.

나. 농신農神

본군은 농업지대인 만큼 농신에 관한 관심은 크다. 그래서 농민들은 들에서나 집에서나 농신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다. 밥을 먹기 전에 ‘고시네’를 부르며 음식을 던지는 것은 단군 때 ‘고시高矢’라는 사람이 있어 이 고시 씨가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하여 고시 씨에게 먼저 시식試食케 하는 풍속이다.

이제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는 농신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오곡신 五穀神
- ② 농구신 農具神
- ③ 천곡귀신 天穀鬼神
- ④ 과신 瓜神
- ⑤ 사창신 司倉神
- ⑥ 잠신 蠶神
- ⑦ 전신 田神·답신 畝神
- ⑧ 풍신 風神
- ⑨ 토신 土神
- ⑩ 방위신 方位神
- ⑪ 우신 雨神

다. 역신 疫神

- ① 호구별성신 戶口別星神: 다 잘 먹이면 물러난다. 역신의 일종이다.
- ② 염병별신 染病別神: 탐미식 貪美食·우두 牛頭를 무서워한다. 예성 銳聲·약 藥내를 싫어한다. 공화병 恐火病이 있는 주부 呪符, 소금섬을 두려워한다. 목화씨 타는 내를 싫어한다.
- ③ 두창신 痘瘡神: 마마귀신. 향응 嚮應을 즐기고 빨래·살생·바느질 등을 하면 대로 大怒한다. 팔밥을 즐긴다. 음행 淫行·불유 不遊·욕설을 싫어하고 수수팔떡을 좋아하는데 만일 치료를 하면 대로한다.
- ④ 광역신 狂疫神: 복숭아 나뭇가지를 싫어한다. 죽침 竹針을 두려워한다.
- ⑤ 호역신 虎疫神: 가시를 싫어한다.
- ⑥ 요역신 療疫神: 청수 淸水와 기도 祈禱를 바란다.
- ⑦ 학질귀신 虐疾鬼神: 놀래는 것을 싫어한다. 쓴 것, 뱀을 두려워한다.

이상의 귀신에 접했을 때는 그 성질에 따라서 향응한다.

05. 미신화한 신앙

이러한 민족신앙은 무지한 사람들로 해서 미신화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면목을 손상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일체의 병도 귀신의 장난이라고 믿고 있으며 병에는 약보다도 ‘푸닥거리’를 해서 귀신의 입을 틀어막거나 ‘굿’을 해서 귀신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류¹⁷⁶는 우리 민족이 무의식적으로 범하고도 있으니 발병하면 병이 ‘생겼다’ 하지 않고 병이 ‘들었다’ 하며 감기도 ‘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도 결국 오랜 관습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국정부^{民國政府}에서 각 말단 행정관에게 미신타파를 지시하고 말단에서는 독자적인 근멸책^{根滅策}을 강구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면 현행되는 미신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것을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가. 구타법^{毆打法}

주로 정신병자에게 사용하고 있으니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병자를 결박해서 달아매고 때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귀신은 복숭아 가지를 가장 무서워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요 동쪽 가지라야 한다 함은 동쪽에 있는 가지가 음양설로 보아서 가장 ‘양^陽’이기 때문에 위력이 있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 구타는 형식적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치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구타하는 것인데 정신병자가 “다신 안 그린다.” 이렇게 항복을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사죄를 하면 귀신이 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죄할 때까지 구타하는 것이다. 정신병자에게 그런 의식이 돌아올 리 없으니 결국 구타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일도 많다.

구타용의 나무로서 버들 몽둥이를 쓰기도 한다. 이는 신라 33대 성덕왕 때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순정공^{純貞公}¹⁷⁷의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동해의 해룡이 뛰어나와 부인을 끌어 들여 갔으나 한 노옹^{老翁}이 버들가지로 해변을 치고 주문을 외어 탈환했다는 설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176 과류: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177 원문에는 순원공^{純貞公}으로 되어 있으나 『삼국유사』 권2, 기이 수로부인조를 참고하여 순정공^{純貞公}으로 바로잡았다.

나. 경겁법驚怯法

놀래켜 병을 쫓는다는 것인데 학질虐疾에 주로 쓰여진다. 귀신이란 천성이 약자한테만 강했지 강자한테는 맥도 못 쓰게 약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질 귀신은 비겁하기 짝이 없어 반드시 사람이 잘 때만 덤비는 귀신이니까 몹시 놀래켜 주면 ‘흔비백산魂飛魄散’해서 학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그 예를 들어보면 ① 뱀 허물을 주어다가 목에 걸쳐주고 뱀 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② 약방에 의사를 보러간다고 데리고 나가서 공동묘지 앞으로 간다. 미리 한 사람이 공동묘지에 엎드렸다가 귀신 행세를 하면 같이 간 사람이 귀신이라고 소리를 치고 집으로 들고 된다. 이 통에 환자가 놀라면 병이 나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되도록 밤을 이용한다. 소와 입을 맞추면 학질은 떨어진다. ③ 등에다 ‘염라대왕전령閻羅大王傳令’, ‘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 ‘경찰서장관인警察署長官印(전에는 원의 官印 모형)’ 등을 써 붙이면 역귀가 놀라서 달아나고, ④ 약을 발라준다고 입가에 아무것이나 바르고 똥을 발랐다고 환자를 놀래면 토하고 야단을 한다. 그러면 추귀追鬼가 되고 등등 어떻게 하든지 환자를 놀래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다. 불뜸질법

귀신은 음이기 때문에 양을 두려워한다. 더욱이 불을 무서워하므로 화공법火攻法을 쓴다. 이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일—은 직접 접신接神한 물건을 태우는 것과 연기로만 위협하는 것이다.

라. 화공법火攻法

- ① 전염병(호역虎疫·염병·홍막염·법정전염병)에는 환자집 변소에 불을 방화한다. 이는 병균을 전염시키지 않기 때문이니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다.
- ② 타동他洞 혹은 인가隣家에 전염병이 침입하면 자동自洞, 자가 변소나 빈집에 방화한다. 그러면 역신이 침범치 않는다.
- ③ 정월 초사일初巳日에 짚을 주위에 둘러놓고 방防하면 1년간 뱀·병마·액운이 불가침이라고 한다.

마. 연공법煙攻法

- ① 음 병에는 훈爇을 하고 학질에는 집에 굴러다니는 헌 짚신을 태운 연기를 코에다 쏘이고 또 동병同病에 자배기를 머리에 씌우고 쑥을 태우면 추귀법追鬼法이 되고
- ② 전염병 내침 시에는 목화씨를 태우며 엽병에는 고추씨를 문전에나 동구洞口에 태우고 전염병 유행 시에 우두牛頭·가시나무·마늘 등을 문전에서 태우거나 문전에 걸어두고 또 매장한 시체의 모발을 태운다.

바. 자상요법刺傷療法

- ① 안질眼疾에는 조조早朝 환자 얼굴을 동면東面한 벽에 그리고 앓는 쪽 눈에 송곳을 찌르면 낫고, 또 삼신일목어三身一目魚의 그림을 대문 기둥에 붙이고 눈에 못이나 송곳을 박고 “여자삼신일목어汝自三身一目魚, 일목유난황유침一目有難況有針, 오금발거여목침吾今拔去汝目針”¹⁷⁸이라고 쓴다.

또 나무에다 얼굴을 그리어 붙이고 질안疾眼에 (좌면 좌, 우면 우) 못을 박고 ‘천하태평춘天下太平春’이라 쓰고 생년월일을 쓴다.

- ② 학질·정신병·엽병 등에 고분古墳에다 칼 혹은 송곳을 꽂고 주문을 읽 다음 “내 병을 안고쳐주면 이걸 안 빼줄테니 그런 줄 알라” 호령을 하고 침을 세 번 빨고서 뒤를 돌아다보지 않아야 하며 학질이 심한 때는 삼거리 중앙에 서서 그림자를 그리고 그림자 두부에다 여자는 칼, 남자는 낫을 꽂아 두면 되고, 짝사랑에 성공하려면 상대방 이름을 쓴 종이를 여자는 버선목에, 남자는 토시 속에 넣고 꿰매면 반드시 성공하고, 이것이 발전해서 짚으로 사람을 만들어 의복을 입혀 안질에는 눈에 못을 박아버리기도 하고 괴질인 때는 목을 잘라버리며, 또 이것이 좀 더 적극성을 띤 것으로 정말 인체를 묶어 산에다 누이고 낮으로 새끼를 꿇으며(학질·괴질 등) “이놈 이래도 못 물러날 테냐”하고 땅을 세 번 발로 구르고 세 번 침을 빨고 그 자리에 낫을 꽂아 두는 법이 생기었고 그것이 다시 환부에서 출혈케 하는 구술灸術¹⁷⁹로 발전한 것이다.

178 “너는 본래 몸 셋에 눈 하나뿐인 물고기인데, 한 개뿐인 눈에 하물며 침까지 찔렸네. 너의 눈의 침을 내가 지금 빼주겠다.”라고 번역된다.

179 구술: 뜸으로 병을 고치는 일.

사. 포신捕神·송신送神

이는 귀신을 남에게로 전송하거나 잡아 매장하는 법이니 송신법에는 주로 학질, 기타 전염병에 쓰이는데 도엽桃葉 21매(혹은 3매)를 종이에 싸서 곁에다 이쪽 생년월일을 ‘모년모월모일생 모병 속거천리某年某月某日生 某病 速去千里’라 쓰고 또 이를 봉통封筒에 넣어서 ‘모생원택 입납某生員宅入納¹⁸⁰’이라 써서 버드나무에다 걸기도 하고 곁에다 버린다. 그러면 그것을 집어 본 사람이 그 병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며, 포신법은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 또는 위독하게 된 때 성주대감·용궁대감 등 11대감신(신앙 귀신조 참조)의 이름을 온 집안에 써 붙이고서 3·5·7·9일간 기수일간奇數日間에 주문을 외면서 차례차례 그 대감신을 병에다 잡아넣고 아가리를 밀봉한 후 새끼로 묶어서 매장을 하는 것이다. 병은 이 11대감신의 소치所致이니까 완쾌된다는 것이다.

아. 공물供物·기도

귀신의 특성은 공물을 좋아하고 치성을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한다는 것이니 이는 공물은 모두 무녀巫女·기도사祈禱師의 소유로 되기 때문이다. 귀신이 공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부리는 무당이 공물을 특히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웬만한 병에는 약보다 먼저 푸닥거리라 하여 기물법棄物法을 써본다. 이 푸닥거리는 병의 여하를 막론하고 발병 2기쯤에 쓰이는 법인데 먼저 죽을 쑤어 환자 머리맡에서 생년월일을 고하고 병세를 아뢰고 칼로 환자의 머리를 세 번 뜯고(혹 뜯는 체하고) 침을 세 번 뱉게 하여 내어다 버리는데 “모모대주某某垓主의 병아 썩 물러나거라” 하며 죽과 칼을 한꺼번에 내던진다. 만일 칼끝이 집 쪽으로 앞이 오면 재삼 되풀이하여 칼끝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열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경經이니 굶은 이 푸닥거리를 대규모로 하는 것인데 병이 낫자면 병자의 귀신에 대한 정성 여하로 그 지속이 결정되는 것이라 하여 가급적 많이 차리게 한다. 이 귀신은 전지전능해서 그 집 자산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집 자산에 비해서 소홀하면 되레 대로하는 법이라 형편에 따라서 제물뿐 아니라 의복도 요하고 돈·쌀·필묵까지 귀신이 바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의 사자(무당·판수·점쟁이 등)는 소리소리 지르며 “어어 정성이 부족하구나. 정성이

180 입납入納은 삼가 편지를 드린다는 뜻으로 봉투에 쓰는 말이다. ‘모생원택 입납’은 모생원택에 삼가 편지를 드린다는 뜻이다.

부족해. 너의 집 3층장에 쌓아둔 명주는 칠성맺기에 쓰러느냐. 상엿줄에다 쓰러느냐. 썩씩 나서서 아될지어다.” 하고 고향을 치는 것이다.

이 귀신은 그 수요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니 아무리 미숙한 선무당이라도 귀신명(鬼神名)의 30, 40은 외고 있어야 한다. 이제 나이 30에 집힌 선무당이 최소한 알아야만 행세를 하는 귀신명만 들어본대도 목신(木神), 지신(地神), 부모형제신, 산귀(産鬼), 방신(자축인묘의 방위귀신), 칠성신, 굶어 죽은 귀신, 객사귀, 친위노귀(親戚老鬼), 석류귀(石榴鬼), 여귀(女鬼), 원사여귀(冤死女鬼), 토지가귀(土地家鬼), 성혼(成婚) 못한 몽달귀, 수화귀(水火鬼), 가신, 정신인귀(井神引鬼), 불장귀(不葬鬼) …….

이렇듯 허다한 귀신이 있고 자손 없는 무자귀(無子鬼)에 갑을일병귀(甲乙日病鬼)인 기천보(奇千甫)며 술일병귀(戌日病鬼)인 천적귀(天赤鬼)에, 해일병귀(亥日病鬼)인 각노귀(却老鬼) 등 날에 따라서 따로 있고 익사한 물귀신에, 노목(老木)에는 목귀가 있고 돌에는 석신이 있으며 생목(生木)을 쓰면 사귀(邪鬼)가 붙고 노구(老狗)에 구신(狗神)이며 같은 병이라도 일(日)과 향(向)에 따라서 모두 귀신이 다르니 예를 들면 자일(子日)에 북방 음식에는 천적귀(天賊鬼)가 붙어오고 축일(丑日)에 유방제석(西方帝釋)을 노케 하거나(예: 못을 박아서 큰소리를 내는 등) 동방에서 오는 재물 음식에는 천강귀(天剛鬼)가 붙어오고 인일(寅日)에 대세방(大歲方)을 밟거나 (흙을 써도) 고목으로 부엌을 고치면 동노귀(同奴鬼)가 대로하는 등 이루 헤아릴 길이 없다.

이를 또 귀신의 용모와 퇴치법을 들어보면

자일병신(子日病神): 천적(天賊), 적면(赤面), 흑설(黑舌), 청귀(靑鬼)

축일병신(丑日病神): 천강(天剛), 일수(一手), 이족(二足), 청귀

인일병신(寅日病神): 동노(同奴), 무목(無目), 적면, 청귀

묘일병신(卯日病神): 의광(儀光), 적면, 철치(鐵齒), 유각(有角), 유미(有尾), 청귀

진일병신(辰日病神): 백련(白蓮), 적면, 청의(靑衣)

사일병신(巳日病神): 장량(長良, 일명(天干)), 적면, 황귀(黃鬼)

오일병신(午日病神): 백명(百明), 유각(有角), 황면(黃面), 적귀(赤鬼)

미일병신(未日病神): 일수, 일족(一足), 유양익(有兩翼)

신일병신(申日病神): 동룡(東龍), 인신어수(人身魚首), 이익(耳翼), 이농(耳聾)

유일병신(酉日病神): 소랑(小郎), 적면, 청귀

술일병신(戌日病神): 천적(天赤), 적귀

해일병신(亥日病神): 각로(却老), 황적면신(黃赤面神), 궁(弓)의 명귀(名鬼)

자. 기타

그러나 이를 다 열거할 수는 없기로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보기로 한다.

- ① 두창痘瘡: 두신痘神에의 향응, 병실 출입 시는 자기 성명姓名을 대성大聲으로 고함. 소안笑顏 미의美衣·미식美食을 전폐하고 호신護身·기험구忌險口·기살생忌殺生·불타정不打釘·기약취忌藥臭·성생활 엄금
- ② 부적법符籍法¹⁸¹: 부적에는 60여 종이 있으니 용법이 다 다르다. 붙이는 장소도 병에 따라서 다르고 의복에도 바지저고리·두루마기·모자 속, 다 다르고 대문·벽·나무·불에 살라서 재를 물에 타서 마시는 법(예: 염병귀는 부적을 무서워하므로 천天자를 위에 일렬로 3자 쓰고 그 밑에 귀鬼자를 주서朱書한 부적을 문전에 붙이고 또 ‘관운장의막關雲長依幕¹⁸²’이라 주서朱書)
- ③ 두창 유행 시에는 아이들 허리끈에 열쇠 꾸러미를 채우고 또 각성받이 열 집의 쌀로 떡을 해서 먹이고 또 개 피를 문에 칠하고, 염병에는 동네 21호에서 쌀을 얻어다가 떡을 해서 제 나이대로 먹이고 악질 유행 시에는 빈 병을 문전에 매어 달면 귀신은 병에 가두는 것을 싫어하니까 불가침. 병가病家에 출입 시에는 좌수左手에 병病자를 쓰고 들어가면 예방이 된다.
- ④ 음식으로 약을 삼는 법: 이는 비교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감 체滯에 저육猪肉, 저육 체에 감, 홍역에 가재즙 또는 토끼똥, 체병滯病에 닭의 똥 볶은 물, 보양補陽에 소아노 음용, 적리赤痢에 마늘 다량 또는 매운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고 구체舊滯에 조조생밀早朝生蜜 1시(匙, 숟가락)씩 복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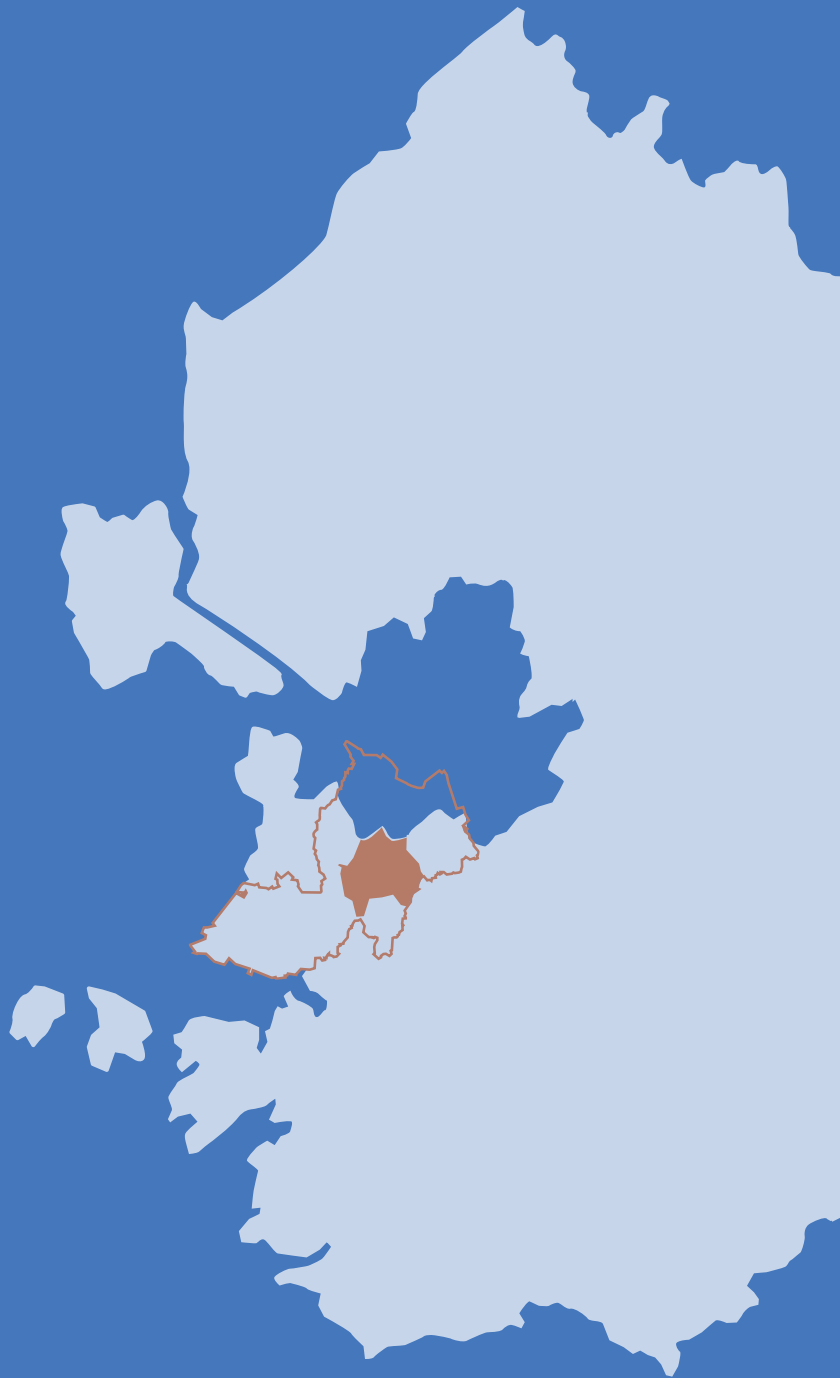
181 원문에는 부울법符聯法으로 되어 있는데, 부적법符籍法으로 바로잡았다.

182 관운장의막: 관운장은『삼국지연의』의 영웅 관우關羽를 말하며, 의막은 막사로 쓰는 천막이나 장막이라는 뜻으로, 임시로 거처하게 된 곳을 이른다.

⑤ 색과 음향으로 제액하는 법이 있으니 귀신은 적색을 가장 두려워한다 해서 전염병 유행 시에는 의복에 적색 칠을 한다든가 의복 안에 적색 포를 대어두면 화귀(火鬼)를 퇴치하여 그 옷을 입는 동안은 화상을 면하고 경을 읽고 굿을 할 때 금속성 음향을 몹시 내면 귀신이 겁을 낸다고 믿는 것이며 소에 방울 다는 것은 도적 방지에는 뜻이 있지 만 악역신(惡疫神)이 소에 범접치 못하게 함이라 하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미신은 교육의 보급과 계몽으로 인하여 날로 쇠퇴되고 있는 중이다.

제7편 **고적 · 명승**



제1장

고적古蹟

1. 사화史話

가. 영회원永懷園 애화哀話

본군 서면西面 노온사리老溫寺里에 영회원이라는 능이 있다. 온신국민학교에서 동남 약 1500미(米, m) 지점으로 영회원, 속칭 아왕릉兒王陵이라고도 한다.

이 아왕릉은 이조 제16대 인조대왕仁祖大王의 소현세자昭顯世子 왕淮의 배우配偶 소현빈昭顯嬪의 묘소이니 소현빈은 여조麗朝의 공신이요 그 용명勇名을 중대륙中大陸에 떨치게 한 강감찬사姜邯贊師의 19대 손녀가 된다.

인조라면 내외의 난을 가장 많이 겪은 세대니 인조반정仁祖反正의 공신인 이괄李适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평안도 영변에서 기병,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하여 올라와서 인조는 할 수 없이 공주로 몽진을 했고 도원수 장만張晩, 부원수 정충신鄭忠信 등이 안현鞍峴에서 반군을 반격하고서야 궁중에 돌아왔으니 이것이 이 이괄 난을 위시하여 중국의 명·청 사이에 끼어 조정에는 언제나 수색愁色이 떠돌았다.

즉 지금까지의 인조 조정은 명과 접근하여 신의를 지켜야 할 경우인데 갑자기 청의 신세력이 대두하여 명·청 어떤 쪽에 국교를 여느냐에 고민했던 것이다. 이 또한 소국의 비애

이었으나 명에 접근하면 청이 질시하고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신의를 버리고 청에 가세할 수 없었으니 이 고민은 명·청의 충돌로 더욱 난국에 이르렀다.

이 명·청 양국 간을 교묘히 조종한 것이 인조 2년에 돌발한 이괄난李适亂 평정의 공로자인 임경업林慶業이다. 그러나 명·청의 알력은 드디어 인조 조정에 미쳤으니 이것이 병자호란丙子胡亂이다. 병자호란으로 인조와 소현세자를 비롯하여 제2, 제3의 3세자三世子和 문무제신이 청조에 인질로서 납거拉去되었다. 이를 구출하는 데 임경업 장군의 공이 컸거니와 일단 세자들을 석방하면서 청제淸帝는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느라고 마음도 외로웠을 것이니 무엇이든지 소원을 한 가지씩 청하면 짐이 이에 응하리라.” 하였다. 제1세자인 소현세자는 청제가 애용하고 있던 용연龍硯을 청하여 이를 받아들였고 제2, 제3세자는 “우리 3세자만 홀로이 고국에 돌아갈 수 없사오니 원컨대는 우리 세자들과 함께 귀국에 온 남녀 전부의 우리 국민도 동행하여 귀국치 않으면 부주父主께서 마음이 괴로우리이다.” 하고 납치된 전원의 무사 석방을 요청하였다.

제2, 3세자의 이 말에 청제도 난색을 보이었다. 청신들의 반대도 있었거니와 청제 자신 전원 석방의 의사는 갖고 있지 않았던 터라 잠시 말이 없다. 다시 나아가 “부주께서는 저의 세자만의 귀국을 기뻐하시기보다 오히려 슬퍼하실지니 원컨대 전원 동도同道케 하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자 청제도 세자들의 말에 깊이 감동되어 이를 승낙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세자들은 납송되었던 전원과 함께 귀국을 하였다. 인조는 이 전말을 신하들에게서 듣고 제2, 3세자를 깊이 칭송하고 제1세자인 소현세자를 불러 앉게 하시고 “너는 아비에게 욕을 끼쳤을 뿐 아니라 나라의 위신을 상함이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대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벼루에게 목숨을 바치어 아비와 신과 민에게 사죄함이 가하니라.” 하며 청제에게서 받은 용연으로 세자의 안면을 치니 세자는 그 즉석에서 혼도昏到·절명絶命되었다.

이 비운을 당한 세자빈 강씨는 누구를 원망할 길도 없이 쓸쓸히 시부주媿父主 인조를 효성으로써 받들어 궁내에서도 그 현숙함에 칭화稱話가 자자했고 인조도 그를 몹시 아끼던 중 어떤 간신이 있어 참조하기를 “세자빈에 음사淫事가 있사오니 조정에 욕됨이 이보다 더

클 수 없사외다.” 하는지라 인조 또한 이 참소를 믿고 병술년¹⁸³에 강씨에게 사약을 내리었다. “빈은 살아서 효를 다함도 자식의 도리웁고 죽음을 받자옴도 효의 하나이오니 기꺼이 약을 받겠나이다.” 하고 사약을 받았다.

이리하여 빈은 죽음과 함께 서민으로 낙적^{落籍}되어 오늘의 본군 서면에 매장되니 이것이 영회원의 유래이다. 간신의 참소로 무고히 원사^{怨死}한 소현자세빈 능은 40여 년간 한 서민의 무덤으로서 나라에서는 돌봄이 없었으나 빈의 억울함을 아는 사람들은 눈물로서 이 초라한 묘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40년 후 19대 숙종조에 이르러 빈의 무죄임이 드러나서 동 무술년¹⁸⁴에 서민에서 다시 세자빈으로 복위되고 민회묘^{愍懷墓}라 진존^{進尊}된 것을 경오년¹⁸⁵에 다시 지금 이름인 영회원으로 개칭된 것이다.

이 일대에는 노송이 울림^{鬱林}을 이루어 그윽한 능의 분위기를 자아주었으나 일제 말기의 소위 긴급 벌채^{伐採}와 해방 후 마음 없는 사람들의 도람^{盜濫} 벌채로 지금은 썩의 몸도 숨겨 주지 못하는 치송^{稚松}만이 남아 동그란 묘두^{墓頭}가 더욱 초라하고 추워 보인다.

도벌^{盜伐}만 없다면 앞으로 반세기 후에는 다시 백금천조^{百禽千鳥}가 소현세자빈의 원혼을 조상^{吊喪}해 주게 될 것이다.

나. 망경대^{望京臺}¹⁸⁶

본군 과천면^{果川面} 막계리^{莫溪里}에는 명악 관악과 마주 선 청계산^{淸溪山}이 있다. 청계산의 고명^{古名}은 청룡산^{靑龍山}으로 이 산정에서 청룡이 승천했다고 전한 데서 생긴 이름이다. 산중에 고찰이 있으니 여조^{麗朝} 말기의 중신으로 박학으로 이름이 높던 이색^{李穡}이 “빙설단에 임야계^{氷雪斷崖臨野谿}, 단좌남창독주역^{端坐南窓讀周易}”¹⁸⁷이라고 읊은 바로 그 청계산사^{淸溪山寺}이다.

이 산정이 석대^{石臺}가 하나 있으니 이 석대가 바로 망경대다. 망경은 원래 만경^{萬景}이라 하여 산정석대^{山頂石臺}에 오르면 안하^{眼下}에 만경이 전개된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 있으나 여말을 지나 이태조의 이씨왕조가 반도에 군림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갈갈이 찢어진 의복에 그야말로 죽장망혜^{竹杖芒鞋}, 대지팡이와 짚신)의 초라한 선비 하나가 이 만경대에 오른 후

183 병술년은 1646년(인조 24)이다.

184 무술년은 1718년(숙종 44)이다.

185 경오년은 1870년(고종 7)이다.

186 망경대: 원문에는 망천대^{望泉臺}로 나오나 본문 내용과 조선시대 일부 사서와 야사를 참고하여 망경대^{望京臺}로 수정하였다. 『일성록』 정조 8년 윤3월 1일 기사 참조.

187 이 시는 이색의 문집인 『목은집^{穆稷集}』 제6권에 실린 「청룡산^{靑龍山}」의 일부이다. 『금천지』 원문에는 ‘빙설^{氷雪}’이 ‘설수^{雪水}’로, ‘남창^{南窓}’이 ‘남질^{南室}’로 되어 있으나 오자로 보아 바로잡았다. 뜻은 “빙설 쌓인 절벽은 들 계곡을 임했는데, 남창 아래 단정히 앉아 주역을 읽는다.”이다.

로는 만경이 망경으로 이름까지 바뀌었으니 이 행색이 초라한 선비야말로 여조의 최후를 몸소 겪고 여경 麗京 송도 松都를 탈출하여 망명의 길을 떠났던 여조 중신의 한 사람인 조윤(趙胤, 獮으로 개명) 바로 그 사람이었다.

조윤(조견)은 이색·김진양 金震陽·윤충보 尹忠輔·이집 李集·원천석 元天錫·길재 吉再 등과 함께 여조를 빛내던 명유요 중신으로 두문동 杜門洞 72인 중의 1인이었으니 여신 麗臣으로서 이조의 공신이 된 조준 趙浚의 실제 實弟이기도 하다.

여신이던 이태조가 여조의 충신 포은 정몽주 鄭夢周를 선죽교에서 혈제 血祭를 지내고 고려 왕조를 차고앉자 지금까지 여조에 충성을 다하던 명신들은 저 신라시대부터 깊이 뿌리 박힌 “열녀는 이부 二父를 섬기지 않고 군신은 이군 二君을 불임 不任한다.”를 부르짖고 일어났으니 먼저 청계사에 들었던 이색을 위시하여 조윤·길재 등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리되고 보니 이태조 이성계는 숙망 宿望을 이루어 왕위에는 올랐으나 신하 없는 왕이었고 민이 따르지 않는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태조 앞에는 정도전 鄭道傳·조준·배극렴 裴克廉 등의 반신 叛臣 몇이 따를 뿐이었다. 문무의 명신들은 동·서 두문동으로 샷갯을 쓰고 사라지고 백성들은 반신 이성계를 욕하며 철시 撤市를 하고 여경 송도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다. 망연실색한 이태조는 포은을 죽인 것을 후회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포은의 모살 謀殺은 정도전의 발안 發案이었으니 모신 謀臣은 역시 모신으로 끝막았다. 이조 초창 이래 처음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도 실로 정도전이다.

즉 정도전은 태조의 제2비 신덕왕후 神德王后 강씨의 소생인 의안군 宜安君 방석 芳碩을 세자로 봉하고자 1비 신의왕후 神懿王后¹⁸⁸ 한씨의 소생인 제 왕자를 모살하려다가 발각이 되어 정안대군(靖安大君, 후에 태종)에게 복주 伏誅되었으니 이것이 곧 이조 제1차 난인 정도전난이다.

이는 여담이고 정도전은 궁여지책으로 시과 試科로서 인재를 구하기로 하고 널리 과거통 문 科 學 通 文을 냈으나 문무양과 文 武 兩 科에 응시한 것은 시골뜨기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여신 麗臣의 뒤를 쫓았으나 하나도 따르려 하지 않는다.

이색이 초청을 받았다. 이색이 궁에 들자 이태조는 친히 나아가 맞아들이었으나 다시 왕좌에 오르는 것을 본 이색은 “구정 舊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찾음이요, 형에게 신도 臣道를 다하려 찾았음은 아니노라.” 한마디를 남기고 물러났고 명신 길재는 이조에서 바치는 ‘박사 博士’호도 물리치고 입궁 入宮도 않은 채 양모차 養母次 입산한다는 편지만 전하고 또 사라졌다. 김자수 金自粹 또한 5, 6차의 초청에 못 이기어 사당에 들어 최후를 고향하고 음독자살로

188 원문의 신의왕후 神懿王后 한씨는 신의왕후 神懿王后 한씨의 오자이므로 바로잡았다.

서 이태조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마지막 불린 것이 바로 조윤이었으니 조윤은 자기의 이름이 이조 공신록(功臣錄)에 오른 것을 보고 실소하며 “이는 형 조준이 아우를 아낌이 아니라 아우를 욕함이 크외다.” 하고 이태조에 붙은 형을 조롱하고서 이태조가 준 호조전서(戶曹典書) 벼슬을 반환하였다. 그리고는 이름 ‘윤胤’을 ‘견猶’¹⁸⁹으로 고치고 자(字)를 ‘종견(從犬)’이라 했으니 나라와 임금을 잃고도 죽지 못하니 ‘개와 같다 함이었다.

“아우 조종견은 물러가오. 형은 역신의 영화를 길이길이 누리시오.” 이렇게 형과 이씨왕조를 버린 조윤, 아니 조견은 양(楊)·광주(廣州)의 깊은 산을 찾아 해매이기 수삭(數朔), 봉에서 봉으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계견(鷄犬)의 소리를 피하여 다니다가 어느 높은 봉에 오르니 이것이 바로 청계산정이었다.

산정에서 굽어보니 때마침 단풍이 한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경치라도 나라와 임금을 잃고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조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는 못했으니 멀리 송경(松京)에 사무친 정은 통곡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는 오직 나라를 잃고 임금을 잃고도 죽지 못하는 자기가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아 내 어찌 죽지 못하노.” 이렇게 서울 송도(松都)를 바라보며 울고 울다 쓰러져 자고 하기를 또 수삭, 이를 전해 들은 사람들도 조윤의 슬픔에 동정하여 만경대(萬景臺)를 망경대(望京臺)라 부르게 되었다.

조윤이 청계산정에 들었다는 소문을 전해 들은 이태조는 그의 충절에 깊이 감동하고 이 충절을 이씨왕조로 돌려 보기로 친히 청계산으로 조윤을 찾아 왕조로 돌아오기를 권하기 수차 했으나 조윤은 멀리 송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뿐 일언반사(一言半辭)가 없다.

이에 조윤의 마음을 굽힐 수 없음을 깨달은 태조는 “우리 왕조에는 역신이나 그 뜻 장한 지고.” 한마디를 남기고 쓸쓸히 돌아갔다. 돌아가서는 그대로 조윤을 못 잊어 산정에 초막을 이리하여 우로(雨露)를 피하게 하였으나 조윤은 그 초막이 보기 싫다 하여 또다시 청계산정을 떠나 양주 깊은 산으로 발을 옮기었다. 이 초막이 있던 자리가 오늘의 망경대다.

망경대는 본군 과천에서 약 2시간에 오를 수 있으니 만경(萬景)의 이름이 있었더니만큼 안하에 부감되는 전망(展望) 절승(絶勝)이지만 국토의 반을 잃은 오늘날 우리의 슬픔도 멀리 5백년 전의 조윤의 슬픔만 못지않은지라 이 산에 오르면 멀리 38선 이북에 잃어버린 국토에 대한 애정이 새롭다. 만경이 망경이 될 줄은 조윤도 알았겠지만 5백년 후 우리가 그 망경대에서 ‘망북(望北)’의 슬픔을 읊조릴 줄은 조윤도 몰랐으리라.

189 견: 원문에는 견차(犬)로 되어있으나 견책(犬)으로 바로 잡았다.

대남臺南에 있는 사찰이 청계사淸溪寺니 관악의 연주戀主·삼막三幕과 사사寺史를 같이하는 1300여 년 전의 고찰이다. 이색과 조운이 나라 잃은 슬픔을 잊고져 『주역』을 읽던 창窓도 아직 남아 있을 것이다.

다. 남태령南泰嶺

노량진鰲梁津에서 흑석동黑石洞을 지나 들고나고 한 한강안漢江岸을 조망하며 동작동 이수교梨水橋를 우편右便으로 돌아가면 승방평僧房坪 석굴암에 이른다. 여기서 다시 약 6천(軒, km) 도보로 전진하면 큰 고개 하나가 나선다. 이 고개가 남태령이다.

남태령은 옛날부터 여우가 많다 하여 ‘여우고개’라 일러오더니 정조가 부왕의 능을 수원 화산華山에 정하고 그 첫 천련遷蓮에 이 여우고개에서 잠시 쉬시게 되었을 때 일 촌로村老에게 고개이름을 물으시니 “남태령이라 하옵나이다.” 하고 즉석에서 이름을 고치어 아뢰었다. 정조대왕은 이 고개가 여우고개란 말은 듣기도 했으려니와 일찍이 고려조의 공신 이요 명장으로 알려진 강감찬이 이 고개를 지나다가 너무도 여우의 장난이 심함으로 대성大聲 호령을 하고 “다시 이 고개에 근접을 하는 날이면 너의 족속은 멸종을 할 줄 알라.” 크게 꾸짖은 후로는 다시는 여우가 출몰을 았았다는 전설을 듣기도 했던지라 효심도 극진하지만 인자하기로 유명한 정조도 그 께씸함을 참지 못하시고 “너 어찌 거짓 이름을 대었노? 그 죄 죽어도 마땅할지니라.” 크게 꾸짖으시었다. 촌로[변모邊某라고만 전해지고 있다]는 엎드려 죄를 기다리는데, 정조 거짓 이름을 댄 사유를 물으신다.

“죽을 때가 되느라고 그랬사옵니다. 이 고개는 원래 여우고개오나 상감께 그런 상스러운 이름을 알려 올림이 황송하옵기로 생각나는 대로 아뢰었사오.” “그러면 어째서 하필 남태령이고?” “다름이 아니오라 이 고개가 서울서 남쪽으로 오면서 맨 처음 큰 고개이옵기 그리 아뢰었나이다.”

이 답주答奏에 정조도 노염을 푸시고, 촌로를 가상하여 주지周知 벼슬을 내리시며 금후로는 이 고개를 남태령이라 부르도록 특명을 내리시었다.

이 변씨는 과천면에 살던 사람이라 전해지며 변씨 일족이 아직도 남태령 부근에 살고 있다고 한다. 있음직도 한 이야기지만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02. 고적

가. 낙성대落星臺

본군 동면東面 봉천리奉天里에 탑동塔洞이라는 조그만 부락이 있다. 이 부락 한 중앙에 다 쓰러져가는 5칸 초가의 마당 한구석에 사리탑식의 일 석탑이 있으니 탑동이란 동명도 이 탑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하다. 대석臺石도 뒤틀리고 입석笠石도 떨어져 있어 일견 무명탑처럼 초췌하나 탑 전면에 보면 ‘강감찬姜邯贊 낙성대落星臺’라 석각이 되어 있다.

이 초라한 석탑이야말로 본군의 출생인 여조의 저 유명한 공신이요 거란의 40만 대군을 한칼로 무찔러 국위를 중대륙에 떨치게 한 명장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룩된 탑인 것이다. ‘낙성落星’이라는 자의로 보면 인헌공仁憲公 강감찬의 출생지가 아니라 사물지死沒地라고도 해석이 되나, 사기史記에 “야입시흥군夜入始興郡, 견대성운우인가見大星隕于人家, 견리왕시지遣吏往視之, 적기가부생남適其家婦生男, 사신심이지使臣心異之, 취귀이양取歸以養”¹⁹⁰이라 한 것을 보면 강공의 출생지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 전하는 ‘견대성운우인가見大星隕于人家’의 일설은 공의 위엄과 출생의 역사를 좀더 신비화하고 우상화하려는 우리네 조상들의 상벽常癖으로 볼 수 있으니 단군 탄생의 신화와 기타 신라·백제·고구려의 삼국 시조를 위시한 위인과 명장에는 반드시 이러한 유의 신비화를 꾀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신비화 사실만을 음거陰去한다면 이 탑의 자리가 강감찬 공에 탄생지인 것만큼 사실일 것이니 강공의 위인이 초췌하고 왜구단신이라는 점은 반드시 그의 위풍만을 말함이 아니라 가빈家貧하여 삼간초가에서 출생했던 것도 상징한 바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보니 ‘취귀이양取歸以養’이라는 설도 믿기 어려운 바이요, 고려 창건의 공신 궁진弓珍의 자子라 함도 궁진이 무자無子하여 공을 양자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지 않는 바 아니다.

그는 어쨌든 강감찬 공은 고려 제3대 정종(단기 3279, 서기 946, 재위 4년) 제3년(단기 3281, 서기 948) 현 본군인 금천衿川에서 출생하여 6대 성종조에 갑과 제1에 발탁되어 문관으로서 출세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과거제도를 시작한 것이 고려 4대 광종 9년이니 강공이 12세 때이다.

190 이 내용은 『고려사절요』 권지3, 현종조 기사에 나온다. 끝부분의 ‘취귀이양取歸以養’이 『금천지』에는 ‘취귀이양取歸以養’으로 나오나 『고려사절요』에 의거 바로잡았다. “밤에 시흥군始興郡에 들어갔는데 큰 별이 인가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전(僕)을 보내어 가 보도록 하였다. 마침 그 집 부인이 사내아이를 낳았기에 사신이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겨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서 길렀다.”

공은 원래 체구가 왜추矮醜할뿐더러 외모도 몹시 초초草草한 바 있었으나 어려서부터 호학好學·지략이 탁월하여 신동神童이라 일컫는 이가 많았으니 이 호학이 문관으로서의 공을 닦아준 것이 이 지략의 출중함이 또한 무관으로서의 대성을 가져온 소이인 것이다.

당시의 고려는 태조가 건국한 후로 18년에 신라를 통합하고 익년에 후백제 견훤을 멸하여 삼한을 통일해서 국초國礎 날로 굳어가는 도중에 있었으나 중대륙의 맹자猛者 거란의 위협으로 국민이 베개를 높이 베일 수 없었다. 그래서 3대 정종 3년에는 거란방위를 위해서 정병 30만으로 광군사光軍司를 창설하고 차대 광종은 과거제를 채용해서 인재 등용의 길을 만들고 6대 성종은 왕위에 오르면서 백관의 칭호를 개정하여 관기의 참신을 기했으며 동 8년에는 동북, 서북에 병마사兵馬使를 두는 등 거란 내구來寇에 만전의 준비를 갖추기에 바빴었다.

강감찬 공이 문무를 겸하게 된 것도 이러한 그 시대의 요구에 영향을 받았음이니 호시탐탐 고려 침략을 꿈꾸던 거란은 성종 11년 드디어 대군을 모아 압록강 동안에 내침해 왔다. 그러나 목적을 달達치 못하고 퇴각하여 8대 현종 원년(단기 3343, 서기 1010) 40만 대군을 이끌고서 숙원을 풀고자 대거 내습하였다.

에나 이제나 전쟁에는 구실은 얼마든지 있으니 당시 재위 중인 목종을 강조康兆가 시紕하여 폐위시키고 현종이 위位에 오르니 이것이 거란의 내침 구실이었다.

현종은 강조로 하여금 이의 방비에 당當케 하고 30만으로서 통주(通州, 현 평북 선천)를 방어선으로 선전하였으나 패망을 보고 퇴각하였다. 강조 군의 패배로 조야는 물의物議가 불 일듯했으니 거란에 굴屈하자는 파와 속전續戰하자는 파의 화전和戰 양론이 어지러이 떠돌고 있었다. 이렇듯 화전 양론의 격양으로 겨를이 없을 때 거란의 대군은 파도처럼 들이밀어 신생 고려국의 운명도 풍전연화風前燃火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항복도 전법의 하나라는 화전론이 점점 승세를 하여 이를 결정하자 조야에는 고려국을 아끼는 곡성이 충천하였다. 이때에 결사코 화전은 굴복이요 굴복은 패망이니 이는 곧 망국·망족이라고 끝까지 주전主戰을 고집한 이가 있었으니 단략短略에 뛰어난 강감찬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대의 뜻은 장한 바 있으나 그러나 이 물밑 듯하는 거란 대군을 어찌 막을 것이고?”

“적을 맞아 싸우는 보람이 전법이 아니오니 우회작전으로 후군後軍을 수습하고 진지를 쌓으며 관민군의 사기를 돋우어 대세를 만회함도 일책인가 하나이다.”

“그대에게 자신이 있는고?”

“소신 감찬은 목숨을 받치어 역전하겠나이다.”

“그러면?”

“먼저 남으로 옮겨 주시오면 소신이 뒷수습을 하오리이다.”

이러한 회화 끝에 현종은 감찬의 뜻을 받아 12월에(거란 내침은 11월) 송도를 버리고 남으로 나주까지 몽진을 하였다. 현종은 길은 떠나기 전에 서북면행영도통사西北面行營都統使이던 강감찬으로서 상원수上元帥를 삼고 대장군 강민첨姜民瞻으로 부원수副元帥를 삼아 적의 약 반수인 20만 8300으로서 거란군에 당케 하였다.

먼저 거란군은 조야에 항복론이 떠도는 것을 보고 고려조에 북부 6진鎭의 무조건 할양을 요구한 바 있었다. 6진이라 하면 고려국 북부의 대부분이니 흥화(興化, 의주)·통주(通州, 선천)·용주(龍州, 용천)·철주(鐵州, 철산)·곽주(郭州, 광산)·귀주(龜州, 귀성) 등의 6군이라.

고려가 항복을 단념하고 선전을 하자 거란군은 10만으로서 이 6진을 휩쓰는 작전을 세웠다. 이에 강감찬군姜邯贊軍은 안주로부터 의주에 둔진屯陣하게 하고 기병 1만 2000을 산곡山谷에 복병을 시키는 한편 우피牛皮를 합하여 큰 냇물을 막고 대기하였다.

이때 마침 거란군이 대병을 이끌고 도하작전으로 나오는 것을 본 강감찬은 막았던 물을 일시에 터놓으며 거란군을 역습하여 일대 손해를 주었던 것이다. 이 일회一回 작전이 크게 군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여기에서 거란군은 강감찬군을 피하여 송경으로 직구直寇하는 작전으로 나왔으나 부원수 강민첨과 조원趙元으로 하여금 이를 추격케 하여 강민첨은 자성慈城에서 조원은 마탄(馬灘, 대동강)에 거란군 만여 기騎를 무찔렀다. 그리고 송경 부근은 병마판관 김종현金宗鉉에게 1만을 주어 송경을 지키게 하고 동북면 병마사를 시켜 김종현을 원조케 하니 적은 진로를 잃고 서西로 회주回走 작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작전이야말로 강 원수의 계획이었으니 이목을 지키고 있던 강감찬은 연주(漣州, 개천)·위주(渭州, 영변)에서 적을 협격하여 일대 섬멸전을 전개하고 다시 귀성에 이르러 또 목을 지키니 역시 거란의 대부대가 통과하는지라 물실차기勿失此機라 하고 강 원수는 협격·추격·전면작전 등 전법을 자유로 구사하며 북으로 북으로 적을 추격·섬멸하니 산야는 그대로 적시敵屍로 덮였고 하천에는 적혈敵血이 굵이쳐 흘렀다.

이 거란과의 대전첩도 실로 우리나라 창시 이래의 6대 전첩으로 일컫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양만춘의 안시성대첩, 윤관의 여진대첩, 이순신의 한산도대첩, 권율의 행주대첩과 함께 강공의 거란대첩이 헤아려지는 대전승의 기록인 것이다.

이 작전의 패망으로 결국 거란은 재기할 여력이 없이 쓰러지고 말았다는 한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전황을 짐작할 수 있으니 거란은 내침군 40만에서 겨우 3000여의 졸병이 살아났을 뿐이었다.

이 대승첩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외구와 싸워 대승한 실로 서사書史에 빛나는 기록이니 대승첩을 한 강감찬 공이 삼군을 거느리고 송도에 돌아올새 현종은 친히 영파역迎波驛 우봉牛逢에다 채봉綵棚을 베풀고 주악을 잡히어 놓고 기다리다가 강공이 내도하자 머리 위에 금화팔지金花八枝를 꽂아주고 좌수左手로는 공의 손을 잡고 우수右手로는 잔을 들어 공에게 권하니 공은 술도 받지 못하고 눈물만 쏟았다 한다.

강감찬은 현종이 재위 22년으로 흥하고 9대 덕종이 즉위하던 단기 3365년(서기 132년) 8월에 84세의 고령으로 졸하니 공의 위업에 인헌仁憲으로 시諡하고 현종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11대 문종이 수태사守太師 겸 중서령中書令의 직을 추증, 이로써 강태사姜太師라 부르게 된 것이다.

강공은 식읍食邑 1천 호戶로 받아 성남별서城南別墅에 돌아가서 야학野鶴과 벗을 삼아 『낙도교거집樂道郊居集』, 『구선집求善集』의 양서를 저술하였다 한다. 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로 있어 큰 유감이다.

그런데 강공이 낙명落命한 이 '성남城南'이 어느 지방이나 하는 점인데 성城은 도경都京의 성을 이룸이니 현 개성 이남이 아닐까 하는 정인보鄭寅普 씨 설이 옳을 것이다.

본군은 이렇듯 우리 민족 서사에 빛나는 공적을 남긴 명장을 낳았으나 적치간에는 감히 이를 추념할 길도 없어 일 민가의 장독대로 사용되는 참경慘景을 정무했었다. 더욱이 최상탑 1층은 지하에 매몰되고 최하층의 추측 탑벽 1매가 튕겨져 있었으니 이는 임진왜란 때 적장 선거이宣居怡¹⁹¹가 탑을 이송할 생각을 했던 것 같으며 일백이 어긋난 것은 그 속의 보물을 도거盜去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 위대한 공적을 남긴 명장의 기념탑은 해방 후에도 촌가에 방임된 채로 있던 것을 해방 후 제4대 군수로 부임한 김건열金健烈 씨가 강공의 후손과 시흥군보승회를 동원, 탑을 수축하는 한편 민가를 매수, 철거케 하여 단기 4282년 11월 이를 완료하였다.

191 선거이: 조선 중기의 무신(1550-1598)으로, 한산도 대첩, 독산산성 전투, 행주대첩, 장문포 해전 등에 참가하여 많은 공을 세웠고 사후 선무원종공신에 추봉되었다. 선거이를 일본 장수라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나. 만안교萬安橋

푸라타느(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즐비하니 좌우로 늘어선 완전포장의 경수가도를 달리어 안양읍安養邑의 원경이 그림처럼 보이는 지점에 오면 근대식의 긴 교량이 있고 다리에서 약 50미터 못 미친 데 안양의 명물 풀로 통하는 도로가 경수가도에서 갈려져 들어간다. 이 삼거리 바로 뒤에 귀대龜臺 위에 선 일 석비石碑가 있으니 이것이 만안교萬安橋의 기념비다.

만안교는 정조正祖의 수원 화산릉華山陵 연로를 위하여 놓은 다리니 정조 19년(서기 1771년) 9월의 건립이다.

정조라면 세인이 다 알다시피 효성이 극진한 임금이었다. 아니 극진 정도를 지나서 이 쯤되면 곤란할 정도였다. 화산의 용릉隆陵¹⁹²이란 곧 정조의 부군되시는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이다. 장헌세자라면 세칭 '두주왕자'로 세자가 왕위를 노린다 하여 부왕 영조가 두주¹⁹³ 속에다 넣어 죽인 애화哀話를 가진 비극의 주인공이다. 정조는 이 능에 다니느라고 정치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할 만큼 잣았었다. 물론 부군되시는 장왕莊王이 선왕 영조의 노염을 사서 28세라는 젊음으로 세상을 떠난 불우의 생애이기는 했지만 경수 간의 관민들은 정조의 용릉 배례拜禮 때문에 거의 생업에 종사할 겨를이 없을 만했었다.

정조는 선왕 영조의 왕자손이 되는 분으로 제21대 세자인 부군 장헌왕이 부왕이신 영조의 손에 불행한 최후를 마치고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뛰어 왕자손인 정조가 위에 올랐던 것이니 정조는 왕위에 오르면서 시작한 첫 사업이 양주楊州에 묻힌 부군 장헌왕을 그가 일찍이 몹시 좋아하던 수원에 옮겨 모시는 일이었다. 그리고는 용릉이라 진존進尊하고는 국정보다도 부왕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일대의 성업聖業을 삼다시피 한 분이다.

이 만안교도 정조의 효성 때문에 생긴 다리다. 원래 서울에서 수원 가는 길을 노량鷲梁에서 동작銅雀으로 거기서 과천으로 빠지는 것이 정로正路였으나 노변에 정조와는 유극지간有隙之間인 김상로金尙魯¹⁹⁴의 묘전墓前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쾌에 이 길밖에 없어 노정을 시흥·안양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안양에는 만안교, 수원에는 대황교大皇橋가 새로

192 용릉: 조선 후기 제21대 영조의 아들인 장조莊祖와 왕비 헌경왕후獻敬王后的 능이다. 장조는 1735년(영조 11) 창경궁에서 탄생해 그 이듬해에 세자에 책봉되고, 1762년 28세 때 창경궁에서 죽었는데, 영조가 뒤에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 뒤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세자莊獻世子라 하고 고종 때 장조로 추존되었다가 1899년 의황제義熙帝로 다시 추존되었다. 따라서 원문에서 정조가 생존 시 장릉으로 진존하였다라는 내용은 오류이다. 능塚이란 호칭은 왕과 왕비의 묘에 쓰이는 말로, 정조대에는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세자의 묘는 원래는 수은묘垂恩塚였는데, 정조가 즉위하면서 영우원永祐園으로 개칭하였다가 1789년(정조 13) 정조가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현릉원顯陵園으로 고쳤다. 용릉이란 호칭은 고종대 장조로 추존되면서 바뀐 것이다.

193 두주는 뒤주를 말한다. 뒤주는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로, 나무로 껍질같이 만드는데, 네 기둥과 짧은 발이 있으며 뚜껑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된다.

194 원문에는 김상로金尙魯로 되어 있는데 김상로金尙魯로 바로잡았다. 영조대 영의정을 역임했고, 사도세자의 처벌에 적극 참여하여 정조 즉위 후 관직이 삭탈되었다.

가교架橋되었고 서호西湖가 생긴 것도 정조의 효성 덕분이요, 용주사龍珠寺가 왕궁사王宮寺가 된 것도 모두 이 너무 지나친 감이 있는 정조의 효심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동 비문을 인용¹⁹⁵하여 두거니와 정헌대부正憲大夫를 위시 경기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수원·개성·강화의 각 유수留守까지가 동원되었던¹⁹⁶ 것만으로도 공사도 난공사려니와 이 다리를 얼마나 중대시했던가도 알 수 있다.

萬安橋

萬安橋碑頌并序

南充縣治南二十里有安養川即華城 輦路也惟我 聖上歲謁 園寢由是川以濟今春又奉 慈駕利涉川以是顯于世凡 幸行地方有川必有橋橋以木 駕過輒撤去冰之漸水之潦涉者 病焉前道臣臣徐龍輔以是橋之有所重也將以石代之未及就賤臣受 命來莅以孟秋啓基三 閱月而功告成延可十五丈袤可四丈高可三丈爲闢者五逮上 聞賞監董人及工匠有差 特 錫名曰萬安臣謹按王者就橋之安始於漢帝之長安而未聞奉 慈駕以行徒杠輿梁作於成周 而亦未聞代之以石傳之萬年也是橋也幸處華城 輦路 聖駕之一年一度 慈駕之十年一 度駕六龍和八鑾安而往安而還萬萬年如一而推其餘迤及萬姓使遠近行李視以康莊無揭厲 險阻之患而萬萬年戴 聖恩頌 慈德豈不誠盛矣乎哉橋之始也伐石于川之傍有石出焉可 以□□工役減其半神若有助其亦異矣臣拜手稽首記其事系之以頌曰¹⁹⁷

王幸于 園一度一歲 天臨虹橋歲以萬計 與福偕至其下有川 時奉 慈駕萬安萬年 恩及萬姓坦履齊歡 於于於萬安如砥磐

正憲大夫知中樞府事兼京畿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水原府留守開城府留守江華 府留守廣州府留守都巡察使 奎章閣檢校直提學臣徐有防謹撰

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臣曹允亨謹書

學臣俞漢芝謹書前面

上之十九年九月 日立¹⁹⁸

195 원문의 만안교비 원문에 몇 군데 오자가 있어 『안양시사』 6(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144쪽)을 참고하여 바로잡았다.

196 “정헌대부를 …… 강화의 각 유수”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의 관직이 아니라 모두 서유방徐有防의 관계官階와 관직官職 그리고 겸직兼職이다.

197 원문에는 비의 설립시기(上之十九年九月 日立)가 “송알頒日” 다음에 나오는데 원래 비문의 순서대로 바로잡았다.

198 「만안교비」 번역문은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6(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145-147쪽)을 참조할 것.

다. 단군전檀君殿

본군 동면 시흥역에서 동북간로東北間路로 1(杆, km) 미만의 지점에 녹동서원鹿洞書院이 있다. 이 녹동서원은 일찍이 서울 종로 식도원食道園의 경영주이던 고 안순환安淳煥 씨가 선조를 모시기 위하여 사재를 거의 다 들이다시피 해서 이루어진 사당이다. 이 서원 좌측에 약간 떨어져서 단청도 새로운 당우堂宇가 있으니 이것이 단군전이다.

이 단군전은 적지 중이던 단기 4263년 3월에 안씨가 단군천진檀君天真을 봉안키 위해서 이룩한 것이다. 지금과도 다른 세대라 왜정의 감시도 심했지만 건립 후로는 매년 춘추로 제전祭奠을 받들어 왔으나 중일전쟁이 날로 치열해 가고 승산은 서지 않고 하여 우리 민족혼 말살에 호시탐탐하던 일인들은 드디어 단군전에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단기 4269년 9월에 천진을 매안埋安한 채 해방을 맞았던 것이다.

해방은 우리에게 허다한 건설을 요구했지만 이 많은 지상명령 중에서는 우리의 민족혼의 재건이었으니 본군에서는 단군전봉건회檀君殿奉建會의 결성을 보아 단기 4281년 2월 19일에 증수를 끝마치고 천진을 다시 봉안, 춘추로 제제奠祭를 받들고 있다.

라. 상목桑木

이태원梨泰院 맞은편 한강 건너에 잠실蠶室이란 동리가 있다. 이 잠실리는 이조 창건 초에 왕궁의 잠소蠶所로 쓰이던 곳이니 이 일대에, 상묘桑苗를 재배해서 농민들에게 시범을 보였던 것이다. 잠실리란 동명도 이에서 유래할 것이다.

이 동리 한강 사장沙場에 노상목老桑木 3주株가 서 있으니 이것이 이조 초부터 살아있는 상목이라 전해져서 보호되고 있다. 일설에는 3700년이나 된다는 말도 있고 이조 초라 500년은 된다는 설도 있으나 그 수령은 믿을 바 못 되나 상당히 오랜 나무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 상목이 선 곳은 본군 신동면 잠실리이다.

마. 온온사穩穩舍

본군 과천면사무소에 온온사라는 현판이 있으니 정조의 친필이다. 정조라면 효성이 너무 지나쳐서 돌아가신 부군 장헌왕莊獻王을 생각하느라고 알뜰한 백성과 나랏일을 생각할 겨를과 마음의 여유를 못 가졌다는 임금이다.

그렇기에 정조에 관해서 전해지는 일화逸話·사화史話란 거의가 모두 이 효심의 극진한 데 관한 것뿐이다. 수원에 ‘지지대遲遲臺고개’란 지지遲遲¹⁹⁹의 이름이 생긴 것도 정조가 부군 장헌왕의 능을 찾아가갈 때마다 지지대고개에 가서 왕련王輦 전진前進이 지지하다고 탄식한 데서 생긴 이름이요, 폭우가 역수같이 쏟아지는 날 밤에 능을 지켰다 해서 능지기를 이튿날 대신에 제용했다는 것도 정조의 효심의 지나침을 풍자한 이야기로 전해진다.

이 온온사란 어필御筆도 정조의 효심을 말하는 것이니 부왕의 능을 찾아가는 길에 과천에 소계小憩하는 동안에도 하도 마음이 온온穩穩해서²⁰⁰ 일필휘지로 마음을 가라앉히었던 것이다.

바. 천정天井

부군 동면인 시흥역에서 내리어 동남으로 약 반 시간 올라가면 호암산虎巖山 한 봉峰 위에 일정一井이 있으니 이것이 속칭 ‘한우물’ 또는 ‘용보龍湫’라고도 하는 천정이다. 우물의 크기 약 100평, 우물이라기에는 너무 크고 못이라기에는 적은 면적이다. 남벌시대에도 이 주위에는 노송의 몇 주와 버들·참나무 등의 잡림이 둘러싸고 수면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수초가 우거져서 언뜻 보면 초원같이 보여 그대로 지나치기가 쉽다. 정위井圍의 축석이 자연이 아님을 설명해 준다. 이 천정의 유래도 혹은 기우祈雨, 또 혹은 군사작전상 음료용 등으로 전해지나 정측井側 산정에 석石해태가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소화용의 뜻이 많지 않은가도 싶다.

기우축祈雨祝은 동면東面 『여지승람』에 있는 ‘호암산虎巖山 유고성有古城 성내유일지城內有一池 천한도우天旱禱雨’²⁰¹라 한 데서 유래한 것이요, 군의 음료용설은 임진왜란 때 적장 선거이宣居怡가 진 쳤던 자리가 이 부근이니 많은 군인의 음료가 작전상 지대한 부담이므로 이 천정 부근일 것이 예상된 데서 유래한 설일 것이다.

또 한 가지 군용설을 부연해 주는 자료에 호암산에 유고성有古城하여 석축주石築周가 1681척尺²⁰²이라 했으니, 성중에 수비군이 주둔했을 것도 예상되며 유사시에는 다수의 군인이 합군合軍도 했을 것이다.

이로 보면 기우·군용설도 일리 없는 바 아니나 그것은 기우·음료용으로 쓰였다 함일 것이요, 유래는 경복궁전景福宮前의 석해태와 관련지을 수 있다. 즉 이태조는 한양에 정도

199 지지: ‘너무 더디다’란 뜻이다.

200 온온하다: ‘조용하고 편안하다’란 뜻이다.

20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0권, 경기 금천현 고적조에는 “호암산고성은 석축이며 둘레는 1,681척이다. 성안에 큰 못이 있는데, 날씨가 가물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다(虎巖山古城 石築, 周一千六百八十一尺 城內有大池, 天旱禱雨)”라고 되어 있다.

202 원문에는 1681호戶로 되어 있는데 1681척尺으로 바로잡았다.

定都하면서 풍수설에 의한 방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산중 일암一巖이 호형虎形이라 하여 호암산이라고 불려왔던 산명을 지금의 호암이라 개명하고 시흥리에 있던 호암사를 산상으로 이축하면서 사명도 호암사라고 명명한 것과 방화신인 해태를 정측井側에 세운 것도 정수井水로서 방화放火를 상징한 것이 아닌가도 한다. 이로 보면 이 우물은 이조 창건 당시 경복궁의 해태와 시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니 임진왜란 때 일군이 발군했다는 설은 오전謬傳일 것이다. 그러나 임진란에 왜군이 금천(현 시흥)을 통과해서 서울로 간 것이 사실이니 지리상으로 보아도 호암산을 지나서 동면東面 봉천리奉天里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니 이 정수를 음용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어쨌든 이 천정은 원천源泉만이라도 수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 역사적인 큰 뜻은 안 붙이더라도 관악 탐승객에게 깨끗한 한 표주박의 음료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일일一日 노역으로서 주마간산식으로 지나치는 등산객에게 물 한 그릇을 선사함으로써 천정이 겪은 사실을 한번 되짚게 함도 가可하지 않을까 한다.

제2장

명승名勝

이. 명승

가. 관악산冠岳山

ㄱ. 관악산

경기금강·소금강의 칭이 있는 관악산은 예로부터 일러오는 경기오악京畿五岳 중의 1악이기도 하다. 경기오악이란 송도의 송악松岳, 가평의 화악花岳, 적성의 감악紺岳, 포천 운악雲岳에, 과천의 관악冠岳을 이름이니 비록 태산泰山은 아니로되 준령태악峻嶺泰嶽으로서의 거암巨巖이 중첩하여 장壯과 험險을 갖추었고 비록 심산은 아니면서도 우수심곡幽邃深谷에 천년노수千年老樹가 원시림을 이루어 아연 신비경을 이루고 있으니 소금강의 이름 있음이 반드시 시인詩人·묵객墨客의 과시가 아니다.

더욱이 그 암악岩嶽의 묘함과 봄은 봄으로서 여름은 녹음으로 가을은 단풍으로 겨울의 설경 또한 명악 관악의 면목을 방불케 하는 바 있으니 대금강을 그대로 축소한 감이 있다.

산이 아름다우니 천조백금千鳥百禽이 없을 수 없고 시인·묵객의 발이 갖을 리 없다.²⁰³ 골이 깊으니 산곡수성山谷水聲 앞을 리 없고 산중도처에 승경을 이루었으니 입산구도入山求道の 노승 또한 발을 멈추지 않을 리 없어 기승절암奇勝絶岩이 있는데 소암小庵이 섰고 유곡명당幽谷名堂에 고찰이 진陣 잡고 있다. 산중에 대소사찰이 십유삼여十有三餘, 산등을 넘으면 종소리요, 골짜기에 들면 노승의 염불소리 길 잃은 탐승객의 청려杖靑黎杖을 이끌어 준다. 녹침綠簾을 간 듯 폭신해 보이는 높고 낮은 녹음綠陰 속에서 산골 물이 속삭이는가 하면 산 한 봉

203 시인·묵객의 발이 갖을 리 없다. '갖을'이 오자인 듯하다. 시인과 묵객의 발길이 갖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듯하다.

을 무너뜨리듯 물확에 떨어지는 폭포소리에 머리끝이 주빳한다. 악중岳中 재동在東이라 하여 동폭포東瀑布라 일컬으니 동이 있고 서 없을 수 없어 서쪽西瀑의 물확소리 동쪽에 지지 않게 또한 장하다.

蘭若閑尋薄暮時 重巖遙見亞苔扉 徑緣古壁盤空上 藤長新枝入座垂 庭樹靜搖孤鶴夢 嶂雲低拂定僧衣 十年螢雪終何事 山好曾無一首詩.²⁰⁴

이는 변계량下季良의 연주사戀主寺 송시頌詩거니와 아무리 속인이라도 한번 산에 들면 나고 싶지가 않다. 특히 연주암정戀主庵庭의 노송고학老松孤鶴과 삼막사경三幕寺境의 유현幽玄한 송림 속에 들면 자기도 모르게 가사袈裟가 입고 싶어진다.

관악은 본군 동남 일대를 점유하고 있어 동·안양·과천의 3개 면에 걸쳐 용립聳立되었으니 승경 또 자랑이려니와 군내 영농營農의 유일한 수원지이기도 하다.

본 관악은 종래 본군 보승회保勝會의 경영으로 유지해 왔었으나 최근 관악을 현대식 공원으로 명실공히 소금강을 만들 계획이 도와 중앙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립·국립 그 어느 쪽으로 결정을 볼지는 모르나 근일 중 가부간 규정이 날 것으로 믿고 본군에서는 이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와 준비를 갖추고 대기 중에 있다.

끝으로 우리의 명악 관악에 관한 옛 노래가 전해지기로 이를 인용하여 두기로 한다.

나. 관악산유람가冠岳山遊覽歌²⁰⁵ 부附 삼성산三聖山

백두산의 대간맥大幹脈이 / 동쪽으로 흘러내려 / 온갖 명산名山 다 되고서 / 계룡산의 역룡逆龍으로 / 관악산이 되었으니 / 한수남漢水南의 명산이라 / 한번 보기 원이로다 / 유산행장遊山行裝 차리고서 / 한강교를 일른 건너 / 화장사華藏寺를 찾아가니 / 범범장강泛泛長江 유수流水 위에 / 오고 가는 선척船隻이라 / 탑골동리 다다라서 / 낙성대를 구경하니 / 거란군을 대파하던 / 강감찬의 탄생지라 / 관악산의 정기精氣로서 / 문곡성文曲星 하강下降일세 / 기구崎嶇한 산길로서 / 소바위를 쳐다보고 / 일보이보一步二步 나아가서 / 감투바위 다다르

204 변계량의 문집인 『춘정집春亭集』 제1권에 「등관악사登冠岳寺」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금천지』에 등禪자가 슬禪자로, 불拂자가 불佛자로 되어 있는데 『춘정집』에 의거 바로잡았다.

“석양에 한가롭게 절집을 찾는데 / 저 멀리 층암 밑에 사립문이 보이누나 / 오솔길은 절벽의 반공 위에 나 있고 / 등나무 새 가지는 자리 위에 늘어졌네 / 정원 나무 한들한들 학꿈을 망치었고 / 산 구름 내리 뺏쳐 선승 옷을 스쳐가네 / 뭐 하러 십 년이나 공부를 닦았는지 / 산수는 좋지만 시 한 수 없었네.”

205 관악산유람가冠岳山遊覽歌 : 이 가사는 윤고韓圭 김일우金日宇가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쓴 133행에 이르는 장편의 불교가사이다. 1961년에 간행된 『석문의범釋門儀範』 제5판(안진호 편, 범문사)에 「관악산유산록冠岳山遊山錄」으로 수록되어 있다. 가사에 약간의 출입이 있지만 『금천지』가 10년 앞서 수록한 것을 알 수 있다.

관악산冠岳山이 장악산匠岳山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잡았다.

니 / 한출침배汗出添背 흠신 젖고 / 호흡도수呼吸度數 더하도다 / 매재고개 넘어서서 / 배석
 대拜石台를 당도하니 / 연주대의 나한법당羅漢法堂 / 하늘중천 아득하고 / 관악사冠岳寺에 옛
 날 절터 / 형적形跡이 완연하다 / 또 한 고개 넘어서서 / 연주암戀主庵을 찾아가니 / 오층석
 탑 우뚝하여 / 미륵도량 일크린다 / 극락전은 법당法堂이요 / 금륜보전金輪寶殿 새집이라 /
 청산대사靑山大師²⁰⁶ 재직중에 / 일신중수一新重修하고 보니 / 산악은 생색生色이요 / 사원寺院
 은 다행이라 / 좌우 산세 생긴 모양 / 소금강이 분명하다 / 대臺에 올라가는 길로 / 중대中
 臺에서 한번 쉬고 / 결단決斷 고개 넘어서서 / 연주대를 들어가니 / 석가여래 주세불主世佛과 /
 십육나한 여러 분이 / 험한 인간 보시고서 / 염화미소拈花微笑²⁰⁷ 하는구나 / 동방 약사藥師
 님은 / 효령대군 조성이요 / 이름 높은 연주대는 / 의상조사義相祖師 초창初創하니 / 반공 중
 에 솟은 것은 / 지거천地居天이 분명하고 / 연소형燕巢形의 저 도국圖局이 / 근기오악近畿五岳
 제일이라 / 용마바위 천진형天真形은 / 한번 잡아 타보고서 / 최고봉에 올라서니 / 매염정埋
 鹽井이 여기 있고 / 기우祈雨하던 옛날 일이 / 다시 한번 생각난다 / 노장바위 의수하여 / 선정禪
 定 중에 든 것 같고 / 촉촉침침漉漉尖尖²⁰⁸ 저 봉만峰巒이 / 기기괴괴 불만하네 / 만국성도萬國
 城都 여의질如蟻蛭은 / 글구句로만 보았더니 / 시원하고 호활하여 / 습습청풍習習淸風 절로 난
 다 / 한양성을 굽어보니 / 팔만 가호家戶 즐비하고 / 삼각산을 바라보니 / 백운대가 우뚝하
 다 / 북한산의 높은 성곽 / 속종대왕 쌓은 바요 / 남한산성 아홉 절을 / 인조대왕 명설命設
 이라 / 승장승병僧將僧兵 세웠으나 / 하운 일이 무삼인고 / 송악산을 바라보니 / 송도 서울
 진산鎭山이라 / 한참 당년 변화하여 / 사백여 년 지키더니 / 임신 칠월 십육일에 / 국운 일
 시 변혁하니 / 정포은鄭圃隱의 모진 충혈 / 선죽교에 물드리고 / 만월대에 가지풀이 / 소조
 蕭條하기 짝이 없다 / 설월雪月은 전조색前朝色이요 / 한중寒鍾은 고국성故國聲이라²⁰⁹ / 두문
 동 칠십이인 / 강득룡康得龍을 모를손가 / 일일이 통곡한들 / 속절없이 허사虛事²¹⁰로다 / 수
 락산을 바라보니 / 흥국사興國寺가 어디멘가 / 정종正宗대왕 무사無嗣하사 / 금지옥엽 보시려
 고 / 위축爲祝기도 하던 일이 / 어제인가 생각나며 / 도봉산을 바라보니 / 망월사望月寺가 그
 곳이라 / 고려 때에 혜거국사慧炬國師²¹¹ / 심지견성心地見性 하시고서 / 중원국사中原國師 되
 셧으니 / 그런 영광 어디 있나 / 보조국사普照國師 목우자牧牛子是 / 원통사圓通寺에 계시면서 /

206 청산대사: 연주암의 주지를 지낸 재예在藝 스님의 호이다. 1929년 연주암의 극락전·용화전·나한전 등을 중수하고 금륜전과 요사寮等을 신축했다고 한다.
 207 염화미소拈花微笑가 고화미소拈花微笑로 되어 있는데 바로잡았다.
 208 촉촉침침漉漉尖尖이 직직침침直直尖尖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 촉촉침침으로 바로잡았다.
 209 설월雪月은 …… 고국성故國聲이라; 이 부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인 권경權敬의 시이다. 『금천지』에는 전조색前朝色이 가조색家朝色, 한중은 요중寒鍾, 고국성故國聲은 고국정故國聲으로 되어 있는데, 『석문의범』 제5편(안진호 편, 법문사, 1961)에 의거 바로잡았다.
 210 허사虛事가 여사處事로 되어 있는데 바로잡았다.
 211 혜거국사慧炬國師가 해거국사慧炬國師로 되어 있는데, 바로잡았다. 도봉산 망월사에는 혜거국사의 부도가 전한다.

가평 땅을 멀리 보니 / 만산수목 덩불 속에 / 한 십지에 옥등잔玉燈盞이 / 사람 없이 달려 있어 / 삼일삼야三日三夜 켜 있거늘 / 그곳에다 절을 지니 / 신기하다 성적聖跡이여 / 가평현등加平懸燈이 아닌가 / 운악산을 바라보니 / 봉선사奉先寺에 광릉光陵이라 / 교종판사敎宗判事 사찰로서 / 수진대사守眞大師²¹² 유명하고 / 밀밀 송림 섰는 곳은 / 세조대왕 능침이리 / 천보산을 바라보니 / 회암사檜岩寺의 주산일네 / 지공화상指空和尚 개산開山하고 / 나옹화상懶翁和尚 상주常住하여 / 삼산이수 기증간에 / 대가람을 세웠드니 / 변천 많은 세상이니 / 큰 절터는 쑥밭되고 / 삼화상三和尚에 부도 비석²¹³ / 야월공산夜月空山 서 있구나 / 강화도를 멀리 보니 / 사대도四大島에 둘째로다 / 마니산에 제천단祭天壇은 / 단군 태자 쌓은 바요 / 전등사傳燈寺에 전각 집은 / 정화궁주貞和宮主 수증修重일네 / 무죄한 손돌 목이 / 참수함은 어인 일고²¹⁴ / 고려행궁 조상하고 / 병인양요 생각하니 / 대해중大海中の 일편一片 섬이 / 전쟁되고 만셈이라 / 병자호란 위급하여 / 호기胡騎만발 침노하니 / 선원仙源 상공相公 김상용金尙容²¹⁵은 / 화약불에 몸 던지고 / 유도대장留都大將 김경징金慶徵은 / 속수무책 항복일세 / 인천항구 제물포는 / 놀기좋은 월미도요 / 일확천금 얻으려고 / 미두군米豆軍이 모여든다 / 남양만에 천천淺淺한 물 / 조기배가 번뜻이고 / 남태령이 어데맨가 / 지지대가 불원하다 / 화산사적 말하러면은 / 애처럽기 짝이 없네 / 출천지효出天之孝 정묘조正廟朝는 / 두지대왕 묘 쓰시고 / 수원백리 거동하사 / 성묘하기 일삼으니 / 화녕궁和寧宮은 행궁이요 / 수원부는 유수도留守都라 / 팔달문과 장안문은 / 남북대문 화려하고 / 방화수류정자訪花隨柳亭子 집은 / 화홍문華虹門과 자랑한다 / 수원 서호西湖 고운 물은 / 항주호杭州湖의 배승倍勝하고 / 남북 십리 능수버들 / 어류사御柳社가 여기로다 / 청계산을 바라보니 / 청계사淸溪寺가 지금 있고 / 천진암天真岩에 동쪽바위 / 함월涵月스님 행적비는 / 춘풍추우 몇백년에 / 구슬프게 지도다 / 봉은사奉恩寺를 바라보니 / 수도修道 산색山色 의구하네 / 선릉 정릉 두 능침은 / 암암송백 우거지고 / 선종판사禪宗判事 수선찰首禪刹에 / 보우대사普雨大師 계셨으니 / 행호시령行號施令 하올 적에 / 일국一國 납자納子 분주하였으며 / 삼년마다 승과僧科 보여 / 인재등용 하옵더니 /

212 수진대사는 1551년(명종 6)에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선교양종禪敎兩宗을 부활시켰을 때 교종판사도대사敎宗判事都大師로 임명되어 교종을 관장하였고 봉선사 주지가 되었다.

213 회암사에는 지공指空·나옹懶翁·무학無學 세 선사禪師의 부도浮屠가 있다.

214 무죄한…… 어인 일고: 이 부분이 원문에는“무죄한손 들먹이 참수함은 어인 일고”라고 나오는데, 『석문의범』 제5판(안진호 편, 범문사, 1961)에는 “무죄無罪하온 손돌孫忽이를 목을 베힘 원 일인가”로 나와 손들을 손돌로 수정하였다.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략으로 고종이 강화도로 피난할 때 손돌孫忽의 배를 탔는데, 물살이 매우 거세서 배가 몹시 흔들리자 왕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진 역적으로 오해하여 손들을 죽였는데, 그 순간에도 바가지를 물 위에 띄워 따라가면 강화도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결국 무사히 강을 건너자 고종은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였다고 한다. 이 뱃길목은 손들의 목을 벤 곳이라 하여 ‘손돌목’이라 부른다고 한다.

215 김상용의 호가 선원仙源이며, 이조판서·우의정 등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해 강화도에 피난했다가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南門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제주도 임종 후에 / 벌대총伐大驄²¹⁶이 웬말인가 / 그득하온 판전각板殿閣은 / 남호율사南湖律
 師²¹⁷ 공적인데 / 인거황천人去黃泉 명재세지名在世之 / 비석뿐만 남았도다 / 이것저것 보고나
 니 / 다사하다 나의 한심恨心 / 부지중에 솟아나서 / 장태식長太息이 절로 나네 / 우리도 지
 금부터 / 의상조사 뿐을 보아 / 이탑 우에 가부跣趺하고 / 심지개통心地開通하여 불가 / 청려
 장을 다시 잡고 / 연주암에 내려와서 / 일야유숙 하온 후에 / 폭포 구경 하려 가세 / 은하
 수 맑은 물이 / 석벽 우에 쏟아지니 / 수렴 같은 기형상이 / 불만하여 아름답다 / 불성佛成
 망월望月 구경하고 / 삼막사三幕寺로 넘어가니 / 원효 의상 윤�필거사尹弼居士 / 삼형제에 수
 도처라 / 일막 이막 터만 남고 / 삼막만을 이르도다 / 백련암에 다다르니 / 등곡굴燈谷屈이
 여기로다 / 혜각존자慧覺尊者 학조대사學祖大師 / 이곳에서 견성見性하사 / 세조대왕 왕사王師
 로서 / 흑의黑衣재상 되었구나 / 유언부탁 남기시어 / 등곡燈谷²¹⁸ 칠송七松 심었드니 / 흥릉
 해자洪陵垓字 특제장特除壯할 줄 / 그 누구가 알았으리 / 행하옵신 그의 행적 / 후에 사람 몰
 라보고 / 보승保勝조차 등한하니 / 그거 아니 한심한가 / 반월암半月庵에 들어가니 / 약사영
 천藥師靈泉²¹⁹ 양전하고 / 가든 길을 돌아쳐서 / 염불암念佛庵을 찾아가니 / 공산무인 한거한
 데 / 염불소래 처량하며 / 경부선에 기적성汽笛聲은 / 객의 일정 재촉하고 / 소리없는 가실
 비는 / 상엽 단풍 물들인다 / 관악冠岳 삼성三聖 대소사찰 / 십여 처라 헤아리나 / 년짓년짓
 지나고서 / 자하동紫霞洞에 당도하니 / 신위申緯 선생 옛날 터가 / 소석小石조차 정결하여 /
 석전모옥石田茅屋 촌살림이 / 별유천지別有天地 이곳일네 / 산하에서 돌아보니 / 관악산의 단
 풍빛이 / 보기 좋게 우거져서 / 정거좌애停車坐愛 하련만은 / 추회만강秋懷滿腔 객의 심사 / 금
 강 길이 총망하여 / 머무름을 불허하니 / 이도 역시 인연일가 / 명춘明春 다시 언약하고 /
 관악산을 이별하니 / 산아 부대 잘 있거라 / 만나볼 날 또 있으리

㉔. 관악산 주위로 산재한 촌락명村落名: 자안양自安養 - 시흥 - 지과천至果川²²⁰

안양 - 석수동石水洞 - 삼막동三幕洞 - 방메 - 시흥 탑동塔洞 - 보구니말 - 낫골 - 신림新林 -
 자하동紫霞洞 - 낙성대(落星臺, 탑골) - 원당 - 동산말 - 사당舍堂 - 승방평僧房坪 - 너머남태령 -
 한계寒溪 - 관문官門 - 교동校洞 - 홍촌洪村 - 냉정冷井 - 가일佳日 - 동편東便 - 수촌秀村 - 내비
 산內飛山 - 외비산外飛山 - 임곡林谷 - 안양

216 벌대총: 조선 효종孝宗이 특별히 아끼어 강화도에 놓아 기르던 말의 이름. 원문에는 벌대준伐大驄으로 나온다.

217 남호율사: 1855년(철종 6) 서울 봉은사에서 『화엄경소초華嚴經疏鈔』 등을 간행하고 판전을 새로 지어 봉안하였다. 이 판전의 편액은 추사 김정희가 썼다. 남호율사(1820~1872)의 법명은 영기(永奇)이다.

218 등곡燈谷: 학조대사學祖大師의 호이다.

219 약사영천藥師靈泉: '약사여래의 신령스러운 샘물'이란 뜻으로 반월암의 주요 식수원이었던 샘의 명칭이다.

220 안양부터 시흥을 지나 과천까지라는 뜻이다.

ㄹ. 관악산에 소재한 바위·고개·골짜기·봉우리 이름

① 바위 이름

통소, 채일, 너르러, 구멍, 두지, 자라, 솔개, 북, 노장, 칼, 큰두지, 감침지, 맹공, 병풍, 불기, 죽도리, 감루, 땡구, 배, 송편, 가마, 집, 문, 맷돌, 뒤주, 부침, 노적, 자수, 쇠불, 덩, 범, 범의굴, 보습, 각씨, 애남, 농, 안장, 말, 고양이, 애기, 새수, 곡갈, 세덕, 광석, 영가시, 임, 팽이, 소, 세소, 죽, 더덕, 너리석

② 고개 이름

매지, 환히, 넘어남태령, 까치, 용마, 빙고^{氷庫}, 반수^{盤水}, 소리개, 박미, 말미, 무네미, 동막, 세, 뒤, 샘말, 능골, 할닥, 싸리갓, 아래, 옷, 헤메기, 매봉

③ 골짜기 이름

배나무, 가는, 큰, 느락, 노득, 원도막, 자하동, 미력, 승방, 폭포, 치, 뱀, 독수리, 수리 바위, 서덜, 실, 치마, 삼데, 비자나무, 삭갓, 느락, 노년, 소년, 원두막, 된봉, 작박, 널은양 지, 긴, 발은, 사태, 구뫼, 작은, 좁은, 범, 시배, 물말은, 소년^{少年}, 활테거리, 됴박, 솔개, 좁 아, 화장터, 절안산, 한우제, 괴, 시응, 칼봉, 어둔, 폭포, 백토, 구리터, 바른, 덩, 게, 닭뻗, 후룡^{後龍}, 망성, 삼막^{三幕}, 소등, 절, 노박, 소심, 치다리, 넓적, 뱀, 사기장, 염불암, 귀, 거북, 오소나무, 등치, 임청, 망녕, 한자, 치차, 통목, 쟁, 해방, 노두, 세방, 룡름, 완쟁이, 마금

④ 봉우리 이름

염주, 소고락, 애기업은, 국사, 문필, 감노, 향노, 삼성봉^{三聖峰}, 호봉^{虎峰}, 애기, 칼, 문장^{文章}, 의상^{義湘}, 형제, 쌀개, 무적^{無敵}, 대장군^{大將軍}, 문필^{文筆}, 가식

나. 서폭포西瀑布

청계산록^{淸溪山麓}의 동쪽^{東暴}에 대비하여 불리어지는 서폭은 과천면사무소에서 안양읍으로 통하는 흥촌부락에서 약 20분 올라간 관악산복^{冠岳山腹}에 있다.

이 폭포는 상·하 2층으로 된 보기 드문 연폭^{連瀑}으로, 상폭^{上瀑}은 층암단애^{層岩斷崖}에서 수직으로 물확을 향하여 떨어지고 하폭^{下瀑}은 사면을 이룬 일대 반암^{盤岩} 위를 구르듯 흐르고

있다. 상폭의 높이 15척여, 하폭은 실로 20여 척이나 되어 총 40척에 가까운 대폭포이다. 폭도 크거니와 수량도 많고 일대가 그대로 바위자리를 깎 듯 반석을 이루어 물확은 자연적 목장沐場이 되어 있다.

폭포 주위의 기^奇와 묘^妙를 다한 기암괴석 사이에 불덩이처럼 두견·철쭉의 짙은 색을 날리는 물안개에도 꺼질 줄을 모른다. 돌레에는 노송이 있고 군데군데 반석은 마치 초석草席을 펴고 사람을 기다리는 듯하다. 단애절벽斷崖絶壁이 있고 물이 있을뿐더러 반석이 있고 노송이 있으니 하루의 청유지淸遊地로 이를 데 없는데 처참할 만큼 세찬 폭포까지 이루어오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라. 더욱이 이 일대의 물을 예로부터 약수藥水로 일러오는지라 봄은 약수를 빙자하고 여름은 욕탕을 핑계하고 가을에는 또 단풍에 구실을 삼아 탐승객探勝客의 발이 그칠 사이가 없다.

이렇듯 모여드는 탐승객을 위함인가 일 무명승無名僧이 상부 석실石室 내에 조그만 집을 이룩하여 불신佛身을 모시니 주식酒食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다. 수중폭포水從瀑布

본군 과천면사무소 소재지인 구 과천읍의 관문리官門里에 약 4천^杆 지점에 수봉秀峯 청계산이 있다. 이 청계산은 여말의 공신이요 명유인 이색李穡·조윤趙胤 등이 이태조 이성계李成桂에 군사君事하기를 싫어하여 입산수도를 했고 그 유지遺址로서 망경대望京臺가 있거니와 명악 관악과 키 겨릅이나 하듯 마주 서서 남성적인 관악에 비하여 여성적인 선으로 보이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청계 서록에 일폭이 있으니 낙수落水 수장數丈에 폭위瀑圍가 또한 절경이다. 이름하여 수중폭이라 하고 과천 동폭이라고도 부름은 과천 동에 있음에서요 남 자하동紫霞洞의 서폭西瀑과 대칭하기 위해서다.

산치고 한 폭의 두견 없는 산이 어디 있으며 한 가지의 단풍 없는 산이 없으랴만 청계산 수중폭 일대의 두견은 눈이 아프게 진하기로도 이름이 높거니와 애송이 피꼬리가 어미를 따라 떠듬떠듬 혀 안 돌아가는 소리로 노래를 배울 철이면 기암에 불이 붙은 듯 그대로 별 절고 단풍철이면 대소의 수봉들이 그대로 봉화대烽火臺로 화해 버린다.

수장數丈 단애斷崖에서 내려치는 물줄기의 원경遠景에도 눈이 부신 흰빛과 주변의 짙은 녹음의 푸르다 못해 검은빛이 더욱 인상적이다. 수세水勢에 못 이기어 몸부림치는 물확에 현기眩氣가 나서 섰노라면 어느새 녹녹하니 물안개가 옷을 적신다.

벽찬 물소리에 지새어드는 솔새 소리, 아 절경이란 이런 곳을 말합어리라. 문득 물확 속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에 아찔하니 범인凡人이 이럴제야 여조麗朝에 바친 충절을 어찌할 길 없어 골에서 골짜기로 골짜지에서 물가로 다니며 임 그린 마음을 부동켜안고 울던 초인超人들의 심정이야 어떠했으리.

청계산복淸溪山腹에 청계 고찰이 있으니 천고여년千高餘年 의상義湘시대의 창건이요 사경寺境 승경 또한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청계사만은 본군 구역이 아니기로 이름을 드는 데 그치거니와 이 수종폭水從瀑 송기頌記의 줄렬을 보補키 위하여 사촌沙村 이축李軸의 「수종송水從頌」 일구一句를 첨가한다.²²¹

一道寒流出水從
風吹飛²²²沫灑²²³淸空
樵童不識長川掛
錯認中天倒白虹²²⁴

라. 자하동천紫霞洞天·자하시경紫霞詩境

자하동천이라 함은 과천 구읍舊邑에서 향교鄉校를 지나 연주봉戀主峰을 향하여 올라가는 도중의 관악산 중 제일 넓고 깊은 계곡의 절칭絶稱이니 거리가 20여 리에 걸친다. 관악의 수봉 연주암까지에 약 2시간을 요하는 등산로가 그대로 일대 유수幽邃 계곡을 이루고 있으니 산이 큰지라 나무 또 울창하고 골이 깊어 골짜마다 물소리다. 혹은 기암괴석이 모여어 봉을 이루고 또 혹은 천애의 층암으로 수심수백 장丈의 대절벽을 이루어 갖은 꽃과 묘妙를 극極한 노송이 창공에 걸려 있는가 하면 만물의 형形을 흉내낸 바위들이 생물인 양 단애에 걸려 있다.

노송이 있는데 노앵老鶯이 있고 잔솔밭에는 솔새가 우짖는다. 골짜기 그윽해지는가 하면

221 원문에는 이 시의 작자가 사촌沙村 이축李軸, 1538-1614)으로 되어 있으나 「수종폭포水鍾瀑布」라는 제목으로 유희경(劉希慶, 1545-1636)의 문집인 『촌은집村隱集』에 실려 있어 이 시의 작자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희경은 조선 중기 시인으로 유명하다. 『촌은집』에 실린 「수종폭포」에는 ‘한류寒流’가 ‘한천寒泉’으로, ‘수종水從’이 ‘수종水鍾’으로, ‘백홍白虹’이 ‘옥홍玉虹’으로 되어 있다.

222 원문에는 풍靄으로 되어 있는데 비靄로 바로잡았다.

223 원문에는 서靄로 되어 있는데 색靄로 바로잡았다.

224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한 가닥 찬 물줄기 수중에서 나오니
바람 불어 물방울 날려 맑은 하늘에 뿌리네
나무하는 아이들 시냇물이 걸린 줄도 모르고
중천에 흰 무지개가 떠 있는 줄 착각하네”

영락없이 옥반玉盤 위에 옥구슬을 굴리는 듯싶은 물소리가 돌돌거린다. 물은 혹은 바위틈을 지나기도 하고 비말飛沫을 풍기며 떨어지는가 하면 백암白岩 반석을 미끄러지는 듯 유유히 흐른다.

태산준령에 계곡까지 우수하니 짐승도 있으면만 눈에 뜨이는 것은 말년末年 득자得子보다도 귀여운 다람쥐뿐이다. 혹은 원효·의상·윤승尹承²²⁵의 삼성三聖이 입산할 때 맹수들은 붓짐을 싸가지고 양楊·광주廣州로 이사를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강감찬의 재채기 소리에 놀라 맹수가 피신을 했다고도 전하거나와 관악에 들어 큰 짐승을 별로 본 일이 없다 한다.

이 자하동 일대를 세인은 둘로 나눈다. 즉 기일其一은 과천에서 연주 상봉에 오르는 계곡 일대를 총칭하여 자하동천이라 일컫고 이 자하동천 입구의 절애절암이 병풍처럼 둘러쳐서 아연 일대 선경仙境을 이루고 있는 유곡을 가리켜서 자하시경紫霞詩境이라 부른다. 반석 그대로가 물처럼 보이도록 흰 반석은 군데군데 갖은 모양의 옥조浴槽를 이루어 있고 그 위를 티 하나 없는 옥수玉水가 구슬로 바위를 두드리며 흐르는 듯 물소리가 아니라 그대로 구슬 소리를 내며 흐르는 것이다.

이 자하동명은 이조 정조·순조·헌종 3대에 걸치어 시·서·화의 이른바 자하삼절紫霞三絶로 이름을 떨치게 한 신자하공申紫霞公의 아호雅號에서 유래한 것이다.

신자하공은 본군 자하동에서 그 유년시대를 보낸 인연으로 명은 위緯요 호를 자하라 한 이조를 통한 풍류시인이면서도 천성이 호탕불기豪宕不羈하여 호협무비豪俠無比한 어른이었다. 그의 삼절이 얼마나 극치에 이르렀던가는 청국淸國 장추음시어蔣秋吟侍御의 자하시평紫霞詩評에 “자하 시는 소황蘇黃에 근近하다.” 하였으니, 이 소蘇는 소동파蘇東坡요 황黃은 황산곡黃山谷을 이름이다.

이제 자하공의 성격의 일면을 엿보이는 일화로서 공의 시고試考하던 때 이야기가 전해지니, 즉 공이 소시에 보시補試에 응코저 열석列席하여 시권試卷에 글을 쓰다보니 마침 중천에 달이 떠오르는지라 공은 자기가 시보試補 중임도 잊고서 그 시권에다 신비영출神祕靈出한 필법으로 묵죽墨竹 1폭을 그리니 시보하던 사람들이 주위를 포위하고 그의 절필絶筆에 놀라 마지않았다 한다. 이 일화로서 공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적이었던가도 알 수 있거니와 일생애를 도賭하는 시보를 1매의 묵죽과 바꿀 만큼 청렴했다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한다.

이 자하공의 예술적 재분才分과 그 답이淡雅한 품격品格과 호협절묘한 시경詩境도 실로 이

225 윤승은 ‘본책 7편 2장 2절 바. 삼막사’에 윤필尹翬로 나와 오자로 보이며, 『삼막사지』에는 윤필尹翬로 나온다.

자하동의 자연에 영향된 바 적지 않았으니 중로지경^{中老之境}에 일체 관직을 버리고 이 자하동에서 시작^{詩作}과 서화^{書畫}로 낙을 삼은 일도 있다.

이 자하시경은 노랑진과 안양이 거의 동^同거리로, 약 2시간에 이를 수 있다.

마. 안양풀

안양역에서 북으로 서울을 향하고 경수가로^{京水街路}를 올라가면 안양천 육교가 나선다. 다리를 지나면 정조의 화산행행^{華山行幸}을 위하여 이루어진 만안교 석비가 있고 그 앞에 관악으로 오르는 신작로가 있으니 이것이 곧 안양 명물이요 또한 승경지로 이름난 석수동^{石水洞} 안양풀(pool)에의 길이다.

노변에는 대포도원이 있어 미각을 돋우어 주거니와 탄탄대로에 홍진^{紅塵}을 마시며 골짜기에 접어들면 벌써 백암^{白岩} 사이를 흐르는 석수동의 소리 귀가 근지럽다.

풀은 3층으로 되어 있어 대인용·소아용으로 배려되었고 석축과 시멘트로 완전히 근대화한 수영장이다. 수심은 깊은 곳이 한길, 상류로 올라가면서 경사가 되어 5, 6세 소아와 어른들이 한 영장^{泳場}에서 즐길 수 있다. 백수^{白水} 깊고 보니 자연 푸르러 선녀^{善女}들의 눈이 부신 흰 살빛이 푸른 물이 들까 걱정이 될 정도다. 영장 양측에 탈의장·휴게소의 시설도 갖추었고 사면 층계도 정연하며 주위에는 각종 매점이 즐비하니 산간 피서지로서의 만전을 기했다 할 수 있다. 내리쬐이는 폭염을 피하여 등^藤시렁 그늘에서의 소계^{小憩}도 좋거니와 소석^{燒石}처럼 뜨거운 골짜기의 백암을 징검다리 삼아 계곡 상류에 이르면 그야말로 구슬 굴리듯 산계수^{山溪水}가 들들댄다. 언덕 노송에는 노앵의 볼 메인 소리에 솔새떼는 지지 않고 종알댄다. 가면 갈수록 골은 깊고 돌은 희고 물소리 낭랑하니 가히 써 홍진을 떠는 하루의 청유지^{淸遊地}로 택할 만하다.

교통국에서는 하기간^{夏期間} 서울과 수원 등지의 승객을 위해서 풀 입구까지 임시열차를 운행하고 있고 역전에서는 1일 수회 버스의 편^便도 있다. 본군 보승회에서는 휴게·음료수·기타 일체의 위생시설은 물론, 수영장 일대의 미화를 꾀하여 국민 보건지^{保健地}로서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

02. 사찰

가. 호암사

호암사(虎壓寺)는 본군 동면²²⁶ 시흥리 호암산하에 있다. 시흥역에서 동남 측으로 약 30, 40분의 시간으로 족하고 ‘천정(天井)’에서 15분 상거(相距)이다.

이 호암산은 원명이 검지산(黔芝山)으로 그 형(形)이 호형(虎形) 같다 하여 호암(虎岩)이란 산명(山名)도 생겼고 이 산형이 호형이라고 해서 이태조는 검지산의 호산(虎山)이 한양왕궁에 호환을 미칠까 겁을 내어 호암사를 이사(移寺)하고 법석을 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다. 이는 사실(史實)에도 있으니 윤자설(尹慈說)에 “금지동유산사언(衿之²²⁷東有山寺焉. 세북치여행(勢北馳如行虎, 유불참암(有不巖岩, 세칭위호암(世稱爲虎巖, 술가상지(術家相之, 입어암지북우(立於巖之北隅, 왈호갑(曰虎岬, …… 운운(云云)²²⁸ 한 것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호암사만으로도 불안하여 호(虎)는 사자(獅子)를 두려워한다는 설에서 사자암(獅子庵)을 또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 호암사의 창건연대인데 사사(寺史)로 전하기는 원효사(元曉師)의 창묘(創墓)로 되어 있으나 실기(實記)로 보아 이조 초의 창건임이 사실이니 중도에 사사를 신라시대로 역급(逆及)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호암산록(虎岩山麓)에 금주(衿州) 동천(東泉)에 약간 올라와서 예로부터 절터라고 이르는 구름이 있어 청태(靑苔)가 낀 무명 무기(無記)나마 일 석탑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것이 원 호암사가 아닌가도 한다. 그때의 사명(寺名)도 원은 호암사이던 것을 현재 자리로 이사하면서 호갑(虎岬)으로 불렀고 그것이 변해서 오늘 이름인 호암사(虎壓寺)로 된 것으로 추측함이 옳을 것 같다. 이는 검지산 일봉(一峯)에 천정(天井)과 석해(石海) 태 등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호암사는 비록 소암이나 이러한 유서가 있는 절이라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사정(寺庭)에는 호암사의 석봉(石峯)을 올려다보면 ‘호암’보다도 거암(巨岩)이 굴러떨어지거나 앓을까 하는 ‘암압(岩壓)을 느끼게 한다. 그만큼 아이들이 장난하듯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듯 기하고 또 묘한 암산이다. 정면에서는 발을 붙일 자리조차 없으니 오를 길도 가망이 없고 봉상에

226 원문에는 동서(東西)로 되어 있는데 동면(東面)으로 바로잡았다.

227 원문에는 문자로 되어 있는데 『동문선(東文選)』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여 ‘지’로 바로잡았다.

228 『동문선』권지98, 호암설(虎巖說)에는 “衿之東有山峙焉, 勢北馳如行虎, 有石巖巖, 世號爲虎巖, 術家相之, 立寺於巖之北隅, 曰虎岬, …… 云云” 라고 되어 있다. “금천(衿川) 동쪽에 산이 솟아 있는데 그 형세가 북으로 달려가 마치 걸어가는 범과 같고, 돌이 높이 솟아 있어 세상에 서 이를 호암(虎巖)이라 부른다. 술가가 형국을 살펴보고 바위 북쪽 모퉁이에 절을 세우고는 호암사라 하였다. …… 운운.”

서 또한 내려와 볼 도리 없으니 사람의 발그림자를 못 본 채 거암과 기석^{奇石} 사이에는 갖은 꽃나무와 향목이 어설프게 선 채 높고 또 나서 해서 흡사 아이들이 함부로 채색칠을 한 것 같아 보인다. 호압사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시었다.

나. 연주암

연주암^{戀主庵}은 사사로 웅대함으로나 삼막^{三幕}과 비기는 거찰이다. 관악의 상봉 연주봉을 배후에 지고 유수첩첩^{幽邃疊疊}의 심곡^{深谷}을 내려다보는 위치로 점했을뿐더러 사정^{寺庭}에서 조망되는 수봉^{秀峯}마다가 기암이요 괴석으로 이루어져서 아연 금강산중에 든 감을 자아내게 한다.

사사는 1260여 년 전 신라 30대 문무왕 17년 무인에 의상사^{義湘師}의 창건이다. 창사 당시는 사명은 관악사^{冠岳寺}요 위치도 현재의 자리는 아니었으니 거금 550여 년 전 이조 3대 태종 11년 신묘에 이태조의 제1, 제2왕자인 양녕대군과 효령대군²²⁹의 손으로 현재 자리에 이사된 것이다.

효령대군이 특히 관악 이사를 뜻한 데는 남모르는 슬픔이 있었으니 태조는 제1, 제2의 왕자를 비켜놓고 제3자인 충녕대군에게 전위^{傳位}할 뜻을 가졌음을 눈치채인지라 양 대군은 손에 손을 잡고 눈물을 머금으며 왕실을 벗어나 발길 가는 대로 방랑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 상심한 양 왕자는 혹은 민가에 우로^{雨露}를 피하고 혹은 산정에서 날을 밝히며 형은 아우를 아우는 형을 서로 위로해 가며 산에서 산으로 헤매기 수삭^{數朔}, 문득 발을 멈춘 곳이 관악산정이었으나 보지 않고 생각지 않으려던 왕궁이 바로 내려다보이는지라 관악사에 들어 입산수도를 꺾혔었다.

그러나 잇자 할수록에 꿈속에 나타나는 왕좌에의 애련한 추억과 동경의 정을 누를 길 없어 봉 너머로 절을 옮기려 하고 지금 자리로 이사를 시켰으나 가지 말자면서도 발길은 언제나 산정으로 옮겨지는지라 이 양 왕자의 심회를 아로새겨 세인이 관악산정을 연주대라 일컫고 사명도 모르는 사이에 연주암이 되고 만 것이다.

이 구사지^{舊寺址}는 현재의 사경 넘어 골짜기에 있으니 자리로 보아 지금 자리보다는 더 아담한 절터다. 왕궁 쪽으로 마음을 이끌어 가는 연주봉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사까지 한두 왕자의 슬픔을 읊조리며 구사지를 거닐어 보는 감회도 깊거니와 구사정^{舊寺庭}에서의 안하^{眼下}

229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은 조선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장남과 차남이다.

조망은 금강의 단발령斷髮嶺을 넘는 느낌을 준다.

사정寺庭에서 둘러보면 연봉이 꽃이요 단풍이다.

“若赤若蒼 若黑若白 勢若鬼神之聚 噫²³⁰ 遊是山者 儒幾釋幾 ……”²³¹

이는 고인의 관악봉 송頌이거니와 이 시인도 사정에서 연봉을 쳐다보고 읊은 감회이리라.

제1왕자 양녕대군은 왕위를 단념했건만 효령대군은 끝내 왕위에 대한 정을 못 잊어 민민悶悶,²³² 관악산을 옮기기까지 했으나 끝내 왕좌에 앉아 보지 못한 채 월한이 서린 관악산록에 묻히고 말았다.

사정에 5층석탑이 있으니 이도 효령대군의 이사 시의 유품이다. 불전은 그 후 수차의 증수를 거치었고 최근에는 고종 25년 무자 8월에 명성황후의 하사금으로 중수했던 것이니 극락極樂²³³·용화龍華의 양전兩殿이 그것이다.

사정에서 연주봉은 반히 쳐다보이어 10분이면 오를 수 있다. 사경寺境이 우수 계곡의 신비경인 데 비하여 봉상에 오르면 활통闊通한 풍경이 안하에 짝 펼쳐진다. 봉 후면에 비둘기장 같은 연주대가 있어 고인들의 건축술에 머리가 숙는다(숙여진다). 대를 끼고 돌아가면 북에는 한양, 남에는 화성華城이 가물가물 내다보이고 동으로는 양광주楊廣州의 중첩된 산들이 청전靑田·심산心汕²³⁴의 장기인 동양화 그대로다. 안하에는 군데군데 크고 작은 산중호山中湖가 산재하여 농무濃霧가 서린 심곡의 모습이다. 눈을 들어 서로 돌리면 황해의 지평선을 향하여 가느다란 무로霧路가 파도처럼 뻗치어 무로를 타고 가면 서해안에 가서 떨어질 것만 같다.

사사에는 여조麗朝 말의 두문동 72인으로 서견徐甄·남을진南乙珍·강득룡康得龍 등이 이태조 모반謀叛에 반감을 품고 관악에 들었더니라 하나 서견만은 있으나 기타는 실기實記에 없으니 조운趙胤·이색李穡의 오전誤傳이 아닌가도 한다.

그야 어쨌든 이 주봉의 여조·이조의 두 불평객들이 주를 그린 봉이니 연주戀主의 이름은 있어 마땅할 것이다.

230 희蹟가 원문에는 억백으로 되어 있는데 『동문선』을 참고하여 바로잡았다.

231 성간成顔의 「유관악사북암기遊冠岳寺北巖記」(『동문선』 권지82)의 일부이다. “붉은 것도 같고 푸른 것도 같으며, 검은 것도 같고 흰 것도 같이 형세가 귀신이 모인 듯도 하였다. 아, 이 산에 노닌 선비가 몇이며, 종이 몇인지 ……”

232 민민하다: 매우 딱하다.

233 원문에는 단락禪樂으로 되어 있는데 극락極樂으로 바로잡았다.

234 청전·심산은 한국화의 대표적 산수화가 이상범(李象範, 1897-1972)·노수현(盧壽鉉, 1899-1978)의 호이다.

다. 불성사

불성사佛成寺는 관악산 중에서 삼막·염불·연주·호암사와 사사寺史를 같이하는 5고찰 중의 하나로 주봉 연주에서 약 1시간 동남으로 향한 지점에 있다. 사경寺境에 수목이 울창하여 멀리서만 보아도 벌써 고찰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배후의 묘妙하다 못하여 괴怪하기까지 한 기암단애며 노송 가지에 소소嘯嘯히²³⁵ 부는 솔바람, 그칠 줄 모르는 이름도 모를 산조山鳥들의 우짖는 소리, 사경에 들면 무의식중에 옷깃이 바로잡아지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축원이 저절로 나오게 하고 사악·질사·모함 등 일체의 속세에서의 자기반성이 생겨 훌훌 벗고 가사에 몸과 마음을 갖추고 싶어진다.

불성 창건의 사사도 멀리 원효시대로 역급하니 원효·의상 등이 영봉 관악을 답사하다가 난데없는 나한옥불羅漢玉佛이 나타나서 일- 암혈巖穴에 막을 설치하고 수도하다가 관악산 중의 최거찰最巨刹로 창묘創墓에 착수했다고 전해온다. 당시에는 이 불성²³⁶이 관악산 중의 본사로 원효사 자신이 불법을 선교했다고도 전한다.

그후 조사祖師가 이사한 후 천화天火로 대부분의 불전이 오유烏有²³⁷로 돌아간 것을 각국대사覺國大師가 증축하였으나 그 후에도 전후 4차의 화재를 입어 그 웅장을 자랑하던 불전들이 소실되고 말았다. 원래 불성사지가 풍수학설로 보아 화기가 많은 곳이라 하여 전후 12차의 화액을 면해야만 비로소 안전하리라는 예언을 한 사람도 있다고까지 전해진다.

불성에서 망월암까지의 탐승로는 그대로 천고의 비밀이 서리어 있는 듯싶은 심곡이니 정글 그대로의 울림鬱林도 그럴듯하려니와 백암 사이를 흐르는 석동수성石洞水聲 또한 꿈길 을 더듬는 듯하다.

라. 상불암

상불암上佛庵은 망월암에서 조그만 등성을 넘은 등에 절벽에 기댄 소암小庵으로 암정庵庭에서의 조망이 좋다. 입구 양측에 고만고만한 화전火田이 있어 주승主僧의 근검을 짐작케 하거니와 이 암자에는 일찍이 화성(수원)의 명기名妓였던 여성이 깨우친 바 있어 일체의 가재家財와 패물을 팔아 이 암자에 든 후로는 화전 경작과 축원으로 동혈洞穴에서 일생을 마치고

235 소소히: 바람이나 빗소리 따위가 쓸쓸하게.

236 원문에는 성불成佛로 나오나 내용상 불성사佛成寺로 보아 불성佛成으로 수정하였다.

237 오유: '어찌 있겠느냐'는 뜻으로, 있던 사물이 없게 되는 것을 이르는 말.

다는 로맨틱한 사실이 전해진다.

사옥^{寺屋}이고 법대^{法台}이고 보잘것이 없으나 그 여성이 반평생을 기거한 동혈에는 지금도 자취^{自炊}한 재가 그대로 쌓여 있고 방이라기보다도 동혈에 문짝으로 우리를 한 초라한 방이다. 이 여승은 해방 직전까지 이 동혈 속에서 가야금과 장고^{長鼓}를 치던 옥 같은 손에 호미 한 자루로 화전을 일구고 일생 조밥이라는 조식^{粗食}으로 연명을 해 가며 관세음보살을 외었다는 그옥한 이야기가 웬만한 사사보다도 흥미를 자아준다.

지금은 일찍이 불도에 조예가 깊던 모씨가 12, 13세의 양손녀를 데리고 수도 중이다.

마. 망월암

망월암^{望月庵}은 불성사에서 유곡을 타고 옥류^{玉流}를 건너기 수삼차^{數三次}, 시여^{時餘}에 달할 수 있는 소암자이다. 망월이라고 하나 기실 사방이 꼭 막히어 지붕 위에 달이 와야 달 구경을 할 수 있는 정도라서 달 구경하기가 어려워 생겨 이름 같다.

암 뒤에 일- 소석탑^{小石塔}이 있으나 연대도 이름도 모르니 기록된 자료도 없고 탑신에 고추·무말랭이 등을 넣어놓아 탑의 그옥한 맛도 없어진다. 망월암에는 바로 맞은편 불형^{佛形}을 한 거암 밑에 분암^{分庵}을 세워 맛보고 담화도 할 수 있다.

바. 삼막사

삼막사^{三幕寺}는 안양읍에서 삼성산복^{三聖山腹}에 개재^{介在}하니 시여에 달할 수 있는 노정이다. 거금 1300년 전 신라시대의 창묘^{創墓}로 명승 원효·의상·윤필의 3사^師가 관악에 들어 설막^{設幕} 수도하였으므로 기지^{其地}에 창사하고 이름하여 삼막이라 하였다. 삼막은 삼막^{三藐}이니 원효 등 삼승이 각 1막씩을 설^說하여 설로^{雪露}를 피했음에서 유래한 것이나 나머지 2막은 알 길도 없다 한다. 삼성산명^{三聖山名}도 이 삼성을 성^聖화한 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런데 이 원효·의상·윤필의 3사가 삼성에 입산한 연대인데 원효는 신라 25대 진평왕 39년생이요, 의상은 동 46년생, 그들이 손을 잡고 입당^{入唐}한 것이 문무왕 원년이니 서기 660년경이다. 원효는 당주^{唐州}에서 혼자 들어왔고 의상은 10년 후인 문무왕 10년에 귀국했고 보니 양사가 그 귀로에 삼성에 들린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 양사가 손을 잡고 관악·청계 등을 찾은 것은 문무왕 말이나 신문왕대로 추측할 수 있어 20여의 문헌을 찾아보아도 그것을 고증할 만한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를 사실로 본다면 삼막의 창

기創基는 거금 1250여 년 전으로 생각함이 옳을 것이다.

또 중국 용주龍州에 삼막사三藐寺라는 명찰이 있어 이 명찰의 이름을 따서 삼막三藐이라 명명하고 원효·의상·윤필의 3사의 이름을 끌어온지도 모른다는 일설도 전해지나 이 또한 고증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삼막사가 천유여년의 역사를 가진 것은 건물구조로 추측할 수 있으니 뜻하지 않은 때 사경寺境 그 어디에서 연대를 고증할 만한 문헌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삼막사 경주境周는 천연적으로 승경을 이루고 있다. 사정에서 보면 황해의 지평선이 아물거리고 뒤로 돌면 노송 가지 사이로 기암절경이 올라다보인다. 후정의 귀정龜井에는 옥수玉水가 흘러넘치고 이름도 연대도 모르나마 고색이 창연한 석층탑은 사사의 유구함을 말해 준다. 석탑 뒤 노송 사이를 비스듬히 산잔등을 넘어간 세도細道 한 가닥이 있어 그 길만 따라가면 그 무슨 위대한 신비나 만날 듯싶다. 이 길이 반월암半月庵에의 통로이니 반월암은 삼막의 일암一庵, 작기는 아담하기 그지없다.

사경 입구에 일—당지塘池 있어 버려둔 채 물은 갈渴하다. 후면에 당우堂宇 한 채 섬 직하다 하니 혈은 지도 오래지 않다 한다. 종두種痘의 은인 지석영池錫永 응의 사형舍兄인 백연사白淵師가 삼막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한다.

건물의 웅장함은 산중 일—이며 법당 본전은 순괴주純槐柱만을 썼다 한다. 대개의 거찰이 임진왜란을 겪었듯이 왜병의 방화로 오유화烏有化하고 창건 당시의 건물로는 법당 본전이 남았을 뿐인 것을 그 후 재건한 것이다.

삼막은 31본산三十一本山²³⁸ 중의 1인 봉은사의 말사이었다. 참고로 31산의 이름을 들어 둔다.

- 1) 봉은사奉恩寺: 경기 광주군 광주면
- 2) 용주사龍珠寺: 수원군 안용면
- 3) 봉선사奉先寺: 경기 양주군 진접면²³⁹
- 4) 전등사傳燈寺: 경기 강화군 길상면
- 5) 법주사法住寺: 충북 보은군 속리면
- 6) 마곡사麻谷寺: 충남 공주군 사곡면

238 31본산三十一本山: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전국의 사찰을 31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본산本山을 두었던 제도이다.

239 양접면接面으로 되어 있는데 진접면接面으로 바로잡았다.

- 7) 위봉사^{威鳳寺}²⁴⁰: 전북 전주군 신양면
- 8) 보석사^{寶石寺}: 전북 금산군 남이면
- 9) 대흥사^{大興寺}: 전남 해남군 삼산면
- 10) 백양사^{白羊寺}: 전남 장성군 북하면
- 11) 송광사^{松廣寺}: 전남 순천군 송광면
- 12) 화엄사^{華嚴寺}: 전남 구례군 마산면
- 13) 선암사^{仙巖寺}: 전남 순천군 쌍암면
- 14) 해인사^{海印寺}: 경남 합천군 가야면
- 15) 통도사^{通度寺}: 경남 양산군 하북면
- 16) 범어사^{梵魚寺}: 경남 동래군 북면
- 17) 동화사^{桐華寺}: 경남 달성군 공산면
- 18) 은해사^{銀海寺}: 경북 영천군 청통면
- 19) 고운사^{孤雲寺}: 경북 의성군 단촌면
- 20) 김룡사^{金龍寺}: 경북 문경군 산북면
- 21) 기림사^{祇林寺}: 경북 경주군 양북면
- 22) 패엽사^{貝葉寺}: 황해 신천군 용진면
- 23) 성불사^{成佛寺}: 황해 황주군 주남면
- 24) 영명사^{永明寺}: 평남 평양군 경상면
- 25) 법흥사^{法興寺}: 평남 평원군 공덕면
- 26) 보현사^{普賢寺}: 평북 영변군 북신현면
- 27) 건봉사^{乾鳳寺}: 강원 고성군 오대면
- 28) 유점사^{楡岾寺}: 강원 고성군 서면
- 29) 월정사^{月精寺}: 강원 평창군 진부면
- 30) 석왕사^{釋王寺}: 함남 안변군 문산면
- 31) 귀주사^{歸州寺}: 함남 함주군 동천면

240 함봉사^{咸鳳寺}로 되어 있는데 위봉사^{威鳳寺}로 바로잡았다.

사. 염불암

염불암念佛庵은 안양풀에서 목욕의 산책 겸 찾을 수도 있는 근거리이니 계견성鷄犬聲이 가까운 것이 흠일 뿐 사지寺址로나 사사寺史로나 관악산 중의 10여 사寺에 비하건대 어느 모로나 손색이 없는 고찰이다.

창사는 삼막·연주·불성 등과 함께 원효·의상 시대의 유물로 비록 속세와 가깝고 건물도 초라하나 사경 일대의 승경은 단연 두각을 드러낸다. 위치로 보아 당연 일인一人 거찰이 섬직한 자리이나 다만 전정前庭에 여유가 없는 것이 결점이다.

사후면寺後面의 석벽은 마치 수십 폭의 돌병풍을 둘러친 듯 웅雄하고 또 장壯할뿐더러 서투른 화공의 미완성품 그대로의 굴곡과 요철凹凸이 심하여 일대기관一大奇觀을 정묘하고 있다. 바위 위에서도 나무가 사는가 싶을 만큼 돌출한 암상에 기송奇松이 섰다. 그리다 둔 그림 아님이 분명하니 그 기송에 솔새 와서 우짖고 바람이 불 때마다 송엽은 소소嘯嘯의 소리를 빚어낸다. 하도 철쭉이 많고 두견이 흔한 관악인지라 원근에 꽃이거니 하고 가 보면 단애절벽에 달아맨 비둘기장 그대로의 오색이 찬연한 산신당山神堂과 법당이 위태롭게 매어 달렸다.

사경부터가 선경仙境이니 승경지가 아닐 수 없고 수봉단에秀峯斷崖에 끝까지 깊고 보니 물이 또한 없을 수 없다. 45도의 경사에 잡석이 내려 깔리어 다소 살풍경한 느낌을 주나 사정에 오르기만 하면 잡상사념雜想邪念이 어디론지 사라진다.

사찰이란 산에 있고 산에는 절이 있어 어느 절치고 식수 없는 절이 있으랴만 염불암의 약수야말로 질로나 양으로나 그 만들어진 품조차 산중에서 단연 이채를 이룬다. 예로부터 정井에 정靜이 있고 정수靜水에 성誠이 있다 이르거니와 우물 단속을 못하는 승니僧尼의 선도禪道라면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별로 짐이 없으리라. 그렇다고 품品에는 격格이 따르고 격에는 관觀이 따르고 관과 품이 합치어 전全을 이룬다 하니 남의조식檻衣粗食 또한 불인佛人の 품과 격을 이룬다 할 수 있다. 산중 각찰에서 산견하는 미국제 신식 팔뚝시계며 미제 고무줄, 두레박 끈, 알미늄(알루미늄), 표주박에 미국제 가솔린 통 등은 갓 쓰고 자동차 운전하는 격이니 반드시 문화수준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명주 바지저고리에 금시계 줄을 늘인, 그리고 1940 몇년 형型을 자랑하는 승니 있다면 반성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중 10여 사에 미제품 없는 사찰이 없었으니 나무와 표瓢의 쪽박에 물을 마시고자 절을 찾아 속인의 허영을 채워 줄 주지住持 한둘쯤 있어도 좋지 않으랴. 사정 일우一隅에 보리수菩提樹 있어 염주 대롱대롱 달렸으니 이를 꼬여 목에 걸고 손목에 차고 시계 줄을 삼고 싶은 생각 또한 간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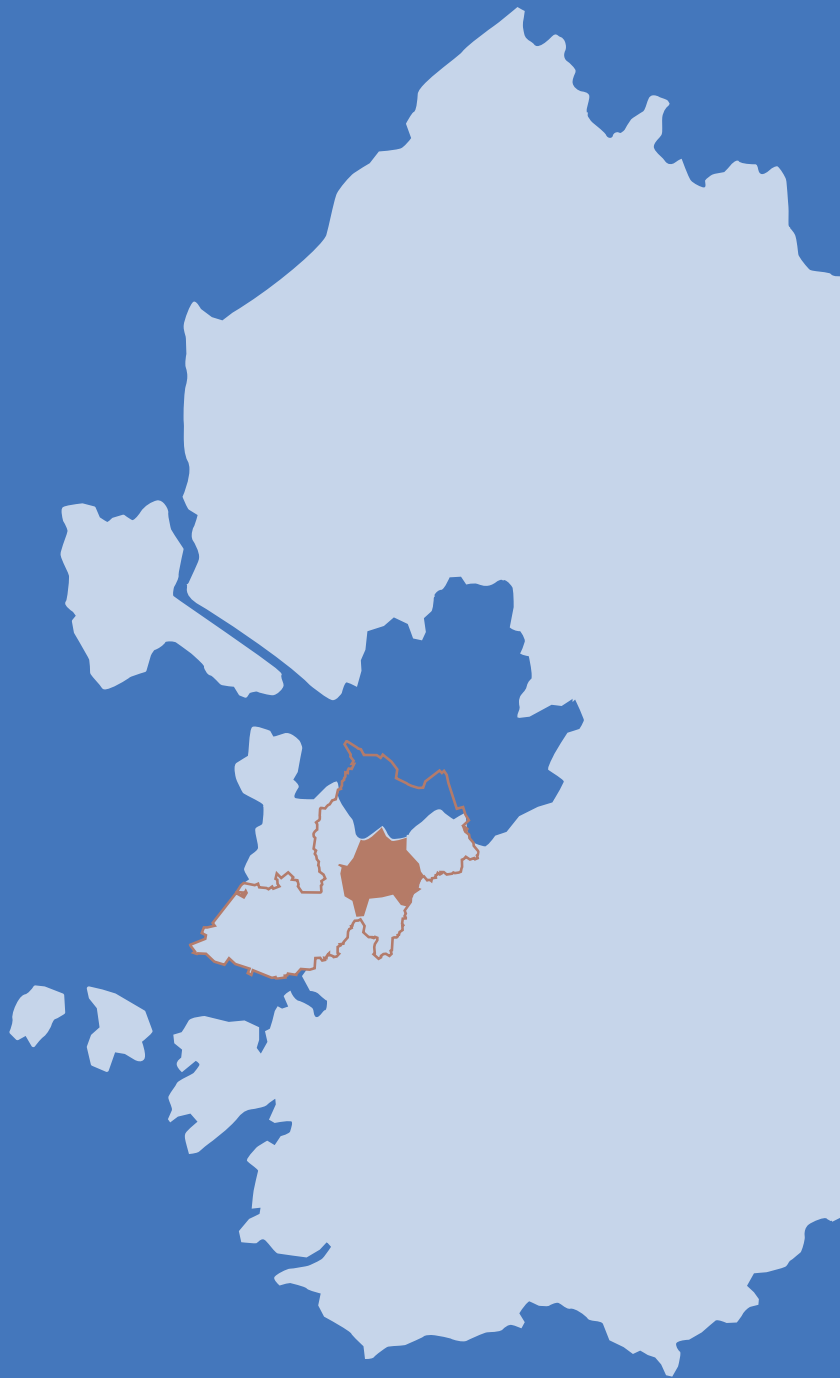
이는 어쨌던 엽불암 사경의 승경은 하루의 속진(俗塵)·사념(邪念)을 떨기에 족한 선경이라.

아. 망해암

망해암(望海庵)은 안양역에서 반히 쳐다보이는 암자다. 규모도 적고 사경도 협소하다. 안양읍의 전경은 물론 황해가 조망된다 하여 망해의 이름이 생기었고, 이 외에는 시흥 호암사에서 자운암(紫雲庵) 가는 도중에 있는 약수암(藥水庵)은 암명(庵名) 그대로의 약수터로 이름이 있다. 약수암에서 연주암을 향하여 오르자면 노정에 연주(戀主)·자운(紫雲) 2암이 있어 모두 신라시대의 창사(創寺)라고 하나 믿을 만한 사기(史記)도 사적(史蹟)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암자 있는 데 반드시 독특한 승경을 이루고 있으니 성주(聖主)의 망월·자운의 석산유곡(石山幽谷) 또한 가당(可當)할 승경이다.

부록

제8편



제1장 관공기관

10년 전까지도 노변의 일 한촌^{寒村}이던 안양읍은 군청과 경찰서의 이전, 읍으로의 승격, 30여 대소 공장의 건설, 남녀 중학교의 창립 등 정치·행정·산업, 어느 면으로나 명실공히 신흥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호수도 3700여에 2만 인구를 웅^擁한다.

이 안양읍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행정·치안·산업의 각 중축기관과 함께 이의 방계기관과 언론·사회의 각 단체도 안양읍으로 집중되어 아연 관도^{官都}의 감이 없지 않다. 이렇듯 많은 기관과 단체를 개별적으로 전부 소개할 수도 없거니와 각 해당 부 면에서도 이미 소개된 바도 있기로 여기에서는 중요한 기관의 소재와 기구를 약기^{略記}함에 그친다.

여기 소개된 관공서 외에 국립안양가축위생연구소^{國立安養家畜衛生研究所}와 도립중축장^{道立種畜場}이 있다.

◎ 시흥군^{始興郡}

10만 군민의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군에는 군수 김건열^{金健烈} 씨를 최고 책임자로 내무과장에 김한복^{金漢福} 씨, 산업과장에 윤명희^{尹明熙} 씨를 각각 책임자로 내무에서는 행정·교육·서무·회계의 일체의 살림 행정을 분담하고 있고 산업에서는 농·상·공의 일체 산업행정을 맡고 있다. 총 청원^{廳員}은 50여 명에 달하고 현 청사는 도내에서도 굴지의 건물로 후일의 대공도^{大工都} 안양의 행정청으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고려된 것이다.

◎ 안양경찰서 安養警察署

본군의 치안을 분담하고 있는 안양경찰서는 읍의 중심지에 군청사와 맞대하고 있다. 서장 장한정 張漢鼎 씨를 최고 책임자로 경무 警務에 김선재 金善載, 보안에 안희규 安熙奎, 사찰에 유종환 柳鍾煥, 수사에 허갑 許鉉 등 제씨가 배치되어 일사불란의 철용성을 쌓고 있다.

건물은 군청과 대비하는 2층 양옥으로 도내에서는 수위라 하며, 특히 유치장에는 목욕탕까지 설비되어 있다.

◎ 안양읍사무소 安養邑事務所

안양면이 읍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면장 조한구 趙漢九 씨가 초대 읍장으로 취임, 신흥 공도로서의 광범한 제반시설과 잡다한 읍 행정에 노령을 무릅쓰고 전념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계획, 공설시장 등 근대도시로서 면목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설계도가 산적하여 신임 강姜 부읍장 이하 30여 직원이 불안불휴 不眠不休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무부는 군청과 이웃하고 있어 역시 콘크리트의 근대식 2층 건물이다.

◎ 금융조합 金融組合

안양금융조합은 단기 4257년의 창설로 군자 君子 거모 去毛에 지소가 있고 구역 區域은 단기 4281년 3월까지의 안양·과천·수암·군자·남의 5읍면이었으나 현재는 신흥·동의 양 면도 영등포금융조합에서 양수 讓受하여 본군 일원을 장악하게 되어 있다.

동 조합의 설치는 본도의 유일한 기관이었으니만큼 군민 경제에 이바지한 바 크거니와 특히 군민의 8할이 농업인만큼 농촌진흥과 영농자금의 저리대출 등 공헌이 크다 할 것이다.

현 전무이사는 서울법전 法專 출신으로 영등포금융조합에서 전임 轉任해 온 염규환 廉規煥 씨요 부이사는 단기 4277년 동 조합에 부이사로 취임하여 군내 사정에 정통한 이창구 李昌九 씨다.

◎ 안양역 安養驛

본군의 수읍 首邑이요 공도 안양의 관문인 안양역은 200여 평의 근대식 콘크리트 건물로서 안양읍 동부 중앙에 위치하여 역전驛前을 경수국도 京水國道가 달리고 있다.

구내 선로는 6번선까지이며 연장선은 500미터를 산算한다. 재갈선, 침목선 枕木線, 조선직물선의 특별선이 있어 1일의 화물 수급량은 발착發着이 각 90차륜車輪이나 되며 춘·하·추의 3절節에는 관악과 안양 명물 포도에 이끌리는 서울시민이 최고 2만여 명이나 오르고 내린다.

현재는 온양온천행 급행만이 정차를 하나 3월 1일부터는 목포 급행도 정차하리라 하는데 이의 실현을 본다면 급행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일에 서울·수원 등지에서 외박을 하는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제거될 것이다.

현 역원은 역장 서정원 徐正源 씨, 조역助役 윤호명 尹鎬明 씨 외에 직원 13명이 수읍의 관문을 지키고 있다.

◎ 우편국 郵便局

2만 읍민의 입과 귀가 되어 주고 또 저축함貯蓄函도 되어 주는 안양우편국은 저금 이용자 수가 1765인에 금액은 800만의 거액에 달하고 위체爲替의 수불受拂 3000여 만 원에 500만 원이다.

현재 국사局舍가 협소하여 건물도 물색 중이며 1등국으로서 승격운동도 본격화하고 있어 불원간 수읍의 전신국電信局으로서의 면목을 갖추게 될 것이다.

◎ 곡물검사소 穀物檢査所

과거 일정시대에는 본군 관내에 곡물검사소를 갖지 못하여 동남 일부로는 수원곡물검사소와 서북으로는 서울곡물검사소에 각기 관할되어 일반생산물은 수검受檢케 되어 출하거리 관계상 군민의 원성이 자자하던바 단기 4279년(서기 1946년) 10월 18일부로 당국의 허가를 얻게 되어 본 검사소가 탄생케 되었다.

그러다가 신생 대한민국 탄생과 동시에 상거래의 원활과 농민의 복리증진, 생산개량을 목표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생산검사키 위하여 본년 1월 25일부 대통령령 제53호로 「농산물검사령 農産物檢査令」이 공포되고 종래의 당 곡물검사소는 농림부 농산물검사소 서울지소 안양출장소로 개편된 것이다.

제2장

사회단체

◎ 국민회(國民會) 지부(支部)

해방과 함께 무정견(無政見)한 애국단체와 정당의 난립이 우리 민족단결에 일대 암이 됨을 통감하신 대통령 각하께서 당파를 초월한 국민운동을 제창, 본 국민회의 결성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 본 국민회의 결성이 우리 대한민국 수립에 큰 이바지를 했던 것은 재언을 요치 않거니와 수립된 민국(民國) 육성을 위해서는 이 국민운동이 의존치 않을 수 없어 전국적으로 조직을 강화케 된 것이다. 이에 본군 지부도 결성되어 단기 4282년 4월 29일 군민 전체대회를 개최, 각 읍면에 읍면 지부, 리(里)에 리분회(里分會)를 설치하고 하급층 조직도 완료했고 국민훈련원에 지도자를 입소케 하여 훈련도 실시했다. 이는 장차 강력히 추진되리라 한다.

동회(同會)의 분회(分會) 수는 226개소이고 총 회원 수는 5만 3500명이요, 임원은 다음과 같다.

군지부 부서

위원장 김건열(金健烈)

부위원장 구연창(具然昶)·한태유(韓泰裕)

총무부장 김한복(金漢福)

재무부장 이재명(李載明)

조직부장 염규환(廉規煥)

선전부장 최창조(崔昌祚)

문화부장 윤경섭(尹敬燮)

감찰부장 조한구(趙漢九)

재정위원회 간사장 김한복(金漢福)

간사 천정근千貞根

◎ 대한청년단大韓青年團

민족의 성쇠는 오직 청년들의 양견兩肩에 달려 있고 이 성업聖業은 오직 청년운동의 단일화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혼란기의 우리 청년운동은 헛되이 분열을 일삼고 당쟁 파벌로 자신들의 정력을 낭비함에 그치지 않고 국력에 커다란 소모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의 우열을 통찰하신 대통령 각하께서는 청년단체의 통합과 청년운동이 귀일歸一을 기하시고 대동大同·민족民族, 기타 일체의 청년단체를 대한大韓에 통합시키었던 것이다.

이에 응하여 본군에서도 대동·민족 양 청년단체 지부를 해산하고 단기 4282년 1월 27일 군단부郡團部를 결성, 각 읍면에 다시 분단分團 결성을 촉진하여 이의 완료를 보았던 것이다. 동 본군단부의 분단장은 장배근張培根 씨요, 부분단장은 양서홍梁瑞鴻·조남찬趙南瓊 양 씨이다.

◎ 대한부인회大韓婦人會

대한부인회 총본부의 강령과 회칙에 의준하여 1500만 여성에 유기적인 조직체를 갖추어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시키고 민주여성운동을 전개하자는 목적으로 단기 4282년 6월 10일 본군 지부를 결성, 안양읍을 위시한 8개 읍면이 순차로 분회를 결성했다. 현 구분회區分會 수는 226개소, 총회원 수 2만 4912명에 달하고 동회에서 발족 이후 반년간의 사업을 들면 다음과 같다.

유관순 영화 상영(6월 28일 군지부 주최), 한글계몽강습회(6월 28일, 동면지부 주최), 음악 콩쿠르대회(10월 29~31일, 안양읍지부 주최), 군대 김장봉사(동면지부 주최), 38선 장병 위문(반찬 각종과 현금 3만 3천 원).

현 동회의 지부장은 장일선張一善 여사이요, 부지부장은 홍갑숙洪甲淑·오경자吳慶子 양 여사다.

◎ 국대연습림國大演習林

본 연습림은 시흥군 안양읍 및 동·과천 각 면에 걸쳐 집단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면적은 약 1700정보로 경기금강의 명칭이 있는 관악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기왕에는 국유림이었던 것을 일정日政 시 일인日人 반전半田농림주식회사에 양여하여 일인이 경영하여 오

던 것을 해방 후 국립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대학 연습림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으로는 적수식재^{適樹植栽} 시험^{試驗}, 간벌^{間伐} 시험, 사방림^{砂防林} 시험, 생장^{生長} 시험 등이요, 사무소로는 안양읍, 직원은 4명이다.

◎ 시흥군보승회^{始興郡保勝會}

본군 내에는 안양수영장, 관악산을 위시하여 명승지·고적·국보가 도처에 산재하여 자고로 탐승유람객이 집중불절^{接踵不絕}하나 이의 퇴폐가 날로 심함으로 관내 유지가 단기 4282년 5월 11일 회집하여 본회의 결성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爲先} 당면한 안양수영장 개수사업에 착수키로 하였다. 동 수영장은 신설 이래 철도당국에서 국부적^{局部的} 개수로 근근 보존·유지하여 오던 것으로 더욱이 해방 후 3년간 방치하였던 관계로 방대한 경비가 소요되나 지방민의 애향심과 관계당국의 절대한 협조로서 초급^{焦急}한 사업을 완수하여 일대 수영지^{水泳地}로서의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금년의 동 시설은 다음과 같다.

공동변소시설 3개소	180,000원
수영장 내 개수비	200,000원
휴게장 개수비	50,000원
장내 전기 가설비	175,000원
기타 잡비(개장비)	100,000원
합계	705,000원

그리고 동면 탑동에는 우리 민족의 용명^{勇名}을 중대륙^{中大陸}에 떨치게 한 명장 강감찬 선생의 출생 기념탑인 낙성대 석탑이 있으나 파손된 채로 일 민가 정중^{庭中}에 방치되어 있어 이를 수축하고 민가를 매수하여 12월 3일 박종만^{朴鍾萬} 문교차관^{文教次官}, 정인보^{鄭寅普} 선생, 구자옥^{具滋玉} 지사^{知事}를 모시고 관민 다수가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본회 역원^{役員}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진열

부회장 구연창

총무부장 김한복

재무부장 윤경섭

조사부장 조한구
고적보존부장 맹준섭
풀보건부장 송길원
산악부장 조남찬
선전부장 최정조
간사 오형탁·이고명·김용덕·양인섭

◎ 경성보육원 京城保育院

안양읍 동역 東驛 맞은편에 있는 경성보육원은 단기 4252년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던 해 12월 현 이사 김병찬 金炳贊 씨가 동사케 된 고아 7명을 자기 주택에 수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언더우드 박사와 오금선 吳兢善 씨 등의 호의로 오늘의 시설을 갖게 된 것이다.

동원 同院은 단기 4279년 4월에 재단법인 경성보육원과 동 경성양로원을 합병, 9월에 서울시장으로부터 후생시설 및 대행기관으로 공인되었고 4282년 2월에 미화아동복지회 美華兒童福利會의 협동 연락 聯絡을 보아 현재 수용 고아는 96명, 양로원에는 45명의 무의 無依 노인이 여생을 양육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 延 수용인원은 남이 1399, 여가 490, 계 1889명에 달한다.

이제 현 수용인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내 유치원 통학 30
안양공립국민학교 통학 30
서울삼청국민학교 통학 1
안양공립공업중학교 통학 3
서울공립전기중학교 통학 1
통근 견습 2
농사 실습 17
학령 미급 未及 아동 12

◎ **평화보육원** 平和保育院

안양읍 비산리에 있는 평화보육원은 단기 4279년 8월 15일 최동오 崔東杻 씨, 현 이사장 우덕순 禹德淳 씨가 혁명투사의 유아 遺兒 구제 救濟를 조朝하여 창립, 동년 12월에 일인의 별장이던 현 건물로 이전했다.

현재 수용 인원수는 남자 33명, 여자 12명, 계 45명이요 개설 이래로 수용한 연인원수는 남 112명, 여 33명, 계 145명이며 현 수용인원의 교육실태는 중학 통학이 4명, 국민학교 통학이 35명, 학령 미급으로 취학치 않고 있는 아동이 6명이다.

동원은 재정적으로 많은 원조가 필요하므로 사계 斯界 인사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 **농촌청년구락부** 農村青年俱樂部

농촌 청소년들의 농업기술 향상과 일반적인 교양 함양을 목적하고 17세 이상 33세까지의 농촌 청년을 회원으로 각 농촌에 부락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사업으로는 유축 有畜 농업, 공동경작, 조림, 농촌부업, 강습, 강연, 품평회, 운동경기 등 각 부문에 걸쳐 있어 예기 豫期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조직된 구락부는 63개소이고 부원 수는 남이 1096명, 여가 340명, 총 1436명이다.

제3장

생산공장

◎ 금성방직주식회사金星紡績株式會社

- 1) 소재: 안양읍
- 2) 연혁

8·15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뜻 아니한 해방을 가져왔고 해방은 또한 정치·경제·문화·산업 각 부문에 실로 형언키 어려운 혼란을 초래했으니 그중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자본으로나 기술 면으로 일인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산업기관이었다. 그리하여 군정軍政 3년간 이 등등 생산기관의 자본과 기술이 없는 일부 모리인謀利人들의 모리 대상이 되어 재고원료는 소멸되고 귀중한 기계는 녹이 슨 채로 오늘은 갑, 내일은 을-이렇게 관리인의 교체만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혼란은 정돈되었다. 5·10선거를 거치어 대한민국의 수립을 본 것이다. 이 정돈기에 금성방직은 유유히 발족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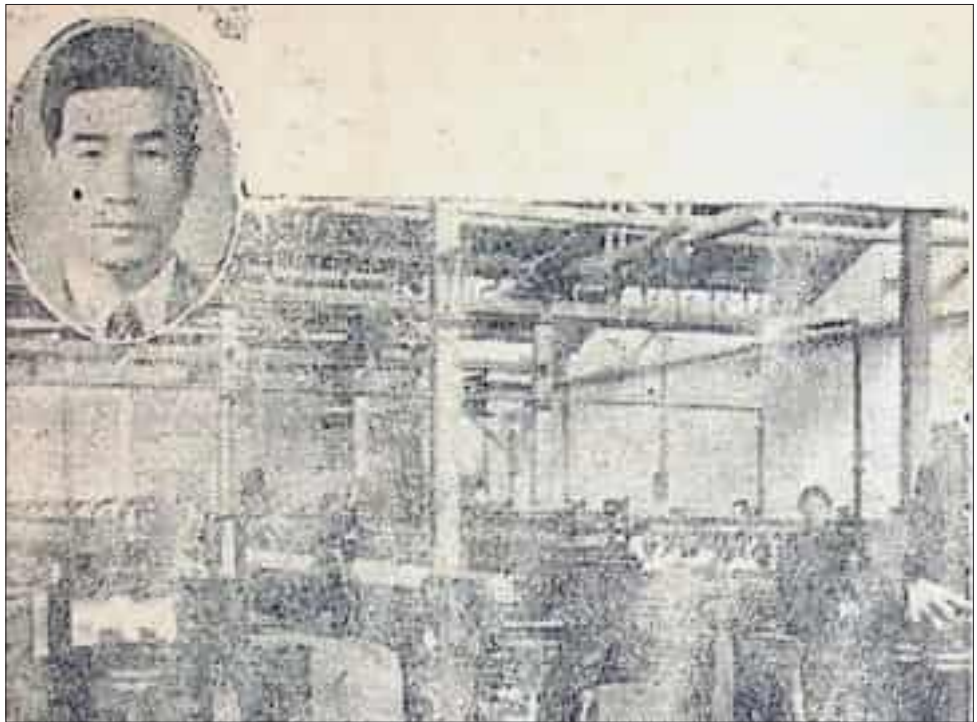
동사同社는 먼저 일본 동면섬유공업회사東棉纖維工業會社가 영등포에 방치한 채 우로雨露에 녹슬고 있는 방직기에 착안, 이를 입수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수립된 81년(단기 4281년) 8월 15일을 기하여 조선비행기朝鮮飛行機 안양공장 용지에 기공, 익翌 82년(단기 4282년) 2월 11일에 준공, 우리 방직공업계의 일원으로서 발족을 했다.

동사는 혼란기에서의 연목구어緣木求魚를 피하여 정상적인 기업화에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만만히 출발했으니만큼 자본으로서나 원료로서나 오산이 없어서 혼란기의 기업가들처럼 자본의 대부분을 중간 소비하는 일도 없이 착착 업적을 올릴 수 있었다. 이는 동사 사장 이하 수뇌들의 두뇌의 명석을 의미한다.

3) 현황

해사該社는 현재 종업원 800명(사무계통 직공 40명, 기술계통 직원 20명, 노무원 740명)을 擁攏하고 3교대제의 주야 연속으로 일면 건설, 일면 생산을 병행시키고 있다. 이제 동사의 건설 중인 시설을 보면 면방 綿紡 1만 추 錘(현 6000추 생산월면사 30근 柵) 직기 織機 50대요, 이의 완성과 동시에 제2차 계획에 착수하리라는바 2차 계획인 면방 2만 추에 직기 500대가 설치되면 명실공히 우리 방직계의 왕자로서 군림케 될 것이라고 동 사장 김성곤 金成坤 씨와 공장장 김용린 金容麟, 선무과장 線務課長 김병준 金炳俊 3씨는 자신만만이다.

동 공장은 하루바삐 우리의 의생활의 자급을 기코져 방금 300키로와트(kw)의 자가발전 自家發電으로 주야겸행 晝夜兼行으로 작업 중이다.



◎ 제일방직공장 第一紡績工場

1) 소재: 안양읍 안양리

2) 연혁

해該 공장은 원래 제대製袋공장으로 동양방직東洋紡績에 건설 중이다가 화재로 인하여 건물의 대부분과 원료의 전부를 소실하고 있던 중 조선비행기회사에서 이에 착안 분공장分工場으로 양여를 받아 재건 도정途程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시 미군정은 동양방직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케 하고 해방 익년 4279년 마대麻袋공장을 중지시키고 견직絹織공장으로 개조시키어 이의 개편에 전력을 경주했으나 원료난으로 불여의不如意하자 다시 익 4280년에 원래의 마대공장으로 복구시키라는 명령이 있어 또다시 전업轉業을 했으나 역시 원료난으로 이번에는 모직毛織공장으로 또다시 전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듯 무책無責한 대란만 겪지 않았다면 해 공장은 오늘쯤은 비약적 발전을 하였을 것이다. 위정자의 무정견無政見이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 생산에게 주고 있는가는 이 군정 3년간에 해사가 걸어온 길을 돌아봄으로써 족할 것이다.

3) 현황

그러나 군정의 무정견과 혼란도 갔고 방직의 수난기受難期도 끝났다. 해사는 대한민국과 함께 본궤도에 올랐다. 신경규辛璟奎 공장장과 200여 공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드디어 결실되어 일산日産 300마(碼, yd)의 모직 양복지를 직조케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전기사정만 좋았으면 일산 600마를 돌파하리라고 한다.

4) 금후 계획

과거의 마사麻絲 직조기를 모방기로 개조 중에 있고 이것이 완성된다면 일산 5000마 생산이 가능하다 한다.

◎ 조선직물주식회사 朝鮮織物株式會社

1) 소재: 안양읍

2) 연혁

해사는 거금 17년 전인 단기 4266년 각종 직물의 염색染色·직조織造를 목적으로 창립되

어 조업 중이던바 태평양전쟁 말기 평화산업의 군수공업화로 조선비행기회사에 이양되었다가 8·15해방과 함께 원 기업체로 환원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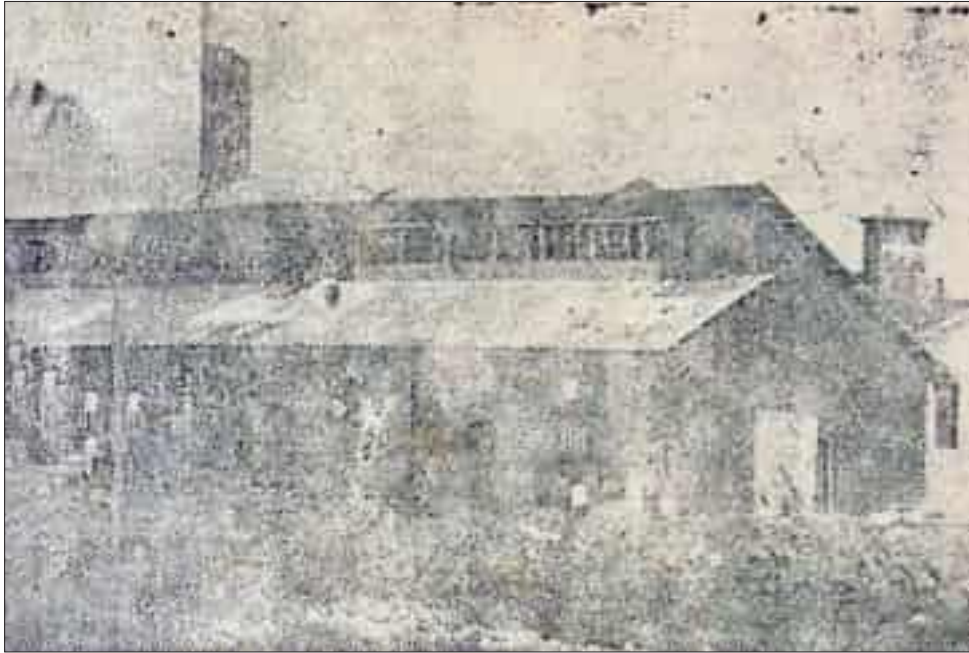
그러나 조비朝飛 공장 건설로 대부분의 기계는 동사의 자매회사인 수원 동흥직물회사同興織物會社 외 4개 공장으로 분산되었고 건물 구조도 대부분 개조되었는지라 원상회복에 막대한 고충이 있었으나 현 공장장 장배근張培根 씨 이하 300여 공원들은 일체의 혼란과 애로를 예제_{刈除}해 가면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원료비, 자금난 등 악조건으로 현재까지는 생산 가능량의 10분지 1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의 해방 전 생산량과 현재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좋은 시설이 동면_{冬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 금후 계획

해該 공장은 이번 다행히 금성방직의 사장 김성근 씨를 관리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전 시설을 운영, 해방 전의 생산량을 복구코자 방금 부흥작업에 착수하였다 하니 불원간 석일(昔日, 옛적)의 조선직물의 면목을 구현시킬 것이다.



◎ 고려석면 高麗石綿

- 1) 소재: 본군 안양읍 안양리
- 2) 명칭: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
- 3) 연혁

해 공장은 단기 4279년 설립, 군수품으로서 절대 불가결한 석면제품 및 공업용 고무 제품을 생산하여 소위 대동아전쟁에 공헌해 오다가 해방 후 귀속사업체로 재발족을 보았으나 해방 직후 卽後의 혼란으로 생산이 불여의하던 중 현 관리인이 임명되면서 운영자금 5000만으로 본격적 기업에 착수하였다.

해 공장시설은 남북한을 통하여 유일무이할 뿐만 아니라 해사의 제품 또한 남북한을 통하여 유일무이한 특수공업품이라, 현재 해사의 제품은 해군 海軍에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어 신임을 받고 있다. 본군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시설인 해사의 시설이 하루바삐 그 전능률을 발휘하기를 빈다.

현 생산량을 들면 다음과 같으나 해 공장의 시설이 전적으로 움직이면 현 생산량의 10 배 이상이 가능하다고 하며 현 曠 관리인은 금년 내로 완전복구할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

는 것으로 보면 일대계획이 선 모양이다.

4) 생산고(生産高)의 개요(1개월)

ㄱ. 석면제품

석면사(石綿絲), 편조세(編組細), 직포류(織布類): 3000돈(屯, 톤)

석면사, 세포(細布), 팩킹(packing, 패킹)류: 2000

석면고무지-도팩킹류: 8000

ㄴ. 고무제품

고무판류 각종제품: 4000

고무관, 고무세류(細類) 가공품: 4000

고무 각종 팩킹류: 3000

에보나이드 가공품: 2000

공업용 고무제품 및 기계용품: 4000

ㄷ. 면마(綿麻)제품

목면(木綿) 팩킹류: 3000

마(麻) 팩킹류: 3000

◎ 조선전선주식회사(朝鮮電線株式會社)

1) 소재 : 본군 동면 수산리(시흥역진)

2) 명칭 : 조선전선주식회사

3) 연혁

해사는 왜적이 우리 한국의 식민지화해서 중국 침략에 착수한 후 조선제련회사(朝鮮製鍊會社)로 하여금 시흥전선제조소를 창설케 한 것이 해사의 전신이다. 2차대전 말기인 단기 4278년에는 자본금을 500만으로 증자하고 군수공장으로 지정하여 사세를 확충 중 8·15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다. 해방이 되자 예의 혼란으로 일시 휴업 중 동년 11월 1일 종업원 자치위원회가 인계작업 중 익(翌) 4279년 7월 현 관리인이 임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사업종목

전선電線 및 전람電纜 제조공장으로 해 공장은 우리 남북한을 통하여 유일무이한 전선 제조공장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전 수요량의 태반을 외국에만 의존하고 있던 우리로서는 해 공장에 기대하는 바 실로 큰 바 있다.

5) 현 생산량: 연산年産 약 700톤屯(해방 전 최고생산량 480톤이였음)

6) 종업원 수: 230명(해방 전은 420명이였음)

7) 금후 계획

현재 해 공장에서 제조 중인 제품을 해방 후에 새로 착수한 특수선 일부를 제하고는 속칭 일반선을 제조함에 그치어 옥내나 옥외에 사용하는 전등 및 일반동력에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산업계획은 광산개발, 통신, 철도 등에 사용할 특수선의 필요를 통감하고 있으므로 이 특수합금 선線·관管·봉棒, 기타 일체의 부속품을 제조코자 추진 중에 있고 이미 일부에서는 이미 신계획에 착수하고 있다.

◎ 조선중앙朝鮮中央 고무공장

1) 소재: 동면 시흥리

2) 명칭: 조선중앙고무공업소

3) 연혁: 단기 4275년 창립

4) 사업종목

고무장화長靴, 수중水中장화, 우장용의雨裝用衣, 노무회勞務靴, 훈련화訓練靴, 운동화, 고무화, 공업용 각종 박킹, 정미용精米用 몰리, 에어 호스, 소자消字 고무, 수산용전의水産用前衣 등

5) 현 생산량: 국방부 훈련화 월산月産 3만 족足

6) 종업원 수: 150명

7) 금후 계획: 국방부 훈련화, 해군 우의, 어업용 장화

◎ 삼덕제지공장三德製紙工場

1) 소재: 안양읍

2) 현황

해사는 삼왕제지회사三王製紙會社의 후신으로 남한에서도 시설이 완비되기로 손을 꼽는 대제지공장이다. 다른 생산품이 시장에 적재되어 하품을 하는 동안에도 지류만은 선금을 납부하고 제품을 기다리는 현상인지라 동사에서는 판매에보다도 원료 구입에 여념이 없다



고 한다. 그리하여 갈대와 짚[藁]의 수집과 제지에 불가결한 황촉규(黃蜀葵, 닥풀) 재배에도 주력하는 등 다각적 기업을 꾀하고 있다. 동 공장장 김망생(金望生) 씨는 20여 년 제지공업에 전념한 우리 제지계의 권위로 펄프에 의존하지 않는 짚을 원료로 하는 제지공장으로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방금 설계 중에 있고 이에 필요한 증자도 신청 중이다. 현 생산량은 일산 日産 12만 파운드이나 원료만 보장된다면 이의 10배를 생산할 만한 기구라 하며 현 종업원은 약 80명이요 사장에 조경묵(趙庚默) 씨, 공장장에 김망생 씨이다.

◎ 조선견직주식회사(朝鮮絹織株式會社)

1) 소재 : 안양읍

2) 연혁 개요

서울 동대문 외 승인동에 공장을 설치하고 문직기(紋織機) 108대 외 준비기(準備機) 등 일체를 설비하여 견직물 제조를 개시하였다(단기 4256년 2월).

불행히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전소되어 이래 휴면상태에 지(至)하였다(단기 4272년 3월). 그러나 동년 10월에 다시 부활하여 안양 석수동에 공장을 재건하고 견직기(絹織機) 100대 외 준비기 일체를 완비하고 조업을 개시하여 금일에 이르렀다(단기 4282년 10월).



- 사업종류: 견직물 제조업
- 특징: 문직^{紋織} 고급직물
- 현 생산량(월): 본견물 1만 마^(碼, 야드), 인견물 9만 마, 계 10만 마
- 종업원 수: 남 40명, 여 170명, 계 210명
- 금후 계획: 현재로는 100대 전 운전 2부제로 실시 중이나 금년 내로 종업원을 증모^{增募}하여 3부제를 채용, 월 최고능력을 발휘하여 15만 마 이상을 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사의 사장은 민규식^{閔奎植} 씨, 지배인 구연창^{具然昶} 씨, 공장장은 이정재^{李靖宰} 씨다.

축 금천지 발간

금성방직주식회사 金星紡織株式會社

취체역회장 取締役會長 홍성하 洪性夏
취체역사장 取締役社長 김성곤 金成坤
상무취체역 常務取締役 박인수 朴寅秀
동 同 김필진 金弼鎭
취체역공장장 取締役工場長 김용린 金容麟

본사 서울시 중구 저동2가 63
전화 본국 1347번 / 1715번 / 4276번

공장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전화 75번 / 76번

안양공장 진용 陣容
공장장 김용린 金容麟
차장 김지봉 金枝鳳
총무과장 김병준 金炳俊
공무과장 김병두 金炳斗
노무과장 최곤수 崔崑秀

축 금천지 발간

조선직물주식회사 朝鮮織物株式會社

사장 김성곤 金成坤
안양공장 홍재선 洪在善

본사 서울시 중구 저동2가 63
전화 본국 1715번 / 1347번

공장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872
전화 5번 / 23번

전선·전람 제조 및 판매

조선전선주식회사 朝鮮電線株式會社

본사 서울시 종로1가 71
전화. 광화문 4276번 / 4386번 / 4384번

공장 경기도 시흥군 동면 수산리 738
전화. 영등포 179번 / 269번

사장 배정기 裴貞基
고문 안상억 安商億
제조부장 신창균 申昌均
서무과장 진규설 全奎高
계획과장 강신호 姜信浩
경리과장 박종득 朴鍾得
제조과장 온선종 溫善鍾

금천지 衿川誌

(비매품)

단기 4283년 3월 15일 인쇄

단기 4283년 3월 20일 발행

저작자 금천지편찬위원회 衿川誌編纂委員會

발행자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시흥군 始興郡

인쇄자 서울시 종로구 묘동 39번지
김지수 金知修

집필(가나다순)

신대광 지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이우석 전 건국대학교 강사

기획총괄

김지석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구본태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교정·교열

성명선, 박소영

안양시사 20 금천지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29-4
ISBN 979-11-94861-09-6 (세트)

衿川誌

THE HISTORY OF ANYANG CITY



9 781194 949872
ISBN 978-11-94987-29-4
ISBN 979-11-94987-09-6 (세권)

이대출판사/우성